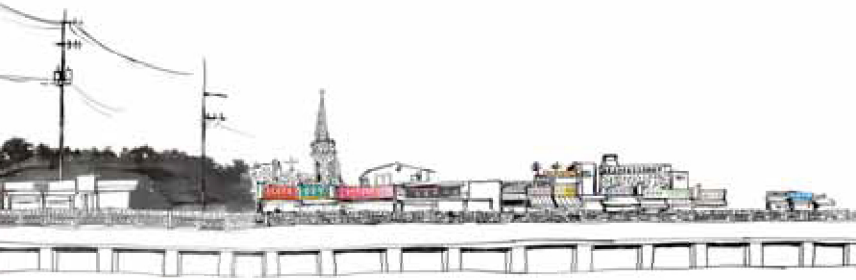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 · 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 ·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Contents

일러두기

1 전통시대 여성의 삶과 지위

01 전통시대 수원 여성의 삶 정해은

1. 고려 귀족 여성 염경애의 삶 / 13
   1) 남편이 지은 묘지석의 주인공 / 13
   2) 일하는 여성으로 살다 / 15
   3) 집에서 제사도 올리고 / 17
2. 명(明)에 공녀로 바쳐진 수원 여인 최씨 / 19
   1) 공녀로 바쳐진 여성들 / 19
   2) 명으로 간 최씨의 운명 / 22
3. 수원 기생 이야기 / 26
   1) 향기 짙은 꽃, 수원 관기 벽단단 / 26
   2) 수청을 거절한 수원 기생 / 27
   3)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서 노래한 계섬 / 28
4. 일대기가 남아 있는 여성들 / 30

02 조선시대 수원 여성의 지위와 일상 정해은





1. 여성 관련 자료를 읽는 방법 / 37
2. 작호를 받은 사대부 여성 / 39
   1) 여성에게 내린 작호 / 39
   2) 작호를 받은 수원의 여성들 / 42
3. 여성, 집안의 후사를 세우다 / 50
4. 재산 상속 문서 속의 여성 / 54
5. 부부 사이와 가족생활 / 60
   1) 세 번 혼인한 여성, 쫓겨난 여성 / 60
   2) 여성, 호(戶)의 대표자가 되다! / 63
   3) 남편에 의해 여종으로 팔려 간 아내와 딸 / 67

03 조선시대 수원 여성을 둘러싼 사건 정해은

1. 전쟁과 효부 · 열녀의 탄생 / 71
   1) 수원의 효부와 열녀 / 71
   2) 임진왜란 · 병자호란과 열녀 / 74
2.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와 여성 / 79
   1) 윤 여인 옥사 _ 간음했다는 추문 때문에 자살한 여성 / 80
   2) 이춘성 옥사 _ 시가와의 불화로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여성 / 84

2 근대의 옷을 입은 여성

01 수원 여성의 근대 교육 경험 김은주 · 이혜영

1. 여성에게도 교육을 / 93
2. 수원 여성, 학교에 가다 _ 삼일여학교의 설립과 운영 / 96
3. '현모양처' 와 '황국 여성' _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 104

02 수원여자잠업강습소의 설치와 운영 이아리

1. 수원 소재 이전의 잠업강습소(1905~1914년) / 116
   1)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 / 116
   2) 농상공부 소관 여자잠업강습소 / 118
   3) 권업모범장 용산지장 여자잠업강습소 / 120
2. 수원 권업모범장 여자잠업강습소(1914~1929년) / 121
   1) 위치와 설비 / 121
   2) 강습 상황과 강습생 / 123
3. 수원 농사시험장 여자잠업강습소(1929년 이후) / 127
   1)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관제」 공포 / 127
   2) 강습 상황 / 128
   3) 강습생과 졸업생들의 취업 / 130





03 수원 여자 유학생의 일본 경험과 근대적 지식체득 박정애

1. 유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다 / 135
2. 일본 유학의 배경과 조건 / 137
   1) 여성에게 '배움'의 의미와 일본 유학 / 137
   2) 수원 여성의 유학 배경 / 141
3. 여자 유학생들의 일본 경험 / 147
   1) 유학 자격 문제와 수원 여성의 유학경로 / 147
   2) 여자 유학생들의 단체 활동과 수원 여성 / 149
4. 귀국 후 조선사회를 이끌다 / 156

3 근대사회와 여성 생활

01 한말 · 일제하 가족 구성과 출산력의 변화 조석곤

1. 인구와 근대사회 / 163
2. 한말 · 일제하 가족 구성의 변화 / 165
3. 한말 · 일제하 인구의 변화 / 170
   1) 초혼연령과 출산력 / 171
   2) 사망률 / 178
   3) 평균수명 / 180





02 수원 전도부인들의 삶과 활동 김은주

1. 한국의 개신교 수용과 '전도부인' / 189
2. 수원 지역 전도부인들의 활동 / 193
3. 전도부인 활동의 영향과 의의 / 200

03 근대 수원의 직업세계와 직업여성의 등장 예지숙 · 홍현영

1. 근대적 여성 직업의 등장 / 203





1) '직업부인'과 신여성 / 203
2) 직업부인이여, 단결하라! / 206
3) 여성 취업안구 / 206

2. 전문직 여성 직업 / 209
1) 교사와 보모 / 209
2) 간호사와 산파 그리고 여의사 / 213

3. 서비스직 여성 직업 / 217
1) 사무 서비스직 / 219
2) 판매 · 교통 서비스직 / 221
3) 접객 서비스업 / 224
4) 가사사용인 / 227

4. 생산직 노동자 / 227

04 근대도시 1세대들의 연애와 결혼

김은주 · 류현희

1. '근대'가 가져온 새로운 결혼 풍경 / 231
1) '신식결혼'의 등장과 유행 / 231
2) 자유연애와 자유결혼론의 확산 / 233
3) 현실과의 충돌 _ '제2부인' 문제와 자유이혼론 / 235

2. 신여성 나혜석의 연애와 결혼 / 238
1) 최승구와의 연애, 그리고 그의 죽음 / 238
2) 김우영과의 연애와 결혼 / 240
3) 최린과의 염문, 김우영과의 이혼 / 246
4) 이혼고백과 최린에 대한 소송 논란 / 249

3. '배운 여성' 윤영애의 결혼생활 / 252
1) 수원 부자 윤성서의 막내딸, 윤영애 / 252
2) 윤영애의 결혼과 시댁살이 / 254
3) 청상과부 윤영애의 자살 / 254

05 일제하 수원 여성의 민족운동과 사회 참여

예지숙

1. 수원 기생들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 / 258
2. 3 · 1운동과 구국민단 / 260
3. 일제강점기 계몽운동 / 262
4. 임효정의 민족운동과 친일활동 / 265
5. 사회주의자 이현경의 생애와 활동 / 272

4 해방 후 여성의 삶과 사회활동

01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삶 김은경

1. 전쟁미망인의 발생과 전후 원호정책 / 284
   1) 한국전쟁과 전쟁미망인의 발생 / 284
   2) 원호정책과 전쟁미망인에 대한 처우 / 290
2.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삶의 특징 / 294
   1) 남편의 동원과 사망 / 294
   2) 전후 여성 노동과 미망인의 경제활동 / 297
   3) 젠더 규범과 모성 / 303
   4) 모자원에서의 생활 경험 _ 경제와 생활 공동체 / 306
3. 전쟁미망인의 지위와 역사적 의미 / 311

02 1950~1960년대 여학생들의 여성 역할 인식과 사회 진출 이혜영

1. 『청포도』의 체제와 성격 / 315
2. 『청포도』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지위 / 319
   1) 1950년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 319
   2) 1950년대 여성 담론의 균열 / 323
   3) 1960년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 328
3. 교육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 / 334

03 해방 후 수원의 가족 변화와 가족생활 김은경





1. 근현대 수원의 가족 변화 / 341
   1) 가족구조의 변화 / 341
   2) 근대 주부와 현모양처 규범의 확산 / 345
2. 수원 여성의 가사노동 경험과 특징 / 347
   1) 가사노동 수행의 시대적 조건 / 347
   2) 가사노동 경험과 가사 분담 / 355
3. 수원 여성의 출산 및 육아 경험과 특징 / 360
   1) 피임과 출산 경험 / 360
   2) 자녀교육 경험과 특징 / 369





04 수원 여성의 상업활동과 상업 노동 김은경

1. 수원의 상업 발달과 여성 상인 / 373
2. 수원 여성 상인의 노동 경험 / 379
3. 가사노동의 분담과 자녀 양육 / 389
4. 여성 상인들의 생활세계 / 393

05 수원의 여성운동과 지역사회 변화 박정애

1. 여성운동은 밝은 미래다 / 399
2. 수원 여성, 변화를 꿈꾸다 / 401
   1) 개인에서 활동가로 / 401
   2) 단체를 꾸려 가는 여성들 / 406
3. 여성, 수원의 변화를 꿈꾸다 / 410
   1) 수원, 여성, 운동 / 410
   2) 수원 여성운동의 미래 / 417
4. 수원 여성운동,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 424

06 여성의 정치 참여, 수원을 바꾸다 박정애

1. 여성 정치? 여성 정치! / 427
2. 수원 여성 정치의 시작 / 429
3. 여성, 수원 정치 속으로 / 434
   1) 정치의 시작 / 434
   2) 여성들이 정치하는 방식 / 438
   3) 수원 정치계의 남녀 차별 문화와 대응 / 443
4. 여성 정치, 수원의 변화 / 449
   1) 여성이 만들어 가는 정치, 수원의 변화 / 449
   2) 나의 정치, 가족관계의 변화 / 455
5. 수원 여성 정치의 미래 / 459

참고자료 / 464

집필위원





1

전통시대 여성의 삶과 지위

낱낱이 흩어진 채 상호 연관이 없는 자료들에서 수원 여성의 역사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고단하다. 자료가 만들어진 사회 배경이나 분위기를 모르고는 그 자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고단한 일이지만 파편적인 자료에 담긴 여성의 목소리를 읽어 냄으로써 우리는 좀 더 수원 여성의 삶과 역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 고려 귀족 여성 염경애의 삶
2. 명(明)에 공녀로 바쳐진 수원 여인 최씨
3. 수원 기생 이야기
4. 일대기가 남아 있는 여성들

정해은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01 전통시대 수원 여성의 삶

1. 고려 귀족 여성 염경애의 삶

1) 남편이 지은 묘지석의 주인공

염경애(廉瓊愛 : 1100~1146),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남편이 지은 묘지석 때문으로, 염경애의 묘지석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지석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 일생을 기록해 무덤 속에 함께 묻은 부장품으로, 고려시대에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려시대 묘지석은 100여 개이다. 이 중 여성의 것은 34개 정도로 추정된다. 여성의 묘지석 중 염경애의 묘지석만 남편이 직접 글을 지었으므로 흔한 일이 아니기에 유난히 눈길을 끈다. 대체 그 속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일까?

염경애의 묘지석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염경애'라는 이름이다. 고려시대 여성의 묘지석을 살펴보면 '낙랑군부인 김씨 묘지', '이자원의 딸 이씨 묘지', '평량군부인 이씨 묘지' 등 여성은 이름을 갖지 못하였다. 그 대신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봉작호를 사용하거나 아버지 이름을 빌어 여성의 존재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최루백은 "아내의 이름은 경애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고려시대 여성 가운데 온전하게 이름을 전한 여성이 되었다.

염경애는 아버지 검교상서우복야태부소경(檢校尙書右僕射太府小卿) 염덕방(廉



염경애 묘지석(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德方)과 어머니 의령군대부인(宜寧郡大夫人) 심씨(兒名 志義) 사이에서 4남 2녀 중 큰딸로 태어났다. 어머니 심씨도 현재 묘지명이 남아 있다. 심씨는 17세에 염덕방에게 시집왔으며 천성이 총명하고 근검해 가업을 잘 지켰다고 한다. 자녀들까지 재주 있고 현숙하다는 칭찬을 듣게 된 것도 어머니 심씨의 가르침이 컸다고 쓰여 있다.

아버지 염덕방은 태상(太常)에서 종4품직인 소경을 지냈다. 태상은 나라에서 올리는 제사와 시호(諡號 : 높은 벼슬아치나 공신이 죽은 뒤에 나라에서 내리는 칭호) 제정을 관장하는 관서였다. 어머니 심씨의 아버지 심후(沈侯)는 추밀원(樞密院)에서 정3품직인 승선(承宣)을 지냈으며, 염경애의 남자 형제인 염충약(廉忠若)은 충주 수령, 염신약(廉信若)은 과거에 급제해 종2품인 정당문학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로 볼 때 염경애의 집안은 대귀족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개성(開城)의 귀족 가문이었다고 여겨진다.

남편 최루백(崔婁伯)의 회고에 따르면, 염경애는 사람됨이 조심스럽고 정숙했으며 자못 문자를 알아 대의에 밝았고 말씨나 행동거지가 남보다 뛰어났다. 염경애의 묘지는 부인이 죽은 뒤 남편이 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름답고 좋은 일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해도 고려시대 여성의 묘지명에서 문자를 알았다는 기록이 적힌 여성은 흔치 않다. 여성으로서 문자를 알았다는 말이 묘지석에서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어가 아니었던 것이다. 염경애가 문자를 익힐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을 중시하는 아버지와 남자 형제 속에서 성장한 덕분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염경애는 25세에 최루백과 혼인하였다. 시가(媤家)는 대대로 수원 지역의 향리를 지낸 집안으로 시아버지 최상저(崔尙藷)도 호장(戶長)이었다. 향리는 고려 초 지방의 유력자인 호족의 후예로서 토착적 기반이 강한 세력이었다. 10세기 후반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호족이 누리던 향촌의 지배권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사회의 실력자였다. 특히 호장은 향리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우두머리였고, 향촌 내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는 지방 사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개성의 귀족 가문이 지방의 향리 가문과 혼인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고려시대는 귀족들이 통치하는 사회였으므로 귀족끼리의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 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루백이 염경애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급제한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염경애는 혼인이 좀 늦은 편이었다. 염경애의 어머니 심씨가 17세에 혼인했으니 염경애의 혼인은 만혼이라 할 수 있다. 후대의 일이지만 고려 말 원(元)에서 어린 여성의 징발을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금혼령을 내렸다. 금혼령에 "13세 이상 16세까지의 처녀는 국가의 허락을 받고서야 혼인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보아, 13세면 이미 혼인 연령으로 간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염경애가 늦은 나이에 혼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이유는 자세하지 않다.

2) 일하는 여성으로 살다

최루백은 염경애가 죽기 한 해 전인 1145년 초까지 정7품 벼슬인 사직(司直)에 종사한 하급 관리였다. 이때 염경애의 나이는 46세였다. 25세에 혼인했으니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염경애는 부족한 남편의 수입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최

루백은 염경애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같이한 23년 동안의 일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염경애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길쌈이나 품앗이 정도였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겨우 가정을 꾸려 나갈 정도였지 돈을 모은다거나 곡식을 비축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최루백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전포(戰袍 : 갑옷 위에 입는 웃옷)나 음식을 보내었다.

그나마 염경애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20여 년간 꾸려 나갈 수 있던 것은 아마도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부모의 재산 분배에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참여하였다. 만약 여자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을 때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여성이 친정에서 받은 재산은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절에 기증된 토지 중에는 여성의 토지가 적지 않으며, 남편의 재산과 구별하여 부인의 소유라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염경애 집안도 대귀족이 아닌데다가 어머니 심씨 묘지석에 근검으로 집안을 일으켰다고 하므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염경애가 친정에서 받은 도움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염경애는 가끔 글만 읽는 자식들이 야속하기도 하였다. 염경애는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최단인(崔端人)·최단의(崔端義)·최단례(崔端禮)·최단지(崔端智)이며, 딸은 최귀강(崔貴姜)·최순강(崔順姜)이었다. 단인·단의·단례는 학문에만 뜻을 두었다. 그래서 염경애는 이들이 후일에 관리가 되어 많은 녹을 받게 되면 자신을 재주 없다 여기면서 고생한 일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서글퍼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정을 남편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 "자식들이 글만 읽고 일하지 않는 것을 숭상합니다. 나는 집안 살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의식을 맡아 힘써 하려 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혹 내가 죽은 뒤 자식들이 많은 녹을 받아 무엇이든지 뜻대로 된다면 이 어미를 재간이 없다고 여기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 가느라고 고생한 일을 잊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염경애의 나이 46세 되던 봄, 남편 최루백이 7품직에서 정6품에 해당하는 우정언 지제고(右正言知制誥)로 승진하였다. 염경애는 이제 가난한 살림이 조금 나아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뻤다. 하지만 남편이 "간관은 녹만 먹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핀잔을 주자 그녀는 단호하게 잘라 말하였다. "단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전각의 섬돌에 서서 임금과 시비를 다툰다면 비록 가시나무 비녀를 꽂고 베옷을 입고 삼태기를 이고 살아간다 해도 마음이 기쁘겠습니다."라고 대꾸하였다.

이는 남편이 신하로서 올바른 도리만 다한다면 자신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었다. 또 염경애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 최루백은 이 일화를 염경애의 부덕을 나타내기 위해 묘지명에 기록했겠지만 염경애의 심정은 남편과 달랐을 것이다. 염경애는 남편이 자신의 속도 모르고 돈만 아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는 데 대해 무척이나 야속하였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염경애 자신도 신하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며, 자신이 지금껏 결코 남편의 출세나 바라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항변도 함께 담겨 있었다.

고려시대 여성들의 묘지명을 살펴보면 염경애와 비슷하게 남편을 대신해 가정 경제를 도맡다시피 하여 생활을 꾸려 나간 여성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여공(女工)이나 길쌈에 뛰어나거나 근검으로 가업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쓰여 있다. 얼핏 생활보조자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염경애처럼 생활을 도맡다시피 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염경애가 죽은 뒤 남편은 재혼하여 아들 세 명과 딸 한 명을 두었다. 그리고 한때 좌천도 당했지만 계속 승진하였다.

3) 집에서 제사도 올리고

최루백은 염경애에 대해 "부녀자의 도리에 부지런히 힘써 나의 뜻을 미리 알아 잘 받들었으며, 내 돌아가신 어머님을 정성껏 봉양했고, 친척들의 경조사를 힘써 살피니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다. 또 생전에 섬겨 보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를 명절이나 복일(伏日), 납일(臘日)이 되면 번번이 몸소 전(奠)을 드리고 길쌈을 하여 저고리나 바지를 지어 두었다가 제삿날이 되면 그 옷을 영

전에 바쳤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유교식 제사보다 절에서 재(齋)를 올리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절에서 재를 지내는 일은 가족생활에 많은 차이점을 가져왔다. 절에서 재를 지냈으므로 제사를 지내 줄 아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 절에서 재를 지내면 승려가 행사 주관을 하고 가족들은 소요되는 비용만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제사에 소용되는 비용은 '기일보(忌日寶)' 라고 하여, 자녀들이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재를 베푸는 윤회봉사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염경애는 시아버지에 대한 추모를 절의 재에만 의탁하지 않고 집에서 제사를 올리는 억척스러운 면모를 보였다. 집에서 올리는 제사는 고려 말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보다 본격화되었다. 그러므로 염경애는 문자를 많이 알았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유교경전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유교적 의례를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 염경애는 유교경전을 보면서 부덕을 닦았지만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면서 불교에 깊이 귀의하였다. 고려시대에 불교신앙은 종교이자 생활이었다. 남성들처럼 사회생활이 허용되지 않은 여성에게 불교신앙은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귀족계층의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불경을 외고 낮에는 길쌈을 하다가 밤이 되면 불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삼을 정도로 불교경전을 읽고 외우는 일이 중시되었다. 가정에서는 불경을 독송하며 불심을 돈독하게 닦았으며, 밖으로는 시주 활동을 통해 신앙심을 실천하였다.

염경애는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사원에 많은 물품을 시주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불심이 깊은 그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시아버지의 재가 있는 날이면 정성껏 버선을 지어 중들에게 시주하고 시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최루백은 묘지명에 이 일을 가장 잊을 수 없다고 썼다.

염경애는 넷째 아들인 최단지(崔端智)를 출가시켰다. 당시 불심이 강한 어머니들은 아들 중 한 명을 출가시키곤 하였다. 염경애도 아들 한 명을 출가시킨 것으로 보아 불심이 깊었다고 여겨진다. 이후 최단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환속하여 아버지의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고려시대에 여성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신앙은 장례 절차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염경애의 장례도 불교의례로 치러졌다. 염경애는 1월에 집에서 죽은 뒤 순천원에 안치되어 2월에 화장하여 뼈를 청량사에 두었다가 3년 후 인효원 동북쪽에 장사지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염경애의 시신이 개경에 있는 친정아버지 염덕방의 묘 옆에 묻혔다는 점이다. 귀족으로서 개경에 묻힌 것이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가족제도가 여성을 출가외인이 아닌 친정 쪽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염경애와 최루백의 첫째 딸 귀강도 남편과 사별한 후 시가가 아닌 친정인 최루백의 집에 돌아와 살고 있었다.

2. 명(明)에 공녀로 바쳐진 수원 여인 최씨

1) 공녀로 바쳐진 여성들

'공녀(貢女)' 란 전통시대에 한국에서 중국에 바친 여성을 말한다. 공녀는 고려 후기 원(元)의 간섭을 받으면서 본격화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1275년(충렬왕 1)부터 1355년(공민왕 4)까지 80년간 약 44차례에 걸쳐 170명 이상의 여성이 원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려사』에 기록된 숫자일 뿐이다. 기록에 누락되거나 개인적으로 원의 관료들에게 끌려간 여성까지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어느 연구자는 최대 2,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1]

공녀는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명(明)이나 청(淸)에서 여전히 조선 조정에 여성을 요구하였다. 명에서 여성을 요구해 1408년(태종 8)을 시작으로 1433년(세종 15)까지 총 27년간 7차례에 걸쳐 114명이 끌려갔는데, 주로 15세기 전반인 영락(永樂) 연간과 선덕(宣德) 연간에 집중되었다. 청에서도 여성을 요구해 1638년(인조 16)과 1650년(효종 원년) 2회에 걸쳐 32명이 청에 바쳐졌다.[2]

수원 여성인 최씨(崔氏)는 1408년(태종 8) 조선에서 처음으로 명에 공녀를 바칠 때 끌려간 여성이다. 1408년 명의 사신으로 온 환관 황엄(黃儼) 등은 아름다운 여성들을 간택해 보내라는 명 임금의 명을 전달하였다.[3] 태종은 즉시 '진헌색(進獻色)'



공녀로 선발된 최득비의 딸(『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1일)

이라는 임시기관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13세 이상 25세 이하의 양갓집 여성을 선발하도록 하였다.[4]

두 달여 동안 전국에서 30명의 여성들을 뽑은 후 최종 7명을 선발하였다. 하지만 황엄이 미색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자 태종은 명 사신 황엄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여성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에서 500여 명이 한양으로 와서 심사를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다섯 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다섯 명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5] 선발된 여성들의 등수는 명 사신 황엄이 미모의 순서대로 매긴 것이다. 수원 여성 최씨는 다섯 번째였다.

조정에서 진헌색을 설치해 미혼의 여성들을 차출하는 일을 벌이자 민간에서는 큰 소동이 일었다. 여성들은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불구거나 아픈 척을 하였다. 부모들의 경우 딸을 숨기거나 심사에 내보내지 않다가 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 민심이 악화되면서 명에 바칠 여성을 구하는 조정의 작태를 비난하

〈표 1〉 1408년(태종 8) 명으로 끌려간 조선 여성들

등수	아버지 성명	아버지 관직	나이	거주지	본관
1	권집중(權執中)	전서(典書)	18	한성부	경상도 안동부
2	임첨년(任添年)	전서(典書)	17	한성부	충청도 회덕현
3	이문명(李文命)	지영주사(知永州事)	17		경기좌도 인주(현 인천)
4	여귀진(呂貴眞)	사직(司直)	16	한성부	풍해도 곡성군
5	최득비(崔得霏)	수원기관(水原記官)	14		경기좌도 수원

는 동요까지 떠돌았다. 권근(權近)이 지은 시에는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6]

麥熟當求麥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구하여야 하고
日曛求女兒 해가 저물면 계집아이를 구하여야 하네.
蝶猶能有眼 나비도 오히려 눈이 있어
來擇未開枝 아직 피지도 않은 가지를 와서 택하네.

조정에서는 민간의 숱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녀를 뽑아 명으로 들여보냈다. 공녀로 선택된 여성들이 명의 수도 북경으로 출발한 시점은 1408년 11월경이었다. 태종은 총책임자로 예문관 대제학 이문화를 임명했으며, 사안이 중대했던지 모화루까지 나가 직접 전송하였다. 공녀로 선발된 여성들의 아버지 3명과 오빠 1명도 함께 출발하였다. 곧 이문명 · 여귀진 · 최득비, 권집중의 아들 권영균이 명에 바칠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따라갔고, 임첨년만 병으로 가지 못하였다.

다섯 명의 여성들이 명으로 갈 때 길에는 부모나 친척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정황은 권근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7]

九重思窈窕 구중궁궐 요조숙녀 생각나서
萬里選娉婷 만 리 밖에서 미인을 뽑는다네.
翟茀行迢遞 적불은 저 멀리 갈마들고
鯷岑漸杳冥 제잠은 점점 아득해지네.
辭親語難決 부모를 하직하니 말이 끝나기 어렵고

忍淚拭還零 눈물을 참자니 씻으면 도로 떨어지네.
惆悵相離處 슬프고 섭섭하게 서로 떠나는 곳에
群山入夢青 여러 산들이 꿈속에 들어와 푸르네.

2) 명으로 간 최씨의 운명

그렇다면 14세의 나이로 명으로 간 수원 여성 최씨(崔氏 : 1395~1424)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최씨는 최득비의 딸로, 다섯 명의 여성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다. 조선에서 명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최씨에 대해 "중군(中軍) 부사정(副司正) 최득비의 딸입니다. 나이 14세로서 을해 10월 초8일 오시(午時)에 낳았고, 관향은 경기좌도 수원입니다."[8]고 소개하였다.

중군은 중앙군의 하나이며, 부사정은 중군에 속한 군직(軍職)의 일종인데 품계가 정확하지 않다. 다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부사정이 종7품직으로 정착되므로 태종 대에도 하급 관직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하지만 최씨의 아버지 최득비(崔得霏 : ?~1428)의 본래 직함은 기관(記官)으로서 수원부의 아전이었다. 곧 최씨는 아전의 딸로서 중인(中人) 신분이었다. 최씨가 명으로 보낼 여성으로 선발되자 중군 부사정에 임명된 것이었다. 그리고 생활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던 것 같다. 공녀 다섯 명이 명으로 갈 때 유모 없이 간 여성은 최씨와 여귀진의 딸뿐이었다.[9]

명에 도착한 다섯 명의 조선 여성들은 모두 영락제(永樂帝) 성조(成祖 : 1360~1424, 재위 1402~1424)의 후궁이 되었다. 하지만 등급은 서로 같지 않았다. 권집중의 딸은 미모가 뛰어나고 옥통수를 잘 불어 성조의 총애를 받아 현인비(顯仁妃)가 되었다. 임첨년의 딸은 순비(順妃), 이문명의 딸은 소의(昭儀), 여귀진의 딸과 최씨는 미인(美人)이 되었다.

성조는 재위 시절 후궁을 31명이나 두었다.[10] 그러므로 후궁 사이에 알력과 질투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조선 출신의 후궁과 명 출신의 후궁이 갈등하다가 일어난 '어여지난(魚呂之亂)' 이 있다. 성조는 1407년에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 서씨가 죽자 더 이상 황후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총애하던 현인비 권씨에게 황후의 직책을 대행하여 내전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인비 권

씨가 1410년 10월에 독살되고 말았다.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에서 명 궁녀 여씨는 평소 원한을 품은 여귀진의 딸 여미인을 무고하여 현인비를 독살한 주범으로 지목하였다. 이 무고로 여미인은 물론 수많은 궁녀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궁녀 여씨가 환관과 간통한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자살하면서 독살사건의 진실도 밝혀지게 되었다. 궁녀 여씨가 현인비를 독살했으며 여미인을 무고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2,8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조선 여성의 피해도 커서 8명의 후궁 중 생명을 보전한 여성은 최씨와 한확의 누이 한씨밖에 없었다. 이미 여미인은 무고로 죽임을 당하였고, 임씨와 정씨는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씨와 황씨는 국문을 받고 참형을 당하였다. 다행히 최씨는 남경(南京)에 있다가 소환을 당했으나 병으로 오지 못하는 바람에 화를 면하였다.[11]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조가 1424년에 사망하자 후궁을 함께 묻는 순장(殉葬)이 시행되었다. 이때 최씨는 한씨와 함께 순장되었던 것 같다. 최씨의 나이 30세였다. 그때의 참상은 간신히 살아 돌아온 한씨의 유모 김흑(金黑)의 증언으로 조선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 황제가 죽자 순장된 궁녀가 30여 명이었다. 죽기 전에 모두 뜰에 모아 놓고 음식을 먹인 다음 함께 마루로 끌어올리니 울음소리가 전각을 진동시켰다. 마루에 작은 나무 평상을 놓아 그 위에 세워 놓고 머리를 올가미에 넣은 다음 평상을 떼어 버리니 모두 목이 매여 죽었다.[12]

최씨가 성조와 함께 순장되는 사이 조선에서 최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표 2〉에서 보듯이 딸을 따라 명에 갔던 최득비는 명의 관직인 홍려시(鴻臚寺) 소경(少卿)에 제수되었다. 홍려시는 외국 손님의 접대를 담당하는 관서로서 종5품에 해당하였다. 다섯 명 가운데 가장 낮은 관직이었다. 선물로는 채단(綵段) 60필, 채견(綵絹) 300필, 금(錦) 10필, 황금(黃金) 1정(錠), 백은(白銀) 10정, 말 4필, 안장 2면(面), 옷 2벌, 초(鈔) 3,000장을 받았다.[13]

〈표 2〉 1408년 공녀의 가족에 대한 대우

관계	성명	명 성조가 내린 관직	명 성조가 내린 물품
오빠	권영균	광록시 경(卿), 정3품	채단 60필, 채견 300필, 금 10필, 황금 2정, 백은 10정, 말 5필, 안장 2면, 옷 2벌, 초 3,000장
아버지	임첨년	홍려시 경, 정4품	각각 채단 60필, 채견 300필, 금 10필, 황금 1정, 백은 10정, 말 4필, 안장 2면, 옷 2벌, 초 3,000장
아버지	이문명	광록시 소경(少卿), 정5품	
아버지	여귀진	광록시 소경, 정5품	
아버지	최득비	홍려시 소경, 종5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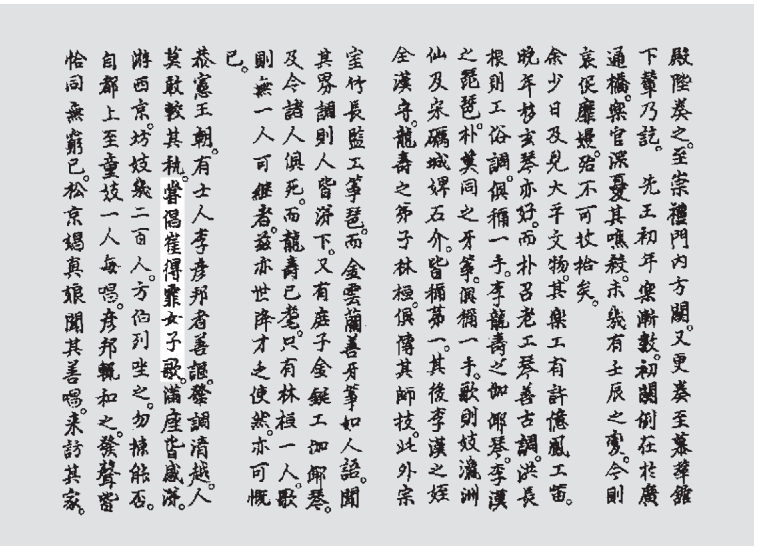
이후 최득비는 '황친(皇親)'[14]이라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하였다. 성조는 다섯 명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관직을 내린 후 조선 조정으로 하여금 그에 해당되는 급료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최득비는 조정으로부터 정4품 녹과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았다.[15] 1417년(태종 17)에는 전지 20결을 특별히 하사받기도 하였다.[16]



명나라 사신 김만이 최득비에게 내리는 제문 및 제물을 받들고 오는 기사(『세종실록』, 세종 10년 12월 26일)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득비를 비롯한 '황친'들은 명으로 갈 때에 임금의 전송을 받기도 했으며, 연회에 초청되었다. 그리고 명을 오고 갈 때마다 말을 비롯해 각종 물품을 받았다. 이들 황친들은 명을 자주 왕래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자문(咨文)을 갖고 오는 등 외교 사절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 조선에 오는 명 사신을 맞이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최득비는 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황친으로서 대우받았다. 심지어 길에서 우의정을 만났는데도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갈 정도였지만 세종은 처벌하



이언방이 「최득비여자가」를 불렀음을 기록한 허균의 글(허균, 『성옹복부고』 권24, 설부 3, 「성옹식소록」 하)

지 못하였다.[17] 1428년(세종 10) 최득비가 죽자 세종은 관곽과 쌀, 콩, 종이를 내렸고,[18] 명 조정에서도 제문과 제물을 내렸다. 최득비 사후에 "본래 수원부(水原府)의 이속(吏屬)이었는데 딸이 명으로 들어간 까닭으로 소경(少卿)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미천함을 잊고 오만 무례하였다."[19]는 평가는 최득비가 딸 덕분에 어떻게 출세했는지를 잘 알려 준다.

지금까지 소개한 대로, 수원 여성 최씨는 14세의 나이로 명에 공녀로 끌려간 뒤 30세의 나이로 순장되어 죽었다. 최씨가 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명종 대의 전설적인 명창 이언방(李彦邦)이 「최득비여자가(崔得霏女子歌)」를 불렀는데 온 좌석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다.[20] 「최득비여자가」에서 '최득비여자'는 최득비의 딸 최씨를 말한다. 최씨의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져 불린 것은 조선 여성으로서 공녀로 끌려가 순장으로 최후를 마친 한 여성에 대한 조의(弔意)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3. 수원 기생 이야기

조선시대 여성 중에 기생이라는 특수 신분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예술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인 취급을 받기도 했다. 신분은 비록 미천하나 향유하는 문화가 양반의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도 폭이 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생에 대한 인식은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동일하였다. 보고 즐길 수 있는 꽃, 꺾을 수 있는 꽃으로 여겨졌다. 당 현종이 양귀비를 해어화(解語花)라 자랑삼아 칭했지만, 이는 기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수원과 관련된 기생들의 이야기가 전한다. 조선 세종 대의 벽단단, 비슷한 시기의 『용재총화』에 등장하는 기생, 그리고 1795년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에서 노래한 계섬 등이다. 여기에서는 신분적으로 가장 천한 곳에 놓여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기생들의 삶과 자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향기 짙은 꽃, 수원 관기 벽단단

벽단단은 조선 초기 수원 관기이다. 그녀에 관한 기록은 『고금소총』과 실록에 실려 있다. 벽단단을 사랑한 선비 이(李)씨의 이야기와 옥구진 병마사 김훈(金訓)의 이야기가 전한다.

이 선비는 가군(家君 : 아버지)을 따라 교외로 사냥을 나갔다가 풀어 놓은 매가 달아나자, 급한 나머지 "벽단단이 날아간다."고 하며 쫓아갔다고 한다. 병마사 김훈도 벽단단을 사랑하여, 조모상을 당하여서도 빈소에 가지 않고, 마음대로 상경하여 여러 달을 머물면서 인덕궁(仁德宮)에 출입하기도 했다. 그는 벽단단을 가까이 하면서 국가의 번병(藩屛)을 지키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불충을 저질러 탄핵을 받았다. 김훈이 출입했다는 인덕궁은 전 왕인 정종이 기거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벽단단의 숙모인 소매향이라는 궁인이 정종을 모시고 있었다. 당시는 세종 즉위 초로 상왕인 태종과 전 왕인 정종이 모두 생존한 상태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었던 시점이다.

벽단단이 선비 이씨와 김훈을 만나게 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수원 관기인 벽단단이 어느 시점엔가 김훈을 만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연을 맺게 된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선비 이씨에게는 오매불망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김훈에게는 조모상까지 잊게 할 정도의 여인이었다. 이후 벽단단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러 사람을 미혹시켰음을 알 수 있다.



수원 관기 벽단단과의 관계로 직무를 소홀히 하여 탄핵을 받은 김훈(『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1월 1일)

2) 수청을 거절한 수원 기생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수청을 거절한 수원 관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기생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수원의 관기는 수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볼기를 맞게 되자 여러 사람 앞에서 "얼우동(孼于同)은 음행(淫行)을 해서 벌을 받았는데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벌을 받으니 조정의 법이 어째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울분을 터뜨렸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다.

『용재총화』는 기생의 입장에서 서술되었고,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청'으로 직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관기는 조선시대에 지방고을 수령의 수청 드는 것을 직임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재총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관기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조선시대 기생은 글씨, 그림, 춤, 노래, 악기연주, 시, 책읽기, 대화법 등 타인을 대하거나 즐겁게 할 때 필요한 것을 배웠다. 이들이 상대하는 부류가 왕족과 관리, 한학적 교양이 높은 유생이었기 때문이다. 관기들은 관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 예능인이었지만 조선 초기부터 어우동이나 감동의 경우처럼 몸을 파는 기녀가

존재했고, 관기로서 접대를 거절한 자를 다스렸던 실록 기사[21]를 통해서 기생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할의 하나가 수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용재총화』에 등장하는 수원 기생은 이를 거부하고 벌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여인이 특정직을 수행하는 관기였으며, 자의식과 자존감이 강했을 가능성도 있다.

기생은 꽃이란 아름다운 표현을 쓰지만, 신분적으로 사회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약자였다. 관기는 쉽게 꺾을 수 있는 꽃이었고, 이들을 탐하는 자들은 도처에 널렸음을 알 수 있다.

3)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서 노래한 계섬

계섬(桂蟾, 桂纖 : 1736~?)은 유명한 노래 기생으로, 심노숭이 지은 「계섬전(桂蟾傳)」의 주인공이다.[22] 계섬은 1795년 60세의 나이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선창 여령(先唱女伶)으로 참여하였는데, 참여한 여령 중 가장 연장자였다.[23] 또한 회갑연에 공연한 기생들은 계섬의 지도를 받은 기생들로, 모애, 분단, 윤애, 동월, 계월, 매열, 경희, 금례, 복혜 등 노래 기생 9명과 명금, 연애, 금련, 옥혜, 복취 등 춤 기생 5명이 진찬연에 참가하여 아리따운 목소리와 모양새를 한껏 펼쳐 보이며 잔치를 흥겹게 하였다.

이미 40대에 홍국영의 구사(丘史)[24] 생활을 끝으로 기적(妓籍)에서 벗어난 60세의 계섬을 화성부의 행사에 세운 까닭은 계섬의 명성과 녹슬지 않은 기량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기생, 천민층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다. 계섬의 경우는 그녀의 예술적 기개를 높이 산 심노숭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계섬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소리나 잘하는 단순한 기생은 아니었다. 이는 참판 원의 손과 10년을 같이 살다가 그의 잘못된 말 한 마디에 떠나 버린 이야기, 한성 부자 한상찬이 계섬을 붙잡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그가 마음에 차지 않자 떠나 버린 이야기, 권력자 홍국영에게 아부하는 자들을 꼬집어 비판했던 기개 등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때에 파주 시골촌에 물러날 줄 아는 용기도 일반



진찬연에서 연행하고 있는 기생들(「봉수당진찬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봉수당 전퇴 왼쪽에 정조의 자리가 있다. 그 앞에는 헌선도를 마친 세 명의 여령이 헌상된 선도를 담은 은반을 둘러싸고 있다. 봉수당 앞마당에 차려진 무대에서는 무고와 선유락이 연행되고 있다.

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래 스승인 이정보가 죽었을 때 마치 아버지 상을 당한 것처럼 곡을 했으며, 장례를 마치고 나서도 음식을 마련해 이정보의 무덤에 가서 성묘하고 술과 노래와 통곡을 반복하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한다. 또한 자신을 알아준 심용, 심노숭과의 교류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

계섬은 예인으로서 자존심과 자의식이 강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조선시대 예인으로 이름을 날린 황진이나 부용, 이매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기생이다. 오락과 연예를 담당하는 예능인을 넘어서 진정한 예술가로 승화시킨 자부심을 보여 준다. 계섬은 신분제 사회의 최하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천민이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예술인의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4. 일대기가 남아 있는 여성들

수원 지역의 여성 관련 자료 가운데 주목할 것은 한 여성의 일생을 담아 놓은 일대기이다. 최근 조선시대 여성의 행장이나 비문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어 여성사 연구에 활기를 주고 있다. 수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의 일대기들이 발굴되고 있어 수원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할 여성들은 나혜석(羅蕙錫 : 1896~1948)으로 유명한 수원의 나씨 집안사람과 혼인한 여성들이다. 곧 나중석(羅重錫 : 1878~1970)의 어머니 철원 송씨, 나중석의 부인 충주 지씨이다. 이 여성들은 조선시대 여성들이라 할 수 없으나 출생한 해가 조선의 국왕 고종 대이므로 여기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증조모 조모 견문록』(1931년)은 나중석이 지은 어머니 철원 송씨의 행장인 「선비가장」, 나세균이 지은 어머니 충주 지씨의 행장인 「자위견문」을 함께 묶었다. 책 제목은 나중석의 손자가 붙였다고 한다.[25]

『자위문견록』(1931년)은 나세균이 지은 어머니 충주 지씨의 행장이다. 구성은 국한문 혼용의 「모친실기(母親實記)」(7장), 한글본 「자위문견록」(10장)으로 되어 있



나중석 가족(수원박물관 소장)

〈표 3〉 수원 나씨 집안의 두 여성 관련 자료

여성인물 / 소장처	철원 송씨	충주 지씨
집안	『증조모 조모 견문록』(선비가장)	『증조모 조모 견문록』(자위견문) 『자위문견록(慈闈聞見錄)』
국립중앙도서관	「선비유사(先妣遺事)」	
	「선비가장(先妣家狀)」	
	「선비은진송씨가장(先妣恩津宋氏家狀)」	
	「송부인전(宋夫人傳)」	

다. 같은 내용을 국한문과 한글로 쓴 것이다. 마지막 장에 "신미칠월일 불초자세균(辛未七月日 不肖子世均)"이라 쓰여 있다.

오늘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나중석이 어머니 철원 송씨에 대해 쓴 글이 남아 있다. 서명 없이 「선비유사」, 「선비가장」, 「선비은진송씨가장」, 「송부인전」의 4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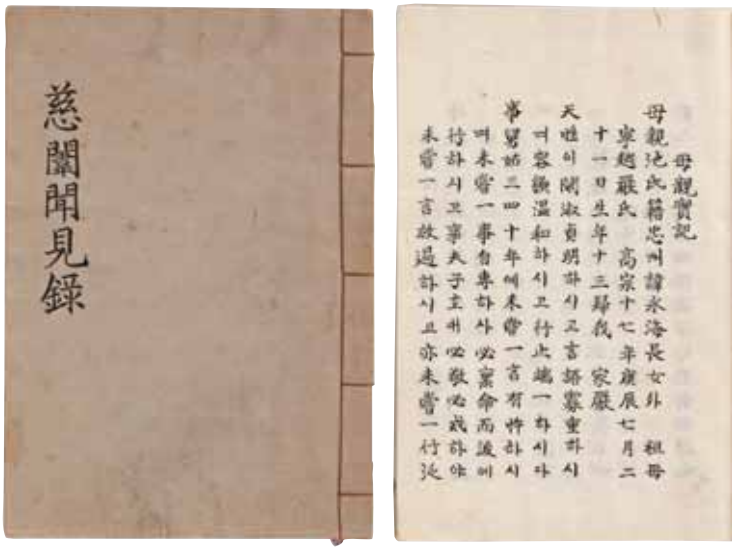


『증조모 조모 견문록』(수원박물관 소장) 나중석이 지은 어머니 철원 송씨의 행장인 「선비가쟝」과 나세균이 지은 어머니 충주 지씨의 행장인 「자위견문」을 함께 묶었다.

이 한 책으로 묶여 있다. 「선비유사」, 「선비가장」, 「선비은진송씨가장」은 내용이 모두 같다. 차이점은 「선비유사」와 「선비가장」은 한자로 썼으며, 「선비은진송씨가장」은 한글로 풀어 놓았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세 개의 글은 『증조모 조모 견문록』에 담긴 「선비가쟝」과도 내용이 같다. 「송부인전」(1931년)은 나중석과 교유한 유도승(柳道昇)이 지은 글이다.

철원 송씨(鐵原 宋氏 : 1848~1929)는 송태현(宋泰賢)과 밀성 박씨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나 17세에 나기원(羅基元)과 혼인하였다. 시가는 수원군 봉담면 분천리에 있었으며, 시아버지 나영완이 크게 사업을 운영하였다. 아들 나중석은 사회의식이 강한 인물로서 1903년에 삼일남학당(三一男學堂)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물려받은 재산을 나씨 집성촌인 분천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였다.[26] 1912년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나중석은 상당한 토지를 마련하여 신풍리 · 남수리 · 남창리 등지에 1,206평을 소유하고 있었다.[27]

철원 송씨의 일대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송씨가 재산 경영 쪽에 탁월한 능력을 발



큰아들 나석균이 쓴 어머니 충주 지씨 행장(수원박물관 소장)

휘한 점이다. 송씨는 자못 호방하고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금전과 곡식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시아버지가 별세하고 남편이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에도 송씨가 보좌한 공이 아주 컸다고 한다. 또 가정 경영에도 탁월해 1년 동안 쓸 물품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때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으며, 봉담면 수기리 선영에 장사 지냈다.


철원 송씨가 시집올 때 가져온 함(수원박물관 소장)

철원 송씨의 며느리 충주 지씨(忠州 池氏 : 1880~?)는 지영해(池永海)와 영월 엄씨(寧越 嚴氏)의 장녀로서 13세에 나중석과 혼인하였다. 지씨는 성품이 온유하고 덕이 깊은 여성으로서 남편의 뜻을 잘 따랐던 것 같다. 시어머니가 임종할 때에 따로 떼어 준 땅도 한 집에 개인



나중석과 부인 충주 지씨의 회혼식(수원박물관 소장)

재산을 따로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남편 재산과 합쳤다. 지씨는 혼인한 지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 남편이 첩을 얻어 딸을 얻자 손수 옷을 지어 산실로 전달하였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첩이 내왕하지 못하도록 남편에게 요구하는 과단성도 지닌 여성이었다.

이상으로 철원 송씨와 충주 지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관한 일대기를 살펴보면 고운 품성과 덕성, 남편에 대한 순종과 내조(內助),

시부모 공경, 시가 식구와의 화목, 아랫사람이나 하인에 대한 관대,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는 가정 경영 등이 강조되어 있다. 위에서 소개한 두 여성에 대한 글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철원 송씨와 충주 지씨가 덕성을 갖춘 여성으로서 남편과 시부모를 잘 섬기고, 시가 식구와 화목하고, 하인들에게 너그럽게 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원 송씨는 재산 경영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충주 지씨는 외유내강의 여성으로서 세상 풍파를 잘 이겨 내었다.



1. 여성 관련 자료를 읽는 방법
2. 작호를 받은 사대부 여성
3. 여성, 집안의 후사를 세우다
4. 재산 상속 문서 속의 여성
5. 부부 사이와 가족생활

정해은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02 조선시대 수원 여성의 지위와 일상

1. 여성 관련 자료를 읽는 방법

이 글에서 다룰 주제는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일상으로, 이를 위해 활용할 자료는 수원의 여러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족보, 각종 고문서, 호구단자 및 준호구 등 다채로운 편이다. 그리고 관찬 자료로서 조선왕조실록도 이용할 것이다. 자료들이 다채로운 만큼이나 원자처럼 낱낱이 흩어져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저 여성이 등장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흩어진 채 상호 연관이 없는 자료들에서 수원 여성의 역사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고단하다. 자료가 만들어진 사회 배경이나 분위기를 모르고는 그 자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정리된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현존하는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1476년),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1565년)이다. 이 족보들은 조선 전기 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1]

먼저 후손들을 표기하는 방식이 아들과 딸 구별 없이 출생 순으로 하였다. 조선 후기처럼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뒤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순서에 따라

아들과 딸을 기록한 것이다. 둘째, 여성의 자손들도 기록하였다. 『안동권씨성화보』에 수록된 사람은 대략 9,120명인데, 이 중 권씨에 해당하는 친손은 867명으로 10%도 되지 않는다. 『문화유씨가정보』도 수록자 4만 2,000명 중 유씨에 해당하는 친손은 1,4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외손들이다. 셋째, 양자 기록이 드물다. 양자 제도는 남계 혈통을 이어 가기 위한 방편으로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아예 양자 기록이 없다. 『문화유씨가정보』에는 126건이며, 그중 122건은 모두 인종·명종 대이다. 넷째, 두 족보 모두 여성이 재가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후부(後夫)'라 하여 『안동권씨성화보』에 17건, 『문화유씨가정보』에 18건이 나타난다.

여기서 두 족보의 특징을 소개한 이유는 두 족보에 조선 전기 사회와 가족의 형태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조선 전기가 부계 중심의 성향이 강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예컨대, 재산상속의 기본원칙은 자녀균분상속으로, 부모들은 재산을 기본적으로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2] 아들과 딸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기에 부모의 제사도 공유하였다.

한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입후(立后)」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곧 "본부인과 첩에게 다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同宗)의 후손을 세워 후계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통을 계승하는 적장자의 지위가 중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들과 딸은 물론 외손자가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그래서 후계를 세우기 위해 양자를 들일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종법제가 점차 뿌리내리고 적장자의 지위를 중시하면서 여성의 삶도 변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제사의 봉행이었다. 이제 종법의 원리에 따라 제사는 종통을 계승한 적장자가 지내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에 비해 딸은 제사에서 소외되었다. 예컨대, "사대부가의 딸들은 혼인 후에 본가의 제사를 마음대로 지낼 수 없어 폐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진실로 한심한 노릇이다. 딸에게는 몫을 나누어 주되 약간 감하고 본가 제사를 윤회하지 말라."[3]고 하듯이 윤회봉사가 권장되지 않았다.

제사와 재산상속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제사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딸들은 재산상속에서도 차별을 받기 시작하였다. 상속의 방식이 자녀균분상속에서 점차 아들우

대 및 장남우대 상속으로 바뀌어 나갔다. 장남우대는 남자 형제간에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봉사조(奉祀條)를 비대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봉사조는 선조의 제사를 위해 따로 떼어 놓은 재산으로, 자녀 상속분의 5분의 1에 해당하였다. 재산상속에서 봉사조를 점점 늘리면서 제사를 주관하는 장자의 몫이 커져 갔던 것이다.

수원 지역에 남아 있는 여성 관련 자료들은 여성을 둘러싼 변화가 진행되던 18세기 이후의 자료들이다. 재산은 차등적으로 분배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양자를 들이던 시기였다. 이런 시대에서 수원 지역의 여성들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살았을까? 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을까? 다음에서 이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작호를 받은 사대부 여성

1) 여성에게 내린 작호

조선시대에 여성이 국가로부터 받는 공식 문서가 있었으니 바로 작호를 내리는 임명장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여성들도 작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외명부(外命婦)'라 한다. 외명부는 왕의 딸[公主 · 翁主], 왕비의 어머니, 임금의 유모, 종친의 부인, 왕세자의 딸[郡主 · 縣主], 문 · 무관의 부인에게 내린 작호이다.

이 가운데 문 · 무관 부인에게 내린 작호의 명칭은 총 아홉 개였다. 〈표 1〉에서 조선시대 외명부를 정리해 보았다. 외명부의 작호명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숙인(淑人), 영인(令人), 공인(恭人), 의인(宜人), 안인(安人), 단인(端人), 유인(孺人)이 있었다. 그리고 각 작호마다 품계도 부여하였다. 정경부인은 정(正) · 종(從) 1품, 정부인은 정 · 종 2품, 숙부인은 정 · 종 3품 당상관,

〈표 1〉 조선시대 외명부의 구성

품계	정·종 1품	정·종 2품	정·종 3품 당상	정·종 3품	정·종 4품	정·종 5품	정·종 6품	정·종 7품	정·종 8품	정·종 9품
작호명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숙인	영인	공인	의인	안인	단인	유인

숙인은 정 · 종 3품, 영인은 정 · 종 4품, 공인은 정 · 종 5품, 의인은 정 · 종 6품, 안인은 정 · 종 7품, 단인은 정 · 종 8품, 유인은 정 · 종 9품이었다.[4]

남성 관료의 경우 동반(東班 : 문관품계)이 대광보국숭록대부부터 장사랑까지 총 31개 등급(정1품~종9품)으로 세분화되었고, 서반(西班 : 무관품계)이 절충장군부터 전력부위까지 22개 등급(정3품 당상~종9품)으로 세분화된 것에 비하면 단출하지만, 작호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본인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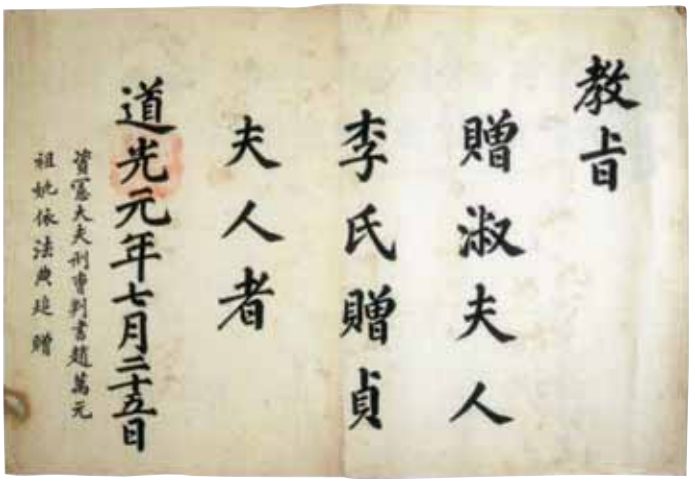
일반 여성이 작호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생전에 남편의 품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작호를 받는 방법이다. 예컨대, 남편이 정3품 당상관이면 부인은 숙부인이 되며, 남편이 종9품직에 있으면 부인은 유인이 된다. 곧 남편이 관직에 임용되면 부인도 거기에 해당하는 일종의 고신장을 받았던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사후에 추증(追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작호를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교지(敎旨)에 '증(贈)' 이라는 글자가 추가된다. 사후이므로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후손에게 추증이란 조상을 추모하고 가문을 빛내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 추증제도는 종친(宗親)을 비롯해 문관 · 무관 가운데 실직(實職) 2품 이상에 임명되면 그의 3대(代)에게 관직 및 품계를 내리는 제도였다. 여성의 경우, 어머니는 아들의 품계를 따르고, 할머니와 증조모는 각각 1등급을 낮추어서 추증하였다.[5] 족보에서 관직 앞에 '증' 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추증으로 받은 관직이다.

작호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임명장[告身]을 내려주었다. 문서의 형식은 왕의 명령이므로 '교지' 로 시작한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봉작호를 내리는 문서의 내용은 "숙인남씨위정부인자(淑人南氏爲貞夫人者)" (함평 이씨 함성군파)이다. 곧 "숙인 남씨를 정부인으로 삼음" 이다. 별세한 사람에게 내리는 봉작문서는 추증문서이므로 문서에 '증' 자가 들어간다. 예컨대, "유인이씨증숙부인자(孺人李氏贈淑夫人者)" (들목 조씨)이다. "유인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함" 이라는 의미이다. 문서에는 문서를 내린 날짜와 작호를 내린 이유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숙인 남씨의 경우 남편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종2품)에 임명되면서 남편의 품계에 따라 종2품직인



숙인 남씨를 정부인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유인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정부인이 된 것이다.

일반 여성이 작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은 혼인한 여성이어야 했다. 혼인하지 못한 여성, 즉 남편이나 아들 · 손자가 없는 여성들은 작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혼인했다고 하여 모두 작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얼 출신이거나 개가(改嫁)한 여성에게는 작호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개가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작호마저 박탈하였다.[6] 이처럼 여성의 작호는 적처 소생에다 개가하지 않고 일부종사한 여성에게만 내렸던 것이다.

2) 작호를 받은 수원의 여성들

그러면 수원 지역에서 작호를 받은 여성은 누구였을까? 현재 발굴된 자료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7] 이 여성들 외에도 작호를 받은 여성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앞으로 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발굴된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조선시대 작호를 받은 수원의 여성들은 40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다.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 집안의



숙부인 이씨(김찬의 부인)를 정부인으로 삼는 내용의 교지 (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숙부인 이씨(이계흥의 부인)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여성 9명, 거창 신씨 동추공파 집안의 여성 3명, 단양 우씨 청평공파 집안의 여성 1명, 함평 이씨 함성군파 집안의 여성 10명, 들목 조씨 집안의 여성 6명, 연안 차씨 집안의 여성 4명, 남양 홍씨 정효공파 집안의 여성 6명, 안동 김씨 집안의 김찬 부인 이씨 1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는 1587년(선조 20) 김찬의 부인 이씨가 정부인의 작호를 받은 것이며, 가장 늦은 시기는 1892년(고종 29) 이계흥의 부인 이씨가 정부인에 추증된 것이다.

〈표 2〉 조선시대 작호를 받은 수원의 여성들

구분	작호를 받은 남성	대상	작호	연도	근거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	김전	부인 이씨	숙부인	1731년(영조 7)	해풍
		모 김씨	증 숙부인	1736년(영조 12)	
	김희	부인 이씨	숙부인	1792년(정조 16)	
			증 정부인	1808년(순조 8)	
		부인 홍씨	증 숙부인	1792년(정조 16)	
		조모 장씨	숙부인	1808년(순조 8)	
		모 이씨	증 정부인		
	김건	부인 이씨	증 숙부인	1828년(순조 28)	
		부인 홍씨	숙부인		
	김선	모 김씨	증 숙부인	1736년(영조 12)	
거창 신씨 동추공파	신의학	부인 이씨	숙부인	1809년(순조 9)	거창
	신영필	부인 정씨	숙부인	1875년(고종 12)	
		부인 김씨			
단양 우씨 청평공파	우성전	부인 허씨	증 정부인	1793년(정조 17)	추연
함평 이씨 함성군파	이창운	부인 남씨	정부인	1754년(영조 30)	함평
		모 김씨	정부인		
		조모 김씨	증 숙부인		
		조모 정씨	증 숙부인		
		조모 조씨	증 정부인		
		증조모 김씨	증 숙인		
	이민교(이문성)	부인 이씨	증 정부인	1852년(철종 3)	
	이익서	부인 김씨	증 정부인		
	이규헌	부인 이씨	숙부인	1854년(철종 5)	
	이계흥	부인 이씨	숙부인	1882년(고종 19)	
			증 정부인	1892년(고종 29)	

구분	작호를 받은 남성	대상	작호	연도	근거
들목 조씨	조복양	부인 이씨	정부인	1662년(현종 3)	들목
	조만원	조모 이씨	숙부인	1809년(순조 9)	
			정부인	1821년(순조 21)	
		증조모 윤씨	숙부인	1821년(순조 21)	
	조학년	부인 김씨	숙부인	1836년(헌종 2)	
			정부인	1842년(헌종 8)	
			정경부인	1851년(철종 2)	
		부인 정씨	정경부인		
	조희철	부인 박씨	숙부인	1848년(헌종 14)	
			정부인	1864년(고종 1)	
연안 차씨	차도항	부인 김씨	정부인	1794년(정조 18)	화성
		모 김씨	정부인	1794년(정조 18)	
		조모 이씨	숙부인	1794년(정조 18)	
		증조모 엄씨	숙인	1794년(정조 18)	
남양 홍씨 정효공파	홍성원	부인 박씨	숙부인	1694년(숙종 20)	남양
	홍숙	부인 이씨	정부인	1702년(숙종 28)	
		부인 박씨			
		조모 한씨	숙부인	1702년(숙종 28)	
	홍적	증조모 이씨	숙인	1832년(순조 32)	
		증조모 정씨	숙인	1832년(순조 32)	
미상	김찬	부인 이씨	정부인	1587년(선조 20)	기증

해풍 김씨는 고려 공민왕 대 인물인 김숭선(金崇善)을 시조로 한다. 그 가운데에서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南陽雙阜派)는 오늘날 화성 지역에서 8대 장신 또는 10대 장신 집안으로 불리는 무신 집안으로 금위영대장 및 삼도통제사 등 고위 무반을 배출하였다. 쌍부는 남양의 남쪽 지역으로서 오늘날 화성시의 우정읍과 장안면 일대를 가리킨다. 파조는 김숭선의 7대손 김장(金樟 : 1428~?)이며, 수원 입향조는 김수종(金壽宗 : 생몰미상)으로 오늘날 종가가 화산리 일원동에 있다.

이 집안의 여성 중 김전의 부인 전주 이씨와 어머니 강릉 김씨, 김희의 부인 전주 이씨(1752~1790)와 남양 홍씨(1771~1805) 및 할머니 장씨, 어머니 한산 이씨, 김건의 부인 전의 이씨(1798~1813)와 남양 홍씨, 김선(金渲)의 어머니 김씨 등이 작호를 받은 여성들이다.

거창 신씨는 고려 문종 대 송(宋)에서 귀화한 신수(愼修 : ?~1101)를 시조로 한다. 신수의 후손들이 거창을 본관으로 삼은 것은 8세손 신성(愼成)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창 신씨 동추공파(同樞公派)는 참판공파에서 분파하여 15세손 신선경(愼先庚 : 1420~1488)을 파조로 하여 형성되었다. 수원부 정송, 현재의 화성시 정남면 백리 마을의 입향조는 신결(愼潔 : 1510~1580)이며, 그의 후손들을 일컬어 동추공파 정송문중 또는 수원문중이라 한다.

이 집안은 중종반정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23세손 신이복과 24세손 신사직이 문과에 급제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 집안에서 봉작호를 받은 여성은 신의학의 부인 광주 이씨, 신영필의 부인 연일 정씨와 청풍 김씨(1794~?)이다.

단양 우씨는 고려 현종 대 정조호장(正朝戶長) 우현(禹玄)을 시조로 한다. 단양 우씨 청평공파는 10세손 우인열(禹仁烈 : 1337~1403)을 파조로 하여 성립하였다. 14세손 우수(禹樹) 대에 수원부 호매절면 외촌(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이사해 오면서 수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 집안에서 봉작호를 받은 여성은 우성전(禹性傳 : 1542~1593)의 부인 양천 허씨이다.

우성전은 이황의 문하생으로 1568년 문과에 급제한 후 한림, 옥당, 대간 등을 거쳤다. 동 · 서인으로 분당이 시작되자 동인 편에 섰다. 이후 동인이 남인 · 북인으로 나뉠 때 남인의 거두가 되어 여론을 이끌면서 이발 · 이산해 등 북인세력과 대립하였다. 임진왜란기 수원을 중심으로 추의군(秋義軍)을 결성했으며, 퇴각하는 왜군을 경상도 의령까지 추격하다 돌아오던 도중 부평에서 사망하였다.

우성전이 별세한 지 200년이 지난 1788년(정조 12)과 1790년에 수원의 선비들이 학행과 절의가 뛰어난 우성전에게 증직과 시호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793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문강(文康)' 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부인 양천 허씨도 이때 정부인으로 추증된 것이다.

함평 이씨는 고려 광종 대에 신호위 대장군(神虎衛大將軍)을 지내고 함풍군(咸豊君)에 봉해진 이언(李彦)을 시조로 한다. 그 가운데 함평 이씨 함성군파(咸城君派)는 이언의 11대손인 이종생(李從生 : 1423~1495)을 파조로 한 무신 가문이다. 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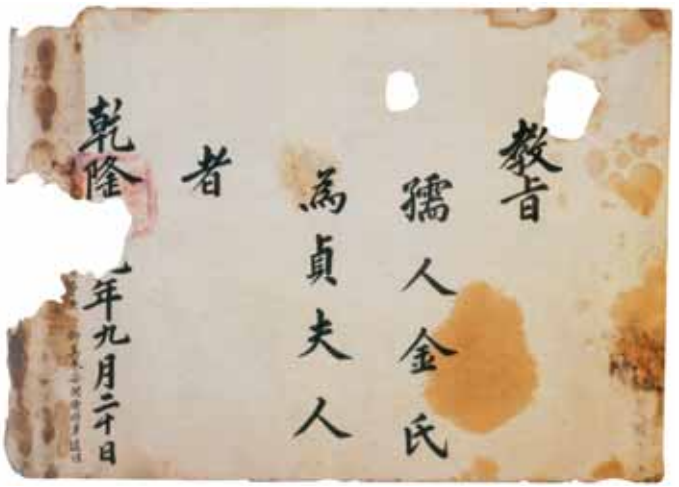


숙부인 이씨(조복양의 부인)를 정부인으로 삼는 내용의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생은 세조의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참여하여 원종공신 3등이 되었으며,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2등에 책록되고 함성군(咸城君)에 봉해졌다.

함평 이씨 함성군파가 수원부 삼봉면 분천리(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와 인연을 맺은 시기는 이종생의 아들 이양(李良 : 1446~1511) 대였다. 봉작호를 받은 여성은 이창운의 부인 의령 남씨, 어머니 안동 김씨, 조모 안동 김씨 · 하동 정씨 · 배천 조씨, 증조모 광주 김씨이며, 이민교(이문성)의 부인 전의 이씨, 이익서의 부인 안동 김씨, 이규헌의 부인 전의 이씨, 이계홍의 부인 전의 이씨이다.

들목 조씨는 현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세거하던 풍양 조씨를 지칭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혈연상으로 조복양(趙復陽 : 1609~1671)의 종손 집안만을 일컫는다. 들목 조씨가 수원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정조 대 이후로서 조상존(趙象存 : 1739~1806)이 수원부에 이거해 오면서부터였다. 들목 조씨 집안의 여성 가운데 현재까지 작호의 교지(敎旨)가 남아 있는 여성은 조복양(趙復陽)의 부인 이씨, 조만원의 조모 이씨와 증조모 윤씨, 조학년의 부인 김씨와 정씨, 조희철의 부인 박씨이다.



유인 김씨(차도항의 부인)를 정부인으로 삼는 내용의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연안 차씨가 오늘날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남산밑'과 인연을 맺은 시기는 1600년대 중반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 지역의 연안 차씨는 조선 초의 공신 차운혁(車云革 : 1393~1467)을 파조로 한다. 차도항이 1794년(정조 18) 어진봉안각 위장(衛將)을 지냈으며, 1821년(순조 21) 공신의 후예임을 인정받아 후손들이 군역에서 면제받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집안의 여성 중 봉작호를 받은 여성은 차도항의 부인 김씨, 어머니 김씨, 조모 이씨, 증조모 엄씨이다.

이상으로 수원 지역 여성 중 현재까지 봉작호를 받은 문서가 남아 있는 여성들의 집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소개했듯이 봉작호가 기재된 문서의 내용은 지극히 소략하다. 성씨, 현재 봉작호 및 하사된 봉작호, 연도, 봉작호 하사 사유뿐이다. 더구나 성씨만 기록되어 있어 본관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또한 이 여성들의 경우 해당 집안 출신의 여성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혼인해서 가족이 된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은 여성들에 관한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기록이며, 다른 자료들을 보충한다면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예컨대,


敎旨
淑人李氏
贈淑夫人
者
乾隆五十七年正月十三日

김희의 첫 번째 부인인 전주 이씨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敎旨
淑人洪氏
爲淑夫人
者
乾隆五十七年正月十三日

김희의 두 번째 부인인 남양 홍씨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의 여성 전주 이씨(1752~1790)를 살펴보도록 하자. 전주 이씨는 김희(金熹 : 1755~1817)의 첫 번째 부인으로 두 개의 추증 교지가 남아 있다. 전주 이씨는 남편보다 세 살 연상으로,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족보에는 김희가 아들 김병철을 입후했으며 딸에 대한 기록도 없어 전주 이씨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전주 이씨는 1792년(정조 16)에 남편이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이 되자 숙인(3품)에서 숙부인(정3품 당상)으로 추증되었다. 이후 1808년(순조 8) 전주 이씨는 숙부인에서 정부인(2품)으로 다시 한 번 추증되었다. 남편이 병마절도사로 나가자 법전의 규정에 따라 추증된 것이다.

남양 홍씨(1771~1805)는 김희의 두 번째 부인이다. 남편과 16년이나 나이 차이가 날 정도로 어린 부인이었다. 남양 홍씨가 김희와 혼인한 해는 1791년으로 판단된다. 첫 부인인 전주 이씨가 1790년 12월에 죽었고, 1792년 1월에 남편이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이 되자 숙인에서 숙부인의 직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1791년에 혼인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남양 홍씨의 나이는 21세였으며, 남편 김희는 37세였다.

조선시대에 양반 남성들의 재혼은 매우 일반적이었다. 이 무렵 국법에 사대부는 부인이 사망한 지 만 2년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었다. 단, 부모 명령이 있거나 나이 40세가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으면 1주년 뒤에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였다.[8] 그러나

이러한 국법을 지키는 양반들은 극히 드물었다. 18세기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남성들이 부인이 사망한 지 1~2년 내에 재혼을 하고 있다.[9]

18세기 중반에 영남 남인으로서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약한 권상일(權相一 : 1679~1759)은 『청대일기(淸臺日記)』를 남겨 놓았다. 일기에 따르면 권상일은 세 번이나 혼인을 했다. 첫째 부인이 죽은 지 9개월 만에 할머니의 강력한 권고로 두 번째 장가를 들었다. 이후 다시 세 번째 혼인을 했으나 세 번째 부인마저 사망한 후에는 다시 혼인하지 않고 소실을 얻었다. 아마도 사당에 부인 위패가 3개 이상 들어가는 것을 민망하게 여겼던 것 같다.[10] 18세기 후반 전라도 흥덕에 세거하던 학자 황윤석(黃胤錫 : 1729~1791) 역시 48세에 부인을 잃었다. 황윤석은 1년상을 마치자마자 노모의 권유와 신변상의 이유로 소실을 들였다.[11]

김희 역시 첫째 부인이 사망한 이듬해에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였다. 김희가 이렇게 다급하게 두 번째 혼례를 치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후사가 없던 이유가 가장 컸을 것이다. 그러나 남양 홍씨마저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다. 홍씨 역시 첫째 부인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었다. 홍씨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앞서 소개한 권상일의 첫째 부인은 임신 중에 병이 들어 죽었으며,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낳은 지 2년 만에 뱃속에 든 덩어리 때문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렇듯 전근대시기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김희의 부인들 역시 여성 질환과 관련해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여성 봉작호 입증 문서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남편이나 아들 · 손자가 관직을 획득한 결과로 받은 산물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인의 성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받은 작호 증명서를 세심히 살펴보고 족보들을 참조해 보면 거기서 여성을 넘어서 가족의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여성, 집안의 후사를 세우다

들목 조씨 집안에는 입후와 관련하여 계후입안(繼後立案) 문서 두 장이 전하고 있다. 1705년(숙종 31) 조명덕의 부인 이씨가 조명정의 둘째 아들 조하경을 양자로 들인 문서와 1753년(영조 23) 조정우의 부인 이씨가 10촌 형의 아들 조상존을 양자로 들인 문서이다.[12] 입안이란 관청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입증받은 증명서로서, 계후입안은 양자를 세운 것을 입증한 문서이다.

들목 조씨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오늘날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세거하던 풍양 조씨를 지칭한다. 이 중에서도 혈연상으로 조복양의 종손 집안만을 일컫는다. 조익 - 조복양 - 조지형 - 조명덕 - 조한보 - 조정우 - 조상존 - 조만원 - 조학년 - 조희필 - 조종재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야목리에 정착했기 때문이다.[13]

들목 조씨가 수원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정조 대 이후로 조상존이 수원부에 이사오면서부터였다. 들목 조씨 집안은 조익, 조복양, 조지겸(조복양 차남) 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조복양의 맏아들인 조지형은 사정이 달랐다. 조지형은 아우 조지겸이 소론(小論)의 거두로서 부제학 · 대사성 등을 역임한 데 비해 이렇다 할 만한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14] 큰아들 조명덕도 사정이 유사해 통덕랑(通德郞 : 정5품)에 그치고 말았다.[15] 관력만 지지부진하던 것이 아니었다. 종가로서 가계를 잇는 일도 위태로웠다. 조명덕(趙命德 : 1653~?)[16]은 후사를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부인 이씨가 1705년(숙종 31) 8월에 조명정의 둘째 아들 조하경을 양자로 세웠다. 조명정은 조지겸의 계후자(繼後子)로서 조명덕의 사촌동생이었다.

문제는 족보에 조명덕의 계후자로 조하경이 아니라 조한보(趙漢輔)로 올라 있는 점이다. 양자가 바뀐 배경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조하경이 일찍 사망했을 경우와 파양(罷養)했을 가능성이다. 입후와 파양의 문제점에 대해 다산 정약용(丁若鏞)조차 "근래 사람들이 생전에 양자를 세우는 까닭에 수많은 병폐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 혹 간신히 데려와 길렀는데 갑자기 양자가 요절하면 원래 몸을 의탁하려 했으나 도리어 재앙을 만난 것이다. 양자로 들어가고 나

오고, 사람이 나고 죽고, 대가 이어지고 끊어지는 와중에 윤리와 법도는 어그러지고 복 입는 제도도 어지러워졌다."[17]고 논평하였다. 들목 조씨의 경우 현재로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나, 풍양 조씨 족보에 조명정의 아들로 조하경이 올라 있지 않아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들목 조씨 집안에서 다시 계후입안을 받은 시기는 약 50년이 지난 1753년(영조 29) 8월이다. 조한보의 아들 조정우(趙廷禹 : 1722~1748)는 후사 없이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조정우의 부인 이씨는 10촌 형 조정기의 아들 조상존을 후사로 세웠는데, 조상존의 나이는 15세였다.

그런데 들목 조씨 집안의 계후입안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남편 사후에 양자를 세우는 주체가 부인이라는 점이다. 두 여성은 모두 장자의 부인으로 종가의 맏며느리였다. 여성이 집안의 종통을 이을 양자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경국대전』「입후」조 이외에 「봉사(奉祀)」조에 "만약 적장자에게 자손이 없으면 중자(衆子)가 제사를 받들고, 중자에게도 자손이 없으면 첩자(妾子)가 제사를 받든다."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장자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중자(衆子), 곧 적장자의 동생이 봉사한다는 '형망제급(兄亡弟及 :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잇는다.)' 에 대한 규정이다. 형망제급의 법은 장자의 처가 살아 있는 경우 누가 봉사할 것인지를 놓고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낳았다. 제사를 받드는 일은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형망제급이 시행되어 시동생이 제사를 지낸다면 사당이 있는 집은 시동생, 곧 차자에게 귀속되어 장자의 부인이 내침을 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자의 부인은 입후를 해서라도 죽은 남편의 종통을 이어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18]

이 때문에 17세기 무렵 차자가 봉사하면서 형수인 맏며느리를 내치는 것은 의미에 어긋난다는 예론적 비판이 나타났다. 점차 형망제급은 설 자리를 잃어 갔고 맏며느리도 봉사권을 입후자에게 양보해야 했다. 그 결과 장자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 그 부인이 후사를 세워 봉사하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장자의 부인은 누구를 상속자로 입양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확보하였다.[19] 앞서 소개



조상존 양자 입후 문서(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한 수원 들목 조씨 집안의 두 여성이 입후를 세울 수 있던 것도 17세기 이후 형망제급이 약화되면서 입후가 보편화된 사회이기에 가능하였다.

건륭 18년 8월 일 예조입안

이 입안은 후사를 위한 것이다. 예조에서 이번에 올린 신목(申目)에, "'고인 통덕랑 조정우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자, 그의 부인 이씨가 남편의 10촌 형 정기(廷琦)의 세 번째 아들 상존을 후사로 세우고자 소장을 올렸습니다.'고 하여서 이에 따라 양쪽 호구를 검토해 보니 조상존이 호적에 올라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씨가 올린 소지의 내용은 '저의 남편은 처와 첩에 다 아들을 남기지 않은 채로 죽었으므로 제 남편의 동성 10촌 형 조정기의 셋째 아들 상존을 후사로 잇고자 양가가 동의하니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후사 세울 일로 아뢰는 바입니다.'고 하였고, 유학 조정기의 소지에는 '동성 10촌 동생 조정우가 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저의 셋째 아들 상존을 후사로 잇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문서를 올리니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후사 세울 것으로 아뢰는 바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씨가 문서로 올린 진술서에, '남편이 처와 첩에 다 아들이 없이 죽어서, 남편의 동성 10촌형 정기의 셋째 아들 상존을 후계로 잇고자 하여 양가가 합의해 소장을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고 하였고, 조정기의 조목(條目)에 '동성 10촌 동생 정우가 처와 첩에 다 아들이 없이 죽어서 셋째 아들 상존으로 뒤를 잇게 하고자 하여 양가에서 동의해 소장을 올린 것이 분명합니다.'고 수록해 있고, 조정우와 조정기 등의 문장(門長)인 유학 조한규의 조목에 '조정우가 처와 첩에 다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그의 처 이씨가 남편의 동성 10촌 형 정기의 셋째 아들 상존을 후사로 잇고자 하여 양가가 동의해 소장을 올린 것이 분명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소지와 이씨의 진술서, 조목에 의거하여 상고해 보니, 『경국대전』「입후」조에 '본부인과 첩에 다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해 동종의 자손을 세워 후계로 삼는다.'고 하였고, 주(註)에 '양가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우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관아에 고해야 한다.'고 실려 있으니 위의 조상존을 계후로 삼는 것이 어떠할지를 여쭙습니다."는 내용에 대하여, 건륭 18년 9월 3일에 동부승지 신(臣) 임순(任珣)이 담당하여 국왕의 결재가 있었기에 이에 의거하여 입안함.[20]

그리고 두 여성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다. 두 여성의 선택으로 들목 조씨 집안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조상존의 아들 조만원(趙萬元 : 1762~1822), 손자 조학년



숙부인 이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교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조정우의 부인 이씨는 조만원을 양자로 입후하였고, 조만원이 형조판서가 되자 조정우는 이조참판에, 이씨는 정부인으로 추증되었다

(趙鶴年 : 1786~1854)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다. 조학년은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와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이후 조학년 대에 야목리로 들어왔고, 야목리의 조씨들을 들목 조씨라고 일컫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조만원이 병조참판이 되어 승승장구한 덕분에 조정우는 1809년(순조 9) 통정대부 이조참의에 추증되고, 이씨는 숙부인으로 추증되었다. 1821년(순조 21) 조만원이 형조판서가 되자 다시 조정우는 이조참판에, 이씨는 정부인으로 추증되었다.[21]

4. 재산 상속 문서 속의 여성

현재 수원에서 발굴된 재산 상속 관련 문서는 2건이다. 이하부(李夏溥) 남매 분재기(分財記)와 들목 조씨 집안의 분재기이다. 모두 재주(財主) 사후에 자식들이 재산을 나눈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화회문기' 란 부모 사후에 상속 대상자들이 모여서 분쟁 없이 부모 재산을 서로 나눈다는 뜻이다. 상속 대상자들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의 유언이나 유교에 따라 이를 명문화하거나, 부모가 사전에 미리 작성해 둔 문서에 의거해 재산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나눈 후에는 각자 그 결과에 승복하였다.

조선시대 부모의 재산은 여러 형태로 자녀들에게 분배되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부모가 전 재산을 직접 당사자에게 나누어 주는 경

우와 혼인이나 과거급제, 관직 획득, 득남 등 축하할 사유가 생겼거나 효도나 병간호 등을 기특하게 여겨 일정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였다. 부모 사후에는 앞서 소개했듯이 상속 대상자들이 논의와 타협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경우였다.

『경국대전』(1485년 반포)에서 규정한 재산상속은 자녀균분상속이었다. 적처의 소생일 경우 장자, 중자(衆子), 딸의 구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제사를 받드는 승중자(承重子)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 주었다. 첩에게서 난 자식의 경우 양녀 소생이면 적자녀의 7분의 1, 천인 소생이면 10분의 1만 분배하도록 하였다. 곧 아들과 딸의 차별은 없으며, 서얼이냐 아니냐의 차별만 존재하였다.[22] 서얼도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양인이냐 천인이냐의 구별이 중요하였다.

그렇다면 수원 지역에서 여성들은 상속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을까? 오늘날 수원박물관에는 이하부 남매의 분재기가 소장되어 있다. 1713년(숙종 39) 10월 26일에 작성된 화회문기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매들이 재산을 나누었다. 화회문기의 첫머리는 '강희오십이년계사시월이십육일동생등화회문기(康熙五十二年癸巳十月二十六日同生等和會文記)'로 되어 있다. 먼저 이 문서에 실린 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노비·전답을 고르게 나누어 갖되, 제사를 받드는 항목은 선대로부터 일찍이 번갈아 지낸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전례에 따라 기제사와 묘제는 종가가 단독으로 담당해야 하므로 모두의 의견에 따라 (노비·전답을) 더 내주도록 한다. 서질 구(構)의 몫은 마땅히 법전에 따라 규정된 몫대로 나누어 주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다가 가계마저 점차 기울어져 살아가기 어려우니 정리상 불쌍함을 이길 수 없으므로, 상의하여 추가로 기록해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한다. 현재 파악하지 못하여 빠트린 노비는 나타나는 대로 나누어 갖도록 하며, 묘지기 노비의 경우에는 차후에 태어난 노비 모두 영구히 (묘지기 노비로) 정한다. 나중에 자손 가운데 만일 서로 다투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시비를 가리도록 한다.

이 화회문기의 서문에서 밝힌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노비와 전답을 자식들이 고르게 나누어 갖는다. ② 기제사와 묘제사는 종가에서 단독으



이하부 화회문기(수원박물관 소장)

로 지내며, 제사비용을 위해 노비와 전답을 더 떼어 준다. ③ 서조카의 몫은 법전의 규정대로 나누어 주어야 하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계도 어려우므로 고르게 나누어 준다. ④ 화회문기를 작성할 당시 파악되지 못한 노비는 나타내는 대로 서로 나누어 갖는다. ⑤ 묘지기 노비의 경우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서로 나누어 갖지 말고 영구히 묘지기 노비로만 삼도록 한다. 묘지기 노비의 후손들이 태어나더라도 서로 나누어 갖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선대의 묘소를 지키는 노비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였으며, 이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불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재산 분재에 참여한 사람은 딸 좌랑(佐郞) 이평(李坪)의 부인 이씨, 아들 유학(幼學) 이하부, 첩의 아들 진사 이민부의 아들 구(構), 첩의 딸 병마절도사 우서규(禹瑞圭) 부인 등 총 4명이었다. 첩의 아들 진사 이민부 대신 아들 구가 참여한 것은 서문에 나타나 있듯이 일찍 부모를 잃었기 때문이다. 집필(執筆)은 외손 이봉진(李鳳鎭)이 거행하였다.

이하부 남매의 화회문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묘지기노비질[墓直奴婢秩], 봉사조(奉祀條 : 제사비용), 자식들의 몫(딸, 아들, 첩의 아들, 첩의 딸)이다. 곧 묘지기, 제사비용, 그리고 남매들의 몫을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의 특징은 자식들의 몫을 기재할 때에 선남후녀(先男後女)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누나 · 남동생의 순서로 기재하였다. 18세기 전반이지만, 이전 시기의 관행인 남자를 먼저



쓰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문서의 내용을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1713년 이하부 남매 분재기의 내용

구분		논(두락)		밭(두락)[23]		노비(구)		신노비(구)	기타	비고
묘지기						14				
봉사조		224.6		44		14			와가(瓦家) 1	모변전래 포함
딸		196		146.7		27		4	공대(空垈)	
아들		204		145		25		4		중간 미상
첩 아들	몫	90	180.2	82	157	9	28	2		
	가록(加祿)	90.2		75		19				
첩 딸		43		42.2		5				

〈표 3〉에서 보듯이, 분배 대상이 된 재산은 노비, 논, 밭, 기와집, 공대(空垈 : 집지을 터)이며, 혼인할 때 지급된 신노비(新奴婢)도 함께 기재되었다. 재산을 분배한 내용을 보면, 산소를 수호할 묘지기는 노비 14구를 배정하였다. 제사를 받드는 비용[奉祀條]은 논 224.6두락, 밭 44두락, 노비 14구, 기와집 1좌를 배정하였다.

그런데 봉사조에는 '선비이씨변전래(先妣李氏邊傳來)' 라 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인 노비와 전답이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부변전래(父邊傳來) · 모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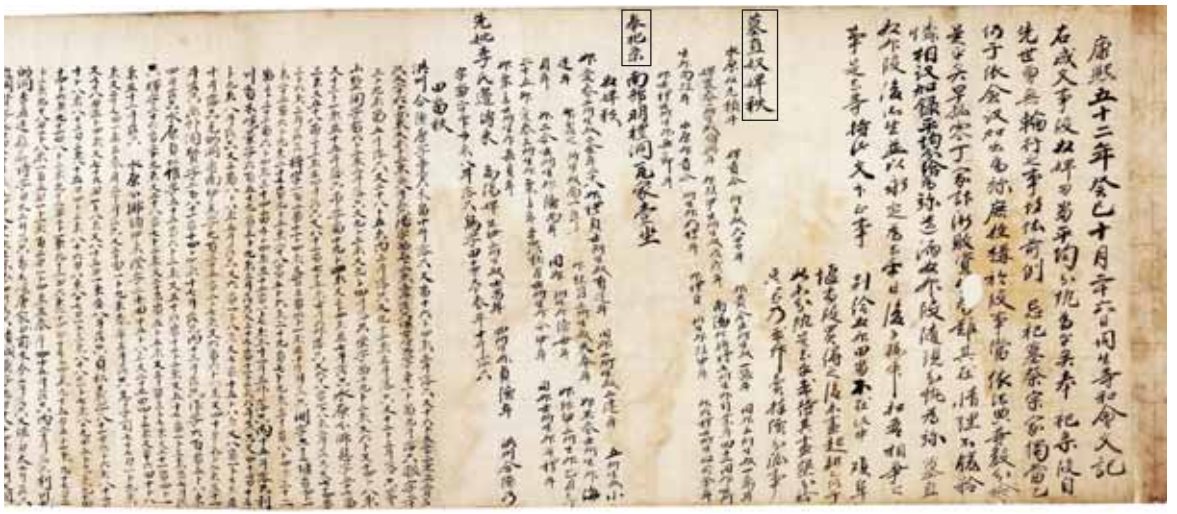


이하부 남매 화회문기의 묘직노비질, 봉사조, 자녀들의 분깃 부분(수원박물관 소장)

래(母邊傳來)·처변전래(妻邊傳來)·매득(買得) 등 소종래(所從來 : 내력)에 따라 재산을 따로 관리했는데, 18세기 초반에도 여전히 소종래별로 따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앞장에서 소개한 수원 나씨 집안으로 혼인한 철원 송씨(鐵原 宋氏 : 1848~1929)의 경우도 임종 직전에 며느리인 충주 지씨(忠州 池氏 : 1880~?)에게 따로 전답을 떼어 주었다. 곧 시어머니가 본인 재산을 며느리에게 일부 상속한 것으로, 1920년대 말에도 여성이 본인 재산을 따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딸 좌랑 이평의 부인 이씨의 몫은 논 196두락, 밭 146.7두락, 노비 27구, 신노비 4구, 집 지을 땅인 공대 등이다. 아들 이하부의 몫은 논 204두락, 밭 145두락, 노비 25구, 신노비 4구이다. 첩의 아들 진사 이민부의 아들 구의 몫은 서문에서 보았듯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계도 점점 가난해지므로 원래 몫에다 추가 몫[加錄]을 더 배정하였다. 그래서 논 180.2두락, 밭 157두락, 노비 28구, 신노비 2구이다. 첩의 딸 병마절도사 우서규 부인 이씨는 논 43두락, 밭 42.2두락, 노비 5구이다.

이 문서에 나타난 재산 분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딸과 아들의 차별 상속이다. 〈표 3〉에서 보면 딸과 아들의 몫은 거의 균분상속이라 할 수 있다. 노비



의 경우 아들이 2구 적으나, 문서 중 여기에 해당하는 일부를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아마도 27구씩 같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분상속이나 서문에서 "노비 · 전답을 고르게 나누어 갖되, 봉사조는 선대로부터 일찍이 번갈아 지낸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전례에 따라 기제사와 묘제는 종가가 단독으로 담당해야 하므로 모두의 의견에 따라 (노비 · 전답을) 더 내주도록 한다."고 했듯이 봉사조를 제사를 받드는 종가로 귀속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봉사조는 아들 이하부에게 귀속된다고 하겠다. 더구나 종가로 판단되는 '기와집' 1좌가 봉사조에 들어가 있으므로 종갓집도 아들 이하부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아들 이하부의 몫은 봉사조까지 합쳐 보면 논 428.6두락, 밭 189두락, 노비 39구로써 논의 경우 딸 이씨의 두 배 이상이 된다. 곧 실상은 차별상속이었던 셈이다.

둘째, 첩 자식의 경우 아들과 딸의 몫에 차이가 매우 크다. 추가 몫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몫만 비교해 봐도 첩의 아들이 첩의 딸보다 두 배 정도 더 분배받았다. 곧 첩 자식의 경우 아들과 딸의 차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첩의 딸에게

는 신노비가 분배되지 않았다. 아마도 첩의 딸이 정실부인이 아니라 첩(妾)으로 들어가서 신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1713년(숙종 39) 이하부 남매의 분재기를 소개하였다. 이하부 남매의 분재기 1건이 수원 지역의 재산상속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 많은 사례가 조사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하부 남매의 분재기는 18세기에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재산상속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곧 봉사조를 늘려 나가면서 아들우대상속, 나아가 장남우대상속으로 진행되던 다른 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 점은 수원 지역 역시 이하부 남매 분재기에서 확인했듯이, 18세기 무렵 이미 제사에서 딸들이 배제되었고 재산상속에서도 점차 차별받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5. 부부 사이와 가족생활

1) 세 번 혼인한 여성, 쫓겨난 여성

앞서 소개했듯이 『안동권씨성화보』(1476년)에는 여성의 재혼 기록이 17건, 『문화유씨가정보』(1565년)에는 18건이나 나타난다. 양반가에서 여성의 재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여성의 재가를 권장한 것은 아니었다. 『문화유씨가정보』의 서문에는 "개가한 여성의 경우 재가한 사실을 덮어 주지 않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힌 것은 누구다 다 아는 사실을 덮어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24]고 되어 있다. 곧 여성의 재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재가와 관련하여 『경국대전』에는 눈길을 끄는 조항이 세 가지 있다. ① 행실이 바르지 못한 부녀 및 재가한 부녀의 소생은 동반직과 서반직에 임용하지 못하되, 증손 대에 이르러는 위의 각 관사 이외의 관직에 임용되는 것을 허용한다.[25] ②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 자손은 문과, 생원 ·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26] ③ 사

족의 부녀로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세 명의 남편을 바꾸어 맞은 자도 같다.)은 장부에 기록해 두고 이조 · 병조 · 사헌부 · 사간원에 공문을 보낸다.[27]

이 세 가지 조항은 여성의 재혼을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재가하거나 세 번 혼인한 여성의 경우 그 아들이나 손자의 과거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아들의 관직 진출을 막고 손자의 관직 진출을 일부 제한하는 등 후손에게 큰 불이익을 주었다. 또 세 번 혼인한 경우에는 본인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재혼은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의 두 족보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재혼을 감행하였다.

이 점은 수원의 여성들도 유사했던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수원 지역 여성의 재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기록이 한 건 남아 있다. 바로 박자수(朴自秀)의 딸이다. 박자수의 딸 박씨는 11세의 나이로 김종안과 혼인하였다. 박씨는 남편 김종안이 죽자 다시 첨지중추부사 황기곤과 재혼하였다. 박씨는 두 번째 남편마저 죽자 전(前) 현감(縣監) 진승각과 세 번째 혼례를 올렸다.[28] 여성으로서 세 번이나 혼인을 한 것이다. 그것도 남편들이 첨지중추부사나 현감 등 양반이었으므로 박씨도 양반 여성으로 판단된다.

1476년(성종 7) 박씨의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사헌부(司憲府)에서 들고 일어났다. 사헌부에서는 즉각 박씨를 『경국대전』에 따라 장부에 기록한 후에 이조(吏曹) · 병조(兵曹)와 사간원(司諫院)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조와 병조는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이며 사간원은 사헌부와 함께 '양사(兩司)'로 불리면서 관직에 등용될 사람들의 신원조사를 담당했으므로, 박씨의 아들과 손자가 관직에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박자수의 딸 박씨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박자수의 딸 박씨의 사례는 15세기 후반 수원 지역 양반 여성들의 처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박씨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지역 여성들처럼 조선 전기 수원 지역에서도 양반 여성의 재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박자수의 딸 박씨가 세 번 혼인을 할 무렵 수원 출신인 신씨(申氏)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 고통받고 있었다. 신씨는 황효원(黃孝源 : 1414~1481)의 첫 번째 부

인이다. 황효원은 1455년(세조 1) 세조의 즉위에 협력한 공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봉해진 공신이었다. 이후 승진을 거듭해 이조참의 및 호조참판을 거쳐 상산군(商山君)에 봉해졌다. 한 마디로 고위 관료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황효원의 졸기(卒記)에는 "집안일을 처결하는 데 법도(法度)가 없어서 처 · 첩이 뒤바뀌는 등 죽을 때까지 소송이 그치지 아니하였다."[29]고 되어 있다. 졸기에까지 오를 정도로 황효원의 처 · 첩 문제는 성종과 사간원 · 사헌부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황효원이 부인 신씨 이외에 임씨(任氏) 및 여자종 소근(이유기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데에 있다. 더구나 여자종 소근을 첩으로 삼지 않고 부인으로 삼은 일이었다.

먼저 당사자인 황효원의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황효원의 설명에 따르면, 본인은 처음에 신씨와 혼인했는데 신씨가 배에 병이 있어 아들을 낳지 못해 어머니의 재촉으로 하는 수 없이 신씨를 버리고 임씨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런데 임씨가 아들을 낳자 교만해지고 어머니에게까지 불효하여 임씨를 버리고 다시 신씨와 재결합했다는 것이다.[30]

이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의 입장은 달랐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조사에 따르면, 황효원은 신씨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임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임씨가 낳은 두 아들을 정실부인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신씨를 버린 것처럼 꾸미고, 임씨를 후실로 삼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씨가 죽자 공신(功臣)으로서 하사받은 여자종 소근을 또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씨와 여자종은 첩이 되어야 하나 황효원이 간계를 부려 두 여성을 후처로 삼았다는 것이다.[31]

정실부인 신씨의 오빠 신숙문이 황효원이 까닭 없이 처를 버린다 하여 수원부에 송사를 낸 시점은 1476년(성종 7)이다.[32] 사헌부에서는 신숙문이 소장을 내었으므로 신씨가 쫓겨난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임씨를 후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33] 오빠 신숙문이 수원부에 송사를 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씨는 수원 지역 출신의 여성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당시 신씨의 오빠 신숙문은 송사에서 이기지 못하였다.[34] 황효원의 말에 따르면, 신씨를 이유 없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타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성종과 사간원 · 사헌부의 지루하면서도 집요한 논쟁 끝에 임씨는 후처로 인정되고, 소근(이씨)은 난신적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첩으로 인정되었다.[35] 특히 수원 여성 신씨는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당했다가 남편의 요청으로 재결합한 신씨의 사례는 조선 전기 적처의 불안정한 지위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박씨와 신씨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조선 전기 수원 지역의 양반 여성들은 한편으론 재혼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혼을 당하거나 재결합을 하는 등 부부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아직도 여성의 재혼이 가능할 정도로 열린 사회였다는 점, 열려 있는 사회이던 만큼 정처의 지위도 불안정한 사회였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에서 중혼(重婚)을 금지하면서 정처의 지위와 위상도 확립되어 나가지만, 그런 만큼 여성의 재혼은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 갔다. 조선 중기 학자 이식(李植)은 양반가에서 남편과 부인이 지켜야 할 책무에 대해 중요한 언급을 하였다. 곧 "우리나라는 양반 여성이 개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대부가 정처(正妻)를 버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36]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식의 지적처럼 조선에서는 양반 여성이 개가할 수 없는 굴레가 있다면, 남성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부인을 함부로 내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수원 지역의 양반 여성들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적응해 나가면서 더 이상 재혼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혼당하지 않는 삶 속에 안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 여성, 호(戶)의 대표자가 되다!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호구(戶口)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모아 지지(地支) 가운데 자(子) · 묘(卯) · 오(午) · 유(酉)가 붙은 해에 호적대장(戶籍大帳)을 작성하였다. 서너 부를 만들어 한 부는 해당 읍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호조(戶曹), 한성부(漢城府), 해당 도(道)의 감영 등에 보관하였다.

호적대장이 관아나 중앙행정관서에 비치된 호구 문서라면, 개인 집에는 호구단자(戶口單子)나 준호구(準戶口)가 보관되었다. 호구단자는 호의 대표자인 주호(主

戶)가 호구 현황을 적어서 제출한 문서로, 주호(主戶), 주호의 부인, 슬하의 가족, 노비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였다. 그리고 주호와 주호의 부인은 각각 부 · 조 · 증조 · 외조를 반드시 기재하였다. 호구단자는 관에서 편제한 통수와 호수의 결과를 적어서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37]

준호구는 호적대장에 준하여 관에게 발급해 준 문서이다. 준호구는 원칙적으로 관아에 비치한 호적대장의 내용을 서무담당자인 향리가 베껴서 수령의 결제를 받아 발급하였다.[38] 준호구에는 발급시기와 발급처가 있으며, 내용은 호구단자와 똑같다. 1855년(철종 6) 김태균이 발급받은 준호구[39]를 보면 첫 줄이 "함풍(咸豊) 5년 월 일 화성부"이다. 두 번째 줄 이하는 "을묘식년에 만든 호적대장을 고찰해 보니 장적 안에 남곡면 백곡리에 사는 제73통 제1호 유학 김태균은 나이가 46세 경오생이고(중략)"로 시작한다.

호적대장을 비롯하여 호구단자나 준호구는 조선시대 가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문서이다. 다만 호적의 '호(戶)'는 실재하는 가족의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호적은 징세와 통치를 위한 장부로 작성되었으므로 의도적인 편제가 내포되어 있어 호적에 오른 가족의 형태가 실재하는 가족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단자나 준호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여성이 주호(主戶)로 나선 경우이다. 호적에는 호의 대표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기재하지 않는다. 맨 앞에 등재된 사람을 호의 대표자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1738년(영조 14) 한성부에서 함평 이씨 함성군파 이수구(李壽龜 : 1696~1734)의 부인 안동 김씨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를 살펴보면 안동 김씨가 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곧 준호구의 맨 앞에 등재된 사람이 "고 어모장군 행오위도총부 경력 이수구 처 김씨"로서, 바로 안동 김씨였다. 당시 안동 김씨의 나이는 44세였다. 안동 김씨와 함께 기재된 가족은 아들 선략장군 행 선전관 이창운(26세), 며느리 의령 남씨(29세), 아들 이명운(23세), 며느리 전주 유씨(25)이며, 노비 총 19구이다.[40]

남편 이수구는 1723년(경종 3) 무과에 급제한 뒤에 오위도총부 도사(都事 : 종5품), 훈련원 첨정(僉正 : 종4품), 충청도 병마우후(兵馬虞候 : 종3품), 오위도총부 경



함평 이씨 함성군파 이수구의 부인 안동 김씨에게 발급한 준호구(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력(經歷 : 종4품) 등 내직과 외직을 거쳤다. 이수구는 1720년(숙종 46)에 수원도호부에서, 1732년(영조 8)에 한성부에서 준호구를 발급받았다. 이로 보아 이수구는 관직생활을 위해 한양에도 거처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호의 대표자로 존재하는 것은 한시적이었고 주호

로 머무르는 기간도 한시적이었다.[41] 18세기 무렵 호적에서 주호 승계에 관한 원칙은 "과부로서 집안일을 주관하더라도 아들이 장성하면 그 아들을 주호로 삼는다."[42]이다. 곧 여성은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주호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아들이 성년이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주호로 남아 있는 사례가 많았다.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을 검토해 보면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중반까지 여성 주호의 비중이 1606년 2%에서 1759년에는 10%까지 치솟는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다.[43]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서 어머니가 주호 자리를 차지한 사례는 오히려 18세기 후반에 심화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에게 호를 승계하지 않고 호적상의 주호로 존재하는 것이 양반가의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다.[44]

이수구의 부인 안동 김씨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이수구의 부인 안동 김씨가 준호구를 발급받은 시기는 남편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나서였다. 남편이 사망한 이듬해인 1735년(영조 11)에는 이수구의 아들 이창운이 주호로 등재되었다. 1735년 한성부에서 발급받은 준호구를 보면, '유학 이창운' 이 가장 먼저 등재되어 있다. 가족으로는 '모시고 있는 어머니[奉母]' 안동 김씨(41세)와 처 의령 남씨, 동생 이명운과 제수 전주 류씨가 있었다. 곧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는 맏아들 이창운이 주호였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1738년에는 어머니가 주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 두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로 기재되었다. 그 사이 변한 것이 있다면 거주지가 한성부 서부 신문외팔각정(新門外八角亭)에서 한성부 서부 양생방(養生坊)으로 이사한 점, 아들 이창운이 '유학' 에서 '선략장군 행 선전관' 이라는 직함을 띠고 있는 점, 솔거노비 27구 및 외방노비 3구를 보유했다가 솔거노비가 19구로 줄어든 것이다.

안동 김씨의 사례는 주호 승계에서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호적대장에서 여성이 주호였다가 그 아들로 바뀐 사례, 그러다가 아들이 죽은 후 다시 그 어머니로 바뀐 사례는 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이 주호였다가 아들이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주호로 나선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어머니가 주호였

다가 아들이 주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성 주호는 한시적인 성격이 짙어 여성 주호의 존재가 그대로 여성의 지위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의 사례처럼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이 주호를 승계했다가 다시 본인이 주호로 나서는 사례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여성이 주호가 되는 경우가 꼭 남편이 사망한 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연유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안동 김씨가 남편 사후에 실제로 집안일을 경영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조선 후기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판단된다.

3) 남편에 의해 여종으로 팔려 간 아내와 딸

수원 지역 하층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두 건의 고문서가 있다. 수원의 들목 조씨 집안에 소장된 문서로서 흔치 않은 사례이므로, 한 건의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광 29년 정월 31일 이선달 댁 명문

이 명문은 지극히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처 전 조이 연령 36세 만림과 첫 소생 순림 나이 9세의 모녀 몸을 위의 댁에게 전문(錢文) 35냥을 받고서 영구히 내놓아 파니, 이날 이후로 자손이나 족속 중에 시비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분별하여 정할 것[45]

이 문서는 1849년(헌종 15) 정월에 이시대(李時大)가 부인 전만림(田萬林 : 36세)과 첫째인 딸 순림(順林 : 9세)을 이희천(李熙天)에게 35냥을 받고 판 문서이다. 이시대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자 아내와 딸을 팔아 버린 것이다. 본래 천인이 아니었던 부인과 딸이 가난 때문에 팔려 가 종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여성이 하인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여자종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



이시대가 아내 전만림과 딸 순림을 팔며 작성한 명문(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자면 남편 이시대가 본인을 팔지 않고 아내와 딸을 판 것은 남자종보다 여자종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19세기 중반에 노비가 사환이나 가내노동 중심으로 쓰이던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이 무렵 양반들은 농사일 등 경제적인 부분은 품삯을 지불하는 고용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노비의 기능은 사환이나 가내노동으로 고착화되어 갔다. 남자종은 주로 사환을, 여자종은 가내노동을 담당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남자종보다는 여자종이

쓸모가 많았으므로 더 값어치가 높고 매매도 활발했던 것이다.

이렇게 팔린 모녀는 다음 해인 1850년 12월에 다시 들목 조씨 집안으로 35냥에 팔려 왔다. 남편이 팔 때에는 '재주(財主) 이시대' 였으나, 이희천이 팔 때에는 '비주(婢主) 별장 이희천' 이었다.[46] 모녀는 1년 사이에 양인에서 여종으로 신분이 하락하고 만 것이다. 참고로 이희천의 문기가 들목 조씨 집안에 보관된 연유는 노비를 사들일 때 해당 노비의 소종래를 알기 위해 옛 문기들도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모녀가 팔려 갈 당시에 가지 않겠다고 저항했는지, 아니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남의 집 여종으로 가는 것에 선뜻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두 여성이 가난 때문에 남편이자 아버지에 의해 여종으로 팔려 나가는 이 사례를 통해 가난한 양인 이하 여성 앞에 놓인 현실이 대단히 험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양인 이하의 신분에서 가족이란 해체되기 쉬운 위태로운 상태에서 유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 전쟁과 효부 · 열녀의 탄생
2.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와 여성

정해은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03 조선시대 수원 여성을 둘러싼 사건

1. 전쟁과 효부 · 열녀의 탄생

1) 수원의 효부와 열녀

조선시대 수원 여성의 삶을 알기 위해 주목할 자료가 효부와 열녀에 관한 기록이다. 조선사회는 건국 초기부터 여성의 부덕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효녀나 정절을 지킨 여성들의 행적을 수록한 책들을 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1434년)를 꼽을 수 있으며, 인문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도 「열녀」조를 두었다. 또 광해군 초기에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俗三綱行實圖)』(1617년)를 발간해 임진왜란 때의 효자 · 충신 · 열녀들의 행적을 기렸다. 1736년에는 중국의 여성교육서인 『여계』 · 『여논어』 · 『내훈』 · 『여범찰록』 4책을 합본한 『여사서(女四書)』의 한글본이, 1797년에는 『오륜행실도』가 간행되었다.

이 책들을 통해 여성에게 요구한 덕목은 혼인한 여성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었다. 곧 시부모를 잘 모시는 며느리, 순종적이고 의무를 다하는 부인, 현명하고 자상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퇴계 이황(李滉)의 저술로 전해 오는 『규중요람』에 의하면, "가정에 있을 때에는 효녀가 되고, 결혼하면 공손한 부인이나 정숙한 처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현명한 어머니가 되며, 불행하게도 과부가 되



정려문(수원박물관 소장) 정려문은 충신과 효자 · 효부 · 열녀 등을 포창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단장하고 그 약자에 충, 효, 열과 함께 직함을 새겨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우는 문을 말한다. 유택명과 증손자 유의의 효자정려문이다.



안산현 김진표 처 진주 정씨 열녀 정려문(안산시사편찬위원회 제공)

면 정녀(貞女)가 되고, 환난을 당하면 열녀가 되어 후세에 여자 중의 으뜸이 되는 것" 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국가에서는 교화를 위해 각종 혜택도 부여하였다. 예컨대, 열녀를 기리기 위해 그 집이나 마을 앞에 붉은 문[정려 : 旌閭]을 세워 주거나, 쌀이나 옷감 등 각종 물품으로 포상하였다. 또 열녀를 배출한 집이나 그 후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심지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듯 여성의 행실이 집안의 영예는 물론 생활에 큰 보탬이 되자 주변 사람들에 의해 여성의 희생이 극단적으로 강요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효부나 열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여성의 삶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사의 중심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수원 지역 열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정형화된 삶을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해 이해하다 보면 그 어떤 자료 못지않게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효부나 열녀들은 기록으로 남은 여성들이므로 더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수원의 효부나 열녀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각종 지리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년),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편년미상, 19세기 추정),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1899년)[1] 등이 있다. 〈표 1〉에서 정리했듯이 『여지도서』에 13명, 『수원부읍지』에 13명, 『수원군읍지』에 17명이 올라 있다. 내용을 보면 『여지도서』와 『수원부읍지』는 완전히 일치한다. 편찬 시기가 『여지도서』가 앞서므로 『수원부읍지』의 내용이 『여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원군읍지』에 실린 인원이 앞 시기보다 늘어난 이유는 1813년(순조 13)에 정려를 받은 효부 윤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편찬 시기가 더 후대여서 후대 인물들이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조선시대 수원의 효부 · 열녀 인원

(단위 : 명)

서명	여지도서	수원부읍지	수원군읍지
효부	3	3	4
열녀	10	10	13
계	13	13	17

그런데 이 지리지들보다 앞선 시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등에는 항목으로 효부조나 열녀조가 아예 없다. 이에 비해 17세기 후반의 지식인 유형원(柳馨遠 : 1622~1673)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년)를 편찬하면서 효부조나 열녀조를 두어 각 지역의 효부 및 열녀를 기록했는데, 수원의 효부나 열녀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유형원이 『동국여지지』를 편찬할 당시 수원 지역에서 효부나 열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현전하는 여러 지리지들을 조사한 결과 수원

지역 여성으로서 열녀로 기록된 최초의 인물은 상주목사 한명윤의 부인 밀양 박씨이다. 밀양 박씨는 임진왜란 때 절개를 지킨 여성들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광해군 대에 간행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년)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동국여지지』에는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수원에서 효부나 열녀가 기록으로 정리되었을까? 수원의 효부나 열녀가 나오는 자료는 영조 대에 간행된 『여지도서』(1757~1765년)부터다. 〈표 2〉에서 보듯이 수원의 효부나 열녀에게 정려가 내리는 시점이 17세기 후반이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수원에서 효부나 열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는 17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되며, 점차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도 지역을 빛낸 인물로 주목했다고 여겨진다.

2) 임진왜란 · 병자호란과 열녀

〈표 2〉에서 각종 지리지에 나오는 수원 지역 효부 · 열녀의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이 표를 근거로 할 때 수원에서 효부나 열녀로 추앙받던 인물은 총 17명으로 효부가 4명, 열녀가 13명이다. 이 표에서 흥미로운 사항은 수원의 효부나 열녀 가운데 임진왜란 · 병자호란과 관련된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조선시대 열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열녀들의 행적은 크게 남편 사후에 수절한 채 평생 시부모를 봉양한 경우, 남편이 죽자 음식을 끊고 따라 죽거나 목매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 경우, 남편이 병들었을 때 정성껏 돌본 경우, 죽은 남편의 여묘를 살고 종신토록 수절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2] 수원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전쟁의 참화에서 절개를 지킨 경우였다.

〈표 2〉에서 보듯이 17명 가운데 9명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련된 여성들이다. 특히 병자호란과 연관을 맺은 여성이 7명이나 되어서 주목된다. 그러면 수원의 효부나 열녀가 전쟁, 특히 병자호란 중에 많이 배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여지도서』와 『수원부읍지』에 기록된 조선시대 남성 인물 56명 가운데 무인만 35명(63%)이며, 이 중 병자호란과 관련된 인물이 14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병자호란과 수원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했음을 알려

〈표 2〉 조선시대 수원의 효부 · 열부[3]

구분	이름	인적사항	정려 시기	정려 위치	특기사항
효부	수성 차씨	김복량 처		견당면(부) 옹당면(여)	임진왜란
	함양 박씨	이규영 처	1671년(현종 12)	권선면	병자호란
	안동 김씨	최종두 처			
	윤씨	노재중 처	1813년(순조 13)		
열녀	밀양 박씨	한명윤 처		쟁홀면	임진왜란
	함안 이씨	이자견(李自堅) 처(부, 여) 이자수 처(군)			병자호란
	나주 박씨	이정현(李廷賢) 처(부, 여) 이정견(李廷堅) 처(군)			병자호란 함안 이씨 며느리
	용인 이씨	이후민 처			병자호란 함안 이씨 며느리
	(처자) 용인 이씨	이자견(李自見) 처(부) 함안 이씨 손녀(군)	1670년(현종 11)	저옹면	병자호란
	안산 이씨	이형부 처	1666년(현종 7)	우문(牛門)	병자호란
	충주 김씨	박제동 처		쟁홀면	
	순흥 안씨	최노진 처		남곡면	병자호란
	연안 이씨	최거원 처		남곡면	
	수원 최씨	이정립 처			
	홍씨	한우상 처			
	밀양 박씨	나계술 처			
	기계 유씨	박규연 처			

준다.

조선 전기에 수원은 거진(巨鎭)이었으나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사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수원의 풍부한 물력과 군사력 그리고 독성산성의 존재는 임진왜란기 수원이 적침에도 불구하고 도성방어처로 부각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서울 수복을 위한 근거지로 활용되었다.

수원을 군사적으로 성장시킨 계기는 단연 총융청이었다. 인조 즉위 직후부터 경기의 중심지이자 중진(重鎭)으로 평가된 수원은 총융청에 소속된 이후 서울의 최고 정예부대인 훈련도감군이나 다름없었다. 이괄의 난을 비롯해 정묘 · 병자호란





『수원부읍지』에 기록된 효부와 열녀





『수원군읍지』에 기록된 효부와 열녀



한명윤과 부인 밀양 박씨의 정려를 모신 충렬문(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기의 활약으로 수원군은 효종 대에 이르러 훈련도감군에 버금간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정묘 · 병자호란기에 전군(全軍)이 참여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눈부신 활약상을 펼쳤으며, 그 결과 읍지에 정묘 · 병자호란과 관련된 인물이 상당수 오르게 되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들이 전쟁, 특히 병자호란과 관련이 깊은 것도 수원 지역이 병자호란과 관련이 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이 읍지에 올랐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여성은 두 명이다. 목사 한명윤(韓明胤)의 부인 밀양 박씨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남편과 함께 올랐다. 한명윤은 1592년 9월 영동현감으로 임명되어 해당 고을을 사수한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4] 이듬해 1593년 4월에 상주목사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적을 격퇴하다가 목숨을 잃었다.[5] 한명윤은 "일개 서생(書生)으로서 몸을 일으켜 적을 쳤다. 담략이 남보다 뛰어났고 성의를 다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활약하다가 끝내는 죽기에 이르렀으니, 옛날의 열사(烈士)에게 부끄러움

이 없다."[6]는 칭송을 받았다.

부인 밀양 박씨는 남편이 영동 수령으로 있을 때에 일본군이 들이닥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진관 윤선각이 선조에게 "한명윤은 한낱 서생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합니다. 그의 아내도 절부(節婦)로서 적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신이 한명윤을 보고 위로하였더니, 한명윤은 '이때에 감히 처자의 죽음을 말하겠는가.' 하여 신이 도리어 부끄러워하였습니다."[7]고 보고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남편이 박씨에게 만약 적이 쳐들어오면 멀리 도망치라고 했으나 박씨가 혼자 도망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한다. 적병이 이르자 관아 하인이 부인을 업고 도망가려고 하자 부인이 도망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찔러 죽었다고 한다.[8]

그런데 밀양 박씨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밀양 박씨가 서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서울 사람인 밀양 박씨의 정려가 왜 수원 지역에 내려졌는지 자세하지 않다. 그리고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1656년)에는 왜 오르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 아마도 유형원이 수원 지역을 조사할 당시 밀양 박씨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려가 17세기 후반 이후에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또 한 명의 인물은 수성 차씨이다. 수성 차씨는 남편 김복량이 임진왜란 때 의병(義兵)으로 출전하자 남편의 등에 글씨를 새겨 넣었다가 남편이 전사하자 그 흔적을 이용해 남편의 시신을 찾아 장사 지내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면서 지냈다.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섬으로 피난 가서 효성을 다하였다고 한다.[9]

병자호란과 관련한 여성은 총 7명으로 피난을 갔다가 죽음을 선택한 여성들이다. 함양 박씨(咸陽 朴氏)는 남편 이규영이 무과 출신으로 인조를 호종하다가 전사하자 시부모를 모시고 황해도로 피난 가다가 청병을 만나자 시가의 신주를 등에 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형부의 부인 안산 이씨(安山 李氏)는 병자호란 때 열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산중으로 피신하였으나 모자가 붙잡히게 되자 적에게 굴하지 않고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최노진의 부인 순흥 안씨(順興 安氏)는 병자호란

때 황해도로 피난하다가 적병이 오자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눈에 띄는 것은 병자호란기에 네 명의 여성이 함께 죽은 일이다. 이 네 명의 여성은 『여지도서』·『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의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 특히 함안 이씨와 (처자) 용인 이씨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다. 남편 이름과 활동 상황이 혼효되어 있어 여기서 어느 쪽이 맞는 내용인지 단언하기 어렵다.[10] 분명한 사실은 시어머니, 며느리 2명, 손녀 등 총 4명이 일시에 청 군사를 피해 물로 뛰어들어 죽었다는 점뿐이다.

이 밖에 박제동(朴濟東)의 부인 충주 김씨, 최거원(崔巨源)의 부인 연안 이씨, 대사간 이정립(李挺立)의 부인 수원 최씨, 한우상(韓雨商)의 부인 홍씨, 나계술(羅繼述)의 부인 밀양 박씨, 박규연의 부인 기계 유씨 등으로, 모두 남편이 죽자 음식을 끊고 따라 죽은 여성들이다.

17세기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 1563~1628)은 우리나라의 네 가지 자랑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절개라고 했다. 또 「열녀」라는 글에서는 임진왜란기 피난길에 나선 어떤 부인이 배를 타기 위해 뱃사공의 손을 잡게 되자 손이 더럽혀졌음을 비관하여 물에 빠져죽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장하다고 칭찬하였다.

여기 소개한 수원 지역 열녀들은 바로 이수광이 장하다고 칭찬하던 여성의 범주에 속한다. 정절을 위해 자결을 하고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도망가지 않던 여성들, 아내가 죽었는데도 국난의 극복을 위해 슬퍼하지 않은 남편의 모습 등 인간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소개한 여성들은 큰 용기를 가진 여성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 여성들의 죽음과 희생이 못내 아쉬운 것은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부추긴 죽음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2.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와 여성

『심리록(審理錄)』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정조 재위 25년간 발생한 중범죄 사

건에 대한 판례집이다. 사건의 개요, 처리과정, 판결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는 이 책은 18세기 후반 조선의 뒷골목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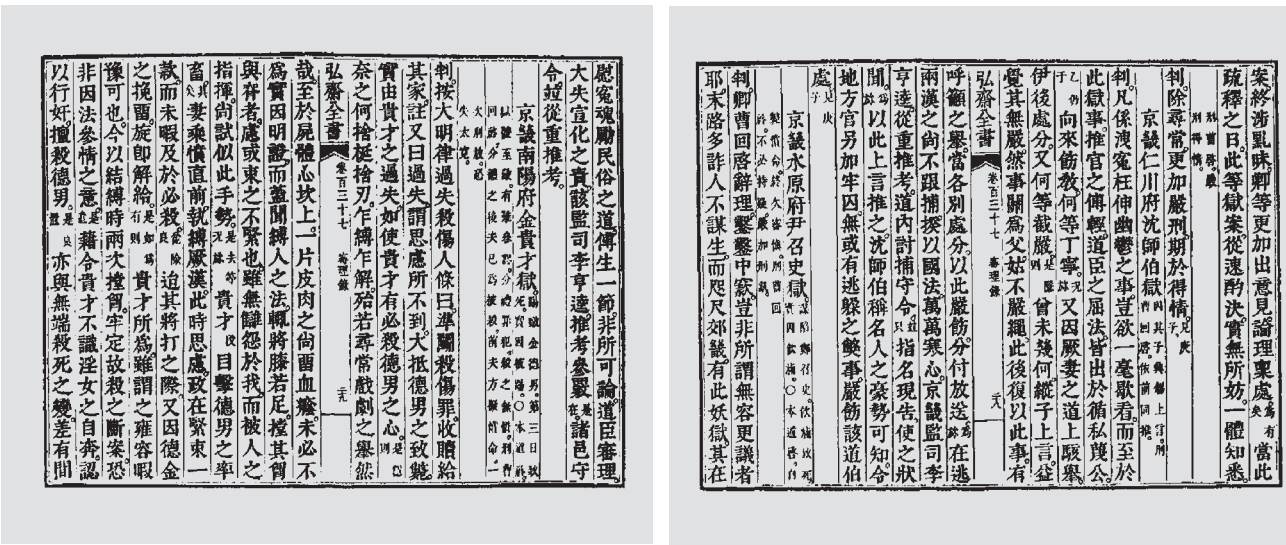
현재 『심리록』은 총 5종이 전한다. 이 가운데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규장각본의 『심리록』(규 1770)에는 총 1,112건의 사건이 실려 있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심리록』에 실린 1,112건 가운데 인명 범죄가 1,004건(90.3%)이나 차지하는데, 살인이 964건(96%)이며 자살이 40건(4%)이다. 범죄자의 성별은 남성이 1,072명이고, 여성이 40명이다.[11]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낮지만 여성 범죄자 4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9명이 모두 인명을 살상한 중범죄여서 주목된다. 곧 여성의 범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심리록』에는 수원 지역과 관련하여 두 건의 사건이 남아 있다.[12] 강화 · 개성 · 광주 · 수원 유수부 네 곳을 포함한 경기 지역의 사건은 총 117건이며, 이 중 사건이 많은 곳이 양주 11건, 광주(廣州) 10건이었다. 또 경기는 아니지만 전라도의 전주가 21건, 평양이 20건, 황해도의 해주가 18건이나 되었다.[13] 이것으로 볼 때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두 건만 기록된 점은 수원이 범죄 다발 지역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은 1782년(정조 6) 윤(尹) 조이[召史] 옥사와 1800년(정조 24) 이춘성(李春成) 옥사이다. 전자는 범죄자가 여성이며, 후자는 범죄자가 남성이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여성이었다. 이 두 사건의 전모를 추적해 나가면서 당대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윤 여인 옥사 _ 간음했다는 추문 때문에 자살한 여성

윤 여인 사건은 1780년(정조 4) 9월에 접수되어 최종 결과는 1782년 6월에 마무리되었다. 윤 조이는 황성욱의 첩[花妻]으로, '윤' 이라는 성(姓) 다음에 '조이' 라는 호칭이 붙은 것으로 보아 평민여성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공문서에는 신분에 따른 호칭을 기재했는데 기혼여성의 경우 양반 여성이면 성(姓) 다음에 '씨(氏)' 를 붙이고, 평민여성은 대체로 '조이' 를 붙였다. 그 기준은 여성의 아버지 신분이었다.



『심리록』에 수록된 윤 조이 옥사(『홍재전서』 권137)

윤 여인은 첩이 된 후 정실부인인 정(鄭) 여인이 눈엣가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박무신(朴戊申)이라는 남자를 사주하여 밤에 정 여인의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추문을 퍼뜨렸고, 결국 정실부인이던 정 여인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여 독을 마시고 죽었다. 조사결과 몸에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간수를 마시고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관찰사 이형규(李亨逵)는 수령들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앙에 보고하였다. 경기관찰사는 "요사스러운 무당이 화를 빚었고, 원통한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죽은 것입니다. 윤 여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끝내 옥사를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14]는 의견을 제시하여 보고하였다. 곧, 비록 윤 여인이 화를 빚었으나 정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죽은 것이므로 윤 여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형조(刑曹)의 의견은 달랐다. 형조에서는 "흑심을 품어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사주하였고 간수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일을 꾸몄으니, 윤 여인을 처형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15]고 보고하였다. 형조에서는 경기관

찰사와 달리 정 여인이 비록 자살했으나 자살 동기를 제공한 윤 여인을 무거운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가 어느 쪽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는지 궁금하다. 정조는 형조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형조의 이견에 대해 이치에 딱 들어맞아 다시 논의할 것도 없다고 극찬을 하였다. 정조는 "경기관찰사가 윤 여인을 살리고자 한 것은 참으로 괴이하다."[16]고 하면서 "세상에 거짓이나 속임수가 판치면 사람들이 살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가까운 근교에서 이러한 요사스러운 옥사가 있었으니, 원혼을 위로하고 민의 풍속을 권면하는 방도에서 사형을 감하여 살려 주는 것은 논할 것이 못 된다."[17]고 결정하였다.

정조의 의견에 대해 형조판서 정민시는 "그 정상을 들으니 매우 심하게 요사하고 간악합니다. 이 같은 사람에 대해 사형을 감해서 죄를 준다면 죄의 유무를 조사하는 체모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면서 "처와 첩의 구별이 있으니 마땅히 그 율[사형]로써 시행해야 합니다."고 주장하였다.[18] 영의정 서명선도 "이 여성이 저지른 것은 진실로 논할 것이 없습니다."[19]고 보았다.

결국 윤 여인은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윤 여인과 모의한 박무신의 경우 예조판서 서유린이 "박무신도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합니다."고 건의하자 정조는 "이 자도 율을 면하기 어렵다. 단지 한 차례만 형신(刑訊)한 것은 너무 가볍다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무신도 엄한 형벌에 처해졌다고 판단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관찰사 이형규는 교화를 베푸는 책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러 고을의 수령도 추고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윤 여인 사건은 얼핏 첩이 정처를 시기하여 빚어진 사건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조선 후기 여성이 처한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것은 여성의 간음에 대한 사회의 냉혹한 눈초리와 첩을 두는 남편을 받아들여야 하는 여성의 무력한 현실이다.

조선 후기에 여성들은 '간음'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꼈으며, 간음했다는 누명이나 소문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였다.[20]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은 여성들이 간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에 대한 허위 고발이 얻어맞은 사건보다 더 무거운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곧 부인에게 당신은 매를 맞겠습니까? 아니면 간음에 대한 허위고발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반드시 매를 달게 맞을지언정 결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간음으로 허위 고발되기 싫다고 할 것입니다."[21]고 말할 정도였다.

조선 후기 여성들이 간음에 민감한 배경에는 여성의 간음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잘 알려진 칠출(七出)은 남편이 여성을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으로서, 이미 『가어(家語)』나 『대대례(大戴禮)』, 『의례(儀禮)』에 보일 정도로 연원이 오래되었다. 칠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삼불거(三不去)라 하여, 칠출에 해당되어도 부인을 내쫓을 수 없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다.[22] 그런데 『당률(唐律)』에는 칠출 가운데 처가 나쁜 병이 있거나 간음을 저질렀으면 비록 삼불거의 정상이 있더라도 내쫓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23] 부인의 중병과 간음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하였다.[24]

조선에서는 칠거지악 가운데 아내를 내쫓는 이유로 가장 많이 사용된 조항은 불효와 간음이었다. 이익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음란한 행실이 있어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여자"라고 지적하거나, 정약용이 "부인의 죄는 음란함이 가장 으뜸이다."[25]라고 단언했듯이 불효와 간음을 저지른 여성은 부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었다. 1909년 일본이 조사한 한국의 이혼 관습에서 "처를 버리는 데에는 여자의 '칠거'라는 원인이 있어야 하지만 보통 간통의 경우에만 처를 버린다."[26]는 상황도 조선 후기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정 여인이 윤 여인의 사주를 받은 박무신이 방을 침입한 후에 간통했다는 소문이 나자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간수를 마시고 자살한 데에는 간음했다는 소문만으로도 발붙이고 살 수 없는 현실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간음을 용납하지 않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정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자살을 하거나, 소문을 퍼트린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한편, 첩 문제도 여성에게는 암울한 현실이었다. 앞서 형조판서 정민시는 처첩의 구별이 있다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처첩의 문제는 집안에서 여성 사이의 질서를 잡

는 문제를 떠나서 여성의 심리에 대단히 큰 슬픔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조선시대 정처 부인이 남편의 축첩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려 주는 자료가 있다.

16세기 중후반 한양에서 거주하던 신천 강씨(信川 姜氏)는 출가한 딸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서 "종[奴]이나 남이 투기한다고 할까 봐 아픈 티도 내지 못한다. 정말 마음을 둘 데 없어 이 글을 쓰노라. …… 이렇게 앓다가 너무 힘들면 내 손으로 죽고자 한다. 암말 않고 소주를 독하게 해서 먹고 죽을까 생각도 한다." 고 썼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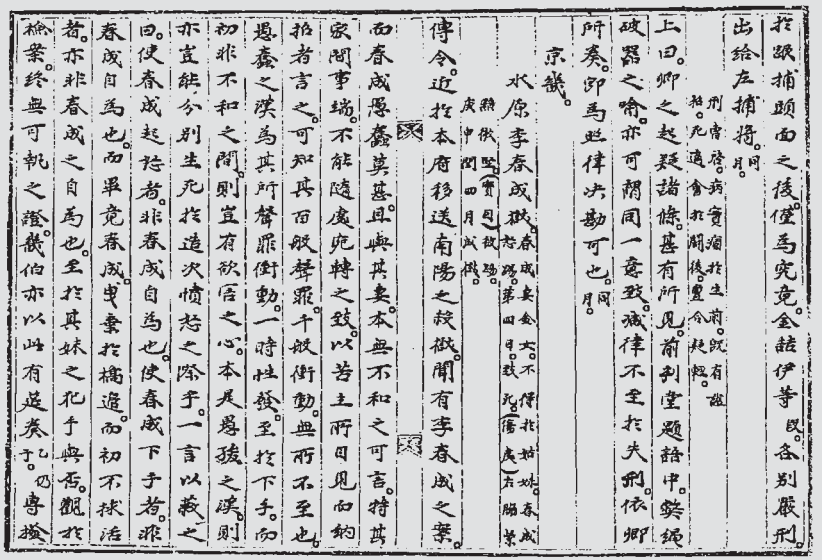
신천 강씨가 딸에게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대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신천 강씨는 "적잖이 호화롭게 되니 첩 생각이 나서 저런 첩을 얻으니 내 이렇게 불쌍하고 서럽지 않느냐?" 라고 할 정도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둘이 앉아서 근심하던 때는 가난해도 이토록 서럽지 않았는데 벼슬을 하니 내 가슴에 서러운 마음이 더욱 들" 뿐이었다. 그러므로 남편의 축첩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한 강씨에게 투기하지 말라는 사회적 강요는 여성의 자존(自尊)을 도외시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나 다름없었다.

요컨대, 윤 여인 사건은 결과적으로 윤 여인이 사형을 당하면서 마무리되었으나 여성을 둘러싼 환경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정실부인이 있음에도 첩을 들인 남편의 행동, 여성에게 간음했다는 소문만 나도 단죄를 요구하는 냉혹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못을 묻거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 결국 두 여인은 자살과 사형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

2) 이춘성 옥사 _ 시가와의 불화로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여성

수원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은 1800년(정조 24) 윤4월에 일어난 이춘성(李春成) 옥사이다. 사건의 개요는 김 조이[召史]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김 조이의 남편 이춘성이 화가 나서 김 조이를 발로 차 4일 만에 죽게 한 사건이었다. 조사결과 김 조이의 오른쪽 옆구리가 검은 자줏빛을 띠면서 굳어 있었으며, 사인은 발로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로 볼 때 이춘성이 아내를 발로 차서 죽게 한 것이 확실하므



於汲捕頭而之後僅為究竟。金詰伊等。段。各別嚴刑。出給左捕將。同月。

刑曹啓。病實猶於生前。既有證據。參以閘後。豈令赴訴。

上曰。卿之起疑諸條。甚有所見。前判堂題辭中。弊瘼破器之喻。亦可謂同一意致。臧律不至於夫剕。依卿所奏。即為照律決勘可也。同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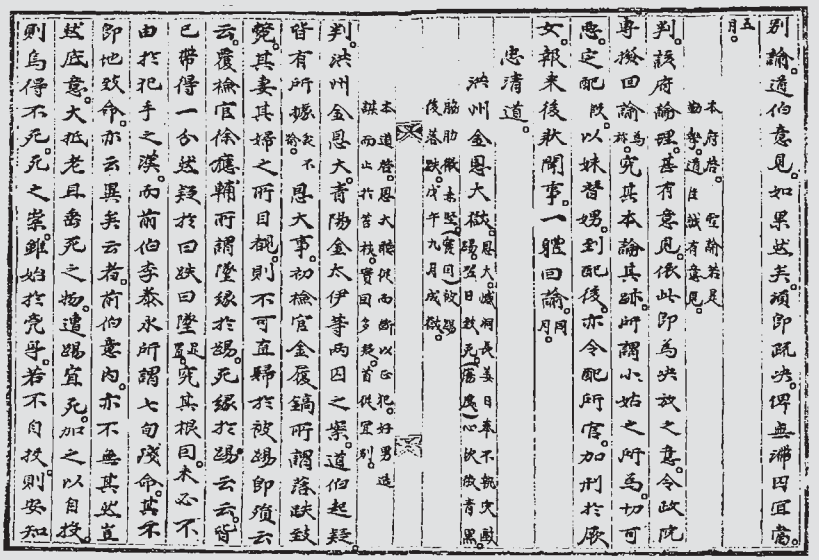
京畿。

水原李春成獄。春成妻金大。不得於姑。姑。春成第四子。致死。傷處在腦後。

熟俄。監(實)司啟。

庚申閏四月成獄。

傳令。近於本府移送南陽之獄。獄聞有李春成之案。而春成憑姦莫甚。與其妻本無不和之可言。特其家間事端。不能隨處宛轉之致。以若主所見而約束者言之。可知其百般聲罪千般衝動。無所不至也。憑姦之漢。為其所聲罪衝動。一時性發。至於下手。而初非不和之間。則宜有欲害之心。本是舅孩之嫉。則亦豈能分別生死於造次憤怒之際乎。一言以蔽之曰。使春成起於春成自為也。使春成下手者。非春成自為也。而畢竟春成曳妻於橋邊。而初不扶活者。亦非春成之自為也。全於其妹之犯手與否。觀於檢案。終無可執之證。戴伯亦以此有延矣。乙巳。尹撿



別論。遣伯意見。如果故矣。頑即訊決。俾無徘徊宕滯。

本府啓。空疏若是。勢難遣任。誠有意見。

判。該府論理。甚有意見。依此即為決放之意。令攸司。

尋撿回諭。為究其本論。其疎。所謂小姑之所為。切可惡。定配。以妹普媚。到配後。亦令配所官。加刑於厥女。報來後。秋聞事。一體回諭。同月。

忠清道。

洪州金恩大獄。恩大。獄興長生日本不執火獄。脇肋傷。未堅(實)回啟。後落跌。戊午九月成獄。

本道啓。恩大能供而斷以不犯。好男造謀而出於告枝。實同多殺。首從宜別。

判。洪州金恩大。肯陽金太伊等兩囚之案。道伯起疑。皆有所據。恩大事。初檢官金履鎬所謂落缺致斃。其妻其婦之所目覩。則不可直歸於被踢即殞云云。履檢官徐應輔所謂墜級於踢。死級於踢云云。皆已帶得一介述疑於曰跌曰墜。是。究其根因。未必不由於犯手之漢。而前伯李恭永所謂七旬殘命。其不即地致命。亦云異矣云者。前伯意內。亦不無其必宜致底意。大抵老母垂死之物。遭踢宜死。加之以自投。則烏得不死。死之案。雖始於究母。若不自投。則安知

이춘성 사건(『심리록』 32권)

로 이춘성의 처벌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의 결말은 반전이 있었다. 이춘성은 풀려나고 오히려 이춘성의 누이가 유배형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은 김 여인의 친정어머니 박 조이, 남편 이춘성, 이춘성의 숙모 정 조이, 이춘성의 외삼촌 안태금('부억동' 으로도 나옴)이었다.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말한 내용들은 모두 각자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모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28]

이 사건의 피해자 김 여인은 성(姓) 다음에 '조이' 라는 호칭이 붙은 것으로 보아 평민여성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김 여인은 어떤 여성이었으며, 어쩌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어머니 박 조이의 증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김 여인은 1797년(정조 21) 이춘성과 혼인하였다. 혼인생활 3년여 동안 부부 사이에는 우려할 만한 불화의 단서가 없었다. 다만 김 여인의 바느질이 서툴러 시어머니에게 종종 책망을 들었고, 이 때문에 번번이 친정집에 와서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1798년 2월에 친정에서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가 와서 모자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시가로 돌아간 김 여인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 친정어머니는 딸이 측은하고 걱정이 되어 10일도 못 되어서 다시 친정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김 여인은 주로 친정에 머문 듯하며,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품팔이를 하면서 지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30일에 이춘성이 부인이 있는 처가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심부름꾼을 보내 손주만 데려오도록 시킨 일이었다. 친정어머니는 딸을 놔둔 채 손자만 데려가려 하자 갓난아이가 바람을 쐬면 좋지 않다고 둘러대어 심부름꾼을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자 얼마 후 시어머니가 아들과 숙모를 데리고 사돈집에 도착하였다. 숙모가 김 여인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여 김 여인이 기뻐하며 나섰는데 시어머니가 가로막으며 아들 이춘성에게 김 여인의 거취를 정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이춘성은 입고 있던 옷 한 폭을 베어 내어 김 여인에게 주면서 부부의 의리를 끊겠다고 선언하였다. 친정어머니는 사위 이춘성에게 "내 딸이 정절을 잃은 일

도 없는데 무슨 버릴 만한 단서가 있는가?' 하고 따졌다. 김 여인도 남편이 옷을 베어 이혼 증표로 내민 수세(手帨)를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이춘성이 김 여인을 구타하였다.

친정어머니는 차라리 시가에게 죽으라는 뜻으로 혼절해 있는 김 여인을 친척을 시켜 사위 이춘성의 외삼촌 집으로 업어 보냈다. 사위의 외삼촌이 중매를 했기 때문이다. 외삼촌이 다시 김 여인을 업고 이춘성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완강히 막기에 어쩔 수 없이 헛간에다 김 여인을 놓고 가 버렸다. 이에 이춘성이 김 여인을 끌고 나가 다리 부근에 두었다. 김 여인은 윤4월 초2일 저녁 이후에 그대로 죽었는데, 구타당한 지 3일 만이었다.

그런데 남편 이춘성의 진술은 이와 크게 달랐다. 이춘성은 아내 김 여인에 대해 나이가 어린데도 성격이 표독해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친정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본인이 1799년 12월에 장용영(壯勇營) 향군(鄕軍)으로 번(番)을 서러 가서 1800년 3월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 김 여인이 친정에서 오지 않았고 늙은 어머니가 온갖 집안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에 속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어머니와 숙모와 함께 가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아 겁을 주기 위해 수세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자기를 버리냐고 하면서 땅에 구르고 머리를 찧고 가슴을 스스로 치기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나중에 들으니 장모가 아내를 본인 외삼촌 집으로 보냈고 저물녘에 외삼촌이 업고 왔기에 아내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 다리에 업어다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내를 불쌍히 여겨 즉시 집으로 업어 왔는데 그만 부엌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 여인의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증언은 사뭇 다르다. 친정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인은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와 있다가 변을 당하였다. 남편 이춘성의 말에 따르면 김 여인은 성격이 표독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친정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은 며느리이다. 또 남편은 아내를 때렸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두 명의 증인은 이춘성이 김 여인에게 수세를 주어 부부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다가 구타했다고 밝혔다. 김 여인의 친정어머니가 진술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판결은 뜻밖이었다.

이 사건을 남양부에서 이관받은 수원유수 서유린(徐有隣)은 이 사건을 다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춘성의 행위보다 이춘성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더 관심을 보인 것이다. 서유린은 장계에서 이춘성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래 부인과 이렇다 할 만한 불화가 없었는데 주변에서 아내의 잘못을 자꾸 성토하자 순간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아내를 때렸다고 보았다. "한 마디로 이춘성이 분노를 일으킨 것은 이춘성 스스로 한 것이 아니며 이춘성이 손찌검한 것은 이춘성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니, 필경 이춘성이 자기 처를 다리 근처에 끌어다 버리고 애당초 구하여 살리지 않은 것도 이춘성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김 여인의 시누이도 거론하였다. 서유린은 "이춘성의 누이가 손찌검을 했는지의 여부는 검안을 살펴보아도 끝내 잡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정조는 수원유수 서유린의 판단이 "매우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였다. 그래서 즉시 처결하여 석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누이의 소행이 너무 악독하니 시누이를 정배하고, 유배지에 도착하면 다시 더 문초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김 여인의 사인은 남편 이춘성의 구타였다. 이춘성은 어머니와 누나 등 주변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 험담을 하고 못살게 굴자 홧김에 구타를 했다. 그럼에도 수원유수와 정조의 판결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손찌검을 한 것은 홧김에 했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실려 온 김 여인을 다리 근처에다 다시 내다 놓은 행위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기 아내가 자살했다고 진술한 정황도 의심스럽다.

김 여인은 시어머니, 시누이의 구박 속에서 친정으로 돌아와 품팔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아이까지 출산해 기르고 있었다. 김 여인이 남편의 진술대로 표독스러운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구타까지 당하고 버림을 받으면서 죽어 갔

던 상황은 18세기 말 수원 지역 하층 여성의 처지를 단박에 짐작하게 한다. 한 여성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시집살이의 잔혹함과 이를 눈감아 버린 남편의 처사였다.





2
근대의 옷을 입은 여성

귀국 후 여자 유학생들은 남성들만이 전유했던 전문 분야에 진출했으며, 지식 및 활동 체득으로 얻은 각성과 경험의 힘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것은 현모양처주의를 기획했던 식민권력, 그리고 조선 남성 엘리트의 의도와 충돌하는 것이었으며 여성 경험을 기반으로 여성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1. 여성에게도 교육을
2. 수원 여성, 학교에 가다_삼일여학교의 설립과 운영
3. '현모양처'와 '황국 여성' _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김은주 | 서울대학교 강사
이혜영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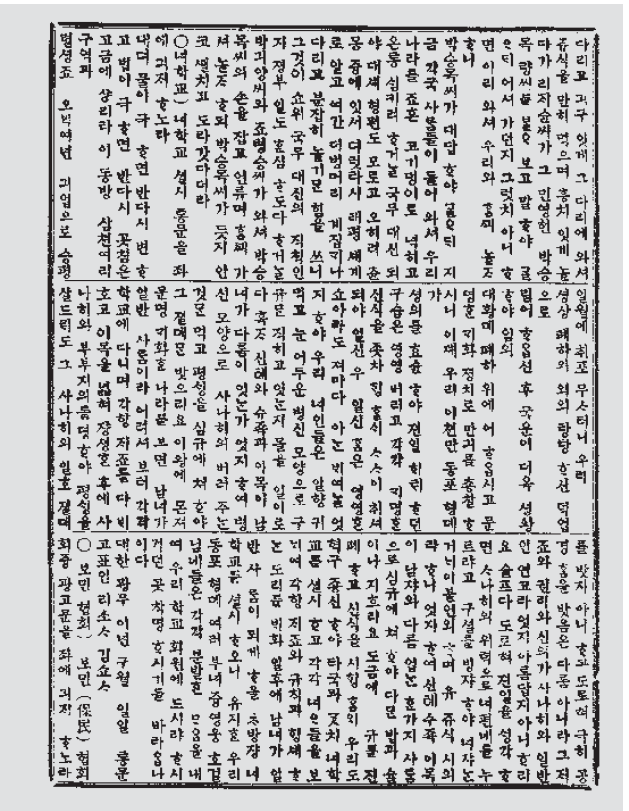
01 수원 여성의 근대 교육 경험

1. 여성에게도 교육을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식과 교양,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은 한정적이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여성은 규방에 갇힌 존재였으며, 서당과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여성이 학문과 지식에서 소외된 존재임을 자각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개화기 초기의 일이었다.

근대적 학교제도를 통하여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외국, 특히 미국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이화학당은 개항 후 10년이 지난 1886년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창설되었다. 선교사들은 선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1897년부터는 지방에도 교육사업과 포교의 일환으로 기독교계 여학교들이 설립되었다.

기독교계 여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한국인들 역시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자극을 받게 되었다. 민간 차원의 여학교 설립운동은 1896년 설립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한 여성교육은 '문명국'으로 가는 첫걸음인 동시에,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학교설시통문」(『독립신문』, 1898년 9월 9일)

지금 조선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자는 교육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니 이런 말하는 것은 무식하고 생각 없는 연고라, 여자를 교육하는 것이 첫째 큰일이라. 대저 여자가 자녀를 생산한 후에 그 아비도 그 자녀를 가르치려니와 그 어미가 항상 좋은 학문으로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그 자녀의 마음을 잘 인도하여 장래에 좋은 사람이 되며, 둘째, 조선 1,200만 명가량 인구에 여자를 교육하면 갑절이나 더할 것이 한 사람의 할 일을 두 사람이 할 터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리요. 조선은 여자교육이 없는 까닭에 아이가 나서 어미 슬하에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아비에게도 배우지 못하고 선생에게야 비로소 배운다.[1]

『독립신문』을 비롯한 개화기 신문들의 논설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자주 등장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아 여성교육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찬양회가 등장하였다. 찬양회는 1898년 9월 1일 「여학교설시통문」을 발표하였는데, 통문에서는 개화의 무거운 짐을 여자도 같이 져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 여학교를 설치하여 인재를 배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었다.[2]

한국 최초의 민간 사립여학교는 순성여학교로, 1899년 2월 26일 서울 어의동(於義洞)에서 여학생 30명으로 시작하였다. 여학생의 연령은 7~13세였고, 『천자문』·『동몽선습』·『태서신사』 등을 가르쳤다.[3] 황실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민간 학교로는 진명여학교와 숙명여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는 1906년 1월 상류층 여성으로 조직된 한일부인회가 설립하였다. 진명여학교는 일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전통적인 여성상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였다면, 숙명여학교는 일본식 학교 학습원을

모방하여 설립된 여학교였다.

국가에 의한 여성교육은 민간 여학교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1908년 4월 「고등여학교령」에 따라 관립 한성고등여학교가 세워졌는데, 찬양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여성교육시설 설립을 계속 요구한 것이 1908년에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남자만 수용하던 보통학교에 여자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1908년 대구, 함흥, 군산의 공립보통학교에 여자부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각 지역 관립보통학교에 여자부가 새로 설치되었다.[4]

보통학교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10년대 초반에는 8% 남짓이었지만 이후 점차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제 말기인 1941년에는 40%를 넘어서는데, 이는 특히 1930년대 이후 전시동원을 위해 여성 초등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에서 기인한다. 식민지시기 초등교육의 경우 일제는 정책적으로 사립학교를 억제하고 공립학교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서, 사립학교는 식민지시기 전반에 걸쳐 3~4% 정도의 미미한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했다.[5]

그러나 여성에 대한 초등교육은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에 대한 초등교육이 강화되었던 1940년대에 다소 좁혀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자 사립학교는 우세한 비중을 보였으며, 여성의 학교 교육은 1930년대 초반까지 거의 정체상태였다. 이는 전시체제로 들어서는 1930년대 후반까지 여자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조선총독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고, 조선사회의 차별적 성규범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식민지 권력과 식민사회 양자는 적어도 여성의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공유하였다.[6]

여성에 대한 중등교육기관 역시 일제의 기본방침은 설립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교육열이 여성에게까지 확산되면서 1920년대 중반 여성 중등교육기관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일제의 기본방침은 중등학교 설립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반에 여자 중등학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대부분 공립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초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력 동원을 위한 정책적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2. 수원 여성, 학교에 가다 _ 삼일여학교의 설립과 운영

수원 지역의 근대 여성교육 역시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수원의 여성교육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원 지역 최초 사립학교인 삼일여학당이 이를 주도하였다.

삼일여학교는 수원 북감리교회의 '매일학교(Day School)'로 시작되었다. 매일학교는 교회가 전국 각처에 있었던 서당의 운영방식을 보고 착안해 만든 것이다. 매일학교는 선교의 목적으로 세운 학교로, 각 교회의 부속학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주로 교회 예배당을 매일학교 건물로 활용하였으며, 교사도 교인 중에서 학식 있고 신앙심이 깊은 이들이 맡는 것이 보통이었고, 학교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그 교회의 목사였다.

매일학교에서는 처음에 초등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1900년대 이후 초등과정을 마친 이들을 위해 중등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매일학교는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전개한 사업이지만 당시 국가가 주도하여야 할 초등교육을 상당 부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매일학교를 설립할 때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를 세웠는데, 여성 선교사와 남성 선교사의 부인들이 선교활동을 하며 교육사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여자학교를 많이 세우고 운영할 수 있었다.

수원 북감리교회도 부설학교 형태로 1902년 4월 이전에 15명으로 남자 매일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삼일학당의 시작이었다. 삼일여학당은 1902년 6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의 선교사인 스크랜턴(M. F. Scranton)에 의하여 3명으로 개교하였다. 서울의 이화학당이나 개성의 호수돈여학교가 기숙학교로 출발했던 것과 달리 삼일여학당은 매일 등교하는 학교였다. 즉 삼일여학당은 기숙학교를 운영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는 교사만이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학용품을 공짜로 받아 사용하였다. 설립 당시 여학생을 모집하여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학용품을 공짜로 나누어 주고 학비도 받지 않았으며, 성탄절에는 양과자를 비롯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초기 교육방식은 서당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주로 배운 것을 암기하고 교사가 그 뜻을 묻고 학생들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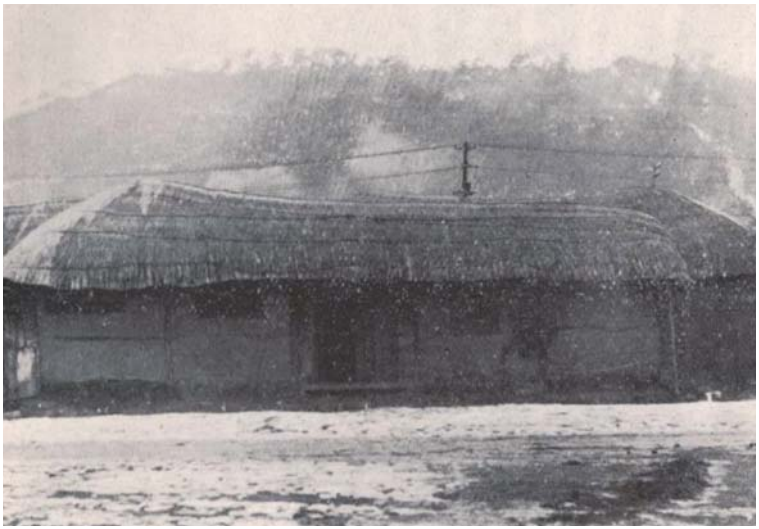


설립 초기 삼일여학교 학생들(대한성공회 출판부,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100년』, 1991)

답하는 방식이었다. 교과목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던 만큼 성경과목이 필수였으며, 신학문인 지리와 음악 · 국어 등을 배웠다.[7]

삼일여학당은 1903년 무렵 전도부인 겸 삼일여학당 교사로 이경숙이 부임한 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울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있었던 여자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자 딸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늘어나서, 이경숙이 부임한 지 1년 만에 학생이 2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04년 이경숙이 서울로 올라간 뒤 미감리회 여선교회는 김메례(金袂禮)를 삼일여학당 교사로 파송하였다. 김메례는 지식뿐만 아니라 시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격 수양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연회 개최를 통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학부형들에게 인식시켰다. 이러한 김메례의 열성은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1906년 장안동 삼일여학교 초가 교사(채부인, *FIFTY YEARS OF LIGHT*, 미 감리교회부인선교부, 1938)



> 수원부 내 삼일여학교 여교사 김금례(金衿禮) 씨가 신구학문에 지식이 고명(高明)하여 학도를 열심 교수함으로 교황(校況)이 흥왕(興旺)하고 학무가 일신하며 시의를 예탁(豫度)하여 실업과 교육이 급무됨을 격절(激切)히 설명하여 몽매한 인심을 감화케 하는고로 진정 고명한 교사라고 사람들이 모두 칭송한다더라.[8]

위 글에서는 김금례로 적고 있지만 이는 김메례를 잘못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김메례는 1904년부터 1916년까지 13년간 근속한 교사로 삼일여학교 초창기를 일구었던 산증인이었다. 그녀는 교사이자 지역사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수원 지역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9]

학생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삼일여학당은 1906년 장안동으로 이전하였다. 초가집이기는 하지만 교사로 쓸 수 있는 큰 집이었다. 이즈음에 『황성신문』은 삼일여학교가 독립된 여학교로 설립되었음을 보도하였다.



1916년 김메례 선생 송별기념회(독립기념관 소장) 가운데 화환을 든 여성이 김메례이고, 그 옆이 수원의 대표적인 전도부인이자 김메례의 어머니인 김사라이다.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박충애, 여섯 번째가 제자 나혜석이고 맨 앞줄의 남성은 삼일여학교 학감인 김세환이다.

수원부 내에 여학교가 설립하였는데 교사는 김메례 씨요 학도는 48인이요 학과는 국문, 한문, 영어, 산술, 체조인데 교사의 열심 면학과 학도의 일진일보(日進日步)함을 찬상(贊賞)할너라.[10]



삼일여학당은 1908년 4월 「사립학교령」에 따라 학부로부터 사립 삼일여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삼일여학교는 1910년 3월 23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제1회 졸업생은 나혜석(1896년생), 박충애(박승호), 차우르다, 홍보배(1898년생)[11] 등 4명이었다. 특히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1세대 '신여성'으로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부르짖었던 근대 여성 지식인이었다. 김메례의 딸인 박충애는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강원도 원주감리교회 부속초등학교 교원으로 일하였으며, 일본에 유학하여 요코하마(橫濱)에 있는 여자신학교를 다녔고, 귀국 후 평양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12] 홍보배와 차우르다는 수원의 명문가인 남양 홍씨와 연안 차씨가의 딸로, 이 지역 유지의 딸들이 삼일여학당에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것은 당시 수원 여성교육에서 삼일여학당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 준다.

1910년 병합 후 일제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초등교육을 관공립학교로 장악하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특히 1915년 공포된 「사립학교 규칙」에서는 모든 사립학교



밀러 교장의 노력으로 근대식 건물로 신축한 삼일여학교 교사(수원박물관 소장)

설치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통학교 규칙」에 규정된 교과과정에 준하여 운영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삼일여학교는 이미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일제가 요구하는 시설과 교원을 갖추어야 했다.

삼일여학교는 1914년 교장 밀러의 노력으로 매향동에 근대식 건물을 짓고 학교를 이전하였다. 이와 함께 1913년 부임한 김세환(金世煥) 학감은 양잠실습장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쳐 생활에 보탬이 되는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여성들에게 야학을 실시하는 등 수원의 여성교육 발전에 힘썼다.

〈표 1〉에서 보이듯이 김세환이 삼일여학교 학감으로 부임한 1913년 당시 수원군에서 여학생을 수용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수원공립보통학교와 삼일여학교가 전부였다. 이 점에서 삼일여학교가 근대 수원 여성교육에서 갖는 의미는 남달랐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발포에 따라 삼일여학교는 6년제 보통학교로 학제가



삼일여학교 학감 김세환과 교사(독립기념관 소장)

〈표 1〉 1913년 수원군 학교[13]

명칭	남	여	합계
수원공립보통학교	285	80	365
오산공립보통학교	147	0	147
사립진명학교	42	0	42
사립삼일학교	53	0	53
사립삼일여학교	0	60	60
수원공립간이학교	25	0	25
소계	552	140	692

바뀌었고, 학교 명칭도 삼일여자보통학교로 바뀌었다. 1937년 당시 삼일여자보통학교는 각 학년마다 1개 반씩 6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직원은 8명이었고 학생 수는 369명이었다. 당시 수원군의 20개 공립학교 가운데 6년제로 운영되는 곳은 신풍, 남양, 오산, 팔탄 등 4개 학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14]



1930년대 삼일여학교 학생(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장)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명을 일본 학교와 똑같이 하여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하고,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삼일여자보통학교는 매향심상소학교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1938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교육의 3대 목표로 국체명징 · 내선일체 · 인고단련을 제시하고, 소위 황민화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어교육은 폐지되었으며, 학생들은 군대식 훈련을 받고 전쟁 수행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1940년대에 들어 매향여학교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1941년 일제가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1940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학교를 경영해 오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됨에 따라 학교 경영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차준담 이사장 이하 교사들은 학교를 지켜 내었고, 1941년 2월에는 매향여자심상소

학교 안에 고등과를 병설하게 되었다. 고등과가 병설되면서 1941년 5월 수원여자매향학교로 다시 교명이 바뀌게 되었다. 고등과를 신설함으로써 매향여학교는 초등교육기관에서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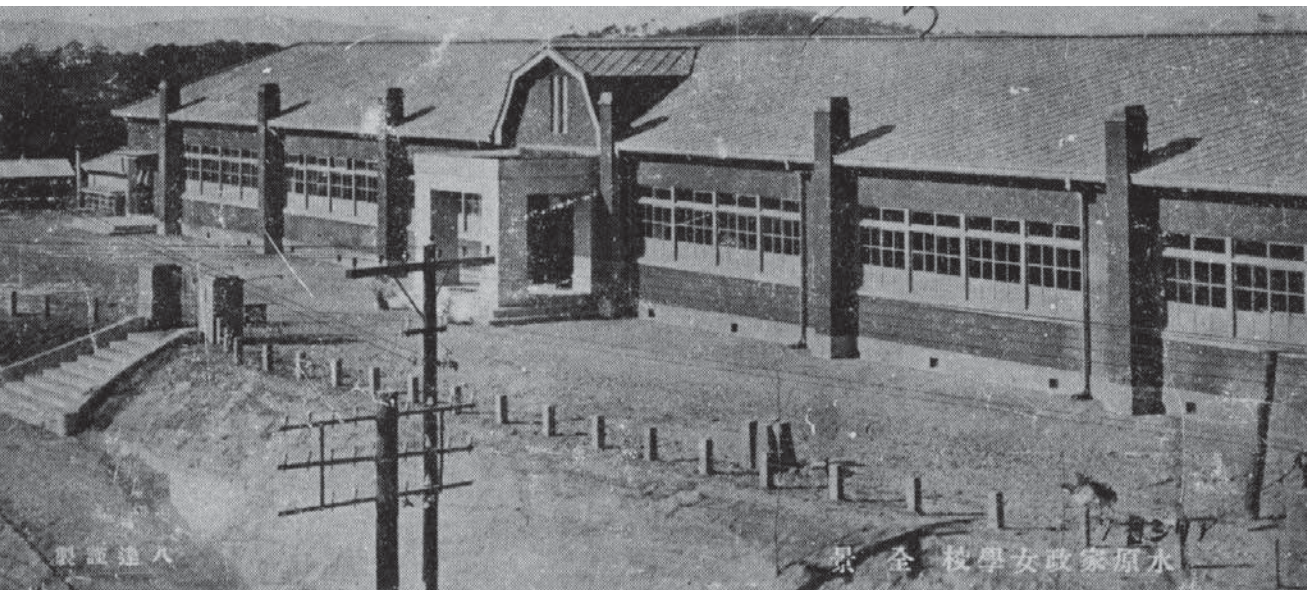
3. '현모양처'와 '황국 여성' _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1930년대 이전까지 여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조선총독부가 여성교육기관 확충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로 이행하면서 전시동원을 위해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수원에서 여성에 대한 공립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된 것 역시 1930년대 중반이었다.

1936년 3월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4월 16일 개교한 수원공립가정여학교(水原公立家政女學校)는 수원 최초의 공립 여성 중등교육기관이었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교명이 말해 주듯이 가정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아내와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현모양처의 양성이었다. 수원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류민들이 많았는데, 일본인 여학생들을 위한 중등과정의 여학교 설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수원 재류일본인학교조합이 수원공립가정여학교의 설립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 조건은 3년제 3학급이었다.

초대 교장은 일본인 아카쓰 모토(赤津基)였으며, 초기에는 교사가 없어 일본인 학교였던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현 매산초등학교) 별관을 빌려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입학 학생수는 55명, 졸업 당시에는 53명이었는데 일본인 여학생이 28명, 조선인 여학생이 25명이었다. 이 학교가 일본인 여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본 여학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조선인 여학생을 입학시켰던 것이다.

수원공립가정여학교는 1937년 12월 28일에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내에 따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신축 교사는 교실 7실, 직원실 1실, 가사실 1실, 양재실 1실, 1·2·3학년 교실 각 1실, 꽃꽂이 및 다도실(茶道室) 각 1실 등 모두 15실로



수원가정여학교 건물(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이루어져 있었다.

그 후 1941년 3월 31일자로 수원공립고등여학교 설립이 인가되었고, 수원공립가정여학교는 수원공립고등여학교로 흡수되었다. 1939년부터 수원 지역 고등여학교 설치운동이 일어난 결과였으며,[15] 수업 연한도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고 학급수도 3학급에서 4학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941년 9월에는 현재 수원여자고등학교가 있는 자리에 새로 학교 부지를 사들여 교사를 짓고, 1943년 12월 이전하였다.

학과목으로는 수신, 공민과(公民科), 교육, 국어(일본어),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 이과, 실업, 도화, 가사, 재봉, 음악, 체조, 수예 등이 있었다. 수예와 외국어는 선택과목이었으며, 외국어는 중국어 · 불어 · 영어 중 선택하여 가르쳤다. 교과 시수에서는 국어(일본어)가 거의 20%를 차지하였고, 재봉과 체조 등에 많은 시간이 배당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정된 시간대로 운영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근로나 다른 작업에 학생들을 투입하여 교과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표 2〉 수원공립고등여학교 배정과정

구분	배정과정
1940년 1학년	수신, 국어(강독, 작문 · 문법, 습자),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산수 · 기하), 이과(박물, 화학, 물리), 실업, 도화, 가사, 재봉, 음악, 체조, 수예
1942년 1학년	국민과 :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이수과 : 수학, 물상, 생물
	가정과 : 가정, 육아, 보건, 피복
	체련과 : 체조, 무도, 교련
	예능과 : 음악, 서도, 도화, 공작, 실업과

학교에서 배우는 신지식과 공동체 생활은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들은 '여학교' 라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공간에서 근대적 학문과 신지식을 체득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내 ·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친구와 동기 · 선후배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신지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주는 어떤 힘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 '이나즈 히데오' 라는 교장이 영어를 담당하였는데, 실제로 "sit down", "come in" 등을 연기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선생이 자전거 2대를 구입해서 방과 후 타게 했는데, 자전거도 흔하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학교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보았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악보를 볼 줄이나 알았나.〈제3회 졸업생 홍영애 구술〉

> 주판 놓는 거야 소학교 때 조금 배웠어도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은 어려우면서도 전에는 접해 보지 못한 것이어서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지.〈제1회 졸업생 이규옥 구술〉

>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모도무라 체육 선생인데, 일본 체대를 나온 제대로 된 선생이었지. 왈츠의 기본부터 제대로 가르쳤어.〈제1회 졸업생 김준배 구술〉

그러나 서구의 근대 학문인 수학이나 영어, 과학 이외에 '현모양처' 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도 편성되었다. 재봉과 자수, 가사



일본인 강사에게 꽃꽂이를 배우는 수원고녀생들(수원여자고등학교 소장)

등의 과목이 그것이다.

> 가사 선생님이 재봉과 수예, 요리 다 가르쳤어요. 아기들 분유 타는 것부터 아기 옷, 남자 와이셔츠나 바지, 여자어른 옷까지 다 본떠서 만들고 했지요. 입학해서 자기 교복도 손수 지어 입었으니까. …… 시집오니까 시아버지가 셔츠랑 바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지. 아이들 옷도 다 만들어서 입히고 했어. 수놓는 것도 다 배워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지. 지금도 그때 방석 만든 것 가지고 있어. 〈제1회 졸업생 이규옥 구술〉

> 우리는 꽃꽂이라는 것을 안 할 때야. 근데 일본인 강사가 와서 꽃꽂이하는 법부터 인사하는 법, 걷는 법, 음식 먹는 법까지 다 가르쳤어. 따로 밖에서 데려온 일본 선생이라 돈도 많이 냈지. 요리실습 같은 것도 했는데, 자유주제를 주고 조별로 하라고 해서 나는 신선로를 했던 기억이 나.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제1회 졸업생 김준배 구술〉

여학교에서의 가사과 수업의 비중은 전체 과목 수업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이는 고등여학교의 궁극적인 교육 목적이 "충량유위한 황국 신민 양성"과 더불어 가정주부이자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갖춘 "충량지순한 황국 여성의 양성"이었기 때문이다. 학제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재봉은 주 4시간, 가사는 8~9시간, 수예는 10시간 이상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교과목으로 배정되지 않았지만 여성으



수원공립고등여학교 제1회 학생(제1회 졸업생 김준배 제공)



자수를 놓는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제1회 졸업생 김준배 제공)



일제시기 수원공립고등여학교 수예전시회(제1회 졸업생 김준배 제공)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의 소풍(제1회 졸업생 김준배 제공)





기모노 입은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생(제1회 졸업생 김준배 제공)

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능들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따로 가르치기도 했다.

일제시기 여학교에서는 식민지 여성교육의 원리로 제시된 국가주의 교육론과 현모양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충량한 황국 여성의 양성을 위한 학습법이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었다.

> 일본의 다도, 일본 시조, 일본신전에다 하는 꽃꽂이 등을 배웠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일본 부인이 와서 가르쳤는데, 기모노 입고 와서 정식으로 가르쳤죠.〈제1회 졸업생 이규옥 구술〉

특히 신사참배는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빠뜨리지 않고 행해졌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수원신사로 데리고 가 참배하게 했다. 수원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참배를 해야 했다. 수원의 신사는 팔달산 정상에 있었다.

> 팔달산에 신사가 있었어. 죽 행렬 지어 걸어가서 제관 쓰고 엄숙하게 했어. 그거 안하면 죽는 걸로 알지. 지나갈 때마다 하고 …… 전쟁 말기에 이르면 가미가제인가 뭔가 해서 청년들이 나가죠. 그러면 매산학교에 다 모여 환송회 같은 걸 하고 전쟁에서 죽어 전사자가 생기면 다 모여서 위령제 같은 걸 지냈어요. 가미가제로 나가면 다 죽는 거지, 폭탄이 모자라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인사가 "가겠습니다."야.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 전혀 울질 않아. 모르지 집에 가서는 울까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눈물 같은 걸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애국심인 거야.〈제1회 졸업생 이규옥 구술〉

부모·형제가 전쟁터에서 죽어도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일본인들에게 전시체제하에서 황국 신민과 황국 여성으로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수업보다 근로봉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신체를 단련하는 일환으로 단련원



전시체제기 수원고등여학교 학생들의 복장(수원여자고등학교 소장)

족을 다녔다. 전시에는 활동이 편리하고 간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는 단발령이 내려졌으며, 일본 여성의 노동복인 '몸빼'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수원고등여학교 학생들도 왜바지(몸빼)를 착용하였다. 원래 교복은 따로 있었지만 왜바지를 입고 등교해야 했고, 근로봉사에 동원되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하는 날이 며칠 되지 않아 일하러 학교에 가는 격이었다.

내가 3~4학년 시절이었는데 (체력단련을 위해) 가을부터 12월 동지까지 병점까지 원족을 다녔어요. 매달 했는데 너무 혹독하고 힘들었어요.〈제3회 졸업생 홍영애 구술〉

근로봉사를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 하면 영화동에 운모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운모를 얇게 저미는 일을 했죠. 공장 규모는 소규모로 작았지만 비행기 만드는 데 중요한 원료로 쓰였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굉장했어요. 또 농업시험장에서 나락 뿌리기 등을 했는데 나무판에 구멍을 뚫어 줄 간격을 맞춰 그 안에 나락을 넣는 일을 했어요. 하다 보면 정

신이 어지러운 지경에 이를 정도죠. 그럴 때면 하늘을 보고 눈을 풀어 주고 했어요. 고구마 캐기도 하고 목화 따는 일도 했어요. 대동아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1년 이상 근로봉사에 굉장히 많이 동원되었어요. 1944년과 1945년에는 엄청 심하게 했죠. 공부는 하지 않고 근로봉사가 주를 이루었어요.〈제3회 졸업생 홍영애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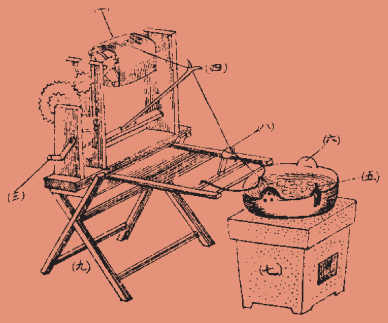
또한 일본인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도시락까지 일일이 간섭하였다. 우메보시(うめぼし : 매실장아찌)를 도시락의 밥 중앙에 넣으면 일장기와 닮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매실장아찌를 넣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게 하였다. 매실장아찌는 시고 짜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은 조선 학생들에게도 매실장아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전쟁 중인 군인들의 수고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황국신민으로서 국가에 충성의 맹세를 강요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일본 민족에 통합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우메보시(うめぼし : 매실장아찌)를 담아서, 도시락에 넣어 먹었어요. 도시락 안에 장아찌를 넣은 것이 일장기와 닮아서, 전시체제 내에서 군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죠. 일장기를 히노마루(ひのまる)라고 하고, 이 도시락을 히노마루 벤토(べんとう : 도시락)라고 했는데 먹으려면 참 고역이었어요.〈제3회 졸업생 홍영애 구술〉

나는 광복되던 해 4월에 졸업하고 숙대에 들어갔는데, 해방되었지만 해방이 뭔지 몰랐어요. 다만 학교에서 선생들이 복도에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서, 앉아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일본 천황의 발표를 들었죠. 일본 제국주의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우리 조선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할 줄도 모르고 똑같은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지, 너무 몰랐어. 조선 학생들끼리 모여서 말할 줄 모르고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천치지. 아마 몇 해만 더 있었으면 일본 사람 되었을 거야. 지금 가끔 내가 혼자 말하길 "충성된 일본 사람이었다."고 해. 사상적으로 일러 주는 사람이 있었나, 뭐가 있어야지 알지.〈제3회 졸업생 홍영애 구술〉

이처럼 교육의 내용도 현모양처나 품성도야, 신체단련, 기능연마에 못 박고 있었

고, 일본인화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황국 신민과 황국 여성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한창 꿈 많은 여학생들은 전시체제의 비상시국 속에서 황국 여성이 되길 강요받았고, 근로봉사 · 단련원족 등의 활동으로 여유 한 번 부리기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항상 일제의 식민정책에 순종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 민족이니 해방이니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는 말은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역사의 희생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1. 수원 소재 이전의 잠업강습소(1905~1914년)
2. 수원 권업모범장 여자잠업강습소(1914~1929년)
3. 수원 농사시험장 여자잠업강습소(1929년 이후)

이아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02 수원여자잠업강습소의 설치와 운영

우리나라의 양잠업은 역사가 길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며, 삼국시대에 이미 상당한 발달을 보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시책으로 잠업이 장려되었다.[1] 조선시대 농업정책은 대부분 '권농상(勸農桑)'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농업과 함께 뽕나무, 즉 양잠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왕이 몸소 농사를 짓는 친경례(親耕禮)를 행하듯 왕비도 궁궐에 잠실을 설치하고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양잠업은 따로 전답이 필요하지 않고 적상(摘桑)부터 누에를 쳐 고치를 수확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여성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농가 권장부업 중 우선순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2]

수원여자잠업강습소는 이러한 양잠업이 근대적 농업기술교육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여성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공간이었다. 일본은 강점 초기부터 '근대적 농업' 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농업기술을 이식하고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려 일본 내지와 자본가들에게 공급하고자 했으며, 이때 잠업은 면화(棉花)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1910년대부터 전국 곳곳에 직물업 전(강)습소가 설치되고, 이들 전습소가 임시은사금(臨時恩賜金) 수산사업(授産事業)의 수혜를 입었던 것도 이 일환이었다.[3] 이때 수원의 여자잠업강습소는 지방잠업강(전)습소보다 상위기관으로서,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식비를 지급하며 교육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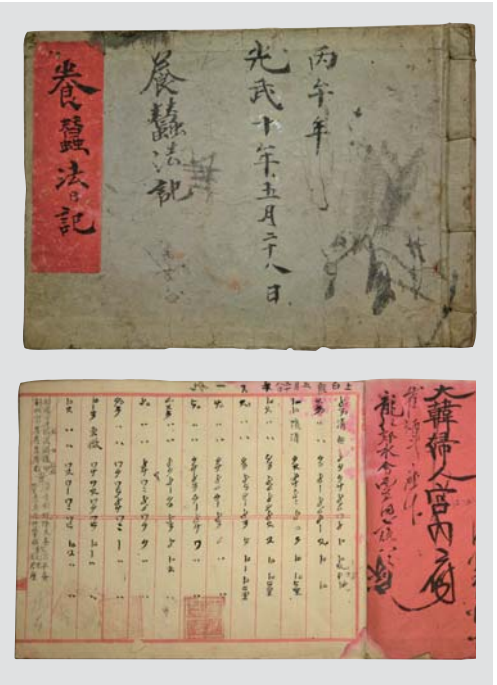
1909년 순종 비 순명효황후의 권업모범장 양잠소 순시 기념엽서(수원박물관 소장)

이 글에서는 여자잠업강습소의 시기별 연혁을 서술하고, 이것이 강습생들과 조선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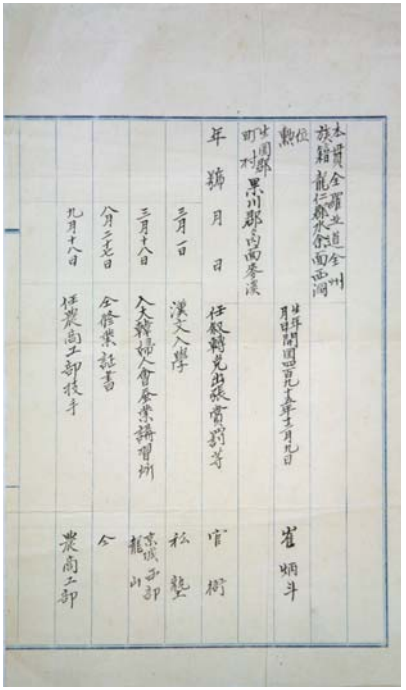
1. 수원 소재 이전의 잠업강습소(1905~1914년)

1)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

여자잠업강습소는 대한제국정부의 관료 부인들이 조직한 대한부인회(大韓婦人會)가 1905년 7월 용산(龍山) 만리창동(萬里倉洞)에 양잠강습소(養蠶講習所)를 창립하면서 시작되었다.[4] 이때 대한부인회는 궁내부 직조과에서 용산과 과천군에서 재배하고 있던 20여 정보의 뽕나무밭과 가옥 9동(棟)을 대여받았고, 그와 동시에 부녀자의 잠업 강습을 위해 3정보의 땅에 강습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양잠강



대한부인회 잠업강습소 생도인 최병두의 『양잠법일기』(1906년, 과천문화원 소장)



대한부인회 잠업강습소 졸업생인 최병두의 이력서(과천문화원 소장)

습소의 설립 목적을 "본회 사업의 목적은 오로지 실용에 뜻을 두고, 생도로 하여금 실업의 취미를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개량의 필요를 느끼게 하여 견실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량(精良)한 잠종(蠶種), 상묘(桑苗)를 배포하여 잠구(蠶具) 구입을 매개함으로써 잠업개량의 모범을 나타내게 함을 기한다."라고 하였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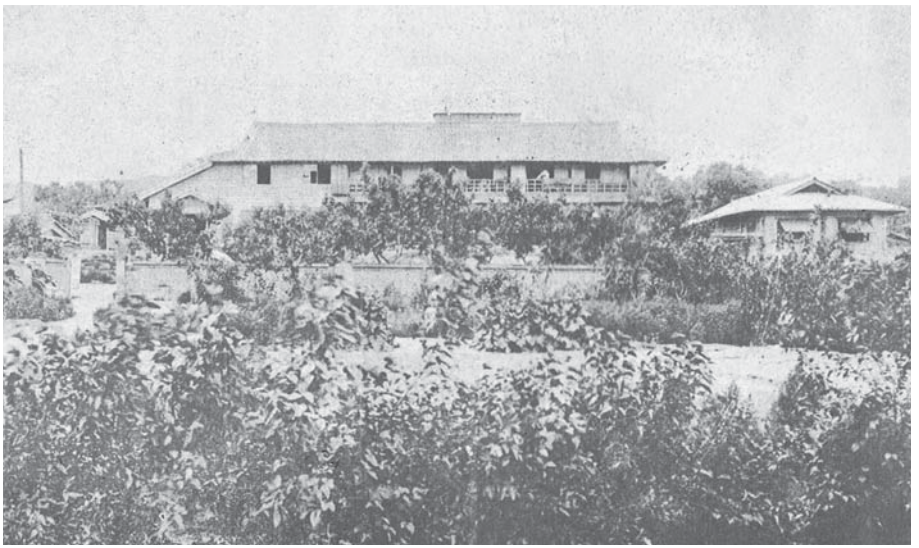
그러나 1906년 5월 처음으로 생도를 모집하였을 때 모집에 응한 여학생이 1명에 불과하였으므로, 대신 남학생 25명을 모집하여 보충하여야 했다. 그 후 1908년까지 남자 53명과 여자 12명의 졸업생, 남자 4명과 여자 6명의 수업생을 내었다.[6] 1909년에는 여자 지원자가 증가하여 20명 모집에 51명이 응모하였기 때문에 남자의 강습을 폐지하고 여학생만 수용하게 되었으며, 그해 10월에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입소자에게 1개월에 6원씩의 식비를 지급하였다.[7]

그런데 이 사업은 당국의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 1908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1회 한국농업기술관회의' 에서는 여성에게 잠업의 보급을 도모하고자 ① 교사로는 부인(婦人)을 채용할 것, ② 편리한 곳에 전습소(傳習所)를 설치할 것, ③ 순회교수(巡廻教授)를 둘 것 등을 결의하였다.[8] 이에 따라 각 지역에 잠업전습소가 설치되어 1909년 10월 현재 그 수가 10개소에 달하게 되었으며, 기타 추잠공동사육소 · 잠사업강습소 · 작잠사육시험장 등이 설치되었고,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는 이들 기구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의 잠업을 장려하여, 일본의 견직(絹織)과 생사(生絲) 공업의 원료로 한국의 누에고치를 조달하고자 하는 일제의 수탈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2) 농상공부 소관 여자잠업강습소

1910년 1월 29일 한국정부는 칙령 제6호로 농상공부 소관 「여자잠업강습소관제」를 발포하고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의 사업 전부를 계승함으로써, 잠업강습소를 당국의 직접적인 관할에 두게 되었다.[9] 이 칙령 제6호(「여자잠업강습소관제」)의 내용은 "여자잠업강습소는 농상공부 대신의 관리에 속하고, 잠사업에 관한 강습, 잠종 및 상묘배부, 순회강화(巡廻講話)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장은 주임관(奏任官)으로 기사(技師) 1인을, 판임관(判任官)으로 기수(技手) 2인과 서기(書記) 1인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었다.[10] 이어 한 달이 되지 않아 여자잠업강습소를 관립(官立)으로 정하고 업무를 한층 확장하기 위해 여학생을 다수 모집한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이고,[11] 2월 23일에는 농상공부령(農商工部令) 제1호로써 「여자잠업강습소규칙」을 발포하였다.[12]

이에 따르면, 여자잠업강습소의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13] ① 수업 기한은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0일에 마치는 9개월간이며, ② 수업료는 징수치 않고 강습생은 강습소 내에 기숙하게 한다. ③ 강습생에게는 1개월에 6원 이내의 학비를 지급하는데, 다만 외숙(外宿)을 1주야(晝夜) 이상 했을 때는 일할(日割)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또 재학 중 학비의 전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가 있다면 특별히 정원 이외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학비의 급여를 받은 졸업생은 졸업일로부



용산에 설립된 농상공부 소관의 여성잠업강습소(한국중앙농회, 『잠업지장려(蠶業之奬勵)』, 1910)

터 기산(起算)하여 만 2개년간 정부가 지정한 직무에 종사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사양할 때에는 재학 중 급여한 학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납케 할 수 있다. ⑤ 학과목은 강의 과목으로 수신(修身), 일본어, 산술, 상수(桑樹) 재배법, 양잠법, 제사법(製絲法)이 있고, 실습 과목으로 상수 재배와 양잠, 제사가 있었다. ⑥ 입학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자로, 신체 건강하고 품행방정하며, 재학 중 가사(家事)에 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했으며, 입학 지원자는 매년 3월 20일까지 정해진 서식의 청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한 후 입학시험을 친다. ⑦ 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정부(正副) 보증인을 정하고 재학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인은 성년 이상의 남자로서 하나의 가계(家計)를 이룬 자로 하며, 그중 1인은 한성부 내에 거주하는 자를 요한다. ⑧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상기(詳記)하고 정부(正副) 보증인이 연서(連署)한 후 청원하여 허가를 받는다. 단, 질병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⑨ 품행불량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는 자, 결석이 많은 자, 성업(成業)의 전망이 없는 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퇴학을 당했을 때 또는 자기의

편의에 의해 퇴학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 지급한 학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⑩ 시험은 임시시험과 졸업시험이 있고, 졸업시험에 급제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⑪ 학업과 품행이 모두 우량한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고 표창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강의 과목 중 한문이나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은 채 일본어만을 명시한 것이 눈에 띄며, 한성부 내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에서 서울 경기 부근에 연고가 없으면 입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일병합 이후에도 이 같은 규정은 '일본어'가 '국어(일본어를 말함)'로, 한성부가 '경성'으로 바뀌었을 뿐 대략적인 내용은 유지되었다. 다만 이후에 생도의 모집방법을 변경하여 종래 경성 부근에서 경쟁시험으로 생도를 모집했던 것을 폐지하고 각 도지사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14]

3) 권업모범장 용산지장 여자잠업강습소

일제는 한말부터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 침략적인 의도를 보였다. 대한제국정부 주도의 '농사모범장' 설립계획을 무산시키는 대신에, 수리시설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는 수원에 일본 농업기술의 이식을 위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1906년 개설하였다.[15] 1910년 강제 병합 이후에는 권업모범장(본장은 수원 소재)의 각 지방 '출장소'를 '지장(支場)'으로 개칭하고, 여자잠업강습소를 권업모범장 용산지장(龍山支場)에 부속시켰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여자잠업강습소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병합 전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지급되는 학비가 1개월에 6원 이내에서 5원 이내로 줄어들고, 강습기간이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1월 20일까지인 10개월로 종래의 9개월보다 1개월이 늘었다.[16] 용산지장이 설치된 후인 1911년 여자잠업강습소에는 각 도 추천자 18명, 시험합격자 2명, 자비생 1명 총 21명을 입소시켰다. 그리고 1914년 4월 1일 권업모범장 용산지장이 폐지되면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하도록 결정되었다.[17]





권업모범장 교재인 『잠상요의(蠶桑要義)』(과천문화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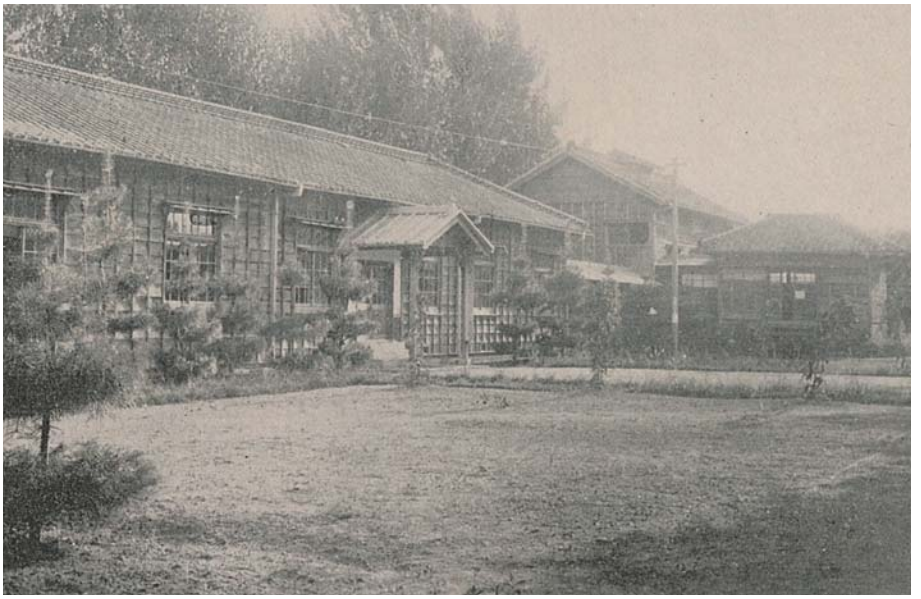
2. 수원 권업모범장 여자잠업강습소(1914~1929년)

1) 위치와 설비

여자잠업강습소는 수원의 권업모범장 본장으로 이전이 결정된 지 7개월 만인 1914년 11월 14일에 청사와 기타 부속건물의 건축이 완성되어 이전되었다.[18] 당시 권업모범장과 잠업강습소의 위치는 수원군 일형면 서둔리(지금의 서둔동)로, 북쪽으로 여기산을 등지고 동북은 서호에 면하고 있는 곳이었다.[19] 그 설비를 살펴보면 뽕나무밭과 도로 및 건물 부지 등이 있었는데, 1927년에 이전 당시의 면적에 더해서 근처 민유지를 매수하여 뽕나무밭을 만들었다. 그 결과 1927년의 토지 면적은 뽕나무밭이 2정 9반 2묘 6보(8,766평≒2만 8,979㎡)이고, 기타 토지가 1정 8반 8묘 6보(5,645평≒1만 8,661㎡)로 합계 4정 8반 1묘 2보(1만 4,411평≒4만 7,640㎡)였다. 건물은 이전 당시의 신축 건물이 청사와 일반 잠실 1개, 온돌 잠실 2개, 부속저상실



여자잠업강습소 약도(「권업모범장 일람도」, 수원박물관 소장)



여자잠업강습소 전경(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附屬貯桑室), 제사실습소, 소사실(小使室), 농구사(農具舍), 마구간, 기숙사가 각각 1개씩이었고, 관사가 4개였다. 이후 1927년에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서 교실과 기존 것의 2배가 넘는 크기의 온돌 잠실이 2개, 부속저상실과 제사실습실이 추가되었고, 부속식당과 취사장이 생겼으며, 기숙사가 2배로 증축되었다.[20]

2) 강습 상황과 강습생



제1회 졸업생 조중환 여사(『동아일보』, 1927년 1월 18일)

수원으로 이전한 후에도 한동안 강습소 규정이나 강습 상황 등이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16년 1월 22일자 기사에서 생도 모집 조건 중 "공립잠업전습소(公立蠶業傳習所) 졸업생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지원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학력 조건이 덧붙여진 것을 알 수 있다.[21] 강습 과목으로 수신, 일본어, 산술, 상수 재배법, 양잠법, 제사법을 두고, 실습 과목으로 상수 재배와 양잠, 제사와 관련한 다양한 노동을 하게 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 이때의 수업 방침은 "오로지 실용을 지향"하는 것으로, 학과는 길어야 1일 3시간, 1주일 18시간 정도를 수업하는 반면, 실습 명목으로 양잠은 양잠 기간에 종일, 제사 등 그 밖의 일은 1일 4시간 이상을 하여서 제사 실습에만 일주일에 27시간이 배당되었다.[22] 5일가량의 수학여행이 실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채로우며, 강습소의 학기가 아닌 기간에 강습생들에 대한 교육과 별도로 졸업생에게 다시 기술을 연마시키는 잠업강습회를 열기도 하였다.[23]

실제 강습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보고』를 통해 1914년부터 1922년까지의 입학과 졸업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14년에는 각 도의 추천 관비(官費)생 합계가 20명이었고, 지방비(地方費) 보조생이 5명, 사비(私費)생이 1명으로 총 26명이 입학하였다. 이 중 평안도 추천 관비생, 경북 추천 관비생, 강원도 지방비 보조생 각각 1명씩 3명은 병으로 퇴학하여 평안도 사비생을 관비생으로 전환하고 총 23명이 졸업하였다.[24] ② 1915년에는 관비생 20명에 전북과 함북의 지방비 보조생 3명과 경기도 사비생 1명을 더해 24명이

입학했으나, 경북의 관비생이 병으로 퇴학하여 경기 사비생을 관비생으로 전환하여 모두 23명이 졸업하였다.[25] ③ 1916년은 관비생 20명 외에 충남과 함북의 지방비생 2명이 있어 모두 22명이 입학하였는데, 이 중 충남 · 평북 · 경북 · 평남 관비생 4명이 병으로 퇴학하여 관비생 16명, 지방비 보조생 2명 총 18명이 졸업하였다.[26] ④ 1917년에는 관비생 20명에 충남과 함북의 지방비생 4명 총 24명이 입학했는데, 경북 추천 관비생 1명은 병 때문에 결석이 잦아 끝내 졸업하지 못하여 23명이 졸업하였다.[27] ⑤ 1918년은 관비생 19명과 충남 지방비생 2명, 충북 사비생 1명이 입학한 뒤, 사비생은 관비생에 편입되었다. 전남 추천 관비생 1명과 평북 추천 관비생 1명이 병으로 퇴학하고 20명이 졸업하였다.[28] ⑥ 1919년 입학생은 관비생 19명에 충남 지방비 보조생 4명을 더해 모두 23명이었으며, 충남 지방비생 1명이 관비생으로 편입되었다. 충남 추천 관비생 1명이 병으로 퇴학하고, 전남 추천 관비생 1명이 병으로 사망하여 총 21명이 졸업하였다.[29] ⑦ 1920년에는 관비생 20명, 충남 지방비 보조생 4명, 함남 사비생 1명으로 모두 25명이 입학하였으나, 충남 지방비생과 경북 관비생이 병으로 퇴학하였다. 사비생이 관비생에 편입되었고, 23명이 졸업하였다.[30] ⑧ 1921년은 추천 관비생 18명과 충남 지방비 보조생 4명, 전남 지방비생 4명, 충북 지방비생 1명을 더해서 총 27명이 입학하였다. 함남 관비생 1명, 전남 지방비생 1명이 병으로 퇴학하고, 25명이 졸업하였다.[31] ⑨ 1922년에는 추천 관비생 20명, 충남 지방비 보조생 1명, 전남 지방비 보조생 2명 등 모두 23명이 입학하였다.[32]

이상의 내용을 통해 20명까지는 각 도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관비 지급생이며, 정원 외(外)로 지방비 보조를 받는 학생이나 사비로 학비를 내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비 입학생은 정원이 남는 경우 관비 지급생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을 이유로 중도에 퇴학하는 인원이 매년 1~3명가량 있었다.

〈표 1〉은 같은 시기 입학생의 연령별 학생수이다. 지원 자격 중 "만 18세 이상의 자로, 재학 중 가사에 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실상 가정이 있는 기혼 여성은 입학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19세~20대 초반의 연령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1914~1922년 여자잠업강습소 입학생의 연령별 학생수[33]

(단위 : 명)

연도	만 18세	만 19세	만 20세	만 21세	만 22세	만 23세	만 24세	만 25세	만 26세	만 27세	만 28세	만 29세	만 30세 이상
1914	2	5	5	2	1	–	–	1	2	1	1	2	1
1915	1	3	5	2	2	2	2	3	–	–	–	–	3
1916	–	7	6	–	1	1	–	1	2	–	–	–	–
1917	–	6	8	2	1	–	–	–	–	–	–	1	5
1918	–	9	6	3	–	1	–	1	–	–	–	–	–
1919	–	1	6	4	3	2	2	–	–	1	–	1	1
1920	–	2	7	7	4	2	–	1	–	–	1	–	–
1921	4	11	6	4	2	–	2	1	1	–	–	–	–
1922	–	6	7	5	1	–	1	1	1	–	–	1	–

〈표 2〉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 시기부터 1929년까지 출신도별 졸업생수[34]

(단위 : 명)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합계
1909	26	0	2	0	0	0	0	0	0	0	0	0	0	28
1910	17	1	2	0	1	1	1	0	1	1	0	0	0	25
1912	3	2	0	1	1	2	0	2	2	0	0	2	2	17
1913	0	3	1	3	1	2	2	0	2	6	3	2	1	26
1914	1	1	1	3	0	2	3	1	2	6	2	2	1	25
1915	1	0	1	4	1	2	3	1	1	2	2	2	3	23
1916	2	1	1	3	1	1	1	2	1	2	2	2	4	23
1917	1	1	1	2	1	1	1	2	1	1	1	2	3	18
1918	1	2	4	1	1	0	2	2	1	2	1	2	4	23
1919	0	2	6	2	0	2	2	1	0	0	1	2	2	20
1920	1	2	5	1	0	0	2	2	1	1	1	3	2	21
1921	1	2	5	2	1	0	2	3	1	0	0	5	1	23
1922	1	3	6	2	5	0	2	1	1	1	0	1	2	25
1923	1	3	4	1	5	1	2	1	2	0	0	2	1	23
1924	2	2	5	1	5	1	1	1	2	1	0	2	1	24
1925	2	2	2	1	2	3	1	1	2	1	0	2	1	20
1926	3	1	3	2	2	3	1	1	1	1	1	1	1	21
1927	4	1	1	2	3	3	1	1	1	1	1	2	1	22
1928	4	1	1	1	2	2	1	1	2	1	1	1	2	20
1929	5	2	3	4	3	5	4	3	2	2	2	3	2	40
합계	76	32	54	36	35	31	32	26	26	29	18	38	34	467

한편, 강습생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앞의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도별로 입학자를 선정하므로 전국에서 비교적 고르게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도지사 추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던 경기도를 제외하면 충남 출신의 졸업자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앞의 입학 사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지역보다 충청남도의 지방비 보조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에 비해 함남과 함북 출신 강습생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이처럼 여자잠업강습소는 1910년대와 1920년대를 통틀어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 권업모범장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식민지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 장소가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14년 이후 조선총독부 최고위 인사인 총독과 정무총감이 임기 중 한 번은 권업모범장과 잠업강습소를 방문해 시찰하고 돌아갔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16년 8월에 정무총감 야마가타(山縣)가, 1917년 5월에 총독 하세가와(長谷川)가 방문했으며, 1920년, 1922년, 1924년에는 각각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水野), 아리요시(有吉), 시모오카(下岡)의 방문이 있었다. 1925년에는 총독 사이토(齋藤)가 시찰하고 갔고, 이듬해 1926년과 1928년에도 각각 정무총감인 유아사(湯淺), 이케우에(池上)가 방문하였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28년 4월에 총독 야마나시(山梨)가, 1929년 7월에 정무총감 고다마(兒玉)의 방문이 잇따랐다.[35]

이러한 여자잠업강습소가 다시 변화의 국면을 맞은 것은 권업모범장이 농사시험장으로 바뀌게 되면서였다. 실제 1920년대 말부터 여자잠업강습소에 변화들이 나타났다. 1927년에는 종래 10개월의 강습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같은 해 말에 교실 · 잠실 · 기숙사 등의 증축 공사가 완성되었으며, 1928년에는 근처 민유지를 사들여 넓은 뽕나무밭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의 입학생부터 종래 20명이었던 정원을 40명으로 2배나 늘렸다.[36] 이는 모두 다음 국면으로의 이행을 위한 조치였다.



농사시험장 잠사부의 전경(수원박물관 소장)

3. 수원 농사시험장 여자잠업강습소(1929년 이후)

1)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관제」 공포

1929년 9월 17일자로 「권업모범장관제」가 폐지되고 칙령 제279호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관제(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官制)」가 공포되어, 여자잠업강습소도 권업모범장 부속에서 농사시험장 부속으로 바뀌었다. 이 칙령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은 조선 총독이 관리하였고, 관장 사무로는 ① 농업, 잠사업 및 축산업의 발달 개량에 관한 조사 및 시험, ② 토지, 비료, 농산물, 상엽(桑葉), 견(繭), 생사, 축산품과 그 밖의 농업, 잠사업 및 축산업에 관계있는 물료의 분석, 감정 및 조사, ③ 종자, 종묘, 종축(種畜), 종금(種禽), 종란(種卵)의 생산 및 배부, ④ 원잠종(原蠶種)의 제조 및 배부, ⑤ 강습 및 강화(講話)가 있었다.[37]

사실 이는 일제가 1920년대 중후반에 들어 '모범'을 보이는 것, 즉 일본식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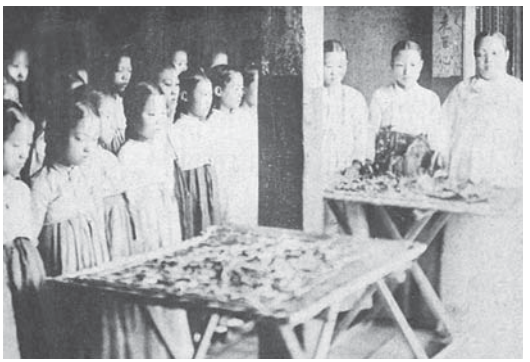
기술체계의 단순한 이식만으로는 한국에서의 농업 생산력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미 1928년부터 권업모범장을 실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결국 1929년 9월 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고 나서 관련 업무를 더욱 체계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즉 권업모범장 시절에는 수원본장의 사무에 대한 분장규정이 따로 없었으나,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면서 「사무분장규정」을 만들어 전문 분야에 따라 서무과, 종예부, 화학부, 병리곤충부, 축산부, 잠사부 및 여자잠업강습소 등으로 사업부서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농사시험장은 약 15년간 존속하다가 1944년 5월 농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38]

2) 강습 상황

권업모범장이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잠업강습소도 강습 방침과 규정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우선 강습 방침에서 기존에 "오로지 실용에 목적을 둔다."고 하였던 소박한 정도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조선 양잠가의 실지(實地) 지도는 부녀가 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이들 여자 기술원의 양성을 위해 지방에 수십 개소의 상설 또는 임시의 여자잠업강(전)습소가 있는데 본소(所)는 이들 **강(전)습소의 교사 및 고급의 여자기술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실지 기능의 연마에 중점을 두는 한편으로 기술운용의 기초라 할 학리(學理)의 수득(修得)에 대해서도 (노력하여) 입학자격에서 학력 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각 학과의 세부 과목에 각각 상당 정도를 정하고 강습한다.[39]

즉, 각 지방의 잠업강(전)습소보다 한 단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양잠업 교사나 고급 여성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입학자격에서 학력 기준이 강화되어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수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잠업강(전)습소 졸업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만이 입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강습기간도 1년으로 늘어났고, 연령 제한은 만 17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졌으며, 지급되는 식비가 '한 달



여성보학원의 양잠 강습(한국중앙농회, 『잠업지장려』, 1910)



농장작업실 및 양봉장(수원박물관 소장)



양잠실(수원박물관 소장)

10원 이내' 로 두 배 증가하였다.[40]

강습 과정이 전문화되었음은 과목의 변화로도 나타났는데, 변경된 체제는 이미 1928년에 마련되었다. 실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학과 과목이 세분화되어 수신, 국어(일본어를 말함), 수학, 농업이과(農業理科), 토양비료, 상수 재배법, 잠체(蠶體) 생리 및 해부, 잠체병리, 춘하추잠(春夏秋蠶) 사육취급법, 잠종제조법, 제사법, 설물(屑物) 정리법, 잠업법규, 농업대의(農業大意), 과외강의(課外講義)에 각 시수가 배정이 되었으며, 실습 과목에도 기존의 양잠과 제사 관련 일에 더해 현미경 사용, 잠체 해부, 견면포사의 염색법 등을 추가하였다.

3) 강습생과 졸업생의 취업

다음으로 강습생을 살펴보면 각각 19회와 20회 강습생인 1928년과 1929년 입학생들의 연령은 〈표 3〉과 같았다.

〈표 3〉 1928~1929년 여자잠업강습소 입학생의 연령별 학생수[41]

(단위 : 명)

연도	만 18세	만 19세	만 20세	만 21세	만 22세	만 23세	만 24세	만 25세	만 26세	만 27세	만 28세	만 29세	만 30세 이상
1928	9	11	10	8	1	1	–	–	–	–	–	–	–
1929	10	12	9	5	1	–	3	1	–	–	–	–	–

앞의 시기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연령층이 많이 낮아져 만 18~21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대 중반 이후의 연령을 가진 강습생이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자격에서 학력 기준이 높아졌고 강습 방침이 보다 전문화된 인력 양성 쪽으로 기울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 중 1929년 입학생을 살펴보면 관의 급비(給費) 입학생은 28명이었으며, 지방비생이 1명, 그리고 사비 입학생이 무려 12명이나 되었는데, 특히 사비 입학생 중 한 명은 간도(間島)의 용정(龍井)에서 오기도 하였다.[42]

이들을 다시 혼인관계와 보호자 직업별, 입소(入所) 전 학력별로 나누어 본 것이 〈표 4〉이다.

〈표 4〉 1929년 입학생의 혼인관계별, 보호자 직업별, 학력별 현황[43]

(단위 : 명)

혼인관계별			보호자 직업별			
과부	미혼	계	농업	상업	공리(公吏)	계
2	39	41	34	6	1	41

입소 전 학력별					
고등여학교 졸업	공보 6년 졸업 지방잠업 졸업	소학교 6년 졸업 지방잠업 졸업	공립보통학교 6년 졸업	공보 5년 졸업 지방잠업 졸업	계
1	37	1	1	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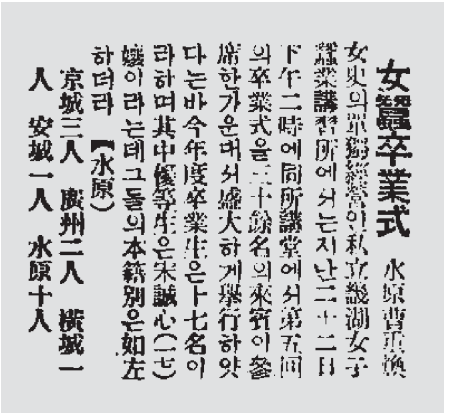
사실 여성의 취학률이 극히 낮았던 당시에 비추어 보아 공립보통학교 6년을 졸업하고 다시 지방잠업강(전)습소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은 고학력에 속했다.[44] 그리고 이 시기에 가난한 집일수록 딸들의 혼인을 서둘러서 여성의 조혼이 문제시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20세 전후의 여성들이 대개 미혼이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비 입학생도 꽤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습생들은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강습소의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의 진로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32년 9월 18일자 『매일신보』에서는 여자잠업강습소에 대한 간략한 연혁 소개와 함께 "창시 이래 소화 6년도(1931년-필자)까지 각 도별 졸업생 상황을 보니 경기의 84명을 필두로, 충북 35명, 충남 58명, 전북 43명, 전남 42명, 경북 39명, 경남 38명, 황해 33명, 평남 30명, 평북 33명, 강원 24명, 함남 45명, 함북 38명 계 542명으로, 그들은 모두 도농회(都農會 : B), 지방잠업강(전)습소(C), 치잠공동사육부(稚蠶共同飼育部 : D) 촌락양잠조합 등에 교사로 초빙된 자가 많고, 혹은 창덕궁 친잠실(親蠶室 : A)에 근무하는 자도 있으며, 또 스스로 잠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근에 그 모범을 보여 직접 이 업의 발달과 잠업의 개량에 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다."[45]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잠업강습소에서 밝혀 온 졸업생 진로 상황과 다르지 않다.[46] 실제 구체적인 진로 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졸업생 취직 상황 누계와 1923~1927년 취직 상황[47]

(단위 : 명)

연도	취직						상급학교 진학	가정	잠종 제조업자	사망	합계
	A	B	C	D	순회교사	기타					
누계	2	8	40	6	39	20	2	281	1	28	427
1923	–	1	2	–	4	1	1	15	–	–	24
1924	–	–	4	1	5	1	–	9	–	–	20
1925	–	–	7	1	3	2	–	7	–	1	21
1926	1	1	8	1	5	1	–	4	–	1	22
1927	–	1	11	1	3	3	–	1	–	–	20
계	1	3	32	4	20	8	1	36	0	2	107



女蠶卒業式 水原曹重煥

女史의 單獨經營인 私立畿湖女子蠶業講習所에서는 지난二十二日 下午二時에 同所講堂에서 第五回의 卒業式을 擧行하였는데 當日 參席한 가운데 盛大하게 擧行하였다는 바 今年度 卒業生은 十七名이라 하며 其中 優等生은 宋誠心(二七)孃이라는데 그들의 本籍別은 如左하더라 【水原】

京城三人 廣州二人 橫城一人 安城一人 水原十人

수원사립기호여자잠업강습소 졸업식 기사(『동아일보』, 1928년 9월 24일)

대부분 취직을 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가장 많은 진로는 가정 살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인 여성 무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25%가 넘는 취직률은 상당한 것이었고, 특히 뒤로 올수록 취직률이 높아서 1923~1927년 5개년만 놓고 보면 취직률이 거의 70%에 달한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비 입학생도 많아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창덕궁 친잠실 취직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48] 역시 지방 잠업강(전)습소 교사나 순회교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수원 여자잠업강습소의 강습 방침의 변화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습소 졸업생들은 이미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 시절부터 조선부인회 잠우회(蠶友會)를 조직하여 서로 연락을 취해 오고 있었으며,[49] 그중에는 수원 권업모범장의 여자잠업강습소를 제1회로 졸업한 후 수원기호여자잠업강습소(水原畿湖女子蠶業講習所)를 설립하여 조선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자 한 조중환(趙重煥) 여사와 같은 인물도 있었다.[50]

일제의 농사시험장은 해방 후 중앙농사시험장, 국립농사개량원(서울) 및 농사교도국(수원), 중앙농업기술원, 농사원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거나 신설되면서 대한민국정부의 농업정책과 함께 변화해 갔다. 여자잠업강습소는 1948년 12월까지도 국립농사교도국의 강습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쓰이는 등 존치되어 있었다.[51] 그러나 1976년 3월 6일 내무부가 시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사업소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였고, 이때 시범낙농목장, 농촌진흥원 진안시험장, 종축장 일부, 양어장, 수산종묘배양장 등과 함께 통폐합 대상 87개소에 포함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5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농업 기술 개발과 농업교육의 중심이었던 수원에서 여자잠업강습소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여성 농업기술관의 양성기관이었다. 이것은 양잠업이 오랫동안 가내부업 및 전업으로서 여성의 부덕을 상징하며 장려되었던 전통과도 닿아 있었고, 조선 양잠업의 개발을 통해 일본 자본에 원료를 공급하고자 했던 일제 당국의 수탈적인 의도와도 맞물려 있었다. 사실 여자잠업강습소는 이 시기 여성교육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길어야 1년이라는 짧은 강습기간과 많아야 40여 명에 지나지 않는 강습생의 수, 양잠 노동에 가까운 실습 위주의 강습내용 등을 볼 때 교육기관으로서는 많이 빈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개인적인 자아 계발을 도모하고, 조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 간의 유대를 다지고 상부상조하고자 했던 당시 여성들의 시도가 있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자잠업강습소 표석



1. 유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다
2. 일본 유학의 배경과 조건
3. 여자 유학생들의 일본 경험
4. 귀국 후 조선사회를 이끌다

박정애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03 수원 여자 유학생의 일본 경험과 근대적 지식체득

1. 유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다

개인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여남 평등이 주창되는 근대는 여성의 역사에서 가장 큰 획기(劃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이른바 '스펙'을 갖춘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개인 경쟁이 옹호되는 시대 상황에서 여성들은 학력과 경력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전문가'로서 활동하였다. 동시에 남성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독점해 왔던 지적(知的) 영역이나 사회활동 영역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유학(留學)은 고등학력을 얻고자 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여겨졌다. 특히 조선에서 현모양처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고등교육 및 지식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던 여성들은 유학을 통해 민족 차별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사회의 우려와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난관을 뚫고 유학을 성사시키면서 여성이 배워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날을 세워 갔다. 이들에게 유학은 여성으로서의 삶,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을 타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여성으로서의 삶, 지식인으로서의 삶,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여자 유학생들에게 숙명이었다. 조선보다 문명하다고 여겨지는 유학지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조선인 유학생과 야나기하라 기쓰베에(1926, 모모야마학원 사료실 소장) 앞줄 왼쪽부터 박소제, 야나기하라, 문남식, 김동옥, 김숙배, 뒷줄 왼쪽부터 윤덕희, 박정숙, 최경진, 김복조, 손별남

에서 여자 유학생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를 습득하고 실천하기에 열중하였다. 선구적인 여성 지식인으로서 자신들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했고, 조선에 돌아온 뒤 실제로 조선의 젠더구조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유학생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이 일본 유학생이었다. 일본은 서구문명을 성공적으로 동양사회에 응용했다고 여겨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본 유학을 조선에게 유리한 근대문명의 전달통로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본 유학 출신자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구의식을 가지고 근대 한국의 지성사와 문화사, 민족운동사를 선도하였다.

학력, 의식, 문화, 활동 면에서 '새로움'을 장착하고 식민지 조선사회에 등장했던 신여성들이 대부분 유학을 다녀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수원 출신의 이름 높은 신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나혜석(羅蕙錫), 박충애(朴忠愛), 이현경(李賢卿), 임효정(林孝貞) 등의 지도층 여성들이 일본 유학을 경험하였다. 특기할

점은 나혜석과 이현경 같은 이들은 당대의 여자 일본 유학생 세대를 대표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1910년대 중후반에 일본에서 유학했던 나혜석은 제1세대 여자 일본 유학생을 대표하며 여성의 자각과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이현경은 1920년대 중반에 조선으로 돌아와 근우회가 탄생하는 데 산파 역할을 하였다. 여성운동을 조직하고 실천했던 제2세대 여자 일본 유학생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여자 일본 유학생이 한국 역사에서 지닌 선도적 역할 때문에 그동안 신여성 연구나 민족운동사 연구, 여성운동사 연구 등에서 이들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사의 관점에서 수원 출신 여자 일본 유학생에 접근해 보려 한다. 나혜석과 이현경을 비롯해서 그 외 수원 출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본 유학의 경험과 특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애 추적의 방식으로 수원 출신 여자 일본 유학생들의 유학 배경, 유학생활, 역사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여성, 민족, 지역을 넘나들고 아우르면서 새로운 한국 근대 여성사를 써 나갔던 수원 여성 역사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유학의 배경과 조건

1) 여성에게 '배움'의 의미와 일본 유학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수원 여성에게 유학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수원 지역에는 1936년 수원공립가정여학교(현재 수원여자고등학교)가 생길 때까지 초등과정을 이수한 여학생이 진급할 수 있는 중등과정 학교가 없었다. 이 때문에 중등과정에 진학하려는 여학생들은 서울 등의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여성들도 서울 소재의 중등과정 여학교에 진학을 하였다. 수원 삼일여학교를 나온 나혜석, 박충애, 임효정은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나혜석 1910년 입학)와 서울 이화학당(박충애 1912년 입학, 임효정 1919년 입학)에 진학했으며, 이현경은 수원의 진명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



경부선 통학생(홍의선 제공) 1941년 수원 출신 이화여고 학생들로, 경부선 열차로 통학을 하였다.

다(1914년). 수원에서 통학을 했던 임효정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집을 떠나 서울에서 기숙사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혜석은 여동생과 함께 기숙사생활을 했으며, 이현경은 정동 성공회 성당이 운영하는 학생 기숙사에서 지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또래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10대 중후반의 여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의미였다. 여학생들은 동급생, 선후배들과 어울리면서 평등과 자치의 문화를 경험하는 한편, 젊은 여자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역할모델을 찾기도 하면서 주체적인 삶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여성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및 역할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였다.[1] 따라서 집을 떠나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는 여학생들은 가족 안에서 부여된 여성의 역할, 곧 어머니나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을 객관화하고 의문시할 수 있는 지적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조선사회에서 극소수로 존재했던 여학생[2]들은 학교에서 문명과 민족, 가족관계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배움의 가치와 힘에 대해 체감하였다.



일제시기 여학생 기숙사(이달순 제공)



1910년 숙명고등여학교 제1회 졸업생(이달순 제공)



졸업 처녀의 번민(「풍자해학 신유행예상기」, 『별건곤』, 1928년 2월)

교육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았던 이들이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고자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 내에는 여성 고등교육기관이 거의 없었다. 1910년에 이화학당이 대학과를 설치했지만, 당국의 인가를 받은 과정이 아니었고, 교육 시스템도 미비하였다.[3]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은 1925년에 설립된 이화여자전문학교였으며, 그 뒤를 이어 1938년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1939년에 숙명여자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곧 식민지 조선에서 여자 전문학교들은 설립 시기가 늦을뿐더러 학교수 자체가 적었고 전공과목도 한정되어 있었다.

해외유학은 조선 내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여성들은 1890년대 후반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하였다.[4] 하지만 1910년 무렵까지는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한 유학이었고, 그 수도 많지 않았다.[5]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한 여학생들의 유학은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조선 내 여성 중등교육기관에서 1910년 무렵부터 졸업생을 내기 시작했다

는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6] 이 때문에 1910년대에 들어와 남학생의 일본 유학은 줄어든 반면, 여학생의 일본 유학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 강점의 충격과 총독부의 사비(私費) 유학생 억제정책 속에서 1910년대 남자 일본 유학생의 수는 이전 시기의 수치를 넘지 못했지만,[7] 여자 일본 유학생의 수는 30~4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전 시기를 능가하였다.[8]

근대 일본 유학정책에서 1910년대는 일본 유학이 억제되고 유학생에 대한 총독부의 감독과 단속이 강화된 시기이다. 지식교육은 억제하고 중하급관리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수준을 낮추겠다는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실시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추진된 이 시기 유학 억제정책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여자 유학생의 수 자체가 적었고, 현모양처주의 여성교육 시스템에서 여자 유학생들은 가사 관련 교사나 소아과 · 산부인과 의사를 배출하는 고등사범학교 또는 의학전문학교에 몰려 있었다.[9] 또한 총독부는 한국 여성들이 오랫동안 집안에 칩거하여 사회정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 유학생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여성을 비정치적 존재로 보았던 총독부의 인식은 역설적으로 3 · 1운동이 발발한 시기에 여자 유학생들이 비밀연락과 문서 및 태극기 전달을 수행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친일파를 양성하려는 총독부의 의도 아래 유학규정도 대폭 완화되고 사비 유학의 규제도 풀려 일본 유학생이 대폭 증가하였다. 남자 유학생수의 10% 미만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여자 유학생의 수도 1920년대에 200명을 넘어서고 1930년대 말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10] 선진적이라고 믿어지는 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과 사회상승을 도모하려는 유학 대열에 여성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이다.

2) 수원 여성의 유학 배경

여자 일본 유학생들은 주로 사비 유학의 방식을 택하였다. 총독부의 관비 유학생 제도는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기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활용되었기 때문에 주

로 남학생들이 혜택을 보았다.[11] 1910년대에는 사비 유학생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유학을 가기 위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웠다. 1911년 「조선총독부유학생규정」에 따르면 사비로 일본에 유학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이수학과, 입학 및 출발시기를 명기하고 이력서를 첨부하여 지방장관을 거쳐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야 하고, 지방장관은 유학 희망자의 성품 및 부형의 생업과 재산 상황까지 명백히 조사하여 보고해야 했다. 각 지방 군수, 부윤은 일본 유학 희망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조선 내에서 수업하도록 설득해야" 했으며, 유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자금을 책임질 만한 2명의 보증인 연서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했다.[12]

유학 희망자의 사상과 지향성, 유학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 여부가 유학 허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자 유학생 중에는 자산가 집안의 딸들이 많았는데, 특히 근대화가 초래한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가산을 이룬 사회계층의 출신자가 많다는 점[13]은 특기할 만하다.

반면 수원 출신 여자 유학생의 경우, 모두 전형적인 사례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다. 수원 최초의 여자 일본 유학생인 나혜석은 수원의 손꼽히는 부잣집 출신이었다. 조부인 나영완 대에 '나부자댁'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그 경제적 안정 위에서 부친 나기정이 시흥과 용인 등지에서 군수를 지내면서 개명 관료로서 이름을 높인 집안이었다.[14] 따라서 1913년에 진명여고보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 유학을 떠날 때, 경제적인 요소는 나혜석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유학을 반대하고 혼인하기를 권하는 아버지가 문제였다. 당시 나혜석의 나이는 18세로, 이른바 결혼적령기였던 것이다.

이때 부친을 설득하고 유학을 성사시킨 사람은 동생의 재능을 아낀 오빠 나경석이었다. 1910년부터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나경석은 나혜석이 진명여고보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자마자 동생에게 일본 유학을 독려하였다. 나혜석의 전공을 정해 준 사람도 나경석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또 그리고 싶어 했으나 그림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을 때"에 오빠 나경석이 "그림을 배우라고 미술학교에 입학을 시켜" 주었던 것이다.[15]

따지고 보면 나혜석은 본인의 의지에 앞서 오빠의 정보와 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유학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유학의 선례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친의 지지를 받고 있던 오빠가 유학의 강한 동기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혜석의 욕구가 따라 주지 못했다면 유학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똑같이 진명여고보를 우등으로 졸업했던 동생 나지석은 유학을 시도하는 중에 부모님의 뜻을 좇아 혼인을 했던 것이다.[16]


나혜석의 유학을 독려한 나경석(오른쪽, 수원박물관 소장)

그 이후에도 혼인 문제는 유학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1915년 1월, 다음 학기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부친이 혼인을 강요하면서 학비를 끊어 버렸던 것이다. 이에 나혜석은 여주공립보통학교에서 1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비를 모아 일본 유학을 재개하였다. 이처럼 부잣집 딸이라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유학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학생활은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여자 유학생들은 가족들에게서 공부보다는 시집을 가라는 독촉을 받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 갔다. 나혜석도 스스로 학비를 벌어 유학을 강행하면서 배움의 필요에 대해 더욱 절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혜석과 삼일여학교 동창이었던 박충애의 경우, 유학의 뜻은 있었으나 집안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박충애의 모친인 김메례(金袂禮)는 1887년에 9살의 나이로 이화학당에 입학[17]해서 교육을 받은, 이른바 개화여성이었다. 그러나 혼인을 한 뒤 남편 및 시집식구들과의 갈등 끝에 딸만 데리고 집을 나와 수원 삼일여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18] 스스로 근대교육을 받은 초창기 여학생이자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나혜석



조선인 유학생을 많이 도왔던 일본인 아나기하라 기쓰베에 부부와 나혜석(모모야마학원 사료실 소장)



유학 가기 전 박충애(독립기념관 소장)



박충애와 임효정의 학비를 보조한 요시노 사쿠조

가르치는 교사로서 김메례가 딸의 공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딸의 일본 유학을 뒷바라지할 만큼은 아니었다.

이화학당 중등과에 진학하여 1915년에 졸업한 박충애는 한동안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감리교회 부속 보통학교 교원으로 일을 했다.[19] 남편인 최승만의 회고에 따르면, 박충애는 감리교회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다가 최승만의 주선을 통해 여비와 학비 지원을 받고서야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 요시노(吉野) 박사를 찾아갔다. "한국 여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박사는 지체하지 않고 얼른 대답하기를 "당신이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더 물을 필요 없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다. …… 이 결과를 장형과 박양에게 전달하였다. 박양을 나도 곧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소 흥분되기도 하였다. 장형은 김성수 씨에게서 박양의 여비로 100원을 얻어서 서울을 떠나도록 해 주었다.[20]

이 글에서 장형은 장덕수, 박양은 박충애를 말한다. 학비를 지원해 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도쿄대 법학과 교수로 지내면서 다이쇼(大正)시대 민본주의 이론을 정립한 학자이다. 기독교청년단체인 YMCA에 관계하면서 조선인 유학생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뒤에 3·1운동을 지지하기도 했다.[21] 최승만 등 조선인들의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박충애도 그의 도움을 받아 일본 유학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임효정도 일본 유학기간에 요시노 사쿠조의 장학금을 받았다. "별로 부유한 가정은 못 되"는 집안에서 보통학교를 마친 임효정은 "여자로서 공부하면 무엇에 사용되며, 무슨 영광이 있느냐 반대하시고 절대로 거절"하는 아버지에 대해 "불효의 말씀으로 나는 일향 부친의 교훈에는 절절히 반항하고 경성까지 뛰어 올라와서" 1919년에 이화여고보를 마쳤다.[22] 그리고 역시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중국 유학을 마친 뒤 1924년에 다시 일본 유학을 떠났다.[23] 요시노의 일기에 의하면 임효정은 1928년 5월에 요시노를 찾아와 4~5월분의 학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정 기간 요시노에게 두 달에 한 번 장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24]

여자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 출신 여성들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면서 유학생활을 이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박충애와 임효정은 집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수원 나부잣집'의 나혜석은 부친의 유학 반대로 일정 기간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다. 학비 지원이 끊긴 상황이거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느꼈을 학자금에 대한 부담은 역설적으로 공부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딸의 공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아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관습적으로, 또 식민지시기 법적으로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남성인 보호자를 동반해야 했던 여성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수원 여성들의 유학 결행은 그 자체가 전통과 근대의 충돌 과정이자, 여성 주체화와 여성 타자화 문화의 충돌 과정이었다.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이현경의 유학 배경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부친의 직업이 '상업' 또는 '금대업(金貸業)'이고, 자녀 3남매 모두를 서울과 개성 · 일본 등지에 유학을 보내고 있음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집으로 추측된다.[25] 이현경은 수원 진명여학교와 서울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몇 달 동안 경남 밀양의 보통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1917년에 일본 유학을 떠났다. 이현경과 절친했던 이덕요의 회상에 따르면, 경성여고보 졸업 후 먼저 일본 유학을 떠났던 이덕요가 방학을 맞아 수원 이현경의 집에서 묵었는데, 가을에 학교로 돌아가려고 보니 이현경이 "떨어져서 살 수 없다 하고 죽기를 맹세하고 나와 같이 가자고" 해서 "약간의 학비를 변통해서 같이 도쿄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26] 곧 이현경이 일본 유학을 가게 된 데에는 친구 이덕요가 가장 강한 동기였다.

이현경이 직접 유학동기를 밝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로지 친구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철부지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시기 여학생들의 사귐 문화에 담긴 의미가 만만치 않다. 근대 공간에서 처음 보이는 여학생들 간의 사귐 문화에 당시 사회는 '동성연애'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였다.[27] 집안의 위계질서에 익숙해 있던 여성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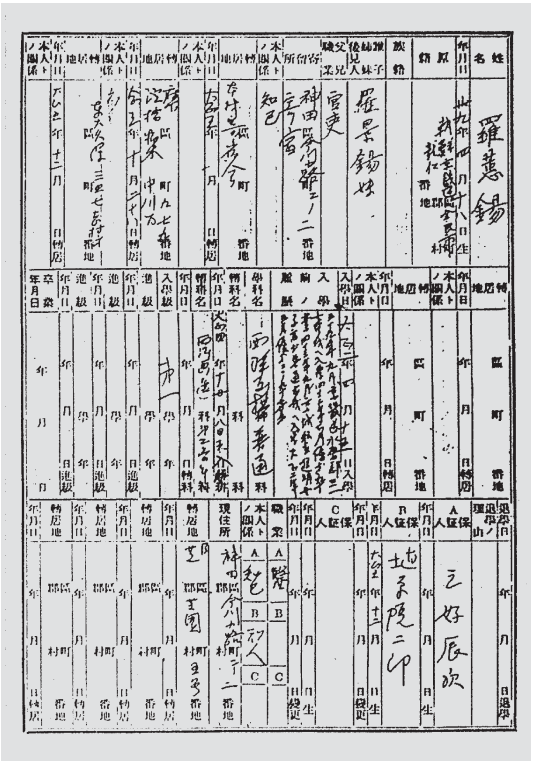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친구들과 평등한 사귐을 경험했고, 고민과 미래 · 비밀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 이현경도 경성여고보 재학 당시 절친한 친구였던 이덕요와 경험을 공유하려 했으며, 친구를 계기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연애'와 유사한 애정과 믿음이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현경은 의학을 전공했던 이덕요와는 달리 니혼여자대학에 입학해 사회사업을 전공하였다.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한 끝에 결정한 선택이었다.

3. 여자 유학생들의 일본 경험

1) 유학 자격 문제와 수원 여성의 유학경로

여자 유학생들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을 지향했지만, 1910년대에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인 1911년에서 1919년 사이, 조선의 여성교육 학제는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3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여성교육 학제는 소학교 6년, 고등여학교 4년이어서, 초등-중등 과정 수학기간이 3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1903년에 제정된 일본의 「전문학교령」은 입학자격을 "여자의 경우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 입학자격에 결함이 있는 학생에게는 예과(豫科) 과정이나 지정교(指定校) 제도를 통하여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따라서 학력이 모자랐던 조선인 여학생들은 예과 및 지정교 제도를 활용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특과생으로 고등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별과(別科)나 선과(選科) 등의 특과생으로 취급해 입학시험을 면제해 주었는데, 조선인이나 대만인 등 식민지 유학생들도 외국인으로 취급했던 것이다.[28] 일종의 특혜이기는 했지만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제도 때문에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었던 유학생에게는 식민지 현실을 자각시키는 장벽이기도 하였다. 일본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전문 분야에서 선과 출신이란 것은 제국 본국인과 식민지민을 가르는 구분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혜석의 도쿄여자미술학교 학적부

이러한 사정 탓에 여자 유학생들은 예비과정을 거쳐 모자란 학력을 채우거나 선과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학업을 개시하였다. 나혜석은 1913년 도쿄여자미술학교 서양학과 선과 보통과에 들어갔다가 1915년에 휴학한 뒤 1916년 동교 서양학과 고등사범과에 전입, 1918년에 졸업하였다.[29] 1917년에 유학길에 오른 이현경은 1921년 9월에 니혼여자대학 사회사업부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30] 이덕요는 이현경과 일본에 도착한 후 도쿄의 모 고등여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다고 언급했는데,[31] 이현경이 니혼여자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예비과정을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미션계인 이화학당[32] 출신 박충애와 임효정은 최종적으로 도쿄 여자영학숙[33]을 졸업하였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미션스쿨은 제도권 교육과정과는 거리를 두고 나름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종교교육을 일반교육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경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미션스쿨은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각종학교로 남았던 것이다. 각종학교 출신자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미션스쿨은 자구책으로써 학교 내에 고등과 및 대학과를 확충해 그 자체로 완결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34]

졸업생들은 다시 미션스쿨의 교사로 채용되거나 전도사 등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종교활동 속에서 학력 문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션스쿨은 국경을 넘어서도 서로 간에 공부할 수 있는 미션 루트를 형성하고 있었다.

박충애도 1918년에 요코하마(横浜)여자신학교에 입학한 뒤에 다시 여자영학숙에 들어가 영문학을 전공하였다.[35] 임효정은 1924년 1월 중국 마띨다(明德)여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여자영학숙에 진학하였다.[36] 영문학과 신학을 전전했던 박충애와 임효정의 유학경로를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진로의 모색 속에서 유학을 선택했음을 엿볼 수 있다.

2) 여자 유학생들의 단체 활동과 수원 여성

지식인으로서 선구의식이 있던 유학생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사회에는 실력 양성으로 힘을 모아 조선의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여러 개로 난립해 있던 유학생단체도 1913년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의 결성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각지 분회(分會)의 연합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던 학우회는 1916년에 들어와 분회를 모두 해산하고 중앙통일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졌다.[37]

여자 유학생들의 단체는 이들의 집단이 가시화되는 1910년대 중반 무렵부터 나타났다. 1915년 4월 3일 최초의 여자 유학생단체인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이하 여자친목회)를 결성했던 것이다.[38] 여자친목회의 탄생은 당시 유학생 사회에 통일단체가 결성되는 분위기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목회는 학우회의 행보에 발맞추어 1917년 이후 각지 여자 유학생단체의 대표단체적 성격을 가졌다.

여자친목회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품성 함양"을 내세운 소박한 단체로 출발했지만, 여성 지식인들만의 성별 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조선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사회활동 공간의 지평을 넓히고 남성 중심의 담론 형성에 개입해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 주체세력의 탄생을 알린 것이다.[39]

초대 회장은 도쿄여자학원에 다니고 있던 김필례였으며, 1917년에는 학교를 졸



1917년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 육상운동경기(독립기념관 소장)

업하고 귀국한 김필례의 뒤를 이어 역시 도쿄여자학원에 다니고 있던 김마리아가 회장에 선임되었다. 김필례는 도쿄 유학생 사이에서 초대 도쿄 여자 유학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 뒤를 이은 2대 도쿄 여자 유학생으로는 나혜석이 꼽혔는데,[40] 여자친목회의 결성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는 나혜석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41] 1915년 4월이면 나혜석이 여주에서 보통학교 교원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친목회 창립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 측 문헌에 나혜석을 여자친목회 발기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42] 즉, 나혜석은 곧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기에 여자친목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나혜석은 학업에 전념하면서 여자친목회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기관지 『여자계(女子界)』 창간호에 「부부」와 「정순」이라는 제목의 소설 2편[43]을 싣는가 하면, 1917년 10월 임시총회를 계기로 여자친목회 총무를 맡기도 하였다. 또한 『여자계』의 편집위원도 맡으면서 1918년 3월에 발간된 『여자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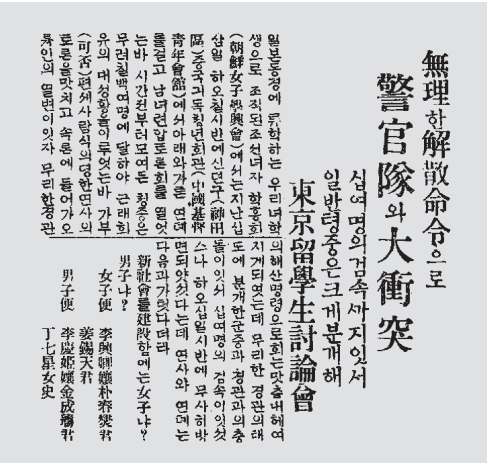
여자 일본 유학생(이달순 제공)

제2호에 시 「광(光)」과 소설 「경희」를 실었다. 나혜석의 자아가 투영된 여자주인공을 중심으로 여성의 각성된 의식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소설 「경희」는 한국 최초의 여성주의 문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918년 3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간 나혜석은 그해 9월에 발간된 『여자계』 제3호에 「회생한 손녀에게」라는 소설을 발표하였다.

한편 1918년 일본에 도착한 박충애는 『여자계』 제3호에 요코하마친목회 소속으로 기부금 납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충애는 당시 박승호(朴承浩)라는 이름도 함께 쓰고 있었는데, 여자친



일본 여자 유학생 기관지 『여자계』(1918년 3월)
나혜석의 자전적 소설인 「경희」가 실려 있다.



無理한解散命令으로
警官隊와大衝突
십여명의검속까지있서
일반령중은크게분개해
東京留學生討論會

조선여자유학생학흥회의 도쿄유학생토론회 개최(『동아일보』, 1925년 6월 18일)

목회보다는 기독교 신앙활동에 중점을 둔 여자청년회(女子青年會)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듯하다. 1920년 3월의 여자청년회 창립총회에서 간사를 맡은 데[44] 이어, 그 해 11월에 열린 총회에서는 회장에 선출되고 의사부원(議事部員)을 겸하였다.[45] 박충애는 1920년 6월에 발간된 『여자계』 제5호에 「업(業)을 마치시는 여러 형님들에게 올림」이라는 졸업생 답사 형식의 글을 쓰기도 했다.

이현경도 여자청년회 창립총회 명단에 서기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46] 박충애가 회장으로 선임된 1920년 11월부터는 친접(親接)부원을 맡기도 했다. 동시에 여자친목회가 개칭된 조선여자유학생학흥회(이하 학흥회)의 편집부원을 맡고 있었다.[47] 이현경의 활동은 1920년대에 들어와 표면화되었는데, 니혼여자대학에 입학하고 3·1운동을 겪으면서 유학생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19년 일본 유학생의 2·8독립선언과 조선민족의 3·1운동은 여자 유학생들의 의식과 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일제 관헌은 조선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폄하하여 상대적으로 단속을 소홀히 했고, 여자 유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밀송(密送)하거나 유포하는 일을 하였다. 이들의 선전선동 활동에는 여자 유학생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가 가동되었으며, 이미 졸업하고 정신여학교 교사를 지내던 나혜석도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48] 이때의 활약은 여자 유학생 사회에 깊이 각인되었는데, 이현경과 함께 니혼여자대학을 다녔던 황신덕은 3·1운동의 경험에 대해 "조선 여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남자와 협력하여 활약하기를 개시한 첫 막이었으니, 이 첫 번 시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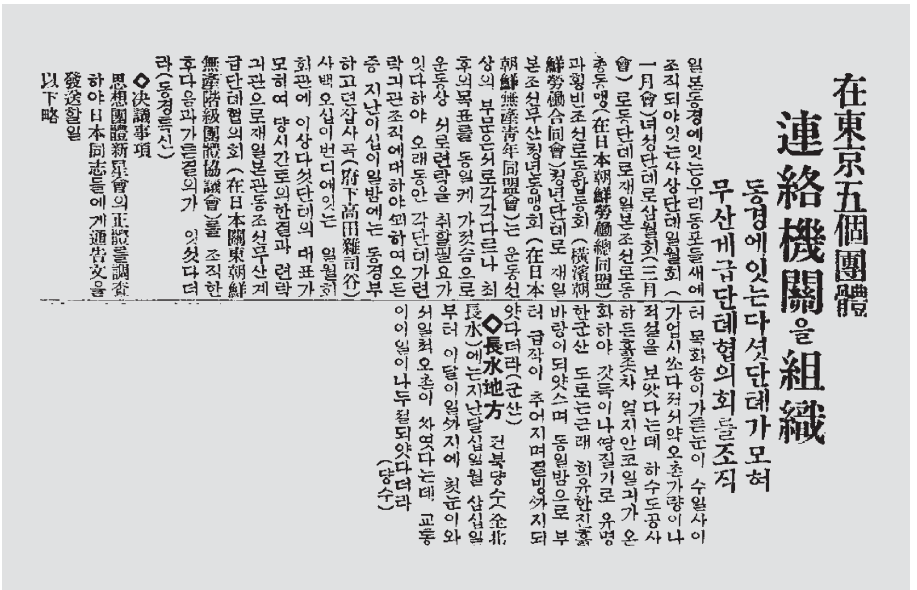
여자는 병신도 아니었고 천치도 아니었고 남자와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자타가 인정하게 되었다."고 술회할 정도였다.[49]


유학 시절 이현경(이달순 제공)

3·1운동 이후에도 여자 유학생들은 3·1운동을 기념하는 항일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현경은 1921년 3월 1일 3·1운동 2주년을 기념하여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당시의 신문기사들이 여자 유학생의 참여로 이현경의 검거 사실을 일제히 알리고 있는 것을 보면[50] 이때의 시위에서 이현경이 차지하는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현경은 1921년 9월 황신덕·박순천과 함께 이때 개설된 니혼여자대학 사회사업부에 입학하였다. 황신덕과 박순천은 학흥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3·1운동 가담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들의 입학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여학생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니혼여자대학의 2대 교장 아소쇼죠(麻生正藏)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1]

이후 이현경은 황신덕·박순천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의 회고에 따르면, 1923년 여름 황신덕과 박순천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학습회의 강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이 학습회는 도쿄의 유니버셜리스트 교회에서 개최되는 것이었는데, 당시 이 교회에서는 사회주의나 문학 학습회가 자주 열렸다고 한다.[52] 곧 니혼여자대학에 다니고 있던 황신덕·박순천은 1923년에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모임을 꾸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현경이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53] 이들은 항일운동 경력과 사회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1924년 4월 일본경시청 요시찰인으로서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했다.[54]

이윽고 1925년 3월 이현경, 황신덕, 박순천 등은 '조선무산계급과 여성해방'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삼월회(三月會)를 결성하였다. 삼월회는 1925년 1



在東京五個團體
連絡機關을組織
동경에잇는다섯단체가모혀
무산계급단체협의회를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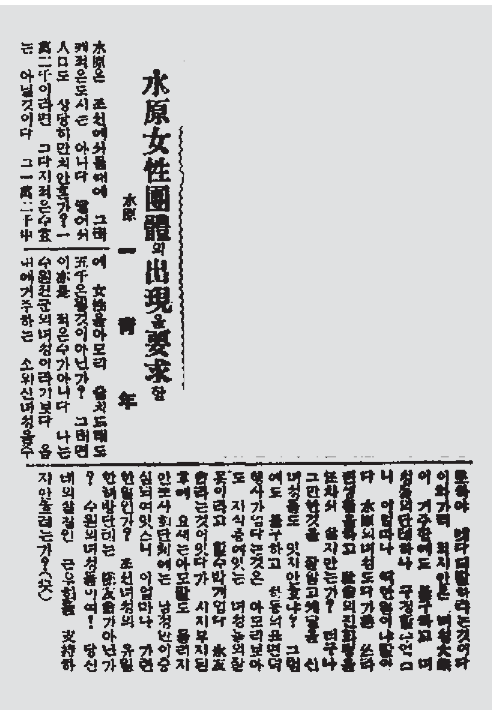
동경에잇는우리동포들새에 더욱화송이가튼듯이 수일사이
조직되야잇는사상단체일월회(一月會)(가업시쏘다저서약오촌가량이나
一月會)녀성단체로삼월회(三月 적설을보앗다는데 하수도공사
會)로동단체로재일본조선로동 하든홈초차 얼지안코일직가온
총동맹(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 화하야 갓득이나영질기로 유명
과형빈조선로동협동회(橫濱朝 한군산 도로는근래 희유한진흙
鮮勞働協同會)컴녀단체로 재일 바랑이되얏스며 동일밤으로 부
본조선무산컴년동맹회(在日本 러 급작이 추어지며결빙되
朝鮮無産青年同盟會)는 운동선 얏다더라(군산)
상의 부문으로갓가다르나 최 ◇長水地方 전북장수(全北
후의목표를 동일케 가젓슴으로 長水)에는지난달십일월 삼십일
운동상 서로련락을 취할필요가 부터 이달이일삭지에 최운이와
잇다하야 오래동안 각단톄가련 서일척오촌이 싸엿다는데, 교통
락긔관조직에대하야 의하여오든 이이일이나두절되얏다더라
중 지난이십이일밤에는 동경부 (당수)
하고련삼사곡(路下高田雜司谷)
사백오십이번디에잇는 일월회
회관에 이상다섯단톄의 대표가
모히여 량시간토의한결과 련락
긔관으로재일본관동조선무산계
급단톄협의회(在日本關東朝鮮
無産階級團體協議會)를 조직한
후다음과가튼결의가 잇섯다더
라(동경특신)
◇決議事項
思想團體新聞雜誌의正誤를調査
하야日本同志들에게通告文을
發送할일
以下略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삼월회 조직(『동아일보』, 1925년 12월 7일)

월에 남성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조직한 일월회(一月會)와 지향과 행동을 같이하는 여성단체였다. 파벌주의를 반대하고 조선의 현실에서 정치투쟁이나 경제투쟁은 시기상조이므로 우선은 '사상운동' 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25년 12월에 열린 총회에서 제정된 3대 강령, 곧 '① 대중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기함 ② 무산계급 및 여성의 압박 및 착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쟁함 ③ 목표와 방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학적 이론을 보유함' [55]은 운동의 중심을 이론과 대중여성에게 두겠다는 삼월회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현경은 "영리하고도 이해 잘 따지기로 유명한 수원인의 특징을 소유"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56] 사상이론에 투철했던 면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현경 · 황신덕 등은 1926년 학교를 졸업하고,[57] 귀국한 뒤에도 파벌을 비판하고 여성운동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1926년 12월 중앙여자청년동맹을 결성하여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분파를 극복하고, 1927년에 들어와서는 민족주의

계 여성들과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1927년 2월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여 사상과 분파를 넘어 유학시절의 친분과 교류를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를 모태로 그해 5월 전국적인 여성 통일단체인 근우회(槿友會)를 결성하였다.[58] 조선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성별적, 문화적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기 위해 조선 여성들이 힘을 모아 조직한 근우회는 근대 여성운동 절정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근우회의 탄생에 산파역을 자임하고 핵심간부로서 단체를 이끌어 간 이현경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水原女性團體의出現을要求함

水原 一 靑 年

수원 근우회 조직을 독려하는 기사(『조선일보』, 1930년 2월 4일)

일본에서 1910년대 신여자운동의 영향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가 여성의 각성과 자유를 주장했던 나혜석 등을 1세대 여자 유학생이라고 한다면, 1920년대 분화된 이념과 사상의 배경 속에서 나름의 신념을 갖고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여자 유학생을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2세대 여자 유학생들은 일본 내 사상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론을 학습하고 조직활동을 하는 한편, 조선으로 돌아와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근우회 탄생의 주역이었던 이현경은 2세대 여자 유학생의 중심인물로서 여자 일본 유학생의 계보를 이어 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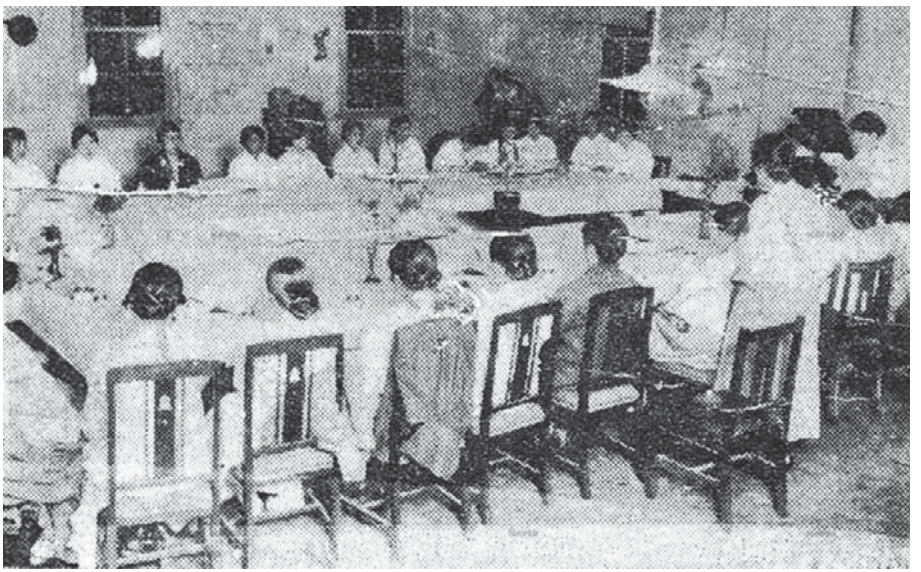
4. 귀국 후 조선사회를 이끌다

해외유학은 일차적으로 전문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에 가서 학업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식민지를 겪은 근대 한국에서 해외유학의 교육적 의미는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국 일본이 식민지에 실시했던 차별적 교육제도를 극복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을 마친 졸업생들은 당시의 식민권력이 원하지 않았던 엘리트 지식인이 되어 조선으로 돌아왔다. 자타 공인 조선의 선도그룹을 이루었으며, 전문 영역에 진출해 사회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질을 높였다.

민족 차별에 더해 성별 차별을 극복했던 여자 유학생들의 귀국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근대 여성규범으로서 현모양처주의가 팽배해 있던 시기, 이들의 출현은 그 자체로 현모양처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현모양처주의 여성담론에서 여성교육은 재봉 · 요리 · 수예 · 가사 등 기예 중심의 중등교육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유학을 통해 고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돌아온 이들은 당시의 여성교육 목표를 넘어선 존재였기 때문이다. 귀국 후 여자 유학생들은 남성들만이 전유했던 전문 분야에 진출했으며, 지식 및 활동 체득으로 얻은 각성과 경험의 힘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것은 현모양처주의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제한하는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는 가정풍속화(나혜석, 「섣달대목」, 『매일신보』, 1919년 1월 21일~2월 7일 연재)



여자유학생친목회(『동아일보』, 1927년 4월 18일)

를 기획했던 식민권력, 그리고 조선 남성 엘리트의 의도와 충돌하는 것이었으며 여성 경험을 기반으로 여성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나혜석은 이 모든 '새로움'의 상징이었다. 여성의 주체의식을 내보인 최초의 근대 여권론자, 최초의 여성 서양미술가, 항일운동가, 작가, 자유연애 및 자유결혼의 실천자 등 나혜석의 행보는 여성 관점의 한국 근대성을 사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학 시절부터 나혜석은 글쓰기에 몰두하며, 여성 주체의 자의식을 내보였다.

> 일정한 목적으로 유의의(有意義)하게, 자기 개성을 발휘코자 하는 자각을 가진 부인으로서 현대를 이해한 사상, 지식상 급(及) 품성에 대하여 기(其)시대의 선각자가 되어 실력과 권력으로 사교 우(又)는 신비상 내적 광명의 이상적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不可)한 줄로 생각하는 바라. …… 나는 현재에 자기 일신상(一身上)의 극렬한 욕망으로 영자(影子)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길을 향하여 무한한 고통과 싸우며 지시한 예술에 노력하고자 하노라.[59]



동아일보사 기자로 활동한 박충애(독립기념관 소장) 뒷줄의 여성이 박충애이다.

> 나는 허영이 있고 욕심이 있는 자라야 공부도 잘하고 대사업을 이루는 자라 하오. …… 우리는 어서 남들의 주장하는 '인격 존중이니 사람은 사람답게 이상의 반분이라도 실행해야겠고 또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겠다.' 는 것을 바라볼 욕심도 내야겠고 모방도 허영심도 많아져야 할 것이 아닌가요? ……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오. 이 여자는 우리의 갈망하는 사업가라 하겠소.[60]

나혜석의 글에서 보이는 시대의 선각자라는 책임감, 자기 개성을 발휘코자 하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는 다짐, 그리하여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겠다는 '욕심' 은 "현대를 이해한 사상, 지식상 및 품성" 을 체득하게 한 유학생활 중의 배움과 지식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무한한 고통' 과 '가치 있는 욕' 을 예감하고 각오를 내보여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여자 유학생들은 근대가 여성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의 경계

를 넘나들며 가장 맨 앞에서 여성의식의 지평과 사회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나혜석을 비롯한 수원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충애는 교사와 기자직을 역임하다 해방 후에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발을 내디뎠다. 수원 지역 학생항일운동을 이끌었으며 안창호의 민족주의에 공명했던 임효정은 유학 뒤에도 민족운동의 여성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였다.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친일의 길을 걸었던 것도 여성 선각자로서 임효정이 짊어져야 할 과거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핵심인물로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설파하고 나아가 조선 여성 전체의 사회운동을 도모했던 이현경도 타협 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했던 수원 여성이었다. 이 글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은 수원 출신 여자 유학생들도 여성과 인간, 가족 그리고 민족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여성사적 위치를 더듬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혜석의 예언과 같이 "그림자(影子)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길"을 "무한한 고통과 싸우며" 만들어 가는 길이었다.





3 근대사회와 여성 생활

근대를 온몸으로 살아간 여성들은 사회의 폭력적 구습과 근대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다. 하지만 근대적 이상은 여성에게 너무 먼 꿈이었다.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한 여성은 무자비한 시절을 견디거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 인구와 근대사회
2. 한말 · 일제하 가족 구성의 변화
3. 한말 · 일제하 인구의 변화

조석곤 |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 한말 · 일제하 가족 구성과 출산력의 변화

1. 인구와 근대사회

인구 변천은 한 나라의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추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의 하나이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그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노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데 투입될 정부 예산의 규모가 달라진다. 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있는 국가들이라면 주택 공급과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대책 수립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근대국가에서는 신뢰할 만한 인구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전근대사회에서도 인구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근대에서는 인구조사보다는 과세의 기본 단위인 호나 주택을 조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는 '호적' 작성을 통하여 인구를 파악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만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근대사회의 인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근대사회에서는 토지 생산성과 인구 규모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감소는 곧 생산성 증대/하락의 지표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믿을 만한 인구 시계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만한 인구 통계는 일제 치하에서 실시된 1925년 국세조사가 처음이다. 1925년 이전의 인구는 1925년의 인구 통계로부터 역으로 추정하여 이용한다. 이 추정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일제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인구 추계에 따라 중요한 사회 변동의 지표인 근대적 인구 변동의 시점과 근대적 경제 성장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전통적인 인구 이론에 따르면 인구는 다산다사형에서 다산소사형으로 이전하며, 이후 소산소사형으로 변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안정된다고 본다. 이때 다산소사형으로 변하는 시점이 근대적 인구 변동의 시점이 된다. 1925년 이후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연평균 자연증가율이 1.6%가 넘는 전형적인 다산소사형의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1925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다산다사형으로부터 다산소사형으로의 변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지만,[1] 이러한 이전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일어났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나아가 다산소사형에서 '소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위생상태나 영양상태의 개선에 따른 유아사망율의 감소가 주요인이었으며, '다산'은 생리적으로 가능한 수준보다도 여성의 출산력을 낮추는 각종 전통적인 규제가 해체되는 제도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다산'과 '소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긴 하지만, 인구 증가율의 증가에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근대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둘째, 인구 추계는 근대적 경제 성장의 시점을 둘러싼 논쟁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일제시기에 근대적 경제 성장이 있었다는 주장[2]의 근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1910년의 인구 추계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구 증가율은 높지만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1910년의 인구 추계가 지나치게 높으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높지만 인구 증가율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일제 초기의 인구 추계는 크게 3가지인데, 1910년의 인구 추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감부시기에 실시된 민적조사의 인구 통계는 1,313만 명이지만

이는 매우 과소평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 석남국은 1910년의 인구를 1,522만 명으로 추계했으며, 권태환 등은 1,743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인 차명수의 추계에 따르면 1,615만 명이다.[4] 추계치별로 최고 2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인구 추계는 인구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달라지는데, 인구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것이므로 결국 출생률과 사망률에 관한 객관적 정보의 확보가 인구 추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인구 변동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는 주로 족보자료를 이용했지만,[5] 최근 『민적부』를 이용한 연구[6]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민적부』는 한말 · 일제 초의 인구에 대한 광범한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현재 팔달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구 수원면 지역의 『민적부』를 자료로 한말 · 일제 초에 이르는 인구 변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이 글에서 이용한 『민적부』의 작성 배경과 이용한 자료의 범위, 그리고 분석을 위해 사용한 가정 등에 대해 서술하고, 민적부에 나타난 수원면 민적의 가족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3절에서는 한말 · 일제시기 인구의 변화를 출산력, 사망률, 평균수명 등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마지막에서는 논의를 요약한다.

2. 한말 · 일제하 가족 구성의 변화

이 글에서 사용한 '민적(民籍)'은 1909년 제정된 「민적법」에 의해 작성된 호적을 지칭한다. 한말 조선왕조는 「호구조사규칙」(1896년 공포)을 공포하여 거주지별로 호적을 작성하였는데(이를 광무호적이라고 부른다), 전체 인구를 소상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조선인의 인구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1908년부터는 경무고문부에서 호적사무를 담당하게 했고, 이는 「민적법」 공포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민적조사에 의해 파악된 수원군 인구는 1만 5,352호 7만 4,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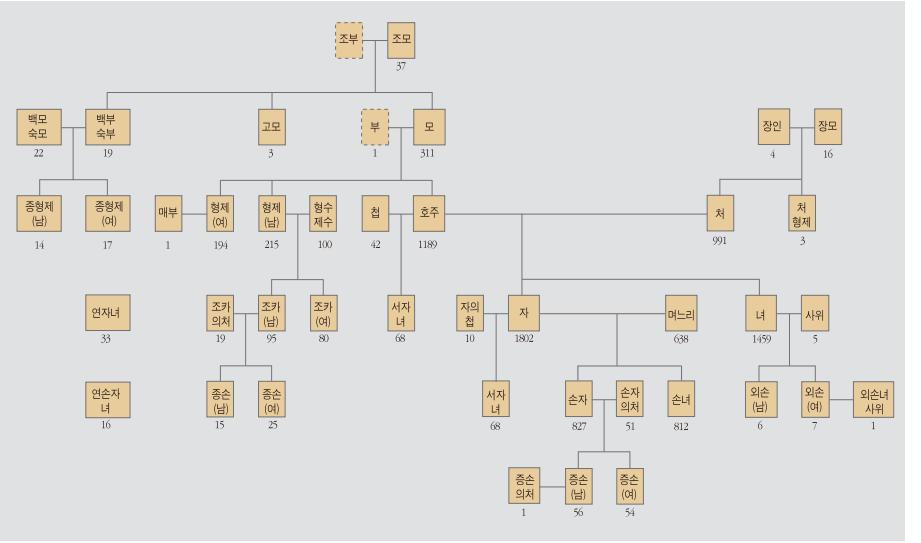
명이었다.[7] 민적은 호주 중심으로 편제되었지만, 호주와 호 구성원의 인적사항 파악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호적들과 구분된다.[8]

현존하는 민적은 구청에 『제적부』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제적부』란 말소된 호적을 모아 연도별로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민적은 호주상속(호주의 사망으로 호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적(호의 모든 구성원이 다른 면으로 이주하는 경우), 폐가(호주가 스스로 자신의 호적을 폐지한 경우), 절가(호주가 상속권자가 없이 사망하여 자동으로 호적이 폐지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민적을 말소하였고, 말소된 민적을 모아 『제적부』를 만든 것이다. 이 글의 분석에 활용한 민적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수원면에 속한 6개 리에 본적을 둔 민적 중에서 1945년 말까지 제적된 1,198호이다.

1,198호의 호주 중 138호는 여성이 호주였다. 여성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 될 정도로 높은 이유는 여성 호주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은 아니다. 호적은 남성 중심의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성 호주는 그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 호주는 첫째, 호주의 권리를 승계할 남성 가구원이 없이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이혼한 여성의 경우는 친정의 호적으로 복귀했는데, 친정의 호적이 절가되어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일가창립을 통해 호주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호주가 되었더라도 새로운 혼인관계나 양자입적 등을 통해 남성 가구원이 생기면 호주의 지위를 넘겨주는 것이 통례였다.

1,198호의 호주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모두 8,035명이었다. 호당 평균 6.71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데 통상적인 핵가족 구성원수보다는 많은 편이다. 그것은 민적이 현실에 존재하는 생활공동체적 가구로부터(광무호적이 그러하였다) 상상의 혈연공동체로 구성된 가구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구원 중 남성은 3,132명으로 남성 비율이 39.0%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남성 가구원 비중이 낮은 것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적부』가 지닌 장부상의 특징에 기인한다. 이제 〈그림 1〉을 통해 호적에 반영된 가족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림 1〉은 수원면 민적에 나타난 가족구조를 가계도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10]



〈그림 1〉 수원면 민적에 나타난 가족구조[9]

신분 하단의 수는 그 신분으로 호적에 입적된 사람의 인원수이다. 이를 보면 가족 구성원에서 여성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있다. 첫째, 호주는 남자에게 상속되므로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 여성은 아들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부나 조부가 사망한 후 모와 조모가 아들(손자)의 호적에 입적되었기 때문에 여성 가구원이 더 많게 나타난다. 둘째, 여성 혈족, 즉 여자 형제나 고모 등도 남성 호주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가구원이 더 많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 수는 적지만 첩이 등록된 것도 여성 가구원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가족 구성을 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대부분 상하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증조모 이상의 혈족은 호적에 없었던 반면, 증손자녀는 100명 이상 등장하고 있다. 증손자녀가 호적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물리적인 한 공간에 동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적 작성에서 혈연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분호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2〉 3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독립기념관 소장)

부계 혈족 중심의 호적체계로 볼 때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눈에 띈다. 첫째,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부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작은아버지의 경우는 부친의 호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호주 승계 과정에서 분호하지 않고 그대로 등록된 경우겠지만, 큰아버지가 등록된 2호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둘째, 여성 가구원이 결혼할 경우 남편의 호적으로 옮기는 것이 보통인데, 매부 · 사위 등이 호적에 등록된 경우도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실제 동일 공간에서 거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호적에 편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공동체적인 호적 편성의 관행은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처가 쪽 식구들(장인, 장모, 처형제)이 기록된 사례도 부계 혈족주의 원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장인의 경우는 스스로 호주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사위의 호적에 포함된 이유는 생활공동체로 호적을 편제하는 관행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연자(連子)의 입적도 이런 관행의 유산이다. 연자란 이혼 경험이 있는 부인과 결혼할 때 그 부인의 전 남편 소생을 데려올 때에는 '성' 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자의 신분으로 호적에 입적시켰는데, 연자녀의 경우는 33명, 연손자녀의 경우도 15명이 있었다.

민적 기재양식의 변화도 가계도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첩과 서자녀가 기록된 것은 한말 호적 작성의 관행을 따른 것이지만, 「조선호적령」 공포 이후에는 첩을 호적에 기록할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도 상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호주 자신의 첩수는 아들의 첩수보다 많고 손자 대에 이르면 첩이 사라진다. 이것은 실제 첩을 두었다 하더라도 종래 첩을 호적에 등록하던 관행이 폐지되면서 첩을 호적에 입적시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첩의 소생은 서자녀라는 신분이 아니라 사생자녀의 신분으로 호적에 입적되었다.[11]

〈표 1〉 민적 호주의 성별 · 제적사유별 분포

구분	사망	기타 사유	계	구분	사망	기타 사유	계
남	595	465	1,060	계	635	563	1,198
여	40	98	138				

이제 수원면 민적 호주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호적의 제적 사유가 호주 사망인 경우가 635호(53.0%)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제적 사유는 성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여성 호주는 사망 이외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가 98건(71.0%)으로 오히려 많은데, 그 이유는 여성 호주의 경우 혼인 등으로 다른 호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성 호주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사망 시 호주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175명(27.6%)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도 163명이었다. 30대 이하의 나이에 사망한 호주도 75명(11.8%)에 달하였다.

3. 한말 · 일제하 인구의 변화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망률과 출산율이다. 인구 증가율은 출산율에서 사망률을 뺀 수치이다. 출산율은 여성의 건강상태라고 하는 생리적 특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사회적 관습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망률은 건강 및 영양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사망률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유아 사망률이다. 대개 전근대사회에서 출산한 아이는 영유아시기에 절반 가까이 사망했지만, 근대사회에 들어와 보건위생관념이 확립되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다산소사형의 인구 구성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수원 민적에 등장한 인구들로부터 이러한 인구학적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출산율의 변화는 초혼 연령과 출산력을 통해, 사망률의 변화는 특히 영유아 사망률의 추세에 유념하여 살펴본다. 이 절에서는 호주데이터 1,198명, 가구원 데이터 8,035명 합 9,233명 중에서 중복되는 인원(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사람) 285명을 제외한 8,9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제적부』는 출생 및 사망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총조사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민적으로 갈수록 혼인정보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한다. 첫째, 결혼한 것이 분명하지만 결혼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첫 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전에 결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초혼 연령을 과대평가할 것이다. 둘째, 모, 특히 조모의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망일이 기록되지 않은 채 호주의 제적과 함께 제적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2] 하지만 정확한 사망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생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정 모두 인구 증가율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1) 초혼 연령과 출산력

출산력은 어떤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여성이 출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생리적으로 가능한 출산력인 잠재적 출산수준과 구분된다. 통산 여성의 가임연령을 15~49세로 보는데 만일 두세 살 터울로 아이를 낳는다면 15명 내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일은 거의 볼 수 없는데, 그 자체가 생리적 능력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인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결혼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연령(초혼 연령)과 혼인율이다. 초혼 연령이 빠를수록 그리고 혼인율이 높을수록 출산력은 높아질 것이다. 일부일처제의 관습이 엄격하게 유지되거나 여성 재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없다면, 초혼 연령의 감소는 혼인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가 다루는 한말 · 일제 초기는 일부일처제의 골격을 유지하였지만 정실 이외의 부인을 갖는 것을 관용하는 분위기였으며, 일부 상층계급을 제외하면 과부나 이혼녀의 재혼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패턴은 초혼 연령의 추이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초혼 연령을 결정하는 요인은 관습에 의해 제도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결정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함께 혼인적령기 연령대의 성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결혼에 대한 합리적 선택모델을 개발한 Becker는 여성임금이 상승하면 초혼 연령이 높아지지만, 성별분업이 뚜렷한 사회는 초혼 연령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13] 혼인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결정권을 논외로 한다면, 이 이론은 여성의 취업기회가 늘어날수록 초혼 연령은 높아질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혼인적령기 연령대의 성비에 따라서도 초혼 연령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전쟁 등으로 일시적으로 남성이 줄어들면 초혼 연령은 상승하며, 여성인구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는[14] 초혼 연령이 하락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충격에 의해 형성된 결혼 패턴은 그 충격이 사라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

권태환 · 김두섭은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1925년에 남성 21.1세, 여자 16.6세였으며, 1940~1955년에 남성은 21.8세에서 24.7세, 여자 17.8세에서 20.5세로 3세 가까이 급상승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



〈그림 3〉 일제시기 결혼(수원박물관 소장)

여 2000년에는 남성 29.3세, 여자 26.5세였다고 정리하였다.[15] 박기주 · 김성남은 2010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1.8세, 여성 29.8세였다고 제시하였다.[16] 2010년 인구총조사의 연령별 평균 초혼 연령으로부터 Hajnal 방법에 의해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하면 여성의 경우 30.1세였다.[17] 출산력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후 논의에서는 여성의 초혼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근대사회의 초혼 연령에 대해서는 인구총조사와 같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미시적인 사례연구 자료로부터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박희진은 조선 후기 혼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7~19세기에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17.4세였고, 유배우 출산력은 5.09명임을 보이고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6~19세인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한편 남자의 초혼 연령이 1900년대부터 상승 추세로 반전한 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야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보

았다.[18] 차명수도 족보 분석을 통하여 1700~1899년 양반가의 유배우 합계 출산율은 5.86명인데, 이는 비양반까지 포함한 식민지시기 8.1명에 비해 낮았다고 보았다.[19]

한편 박기주 · 김성남은 언양면의 『제적부』 분석을 통하여 식민지시기 초혼 연령을 분석하면서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20년대 초까지 급상승하고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가 1940년대 전반에 크게 하락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1920년대 초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30년대 초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였다.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00년대에 출생한 남성은 평균 초혼 연령이 24~26세이고 여성은 19~20세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만혼이 적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에서 조혼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남성은 1910년대 말 출생자까지, 그리고 여성은 1920년대 말 출생자까지 평균 초혼 연령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20]

〈표 2〉 민적 등록자의 성별 혼인 여부

(단위 : 명)

구분	미혼	기혼	계	구분	미혼	기혼	계
남	2,420	1,687	4,107	계	4,565	4,383	8,948
여	2,145	2,696	4,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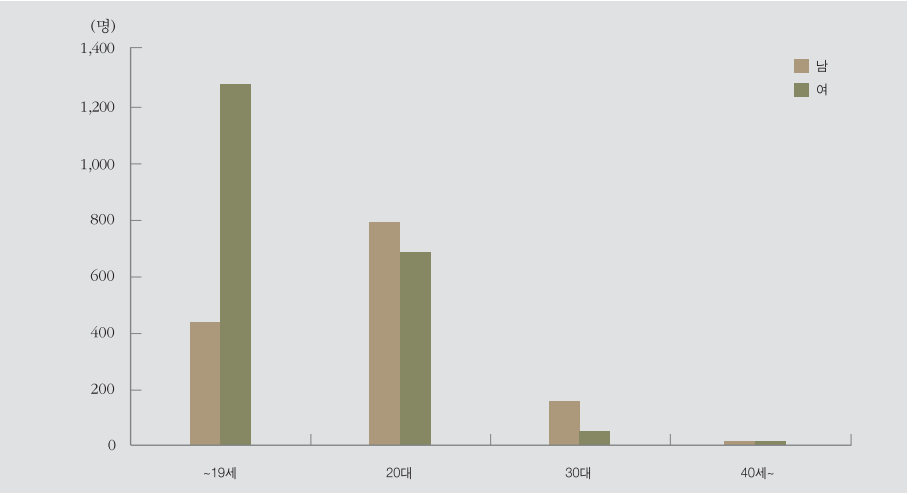
이제 수원면의 경우는 어떤 특징을 보였을지 살펴보자. 〈표 2〉는 수원면 민적 등록자의 성별 혼인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전체 인구 중에서 남성은 4,107명(45.9%)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는 여성이 더 오래 생존한다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모 · 모의 존재나 이혼한 여자 형제나 딸의 복귀 등으로 여성 가구원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원에서 혼인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인구는 49.0%인데, 남성의 경우는 41.1%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여성인구의 비중을 높인 여성들(조모 · 모 · 이혼한 여자 형제 등)이 모두 기혼자였기 때문이다.

〈표 3〉은 혼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민적표에 혼인일자가 적혀 있지 않아서 초혼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3,425명에 대해서 성별로 초혼 연령을 정리

〈표 3〉 초혼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21]

(단위 : 명)

구분	~19세	20대	30대	40세~	계
남	435	789	161	10	1,395
여	1,274	685	61	10	2,030
계	1,709	1,474	222	20	3,425



〈그림 4〉 초혼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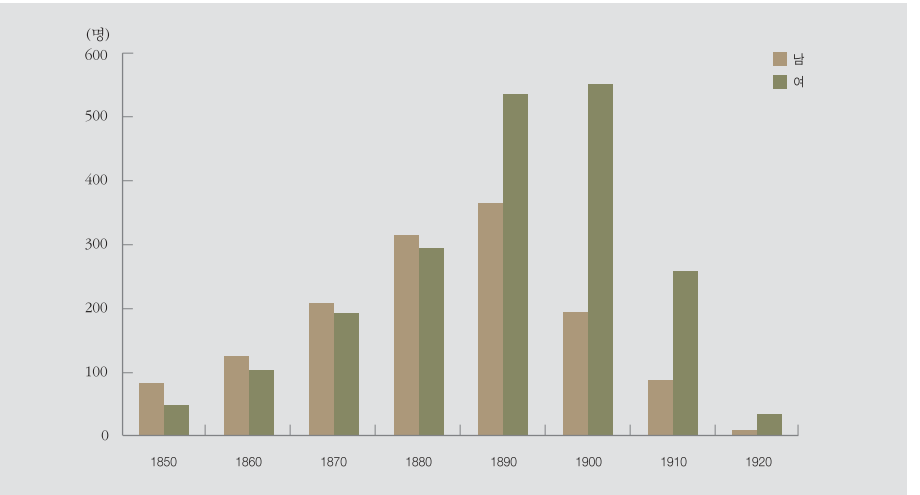
한 것이다.[22] 10대에 결혼 여성은 1,274명(62.8%)으로 압도적이다. 반면 남성은 789명(56.6%)이 20대에 결혼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초혼 연령을 구해 보면 남성은 22.9세, 여성은 19.3세였다.[23]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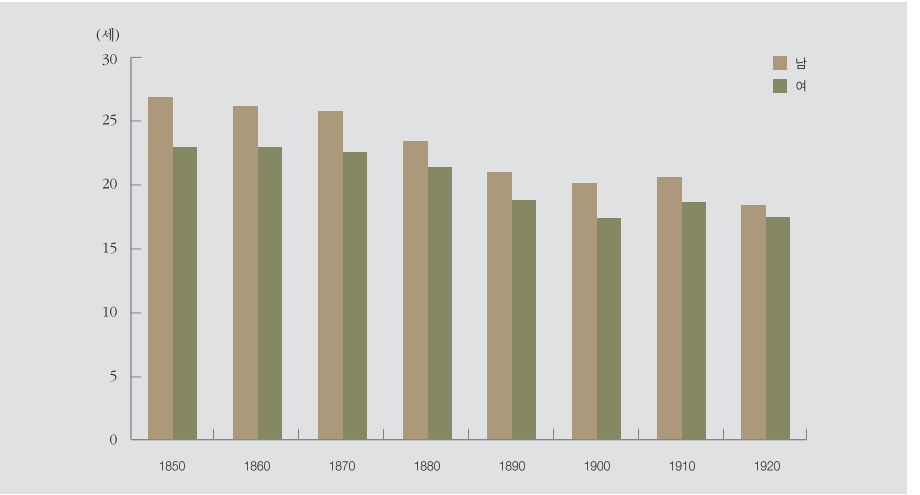
〈표 4〉 초혼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분포와 초혼 연령

(단위 : 명, 세)

출생코호트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계
초혼자수	남	83	126	209	317	366	196	90	8	1,395
	여	49	105	194	296	538	554	260	34	2,030
초혼연령	남	26.9	26.1	25.7	23.4	21.0	20.1	20.6	18.3	22.9
	여	23.0	22.9	22.5	21.3	18.7	17.3	18.6	17.4	19.3



〈그림 5〉 초혼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분포



〈그림 6〉 초혼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초혼 연령

녀 모두 1925년 국세조사로부터의 추계치보다 높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는 출생코호트별 · 성별 · 초혼 연령을 정리한 것이다. 편의상 출생코호트는 10년 단위로 정리한다. 즉 〈표 4〉에서 1870의 출생코호트는 1870년대

에 출생한 사람을 의미하며, 187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209명인데, 이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25.7세라는 의미이다. 단 〈표 4〉는 미혼자는 제외된 통계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보자.

첫째, 18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의 초혼 연령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민적이 작성되기 시작한 해는 1909년이므로 18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은 이미 결혼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정보가 없었고, 이들은 첫째 아이의 출생연도로 역산하여 혼인 일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만일 첫째 아이가 사망했다면 그들의 초혼 연령은 그만큼 과대평가될 것이다. 시기가 앞설수록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

둘째, 191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의 평균 초혼 연령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이용한 『제적부』가 1945년까지 제적된 것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즉 1910년대 출생자가 1920년대 후반에 제적되었다면 그는 미혼자로 처리되어 이 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제적된 이후에 결혼했다면 평균 초혼 연령을 높일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출생코호트는 대상자가 42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여서 그 수치를 그대로 믿긴 어렵다.

출생코호트별 초혼 연령이 그나마 결혼적령기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1900년대 및 1910년대 출생코호트이다. 이 시기의 초혼 연령과 국세조사의 그것을 비교하면 남성은 낮고 여성은 높게 나타난다. 반면 박기주 · 김성남이 분석한 『제적부』 자료에 비하면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면은 박기주 · 김성남이 분석한 언양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이므로 상이한 지역적 특성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 4〉는 초혼 연령의 최저점이 남녀 모두 1900년대였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191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 모두 카운트되었다면 191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의 초혼 연령은 더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결혼 연령에 관한 한 수원면 민적자료는 1900년대 출생자, 즉 1920년대가 하나의 전환기였음을 보여 준다.

이제 출산력에 대해 살펴보자. 호적상에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는 모두 4,031명이다. 어머니의 수가 많은 것은 처나 며느리 등 인척으로 들어온 가구원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5〉에서 딸 1명만 있는 어머니가 전체 4,031명 중에서 2,191명(54.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이 어머니의 경우 출산자녀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로 389명(9.7%)이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 호주의 어머니인데, 호주의 형제·자매가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딸 1명이 있는 어머니보다는 그 비율이 낮았다.

〈표 5〉 출산 여성의 성별 자녀수에 따른 분포

(단위 : 명)

여아 / 남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계
0명		2,191	176	32	14	7				2,420
1명	389	208	103	51	20	5	7	3		786
2명	142	106	83	35	26	14	4	2	1	413
3명	49	60	50	33	20	11	8	1	1	233
4명	22	25	28	14	11	6	5	1		112
5명	6	12	7	7	2	4	2	1		41
6명	4	3	6	1	3					17
7명		2	1		3			1		7
8명		1		1						2
계	612	2,608	454	174	99	47	26	9	2	4,031

자녀를 가장 많이 출산한 어머니는 모두 14명(아들과 딸 각 7명)을 출산했으며, 10명 이상 출산한 부모도 24명이었다. 이들이 출산한 자녀는 모두 8,535명인데, 합계 출산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딸 하나만 낳은 부모의 경우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딸 하나 이외의 자녀를 더 낳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출산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합계 출산력을 계산하면 3.5명이 된다. 민적에 기록된 인구가 과소평가될 가능성과, 사망한 자녀를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다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출산력 수준은 적어도 5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 사망률

출생률을 제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 사망률의 경우는 보다 간단하다.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생상태 및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출산 시 산모나 태아가 사망할 위험을 논외로 한다면, 영유아 사망률은 주로 산모의 영양상태에 의해 좌우되며, 전염병 등에 의한 사망은 위생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종두법과 같은 근대적 의료체계의 보급이나 근대화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은 영유아 사망률을 낮출 것이지만, 도시빈민의 주거여건은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호조건이어서 일시적으로는 사망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표 6〉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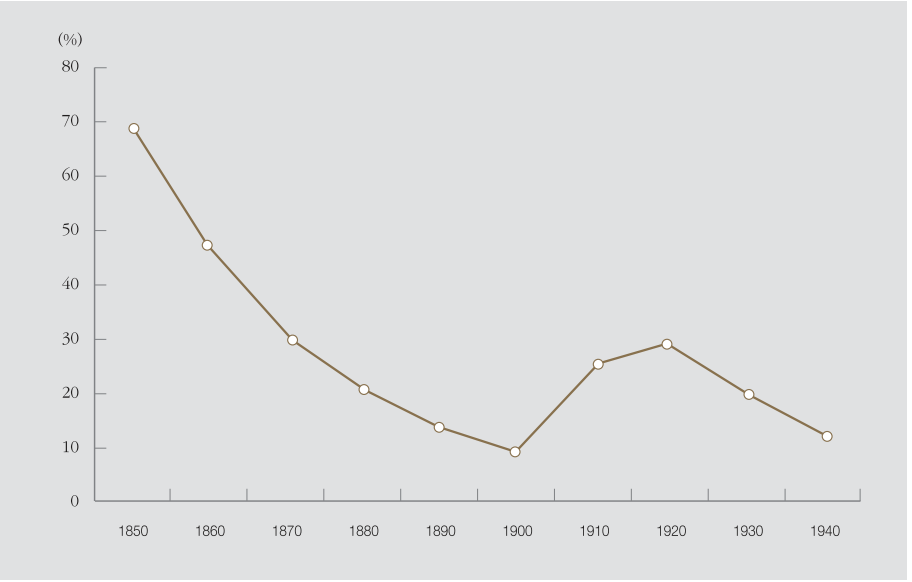
(단위 : 명)

	출생코호트 \ 연령	~5세	~9세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70세~	계
사망 제적	1850						1	11	113	206	331
	1860				1	1	7	70	88	46	213
	1870					16	42	74	60	8	200
	1880				13	53	52	50	14		182
	1890			21	74	47	23	7			172
	1900	14	14	55	38	6	1				128
	1910	432	43	29	11						515
	1920	386	12	8							406
	1930	110	3								113
	1940	11									11
	계	953	72	113	137	123	126	212	275	260	2,271
비사망 제적	1850								52	98	150
	1860						5	101	104	29	239
	1870					12	160	145	58	4	379
	1880				32	256	232	79	14		613
	1890			108	415	361	152	17			1,053
	1900	6	13	554	479	178	14				1,244
	1910	170	269	646	345	46					1,476
	1920	462	165	295	49						971
	1930	303	124	46							473
	1940	79									79
	계	1,020	571	1,649	1,320	853	563	342	228	131	6,677

박희진은 앞서 언급한 혼서 분석을 통해 17세기 이후 출생한 자녀 중에서 약 절반가량이 사망하였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전근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17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성년까지 생존한 자녀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미성년 사망자의 증가보다는 출산력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4] 총독부의 『조선인구동태통계조사』에 따르면 1938년 이후에는 그 이전과 달리 1세 미만의 사망자가 1세나 2~4세의 사망자를 크게 상회하는데, 박이택은 이를 영아 사망자의 파악이 이 시기에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5] 이상의 연구는 근대사회로 이행기에 영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 하지만 민적 통계는 영유아 사망률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수원면 민적에는 이러한 인구학적 특징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6〉은 사망자와 비사망 제적자를 출생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사망 시 혹은 제적 당시의 연령을 정리한 것이다. 총 8,948명 중에서 사망으로 제적된 인원은 2,271명(25.4%)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호주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적되거나, 혼인 또는 분가로 제적될 경우도 비사망 제적이기 때문에 비사망 제적자가 많은 것은 장부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제적부』로부터 정확한 사망률을 추계하기는 매우 어렵다. 〈표 6〉을 보면 사망자나 비사망 제적자 모두 대각선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제적부』에 등록된 인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1909년에 민적이 작성되었으며 1923년부터 제적되기 시작했으므로 제적된 이후의 사망정보는 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85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1909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민적에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이 1850년대 비사망 제적자 중 50대까지가 공란이 이유이다.

민적의 정보로부터 사망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출생코호트별로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7〉은 사망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1900년대 출생자는 모두 1,372명이었는데, 그중 사망자는 128명(9.3%)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1870년대 이전 출생자의 경우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00년대 출생자보다 높은 이유는 이들은 민적 작성 당



〈그림 7〉 제적자 중 사망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비중

시 이미 4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었다. 사망률의 경우 191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보다 192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3) 평균수명

1920년대 출생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평균수명과 관련된 논의부터 시작한다. 〈표 7〉을 보면 사망 제적자를 대상으로 구한 평균수명[26]은 29.0세로 남자는 30.9세였으며 여자는 26.6세였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평균수명은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전 출생코호트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연령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출생자 정보가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기록되는 1900년대 이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사용한 표본은 여성이 54%의 비중이었는데,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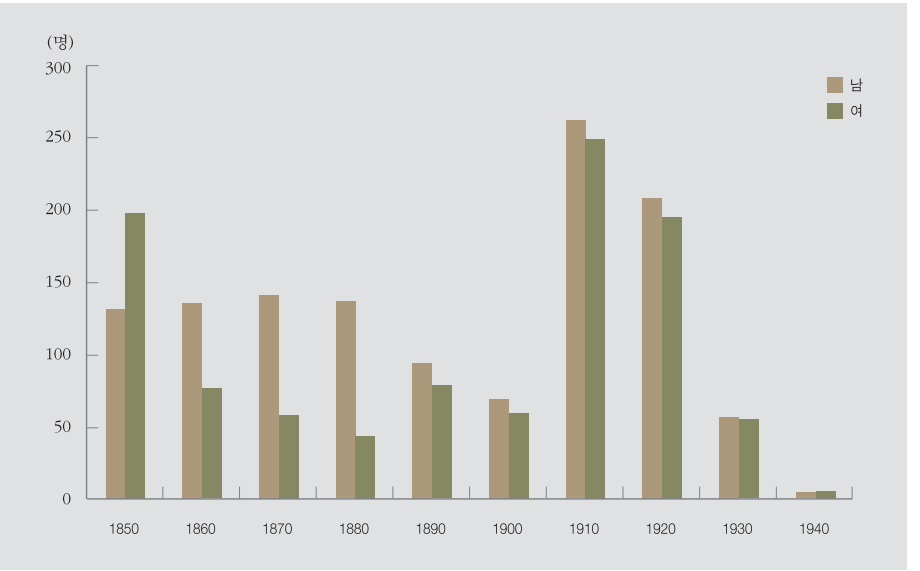
〈표 7〉 사망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분포와 평균수명

(단위 : 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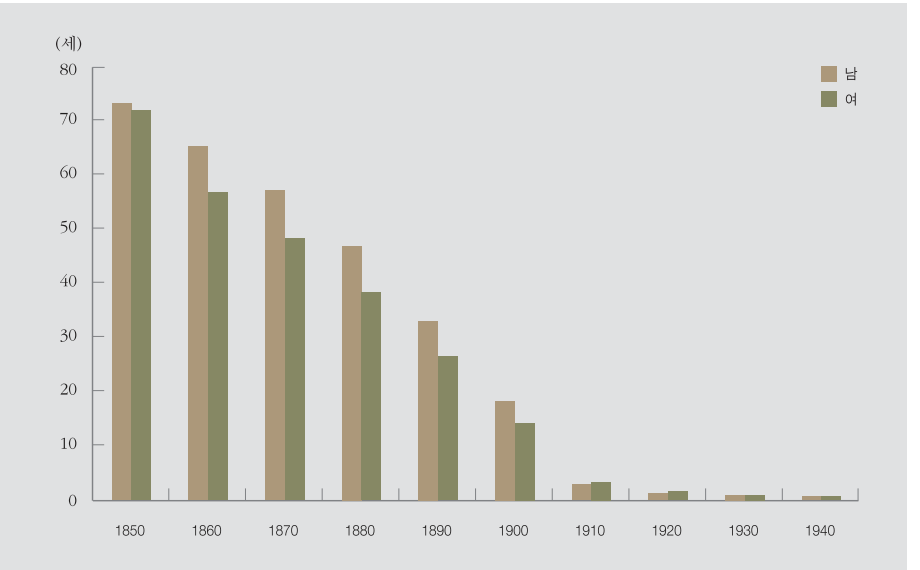
출생 코호트	사망 제적자수			평균수명		
	남	여	계	남	여	계
1850	132	199	331	73.1	71.9	72.3
1860	136	77	213	65.4	57.0	62.3
1870	142	58	200	57.1	48.2	54.5
1880	137	45	182	46.8	38.4	44.7
1890	94	78	172	33.2	26.4	30.1
1900	69	59	128	18.3	14.1	16.3
1910	264	251	515	3.0	3.1	3.0
1920	210	196	406	1.1	1.6	1.3
1930	57	56	113	0.9	0.9	0.9
1940	5	6	11	0.4	0.5	0.5
계	1,246	1,025	2,271	30.9	26.6	29.0

중에서 여성은 1,025명(45.1%)으로 오히려 더 적다. 이는 비사망 제적자 중에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망 제적자에는 평균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사망한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91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에서 사망자의 평균수명은 5세 미만이다.[27] 이처럼 기대수명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원인은 5세 이하 인구의 사망률에 있다. 이제 출생자 정보가 원칙적으로 모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1910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자. 〈표 6〉에서 1910년대 출생코호트에 속한 인원 중 5세 이하에 사망한 사람은 386명이었으며, 5세를 넘겨 생존한 사람은 1,476명이었다. 1910년대에 출생한 사람 중 5세 이하인 영유아기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22.6%였으며, 1920년대 출생코호트에서는 28.5%, 1930년대 18.9%, 1940년대 12.2%였다. 1900년대 출생자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지만 9.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910년대 이후 영유아 사망률은 급증했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10년대 전반기 호구조사에서 특히 유년층의 누락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28] 1910년대와 1920년대는 영유아의 사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사망 제적자의 증가는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



〈그림 8〉 사망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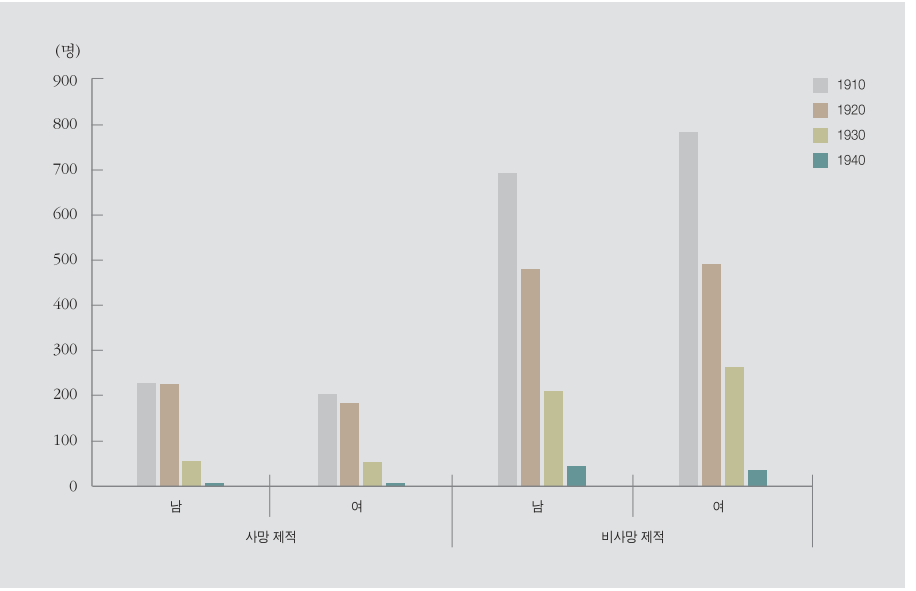
〈그림 9〉 사망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평균수명

다. 1920년대 출생코호트 중에서 사망으로 제적된 사람의 비중이 28.5%로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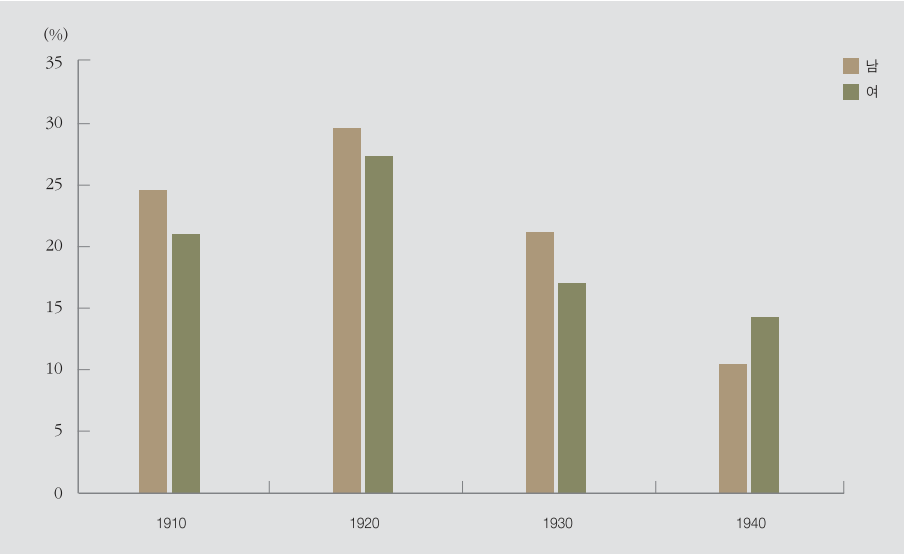
〈표 8〉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분포와 사망률

(단위 : 명, %)

구분			1910	1920	1930	1940	계
제적사유	사망 제적자수	남	225	201	56	5	487
		여	207	185	54	6	452
	비사망 제적자수	남	693	479	210	43	1,425
		여	783	492	263	36	1,574
	계	남	918	680	266	48	1,912
		여	990	677	317	42	2,026
		계	1,908	1,357	583	90	3,938
사망률		남	24.5	29.6	21.1	10.4	25.5
		여	20.9	27.3	17.0	14.3	22.3
		계	22.6	28.4	18.9	12.2	23.8



〈그림 10〉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분포



〈그림 11〉 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 성별 사망률

1920년대 사망률이 높아진 데 기여한 것은 5세 이하 인구의 사망률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표 8〉은 출생코호트별 · 성별 사망률을 정리한 것이다. 1910년대와 1930년대 출생코호트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사망률이 약 4%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아의 경우 불성실 신고의 가능성이 높았다는 당시의 사정을 반영한 것도 이유겠지만, 실제 여아의 사망률이 정상적인 경우 남아보다 약간 낮은 사정도 반영된 것이다. 이에 반해 1920년대 영유아 사망률은 이례적으로 높은데(1930년대에 비하면 거의 10% 포인트 높다), 이 차이를 사망자 신고의 증가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1920년대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영아 사망률이 급증했으며, 특히 여아 사망률의 변화 폭이 훨씬 컸다.

왜 이 시기에만 유독 여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여아 사망률의 변화가 남아의 그것보다 폭이 더 컸다는 사실이다. 여아가 많아질수록 출산 순위가 늦은 여아의 사망 건이 많아진다는 점, 남녀 쌍둥이의 출산 시 남아는 살았는데 여아만 죽은 경우가 2건 존재한다는 점 등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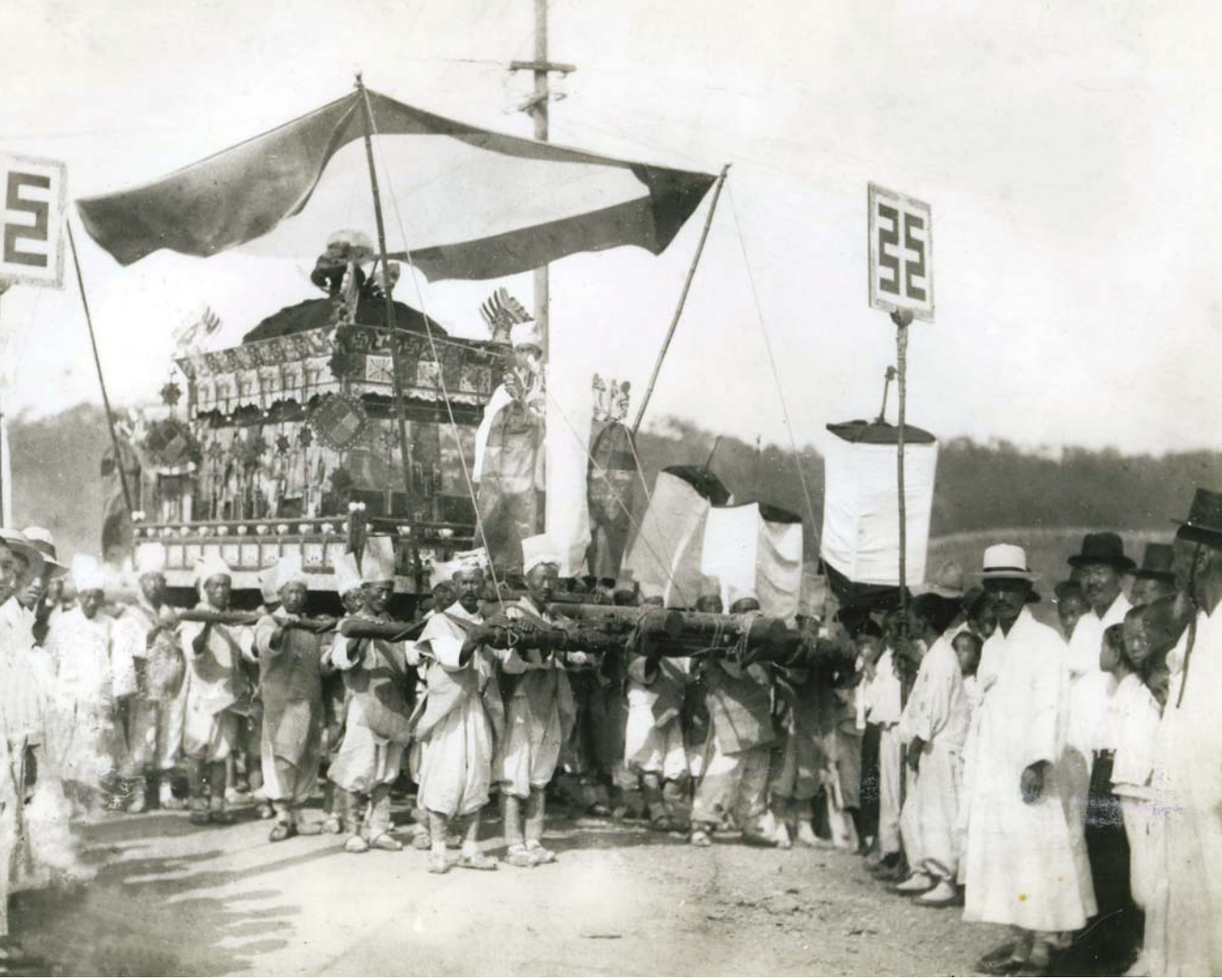
아 살해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율과 관련된 기존 논의와 수원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자. 식민지 초기인 1911~1925년 인구 증가율에서 1916~1920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V자형의 추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0] 한편 수원 사례의 경우는 1910년대 후반기의 인구 증가율도 낮지만, 1920년대 초반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러한 인구 증가율 감소를 가져온 주된 이유는 영유아 사망률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1945년까지 작성된 『제적부』에 기록된 인구를 중심으로 한말 · 일제시기 가족 구성과 출산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한 민적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수원면에 속한 6개 리에 본적을 둔 민적 중에서 1945년 말까지 제적된 1,198호이다. 1,198호의 호주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모두 8,035명이었고, 인구구조 분석에는 중복자를 제외한 8,948명을 이용하였다. 수원면 민적의 호당 평균 구수는 6.71명으로 통상적인 핵가족 구성원수보다는 많았으며, 가족 구성을 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대부분 상하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초혼 연령을 구해 보면 남성은 22.9세, 여성은 19.3세였다.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1900년대 및 1910년대 출생한 사람들의 초혼 연령은 이보다 더 낮은데, 이 시기의 초혼 연령과 국세조사의 그것을 비교하면 남성은 낮고 여성은 높았고, 박기주 · 김성남이 분석한 『제적부』 자료와 비교하면 남녀 모두 낮았다. 수원면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어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와 별도로 초혼 연령의 출생코호트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혼 연령의 최저점이 남녀 모두 1900년대 출생자였음을 보여 준다. 적어도 결혼 연령에 관한 한 수원면 민적 자료는 1920년대가 하나의 전환기였음을 보여 준다.

사망률에 관한 기존 연구는 근대사회로 이행기에 영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늦어도 1910년대에는 근대적 형태로 이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원면의 경우 사망률이 191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보다



〈그림 12〉 1930년대 장례(남양 홍씨 종중 제공)

192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사망으로 제적된 사람들에 국한해서 본 평균 기대수명은 29.0세에 불과했는데, 이는 당시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한다. 수원면의 경우 1910년대 이후 영유아 사망률은 급증했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었다. 1910년대 전반기 호구조사에서 특히 유년층의 누락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10년대와 1920년대는 영유아의 사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사망률이 높아진 데 기여한 것은 5세 이하 인구의 사망률이 급증하였기 때문이

었다.

출생률과 사망률에 관한 이상의 정보로부터 우리는 1920년대 초반 도시부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어쩌면 1920년을 전후한 시기가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시기였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에 생활수준이 악화되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사에서는 1920년을 전후한 시점이 그러한 인구패턴을 보였던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물론 이것은 수원면 사례에 국한된 현상일 수 있다.



1. 한국의 개신교 수용과 '전도부인'
2. 수원 지역 전도부인들의 활동
3. 전도부인 활동의 영향과 의의

김은주 | 서울대학교 감사

02 수원 전도부인들의 삶과 활동

1. 한국의 개신교 수용과 '전도부인'

근대 한국의 개신교 전파에서, 초기 전도는 대부분 남성 전도자들이 매서(賣書)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남성 전도사들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장터에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고, 주막에 들러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때 한국인 사역자들은 기독교 서적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매서인(賣書人)이라고 하였다.

개신교 선교는 이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고 성서 번역에 참여하여 번역된 성서를 보급한 한국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에서도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이전부터 한글 성서가 간행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은밀하게 한국에서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1890년 한국인 매서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마태복음전을 비롯한 4복음서가 쪽복음 형태로 유포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1890년 감리회와 장로회 연합으로 세운 '조선성교성회'에서 출판된 서적으로는 『셩교촬리』, 『텬로지귀』(1890년), 『훈진ㅇ언』(1891년), 『장원양우상론』(1892년), 『구세진전』(1893년) 등이 있었다. 매서인들은 길을 따라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쪽복음과 기독교 서적들을 팔면서 전도하였다.[1]

그러다 점차 개신교 선교에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성들이 주로 장터 등을 돌며 복음을 전한 반면, 여성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런 여성 전도자들을 '전도부인(Bible Woman)' 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남성들과 달리 각 교파 여선교사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교파에 속한 이들이었다.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에게 직접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언어와 지리, 관습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였다. 유교 전통에 깊이 뿌리박힌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 공공장소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직접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다음 글처럼 강한 내외 구분의 관습 때문에 1910년대까지도 남성 사역자가 함부로 여성을 만나거나 가르치거나 전도할 수 없었던 것이다.

> 한국의 교회나 전도관을 보면, 남자는 마루 우측에 앉아 있고, 여자는 마루 좌측에 앉아 남녀가 서로 볼 수 없도록 그들 사이를 나무 칸막이나 천으로 쳐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들어갈 때도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훈련된 토착 전도부인의 도움이 없다면, 토착 교역자와 교사의 사역은 매우 불충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외집회와 복음적인 예배를 통하여 남자들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여인들은 전도부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지 않거나 집회에 초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곳에 전도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감히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2]

전도부인은 위와 같이 한국적인 특성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들은 성경을 팔기도 하고 선교사를 도와 전도여행과 선교사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1898년 스크랜턴(M. F. Scranton) 여선교사(감리사 스크랜턴의 어머니)는 자신의 전도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도부인들의 도움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이때 스크랜턴 여선교사는 8명의 전도부인과 함께 전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3] 따라서 한국에서 전도부인이 출현한 것은 적어도 스크랜턴 여선교사가 지방순회 전도를 시작했을 즈음인 1892년경이라고 볼 수 있다.

스크랜턴 여선교사는 "우리의 목표는 조선의 소녀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 사람들

의 생활, 의복, 환경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조선인을 보다 나은 조선인으로 만드는 데 만족한다. 우리는 조선이 조선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한 조선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선교사들의 초기 개신교 선교 목표가 서구문물의 전달, 문화전도사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외국인 여선교사들은 신앙과 별개로 서구문물을 전하는 문화전도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 여선교사들이 본 한국의 모습은 문명의 빛이 전혀 닿지 않은 어둠이었으며, 생활환경은 불결하였다. 여성들은 조악하고 고통으로 얼룩진 삶,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통로 속에서 무속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비문명인들이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여성들은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내외법에 따라 여성들은 안채에 억류되었고, 교육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대다수가 문맹이었다. 여선교사들은 이런 상황이 기독교 복음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4]


수원 지역 감리교 선교와 전도부인 파송에 큰 공헌을 한 스크랜턴 선교사

선교사들에게 여성 선교 초기 10년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개종자도 적었고 교육을 할 대상자인 여학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적은 수의 개종자는 가난과 잘못된 결혼으로 버려진 소녀들과 여성들이었다. 여선교사들은 개종자의 생활비와 교육할 여학생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선교를 진척시키기도 하였다. 초기 전도부인들은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의 대상자들로, 여선교사들의 교육을 받고 주로 여선교사 주변에서 사적으로 그들을 돕던 한국 여성들이 선택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들은 여선교사들에게 전도에 필요한 성경지식과 교리 교육 등을 받고, 선교 일선에서 한국 여성들을 전도하였다.

전도부인이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이후부터이다. 전도부인의 교육기관은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경반(Bible Class)과 성서연



초기의 전도부인들(내일교회 찬양대 모임방, http://cafe.naver.com/naeil52/2638)

구반(Bible Institute), 성서학원(Bible Training School)이다. 성경반은 사경회에서 조직되어 4일에서 2주 정도 교육을 받았으며, 성서연구반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수료하면 전도부인으로 파송되었다. 이 두 과정은 임시적인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 반해 성서학원은 3달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요하는 과정으로 비교적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상설기관이었다.[5] 선교사업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교회의 성경반을 비롯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이나 미션계 여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전도부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도부인의 인적 구성에 변화와 확대를 가져왔다.

전도부인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 힘입어 19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리교의 경우 1910년대에는 전국에 50~70명 선이었다가 1920년대가 되면 100명 전후가 활동하게 되었다. 성경반의 숫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100~300개의 성경반이 개설되고 있었다. 이는 전도부인의 역할 중 하나가 성경반 개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여성수도 급증하여, 1915년 이후는 7,000명에 달하였다. 장로교의 전도부인은 1916년까지 70~80여 명, 1917년 이후 110명 선, 1925년 이후 200명 선, 1933년 이후에 300~400명 선으로 증가하였다. 전도부인의 증가는 한국교회의 조직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1910년대 집중된 한국기독교의 조직화 과정은 교인수의 증가에 따른 교인의 효과적 관리를 필요로 했으며, 특히 여성신자의 증가는 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전도부인의 수급을 증가시켰던 것이다.[6]

2. 수원 지역 전도부인들의 활동

수원은 서울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로서, 일찍부터 선교사들의 일차적인 선교목표지였다. 선교를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전도인들에게 수원은 반드시 한 번쯤 거쳐 가야 하는 곳이었으며, 특히 감리교 전도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수원 지역 전도부인들도 대부분 감리교 소속으로 활동하였는데,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을 통해 수원 지역에서의 활동 내용이 확인되는 전도부인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원 지역 전도부인의 활동 내용[7]

성명	소속	수원에서의 활동 시기와 내용
김로라	감리교	1918년 수원에서 활동
김작실	감리교	1910년 남양에서 활동 1918년 수원에서 활동
김진실	감리교	1918년 수원에서 활동
문룰라	감리교	1917년 수원에서 활동
박미리암	감리교	1917년 수원에서 활동
박정애	감리교	1918년 수원에서 활동
김세라	감리교	1912년 수원읍교회 전도부인
류신덕	감리교	1912년 수원읍교회 속장부인
김사라	감리교	스크랜턴 여선교사가 길러 낸 감리교 초기 전도부인이며, 수원 · 공주 지역에서 활동, 달성교회 부인권서
이경숙	감리교	세례명은 이드루실라. 1897년 스크랜턴 여선교사와 함께 경기도 이남 지역 전도를 담당하였고, 1909년에는 수원 종로교회 여선교회 사업과 삼일여학교 교육사업에 종사
김갑순	감리교	1935년 수원 지방 안산에서 거주
황정숙	감리교	1935~1938년 수원 지방 오산구역에서 활동, 1941년 제8회 동부연회 수원지방 평신도 대표,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거주
장신원	감리교	1935~1938년 수원 지방 제암구역에서 활동
민원숙	감리교	1939년 제7회 중부연회 평신도 대표, 수원읍 북수정 종로교회 전도사
신다비다	감리교	1934년 수원 지방 제암구역에서 활동
이수다	감리교	1935년 수원 지방 남양 · 사강에서 활동, 1938년 수원 지방 사강구역에서 활동
김신덕	감리교	1938년 수원 지방 남양구역에서 활동
문경숙	감리교	1935~1938년 수원군 수원읍에서 활동
장명덕	감리교	1935년 수원 지방 안산동에서 활동, 1938년 수원 지방 천곡구역에서 활동
윤홍임	감리교	1938년 수원 지방 안악구역

앞의 전도부인들 중 활동이 두드러지는 인물이 이경숙과 김사라이다. 특히 이경숙은 스크랜턴 여선교사의 활동을 보조하며 수원 지방으로 내려왔고, 삼일여학교 초창기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경숙은 1851년 충남 홍주에서 태어났다. 15세가 되던 해 서울에서 내려온 낯모르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초례를 지낸 후 바로 서울로 돌아간 후 소식이 없다가 3년 후에야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 후 이경숙은 가난한 친정 살림을 도우며 어렵게 생활하다가, 힘든 생활에 여승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환속하여 스크랜턴 여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스크랜턴 여선교사에 의해 이화학당 언문선생 겸 학당장 비서로 채용되었다. 1899년에는 세례를 받고 두르실라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896년 스크랜턴 여선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이경숙도 1년이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으나, 1897년 스크랜턴 여선교사와 재회하여 본격적인 전도사업에 나서게 되었다.[8]

1897년 한국으로 돌아온 스크랜턴 여선교사는 이화학당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아들과 함께 남대문시장 언덕에 달성교회(현 상동교회)를 세우고 서울과 경기 이남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때 이경숙도 전도부인이 되어 스크랜턴 여선교사의 일을 돕기 시작하였고, 주로 스크랜턴 여선교사의 집을 찾는 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크랜턴 여선교사는 1898년 이경숙을 비롯한 전도부인들의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지난 일 년 동안 계획했던 일을 모두 추진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전도부인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계획하고 지시하는 바를 자기 능력을 다해 따라 주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정식으로 고용한 세 명 외에 대영성서공회에서 따로 다섯 명을 더 붙여 주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일감을 맡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수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훨씬 좋을 정도입니다. 이드루실라(이경숙) 부인은 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집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사라 부인과 정한나 부인은 가가호호 방문하며 교리를 가르치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9]

1902년 무렵 스크랜턴 여선교사는 수원 지역 선교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경숙 역시 스크랜턴 여선교사와 동행해 수원을 비롯하여 오산 · 시흥 · 덕평 · 오천 · 해미 · 덕산 · 여주 · 이천 등지를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당시 수원에서의 전도 활동에 대해 이경숙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 수원에서 처음 전도할 때 일이다. 어느 주막집에 앉아 하루 동안에 큰 궤짝으로 한 궤짝이나 되는 교회서책을 다 팔고 그 주막은 너무 누추하여 유숙할 수가 없으므로 숙소를 구하더니 그 고을 군수가 우리 일행을 위하여 사청(射廳)을 치워 주는지라. 사청도 더럽기는 주막집과 일반이요 바람벽에 침 뱉고 코 푼 흔적을 보면 구역이 나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도 구경꾼이 전후에 옹위하여 손가락으로 문구멍을 뚫어 놓고 조석 때가 되어도 가지 않고 음식 먹는 구경을 하고 잠잘 때가 되어도 가지 않고 서 있으니 괴로움이 극심하였었다.[10]

이처럼 선교사와 전도부인은 어딜 가나 구경거리였다. 개인적으로는 참기 어려운 고역이었겠지만, 그들은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이경숙은 궁궐에 바느질 일자리를 구하였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내몰린 적이 있었으나, 이제 지방에서 군수가 직접 선교사 숙소로 관청을 내놓을 정도로 상황이 변해 있었다.[11]

1909년에는 이경숙의 신앙의 어머니이자 든든한 보호자였던 스크랜턴 여선교사가 병으로 별세하였다. 스크랜턴 여선교사의 후임으로 피어스(N. M. Pierce)가 내한하여 달성교회당 여성사역을 맡게 되었고, 피어스는 선교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수원 지역에 이경숙을 파송하였다.

이경숙은 수원종로교회 여선교회 사업과 교회에서 설립한 삼일여학교 교육사업을 관장하게 되었고, 전에 스크랜턴 여선교사와 순행하며 들렀던 수원으로 주거를 옮겨 1년 동안 활동하였다. 이때 10명 미만이던 교인수가 70명에 이르렀고, 2명이던 학생수가 20명으로 늘게 된 것은 이경숙의 뛰어난 활약의 결과였다.[12]

특히 정신이상이 된 40대 여인과 무녀를 기도로 고치고 전도한 일이 알려지면서 이경숙은 '귀신 쫓는 여인'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3] 선교 초기 전도부인들의 병 고치는 기도 능력이나 귀신 쫓는 능력은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통적



삼일여학교 학생과 교사(독립기념관 소장) 삼일여학교 학생들 뒷줄에 사역자 겸 교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으로 무속적 영향이 지배해 온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정치 사회적인 지위를 잃고 가정에서 조상제사와 가족의 안녕을 비는 가무적(家巫的)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도부인들은 무속의 영향력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기고 개종한 사람들이었으며, 다음 글처럼 많은 전도부인들이 병을 고치는 기도 능력을 전도 활동에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14]

우리들의 전도부인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 명은 상동교회에서, 다른 한 명은 수원에서, 다른 사람은 장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지방을 순회하고 있다. 이들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신임을 받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도부인은 기도와 시편을 노래한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쫓아내려고 애쓸 때, 전도부인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신을 축출한다. 전도부인의 신앙은 때때로 그들을 가르친 선생들보다 크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다.[15]


김메례와 김사라(채부인, *FIFTY YEARS OF LIGHT*, 미 감리교회부인선교부, 1938)

이경숙과 함께 수원 지역에서 전도부인으로 활약한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사라이다. 1900년 감리사 스크랜턴의 수원·공주 지역 선교 보고에서는 "달성교회에서 가장 충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 중 하나인 사라와 학교를 맡아 보게 될 그녀의 딸이 잠시 후 그곳(장지내교회)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16] 따라서 1900년 이전부터 김사라가 수원 지역의 유능한 전도부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사라는 딸인 메리(Mary, 김메례)와 함께 수원 최초로 설립된 장지내교회에서 전도와 여학교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 후 김메례는 삼일여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수원 지역 여성교육 발전에 헌신하였다.

1905년 스크랜턴 여선교사는 김사라에 대해 "사라 김은 수원과 근교에서 1,928명의 집을 방문했다."고 그녀의 활약상을 보고하였다.[17] 이를 통해 수원 지역에서 전도부인으로서 김사라가 눈에 띄는 활동을 했으며, 선교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수원구역 전도부인(채부인, *FIFTY YEARS OF LIGHT*, 미 감리교회부인선교부, 1938)



수원 지방 오산구역 여자 사역자들과 신도들(오산교회 소장)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11년 힐만(Mary Hillman)과 밀러(Lula Miller)의 보고에서는 "얼마 전 수원 전도부인 사라는 연로한 관계로 일을 그만두기를 희망하였다. 더 이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좋은 자질인 관용과 상냥함, 근면, 낙담하지 않는 신앙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18] 이를 통해 김사라가 1911년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그녀는 활동을 좀 더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1912년 힐만과 밀러는 "수원의 사라는 사람들이 그녀 없이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를 집에서 결코 볼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1912년에도 김사라가 여전히 활발히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며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

이경숙과 김사라 외에도 수원 지역에서는 몇 명의 전도부인들이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였다. 1917년에는 수원 각 구역에서 일하는 6명의 전도부인이 한 해 동안 4,000명을 방문했으며, 142명의 새 신자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전도부인과 자원봉사자가 개최한 두 개의 정규반을 토대로 6개 구역에서 36개 반을 개최하였다. 선교사들은 이들의 활동을 통해 "남자나 여자나 담배를 끊었고, 십일조를 결정했고 배교자들은 회심하였다. 싸움도 해결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악마로부터 해방되고 병자들은 나았다. 이러한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높이 평가하였다.[20] 1910년대 후반 수원 지역에서 활동한 전도부인들로 김작실, 김진실, 박정애, 김로라 등이 있었다.[21]

수원 지역 감리회는 전도부인들을 위해 제물포구역과 함께 매년 봄에 성경반(Bible Institute), 가을에는 정규반을 열었다. 이때 정규반에서 훈련된 여성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그들이 활동하는 구역의 작은 마을 단위로 파송되어 성경반을 열었다. 1916년에는 3개 정규반에서 훈련받은 전도부인들이 각 지역에서 127개 성경반을 개최하였는데, 그중 75개 반이 수원구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선교사 밀러는 이런 활발한 전도부인들의 활동에 대해, "전도부인들은 종종 높은 산을 넘기도 하고 깊은 눈 속을 다니기도 하며 거친 파도도 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전도부인의 도움 없이 128개 교회들과 기도모임 그룹을 꾸려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할 정도로, 선교활동에서 전도부인들의 역할은 지대하였다.[22]

3. 전도부인 활동의 영향과 의의

초기 한국교회를 일구었던 전도부인들의 활동은 교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교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언어와 풍습에 익숙하지 않았던 서구의 선교사들을 대신해 전도부인들은 그들이 갈 수 없었던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유교문화 속의 여성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으며, 억눌리고 소외되었던 그들을 차단된 공간에서 집 밖으로 이끌어 내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일상적인 교회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그들과 아픔을 나누는 친구이자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전도부인은 근대 새로운 여성직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전도부인들은 유급으로 채용되어, 일정한 보수를 받아 가족을 부양하였다. 조선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던 '직업'이라는 것은 대개 기생이나 무당 등 사회적 천시를 받던 천민들의 직역이거나, 삯바느질이나 품을 파는 정도의 일뿐이었다. 그러나 전도부인은 공적인 조직에 속한 직업으로, 때로는 서구문물의 수혜자로 그 위상이 상승되기도 하였다.[23] 교육을 받고 임하며 보수를 받는 여성 직업인으로서 전도부인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전도부인들이 주도했던 성경반 운영과 야학운동, 그리고 사경회를 통한 교육활동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여성 개화와 문맹퇴치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도부인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서를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뜻에서 한글보급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전도와 함께 문맹퇴치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낳았다.

개화와 기독교의 영향으로 집안에만 있던 여성들이 문 밖을 나서면서 교회와 학교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활동은 더 나아가서 주권을 빼앗겼을 때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사상 고취와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적극적으

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전도부인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억압적 현실과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의 운명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일을 찾게 되었다. 전도부인들은 가부장적 유교문화에 사로잡혀 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사회의 변화를 알렸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이윽고 사회변혁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근대적 여성 직업의 등장
2. 전문직 여성 직업
3. 서비스직 여성 직업
4. 생산직 노동자

예지숙 | 서울대학교 강사
홍현영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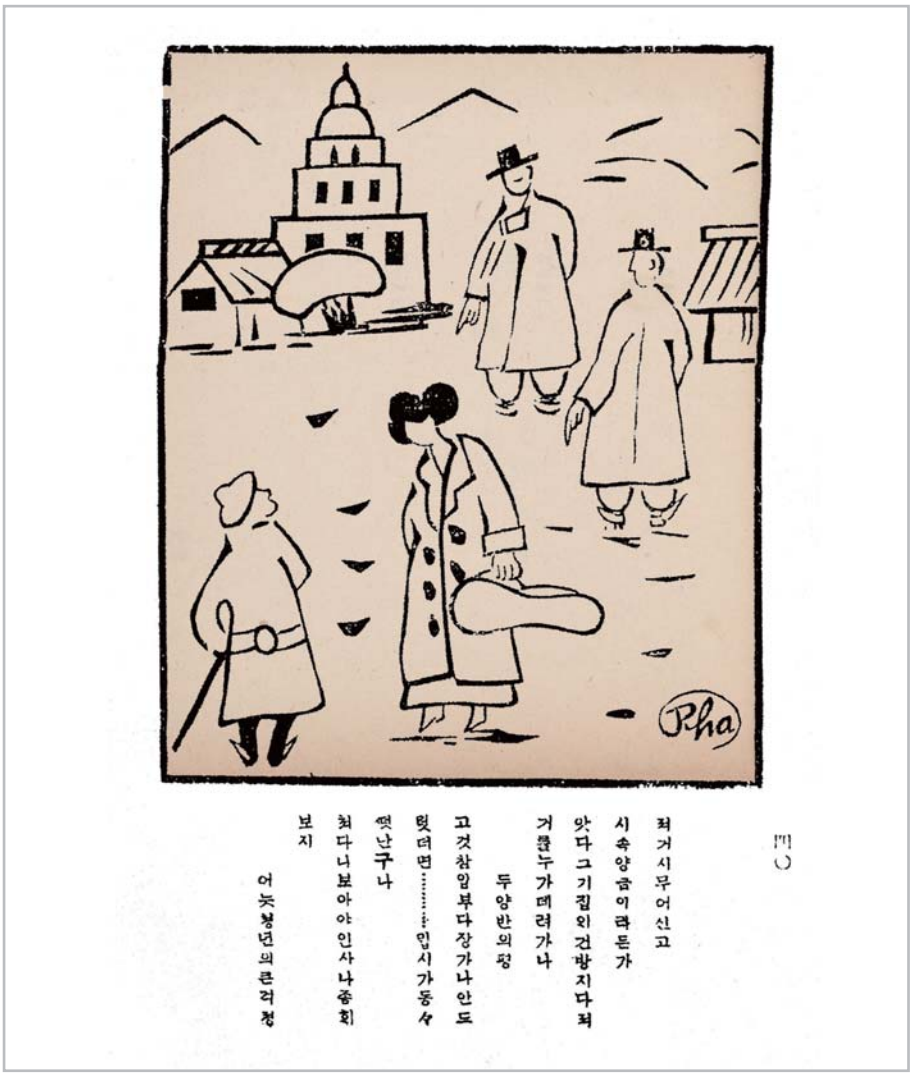
03 근대 수원의 직업세계와 직업여성의 등장

1. 근대적 여성 직업의 등장

1) '직업부인'과 신여성

직업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였던 '직업부인'과 신여성은 여러모로 겹치는 집단이었다. 식민지시기에 신여성은 근대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나선 일군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도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아 근대적 지식을 소유하고, 직업을 가져서 경제적 독립성을 누리고 소비와 유행의 주역으로 떠오른 여성들을 신여성이라는 사회적 집단으로 인식하였다.[1] 신여성들은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자각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초기 신여성은 신식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들에 한정되다가 이후 여성교육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사무 · 판매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는 외연이 넓어졌다.

전문직 신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사회활동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 모델이 되기도 하였고, 그 방면에 대해 스스로를 선각자라 생각하였다. 일제시기에 교육당국은 "집안일을 규모 있게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여성교육의 목표를 두었고, 순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양처현모 교육을 표방하



직업적 신여성에 대한 동시대 남성들의 반응을 회화화한 작품(나혜석, 「저것이 무엇인고」, 『신여자』 2, 1920년 4월)

였다.[2] 하지만 교육받은 여성들의 규모도 커지고 근대사회가 전개되면서 여성들은 가정에 안주하지 않고 직업을 가지려 하였다.

> 여자도 오늘은 가두로 나와서 남성과 가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불어 세상 사람들은 직업부인이라 합니다. 부인이 가정에서 직업으로 진출하기는 하얏으나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이 만허서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직업부인으로 그 직업에 성공하기가 남자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여자가 직업부인으로 엇더케 하면 성공하겠느냐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요결 몃 가지를 소개합니다.[3]

이처럼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2층 양옥에 피아노가 있는 문화주택, 이른바 스위트홈만을 꿈꾼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현실적으로 꿈꾸었다. 여성교육자이자 운동가였던 김활란은 "가정부인들은 가정에 있는 그대로 통틀어 직업부인으로 존재케 하자."[4]는 주장을 통해 안팎에서 기여를 통해 여성이 민족과 사회에서 존재감을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여성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는 것과 민족과 사회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사회현실에 맞게 조화시키는 발상이었다.

한편 여성들은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남녀관계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을 가져서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하였다.[5]

> 여자가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각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그 정도를 심수(深遂)하게 하자 함이오. 여자가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생활을 독립을 확보하자 함이오. 따라서 그 인격의 가치를 가치대로 완전히 발휘하자 함이니 양자는 여성 해방에 여자의 인류로서의 생활에 생활다운 생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이 업시 엇지 자각을 구하며 직업이 업시 엇지 광휘 있는 생활과 가치 있는 사업을 경영하리오.[6]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직업부인이 가시화되면서 여성의 일이 무엇이고, 가정과 직업생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지도자급의 여성운동가들은 가정의 일과 밖에서 직장일을 둘 다 잘할 것, 즉 슈퍼우먼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2) 직업부인이여, 단결하라!

직업부인들이 늘어나면서 "여성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7]라는 인식에서 직업여성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직업부인을 위한 여성단체로는 1927년에 발기한 조선여자흥업사, 1929년에 박인덕 · 최활란 · 황에스터 · 정현숙 등이 창설한 조선직업부인협회 등이 있었다. 조선직업부인협회는 국제직업부인협회와 연맹을 맺기도 하였는데, 이 단체에서는 여성 실직자를 위해 직업을 소개 · 알선하였다. 또 재봉부, 세탁부, 염색부를 직영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고 직업을 공급하려 하였다. 1920년대에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는 맹아적 형태였지만 여권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지위 향상과 남녀동등권을 주창하였다.[8]

하지만 여성이 집안이 아닌 일터에 나가 직업부인이 되는 것은 평등실현을 위한 여권운동 차원의 것도 자아실현을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실제 변화하는 식민지의 현실이, 경제적 빈곤이 여성을 집 밖으로 몰아내고 있었다. 근대화와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의 직업은 조선인에게 일어를 가르치기 위해 양산된 교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 발생된 각종 서비스 직종이거나 노동집약적인 미숙련 여직공이었다.[9] 여성의 직업 중 참여도가 높은 직업은 가사사용인이나 기생 · 창기 등 접객업 종사원, 여관급사에 한정되었다. 이는 여성이 직업을 가져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고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이상형임을 알려 준다. 실제 직업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발휘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여성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즉 자아실현, 경제적 독립 등의 주장은 아직 현실이라기보다 운동 차원의 것이었다.

3) 여성 취업인구

일제강점기 내내 대다수 여성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 산업이 출현하고 자본주의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들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 국세조사사업 자료에 따르면 1930년 말 현재 여성 취업인구는 2만 7,356명 정도였는데 전체 취업인구의 19.4%였고,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의 취업률

은 전체의 20% 정도로 비슷하였다. 〈표 1〉은 조선인 여성이 200명 이상 취업한 업종을 분류하고, 이 업종에서 여성이 취업한 비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표 1〉 성별 취업 분야[10]

여성이 50% 이상인 직업	여성이 20% 이상인 직업	여성이 20% 미만인 직업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는 직업
예기(藝妓 : 기생), 창기, 조사공, 간호인, 가사사용인, 여관 등의 여중(女中), 급사(給仕)	고무성형공, 상업조수, 여관 등의 번두(番頭), 재단공, 재봉공, 부동산 임대업자, 결발, 미용사, 접객업주, 지주	교원, 세탁직, 관공서 고용인, 관청 · 회사 등의 급사, 통신업주 · 직원, 행상, 과자 등 제조공, 기타 서기적 직업, 사무원, 물품판매업주, 점원, 수위(守衛), 주문취(主文取), 외교원, 의사, 기타 상업적 직업, 농경업주, 기자 · 문필가, 기타 운수에 종사하는 자, 잡역부, 일용, 인쇄공, 관리, 문선공 · 식자공, 중매인 · 주선인, 화(靴)제조공, 목공, 자동차 운전수	철공, 금속조립공, 목공, 토목건축업주, 청부업주, 대공(大工), 좌관(左官), 석공, 전공(電工), 인력거부, 짐수레꾼, 운반부, 배달부, 군인

〈표 1〉에서 여성 고용 비율이 50%를 넘는 직업에는 기생과 같은 접객업 종사자, 가사사용인 같은 육체노동에 의존하는 직업이나 여관 여중(女中)이나 급사 같은 보조적인 것들이 많았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간호인의 경우 의료 분야에서 성별 분업이 이루어져 여성 직업으로 고정된 경우였다. 가사사용인은 단일 직업으로 '국세조사사업' 의 대분류에 등장하는 것으로 여성 취직 비율이 최고 수위에 있는 직업이었다. 가사사용인의 규모가 늘어나자 이들의 노동을 소개하고 직업적 애환을 취재하는 기사들도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여성 직업을 일별해 보면, 먼저 전문직으로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관련 직업이 있었다.[11] 이 분야는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등장한 여성 직업으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 · 문필가 · 교사 등이 있다. 이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여성운동의 기수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여성교육과 경제적 독립이 남녀를 동등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성해방에 이르게 할 것이라 하였다. 간호부와 산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학력의 신여성이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수원 출신의 전무후무한 신여성 나혜석이 이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여성이라 하겠다.



1924년 조선일보사 편집국에서 신문기사를 쓰고 있는 한국 최초의 민간지 여기자 최은희(이달순 제공)

전문직 여성 외에도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통해 자아를 펼쳐 보려는 여성들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사무·판매 서비스직에 진출하였다. 1920년대부터 발간된 한글 신문과 잡지 등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여성 직업을 소개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 직업은 주로 근대적인 시설과 함께 등장한 상품판매원·버스차장·전화교환수·은행원 등이었다.

1920~1930년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무, 서비스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도시화와 상업화에 따라 등장하여 주목을 받은 집단으로서 '데파트걸', '티켓걸', '엘레베타걸' 등을 포함한 근대적인 의미의 판매 서비스직이다. 둘째, 근대적 기계문물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통신·교통 분야의 '할로걸'과 '뻐스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집단이었던 가사사용인이다. 셋째, 식민지 도시에서 기형적으로 성장한 예기·기생 등 전통적인 접객업과 신흥 카

페걸(여급)까지 포함한 접객 서비스직이다.[12]

다음으로는 방직공장, 제사공장, 고무공장 등에 고용된 여공들이 있었다. 이 외에도 여성 대다수가 종사한 농업 · 어업 등 1차 산업 관련 직업이 있으며, '주모', '식당여자', '상인', '상점경영' 등 전통사회부터 이어져 온 직업들이 있었다.

〈표 2〉 1930년대 수원군과 수원면 직업별 인구[13]

(단위 : 명)

구분		수원군			수원면		
		계	남	여	계	남	여
무직자		86,576	32,724	53,852	8,576	3,067	5,509
유직자	계	72,928	49,233	23,695	4,606	3,659	947
	농업	53,095	40,555	12,540	885	707	178
	수산업	552	142	410			
	광업	1	1		1	1	
	공업	10,306	7,959	2,347	726	623	103
	상업	4,155	2,492	1,663	1,450	1,109	341
	교통업	604	591	13	212	201	11
	공무자유업	1,391	1,210	181	439	398	41
	가사사용인	1,036	246	790	311	66	245
	기타	1,788	1,649	139	582	554	28

2. 전문직 여성 직업

1) 교사와 보모

전문직 여성의 직업으로는 교사, 보모(유치원 교사), 의사, 간호부, 산파, 아나운서, 신문기자, 예술가 등이 있었다. "조선의 신녀성으로서 직업에 눈뜨게 된 최초의 것"[14]으로 전문직 여성의 가장 대표적 직업인 여교사는 당시에 "현대사회가 여자들에게 준 비교적 고급의 직업"[15]이라 평가되었다. 1920년대 중후반에는 서울이거나 시골이거나 반드시 교사가 한 둘은 있게 마련으로,[16] 학교에서 여교사의 존재가 당연시되었다. 그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배운 여성들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학교였다. 〈표 3〉의 관립학교 졸업생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관립학교들에 비하여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의 학교 교원 취업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 관립학교 졸업생의 취업 상황[17]

(단위 : 명)

구분	가업 종사자		관공서 취직자		은행 · 회사 취직자		학교 교원		학교 입학자		기타		사망	
	조	일	조	일	조	일	조	일	조	일	조	일	조	일
전문학교	14	9	55	23	6	43	9	6	7	1	1	10	1	0
중학교	1	33	0	1	0	7	1	2	0	168			0	1
고등보통학교	33		14		1		122		122		13		4	
여자고등보통학교	60		0		0		103		66		3		1	
관립사범학교							1	130						
공업학교				9	1	1				6	1	1		
계	108	42	69	33	8	51	236	138	195	175	19	76	6	1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1위가 학교 교원, 2위 상급학교 진학, 3위 가업 종사자였다. 남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상황에서도 학교 교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활발했지만 학교 교원으로 취업을 하는 자와 상급학교 입학자가 동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으므로 최고의 직업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것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원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가 가사를 도와야 했다. 이러한 여성들이 근대적 가정주부로 거듭난 조선 중류 가정의 주부들이었을 것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조선에는 여자고등교육기관이 희소하였으므로 주로 일본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다. 상급여학교에 진학한 여학생들의 경우 돌아와서 교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역시 근대에 들어 생긴 여자 직업인 유치원 교사(보모)는 보육학교나 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해야 될 수 있었다. 또 보육학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또는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즉 식민지시기에는 최고의 학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18] 보육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1920년대 방화수류정 앞의 삼일여학교 교사들(독립기념관 소장)



삼일여학교 교사 시절의 최은희(1919년 말경, 이달순 제공)



1938년 신풍공립보통학교 교사들(신풍초등학교 소장)

교사가 되면 초급 40원 정도를 받고 근무하였는데, 이는 보통학교 교원 월급 45원이나 중등학교 교원 월급 78~80원보다 적은 것으로 고학력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이었다.[19] 게다가 '유치원무용론'과 동시에 보모가 외모에만 신경 쓴다는 등, 아이에게 쌀쌀맞다는 등, 보모들이 결혼 전 생계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한다는 등 보모 자질문제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하였다.[20]

수원에도 식민지시기 근대적 여성 직업인 학교 교원과 보모로 활동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표 4〉를 보면 1920년대 수원 지역에는 근대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곳에는 비록 소수이지만 여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삼일여학교의 경우 1920년 구국민단사건과 관련되어 체포된 석은애와 이신애가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최초의 민간지 여기자로 유명한 최은희도 일본 유학 전에 잠시 이곳에서 교편을 잡았다.

〈표 4〉 1927년 수원군 교육기관[21]

(단위 : 개소, 명)

구분		일본인교육	조선인교육					합계
		소학교	보통학교	간이실업학교	종교학교	유치원	서당	
학교수	공립	4	11	1				16
	사립		1		2	1	199	203
	계	4	12	1	2	1	199	219
아동수	남	299	3,224	25	262	20	1,942	5,772
	여	185	812			20	42	1,059
	계	484	4,036	25	262	40	1,984	6,831
졸업자수		81	518	10	18			627
교원수		16	76	3	9	1	204	309

또 당시 수원에 외국인 경영 유치원인 진명유치원이 있었는데, 이곳에 근무한 보모가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표 4〉에 따르면 수원에는 사립 유치원이 하나 있었고 유치원 교사 1명에 원생은 남녀 각각 20명씩 총 40명이 다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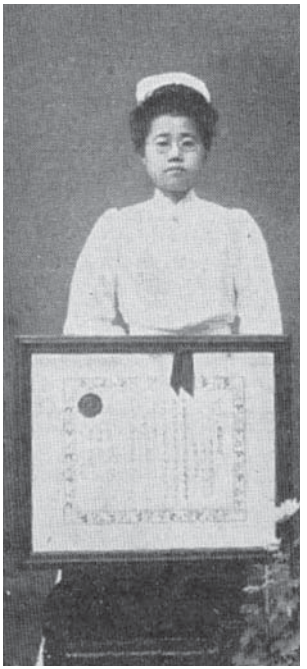
1920년대 성공회에서 운영하던 진명유치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보모 1명이 40명의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었으니 당시 보모의 노고가 상당했으리라 생각된다.

2) 간호사와 산파 그리고 여의사

1885년에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건립되었다. 일본인들은 개항장에 병원을 만들어 서구의학을 보급하였고,[22] 1885년부터 선교사들이 설립한 병원도 각지에 들어섰다. 1887년에는 여의사 하워드(Meta Howard)가 이화학당 구내에 여성병원을 개설하였는데[23] 이 병원에서 최초로 간호사와 여의사가 양성되었다.

이그레이스(李具禮 : 1882~미상)는 1908년 서울의 감리교 여자병원인 보구여관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졸업간호원(현재의 등록간호사)이 되었다. 그레이스는 1882년 9월 9일 서울에서 여종으로 태어났고, 이름은 '복업' 이었다. 어릴 때 괴사(壞死)병에 걸려 다리 불구가 되었는데, 보구여관에 와


이그레이스

서 여러 해 동안 괴사당한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제대로 걷게 되었다. 그 후 1897년 정동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세례명은 '그레이스'라 하였다. 1903년 12월 보구여관 간호사양성학교가 개교하자 그레이스는 첫 학생이 되었고, 1906년 1월 25일 김마르다와 함께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간호사 예모를 받는 제1회 예모식(가관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원 삼일학교의 교장인 이하영(李夏榮 : 1870~1952)은 결혼 후에도 학업과 간호사 근무를 약속하면서 그레이스에게 공개 구혼했고, 그녀는 이 제안을 4개월간 심사숙고한 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1907년 1월 30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회 예모식 때 그레이스는 예복으로 간호복을 입고 서양식으로 결혼하였다. 이런 새로운 청혼 과정과 혼인 방식은 여성과 간호사의 지위 향상을 보여 주는 동시에 기독교적 결혼의 한 예가 되었다.

마침내 그레이스는 1908년 11월 5일 김마르다와 함께 간호사양성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최초의 한국인 졸업간호사로서 보구여관에서 근무하였다. 1910년 남편이 평양 이문골교회에 사역자로 임명되자 평양 광혜여원으로 옮겨 홀(Rosetta S. Hall) 의사와 커틀러(Mary M. Cutler) 의사를 도와 5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그레이스는 수간호사로 봉사했고, 의사들의 통역도 맡았으며, 수술 시 마취를 담당하였다. 1913년 말 김마르다 간호사가 광혜여원의 수간호사 겸 병동담당 간호사로 임명되자, 그레이스는 홀 의사의 조수 겸 왕진담당 간호사가 되었다. 그레이스는 전 병원 조수였던 박수산노와 함께 평양자혜병원에서 산파 과목을 이수하였다. 그 결과 1914년 총독부에서 새로운 「의료규칙」을 발표하자, 그녀는 1914년 5월 27일 의생(醫生) 면허(2905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그녀는 한국 여성으로서는 처음 정부의

면허장을 가진 의료인의 명예를 얻었다. 이후 그레이스는 의생(의사)으로 활동하였다.

1914년 가을 이하영 목사가 서울 동대문교회에 임명되자, 그레이스는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와서 이후 3년간 개인 병원을 운영한 듯하다. 1917년 이하영 목사가 진남포교회로 임명되었는데 1919년 3·1운동으로 평양형무소에 투옥되자, 그레이스는 평양으로 이사해서 남편 수감 기간에 고난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콩밥을 지어 자녀들과 함께 먹었다고 한다.

출옥한 이하영은 일본 경찰의 감시로 목회활동이 어려웠다. 1923년 강릉교회에 임명되어 4년간 시무한 후 휴직하다가 1931년에 은퇴하였다. 이그레이스는 강릉에서 개업했는데, 1924년 6월부터 1925년 5월까지 1년간 200명의 여자와 어린이를 치료하고 4명의 산부를 조산하였다. 그 후 이그레이스는 남편과 자녀(전처 1남과 3남 2녀)와 함께 수원으로 와서 구천동에서 산파소를 경영하였다.[24]

간호사와 산파는 의료 부문 여성 직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06년에는 세브란스의원, 1909년부터 대한의원에서 간호부를 정식으로 교육하면서 간호사가 배출되었다.[25] 간호사는 "소의소복에 순결이 넘치는 구호의 여신 간호부", "흰 족두리를 쓰고 에프롱을 입은 천사"로[26] 소개되었다. 취업 연령은 15~30세 정도였고, 수입은 '공설병원 초급 15~30원 미만, 사립병원은 초급 20~40원'으로 다른 전문직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여성 의료인력 중 전통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산파는 20세기 들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주요한 의료인력으로 간호부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07년 설립된 대한의원에서 산파를 의료인력으로 포함하였으며, 1908년 설립된 내부 위생국에서 산파를 관리하였다. 1910년에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에 산파과가 설치되어 산파 교육이 제도화되었으며, 1914년에는 「산파면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남들은 다 잠자는 밤중이나 새벽이나 잠자다 끌려와서 ……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며 소름이 쪽쪽 끼치는 산모의 괴로운 부르지즘을 달게 드르며"[27] 산모의 순산을 돕는 직업으로 고생도 만만치 않았다. 산파는 기술만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었고, 월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조산

(助産)에 10원 이상으로 30~40원"[28]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최소한의 수입이 월 40원으로 수입 면에서 꽤나 괜찮은 직업이었다.

당시 여의사는 "직업이 고상하고도 수입이 만흠은 부인 직업 중에 제일 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29] 교원에 비해 수입이 높고[30] 개업을 할 경우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결혼 후에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소개되었다.[31]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구제하는 직업이니만큼 사업으로 보아서도 결코 천한 것이 아닌" 것이라 소개하였다.

수원에는 1910년 수원자혜의원이 건립되었고, 이후 사립의원들이 차차 들어서면서 간호부와 산파가 생겨났다. 1913년에 수원 의료시설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관립 · 사립 도합 3개 병원에서 간호부 9명, 산파 3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모두 일본인이었다.[32] 하지만 이후 조선인 간호부와 산파의 수도 꾸준히 늘어났을 것이라 추정된다. 일제시기 도립수원의원[33]의 간호부 인원은 13~21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 인원은 병원 전체 인원의 50%에 해당되는 것이었다.[34] 1929년 발간된 『생활상태조사(1)-수원군』에 따르면 수원의 의료기관은 공립의원(경기도립수원의원) 1개소, 사립병원 6개소가 있었고, 의료인은 공의 1명, 의사 15명, 의생 25명, 간호사 11명, 산파 11명이 있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920년대 중반에 수원의 전문직 여성으로 의료인력으로 존재한 여성이 22명 정도인데,[35]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실제 조선인 여성 규모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한편 일제 말기 이후 수원 관내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여의사로 김순희, 이종열, 이명인 등이 확인된다. 김순희(1914년생)는 1932년 3월 경성여자의학강습소에 입학하여 1941년 5월 조선총독부 의사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 1941년 9월부터 1943년 9월까지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소아과에 근무하였다. 1944년 5월 수원사립매향여중, 수원사립유치원 촉탁의로 근무하다가 1951년 10월 2일 남창동 136-4번지에 김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종열(1917년생)은 신풍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4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42년 3월 졸업하였다. 졸업 후 같은 학교 부속의원에서 1943년 3월까지 조수로 근무하였고, 1943년 4월 을지로에 있는 경성부립병원(京城府立病院) 근무 중 소개명령으로 1944년 6월 사직한 후 수

원군 원천으로 왔다. 해방 후 1946년 9월 경기도립수원의원 소아과에 근무하다가 1949년 8월 사직하였다. 이어 1950년 3월 수원시 인계동에서 성모의원을 개원하였다가 한국전쟁으로 1952년 남수동 31번지로 이전하였다. 이명인(1927년생)은 1944년 4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49년 6월에 졸업하였다. 1951년 2월 수원시 매향동 23번지에 명인안과의원을 개원하였고, 1962년 팔달로2가 7-6번지로 이전 개설하였다.[36]

3. 서비스직 여성 직업

도시화와 소비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각종 상점이 등장함에 따라 판매 서비스직이 생겨났고, 점주들은 친절함과 섬세함이 장점인 여성을 점원으로 고용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성들에게 사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타이피스트, 은행원, 전화교환수 등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중등학교, 즉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무 서비스직은 중간층 여성들이 진출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이 일자리의 대부분은 일본인 여성들의 차지였다.

〈표 5〉를 보면 전화교환수 등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직업의 경우 일본인 여성의

〈표 5〉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민족별 인구[37]

(단위 :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선인	일본인
상업	상업적 직업	상업수조	29,600	7,546
		점원, 매자	505	345
		주문원, 외교원	109	18
		집금인	15	68
		소계	30,229	7,977
	접객업	이발사, 미용사	114	916
		요리인	953	224
		접객업소 호객꾼	42,942	2,33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선인	일본인
상업	접객업	접객업소 객사	10,602	4,256
		예기(기생)	3,621	2,341
		창기	1,664	1,505
		소계	59,896	11,580
교통업	운수	차장	80	2
	통신	전화통신원	3	7
		전화교환수	224	1,269
		소계	307	1,341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	거주 가사사용인	86,434	3,363
		통근 가사사용인	2,109	28
		소계	88,543	3,391
합계			178,975	24,289

비중이 높고, 대부분을 서 있어야 하는 차장, 가사사용인, 접객업소 호객꾼은 조선인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쓸 만한 일자리는 모두 일본인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들어 산업화율은 낮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여성이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저임금의 일자리였다. 조선에서도 여성교육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졸업한 여학생들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여 항상적이고 극한 취업난에 시달려야 했다. 사무 서비스직에 취업길이 막혀 있던 중등학교 졸업 정도 학력의 여성들이 그나마 많이 진출한 것이 바로 '데파트걸'로 대표되는 판매 서비스직이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인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이 생기면서 조선인 데파트걸의 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 변동에 따라 도시로 이동해 온 여성들은 근대적인 직업 중에 가장 하층의 서비스직인 가사사용인으로 일을 해야 했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팔달문 주변을 중심으로 상업이 성장하였고, 경부철도 부설 이후 수원역 일대에 상권이 형성하면서 상업도시로 발달해 갔다. 그러나 사무 · 판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극소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 · 판매 서비스직이 당시 새로 등장한 최첨단의 직업으로 각광받았으므로 교육 정도가 있는 여성들의 진출로가 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직원(이임광,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 – 대한민국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린 회남 송인상 이야기』, 공감의기쁨, 2012)

1) 사무 서비스직

식민지시기에는 중등교육 정도의 학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사무 서비스직에 조선 여성들이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단지 조선의 낮은 산업화 정도와 그에 따른 근대적인 사무 서비스 직종이 적어서는 아니었다. 사무 서비스직이 집중되어 있던 경성에서 중등 학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여성 사무 서비스직은 192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났다. 하지만 타이피스트나 은행원 같은 여성 사무직은 거의 일본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38]

수원에는 금융기관으로 식산은행 수원지점과 한성은행 수원지점, 금융조합, 보험사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은행은 수원 시가지를 중심으로 4개소(매산정, 궁정, 본정 2개)가 있었고, 조선인 운용 보험업은 2개소가 있었는데 중심지인 매산정과 본정에 위치하였다.

〈표 6〉을 보면 1943년 식산은행 수원지점에 여직원으로 최영란이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1943년 식산은행 수원지점에 취업했던 김준배는 수원공립고등여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은행 측에서 학교에 직원 추천을 의뢰하여 일본인 졸업생 1명과 함께 취직하였다. 또한 수원 부읍장의 딸인 이귀옥은 1943년 수원공립고

〈표 6〉 1943년 식산은행 수원지점 직원 명부[39]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지점장	가쿠 에이타로(隅英太郎)	출납	기고 도시카쓰(木子歲勝)
지점장대리	마쓰다 유키오(松田幸雄)	감정	이노우에(井上實)
공공대부	모리(森員一)	산업대부	최영란(崔榮蘭)
예금	야마오카 시게노부(山岡重信)	저은(貯銀)대리점	마쓰마에 야스히로(松前保弘)
감정	시모카와 가즈오(下川一雄)	감정	산조 데쓰난(山上哲南)
점내(店內) 점장대리	후지와라 슈이치(藤原修一)	계산	마쓰우라(松浦載鵬)
조사(調査)	오하라 미노루(大原實)	서무, 채권	마쓰바라 유타카(松原豐)
상업대부	구보 미쓰하루(久保光晴)	저은대리점	야마모토 다카오(山本隆夫)
산업대부	마쓰바라(松原秉武)	취립(取立)	요시무라 후미오(吉村文雄)
예금	키요하라(淸原天洙)	출납	우메바야시 다쓰오(梅林龍雄)
산업대부	김성한(金聲漢)	예금(雇員)	후지오 미사오(藤尾みさを)
위체(爲替)	니야마 시게키(丹山芳樹)	저축 외무원	고석훈(高錫勳)

등여학교를 졸업하고 1주일 만에 한성은행 수원지점에 취업하였다. 이귀옥 역시 한성은행 측에서 학교로 취업학생 추천을 의뢰하여 취직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인 이진영 부읍장은 처음에 이귀옥의 취업을 반대하였으나 교장의 설득으로 결국 허락하였다. 입사 당시 한성은행 수원지점에는 1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성 직원은 4~5명쯤이었다고 한다. 신입직원은 대개 출납계로 배치되었지만 이귀옥은 예금계에 배속되었다. 초봉은 30원이었는데 당시는 쌀 1말이 1원이던 시절이었고, 월말 결산을 할 때면 1주일 전부터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봉급보다 많았다고 한다. 이귀옥은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였다.

김준배와 이귀옥은 모두 수원공립고등여학교 제1회 졸업생이고 교장 추천으로 은행에 입사하였다. 이들이 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친이 모두 수원공립고등여학교의 기성회에서 활동하던 지역 명망가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기에 징병으로 남자 직원들이 전쟁터로 나가자 그 자리의 일부를 고등여학교 졸업 여성으로 채웠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매 · 교통 서비스직

판매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업을 살펴보면, 1930년대 이후 대도시에 세워진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파트걸' 또는 '쇼프걸(shopgirl)',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엘레베타걸', 극장에서 표를 판매하는 '티켓걸', 자동차와 버스의 연료를 판매하는 '개솔린걸' 등이 있었다.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상업에서 최첨단의 직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백화점이 없던 수원에는 '데파트걸' 이나 '엘레베타걸' 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원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에서 일을 하는 여성점원들이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이 외에 판매 서비스직으로는 극장에서 일하는 '티켓걸' 이 있었는데, 1942년 수원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수원상공인인명록』에 수원읍 궁정(宮町 : 지금의 교동)에 수원극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티켓걸' 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하 수원의 판매 서비스업 여성 종사자의 존재와 규모는 자료의 한계로 거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1942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수원상공인인명록』과 수원상공회의소 활동 상황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전쟁의 한복판인 1942년 설립된 수원상공회의소는 '주산경기대회'와 종업원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우량종업원 표창식', '상점경영강습회' 를 열었다.[40] 상점회계 기장강습회는 수원상공회의소의 역점사업이었는데, 이 대회 참가자격을 보면 상점주 또는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남녀 종업원이었다. 1942년 이 강습회 실시 기념사진을 보면 일본 옷을 입은 여성 1명이 찍혀 있다.[41]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에 수록되어 있는 '주산경기대회' 기념사진에도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또 『수원상공인인명록』의 기록에 따르면 수원은 93개 업종 중 제조업종이 10여 개로 제조업보다 판매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이었다.[42]

그러므로 판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42년 당시 판매직종으로 음식점, 나막신가게, 푸줏간, 쌀가게(싸전), 페인트, 도시락, 시계방, 숫돌, 축음기, 요리집, 여관업, 이발소, 통집, 솜틀집, 지물포, 과자집, 가구업, 양복점, 일본 옷가게, 고무신가게, 잡화점, 금은방, 문방구, 극장, 미용원(일본인 경영 1개) 등이 있었다.[43] 서비스업은 남성보다 친절하고 섬세한 여



1943년 제3회 주산경기대회(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성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 판매원들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업장 중 시계방, 축음기(조선인 경영 1개소), 양복점, 옷가게, 구두판매점, 잡화점, 금은방, 극장, 미용실에서 여성 판매원들이 활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판매, 교통 서비스업 중 당시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대표적 여성 직업을 살펴보자.

전화와 함께 등장한 여성 직업이 바로 전화교환수인 '할로걸' 이었다. 조선에 전화가 가설된 것은 1902년이었으나 조선 여성 교환수가 생긴 것은 1920년대이다. 전화교환수는 여자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에 15~20세의 여성이 고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화교환수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이상, 즉 중등교육을 받은 조선 여성들이 지원하였다. 월수입은 초급일 경우 24~50원가량이었다.[44] 이 직업은 " '모시모시 남방! 남방!' 하고 날마다 아츰브터 밤까지 몸에는 검정 사무복을 입고 귀에는 수화긔(受話機)를 끼고 신호의 뎐등불이 반적어릴 때마다 어엽븐 소리로 물으

며 뎐화 가입자와 가입자 사이에 말을 할 수 잇도록 중매하여 주는" 일이었다. 근대적 통신 서비스직인 까닭에 육체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며, 당시 일본인들의 전화 가설 비율이 월등했기 때문에 전화교환수 전체에서 일본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체노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직업 애환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 이 직업도 남이 알기에는 감안히 안저서 번호방 뭇고 얼른 그 번호에 대여주는 것이라 그닥지 어렵지 안케 생각할는지 모르나 이 직업도 방송국의 『아나운써』와 가티 쉬운 듯하면서도 남모를 고통과 설흠이 잇는 것임니다. 교환국에를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은 그럿티 안치만 가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교환수가 조금만 늣게 나오던지 늣게 대여주면 덥허놋코 "죽일 년! 살릴 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게 됨니다.
> 아츰브터 저녁까지 꼭 교환대 압헤 안저서 아모리 두 손을 번개불가티 놀려도 밋처 당해내는 수가 업서서 손님에게 욕을 먹고 또 조곰만 딴 데를 보면 감독에게 나무램을 듯고 하야 어느 때는 가슴을 쥐여 뜻으며 통곡을 하고 십게 억울하고 분할 적도 잇담니다.[45]

그러나 위급한 상황을 전화 연락을 통해 모면하게 할 수 있는 것 등 전화교환원의 직업적 자부심도 만만치 않았다.

"뻐쓰차 속에서 안지도 못하고 슨 채로 '오라잇', '스톱'을 목이 압흐게 부르는" 직업으로,[46] 버스안내원 · 전차승무원은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직업이었다. 게다가 '하야까시'를 부리는 승객, "없는 승환표(乘換票)를 내라는 등, 일정한 임금을 할인하자는 등"[47] 별의별 승객들 때문에 이들의 직업적 고통은 상당한 것이었다. 게다가 여승무원은 운전사와 승무원의 성적 관계를 연상하고 시비를 거는 승객과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남성과 일하는 여성의 정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였던 것이다.

수원에 시내버스가 등장한 것은 1928년 12월 2일이었다. 수원자동차합자회사는 수원 읍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12월 1일 주문한 버스가 도착하여 12월 2일부터 18인승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고 한다.[48] 이로써 수원에 시내버스 시대가 열렸는데, 수원 시내버스에도 "다라나는 차에 열두 시간

섯는 직업” ‘모던직업 뻐스걸’[49]이 있었을 것이다.

3) 접객 서비스업

식민지시기 여러 직종 중 기형적으로 팽창한 부분이 바로 접객 서비스업이었다. 전통적으로 기생과 같은 접객업 종사자들이 있었지만 1920년대 후반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도시에서 근대적인 접객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는데, 서구적 유흥공간인 카페의 확산이 그것이다. 이로써 접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인 카페 여급의 수도 늘어났다. 1934년 경무국에서 제정한 「카페영업규칙」에 의하면 카페 영업이란 “서양식 장식설비를 하고 여급의 접대에 의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제1조)이라고 하였고, 카페 여급은 “객석에서 시중을 들고 계속적 접대를 하는 부녀”라 규정하였다. 1933년경 접객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예기 4,620명, 작부 1,438명, 창기 2,560명, 여급 2,489명으로 총 1만 1,107명이 접객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조선인 여성은 절반가량이나 되었다.[50] 이는 사무 서비스직이나 상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대부분 일본인었던 것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수원에는 에비스카페라는 일본인 경영 점포가 중심가인 매산정에 있었고,[51] 남수리에 적옥카페가 있었다. 적옥카페에서는 1932년 2월 28일 정복경관이 시비를 벌여 남창리 아세아상회원 이현규를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급도 부상을 당하였다[52]는 기사를 통해 여급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원예기조합(水原藝妓組合)이 설립되어 있었다. 수원에 기생조합이 설립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13년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수원기생조합도 만들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1918년 7월 발행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는 수원기생조합이 소개되고 있다.[53] 수원기생조합의 공식명칭은 『동아일보』 1921년 11월 17일 광고를 통해 ‘수원예기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 「동아일보사대표 만국기자대회 부회장 당선」 축하 광고에 수원 유지 나홍석 · 차유순 · 홍사훈 등과 수원의 교육 · 종교 단체 등의 광고와 더불어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 옆에 나란히 ‘수원예기조합’이라는 이름이 실려 있다.[54] 이것은 일단 광고 형식을 빌린 의례적 협찬이지만 수원예기조합의



김향화(아오야기 쯔나타로우, 『조선미인보감』, 1918)



수원 기생 박옥엽(『동아일보』, 1928년 5월 18일)

명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1910년대 수원예기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 주는 자료로는 『조선미인보감』이 있다. 이 책은 권번과 기생조합의 기생들을 홍보하기 위해 발간된 자료이다. 한편으로는 '풍속 교화' 라는 측면에서 일제가 기생들을 통제하고 있는 식민 지배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이 책으로 1910년대 수원예기조합 기생들의 출신, 약력, 기예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조선미인보감』에 소개된 당시 수원예기조합 기생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1918년 7월 수원예기조합의 기생들과 기예

성명	나이	원적	현 주소	기예(技藝)
서도홍	21	경성부	남수리 123	검무, 승무, 정재무, 양금,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서화
김향화	22	경성부	남수리 202	검무, 승무, 각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양금
이금희	23	경성부	남수리 214	남무, 각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손산홍	22	충청남도 공주군	남수리 204	남무, 각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성명	나이	원적	현 주소	기예(技藝)
신정희	22	경성부 인사동	남수리 227	승무, 각정재무, 가곡,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오산호주	20	전라북도 전주군	남수리 192	검무, 각항정재무, 시조, 가사, 경성잡가, 남도리창
손유색	17	충청남도 공주군	남수리 231	검무, 승무, 각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양금
이추월	20	경성부	남수리 276	각항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김연옥	18	경성부 봉래정	남수리 267	검무, 각항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양금, 가야금, 병창
김명월	19	경상남도 진주군	남수리 190	승무, 검무, 각항정재무, 가사, 시조, 경 · 서 · 남잡가, 양금, 묵화
한연향	22	경기도 양주군	남수리 216	입무, 각항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정월색	23	경상남도 창원군	남수리 276	남무, 각종정재무, 가야금, 병창, 가곡, 가사, 시조, 경 · 서 · 남리곡
이산옥	19	경상북도 대구부	남수리 235	가사, 시조, 경성잡가, 남도리창
김명화	17	경성부 공평동	남수리 214	검무, 각종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양금
소매홍	20	경상남도 진주군	남수리 203	남무, 각정재무, 가곡,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박능파	17	경상남도 동래군	남수리 232	가사, 시조, 경 · 서 · 남잡가
윤연화	19	경성부 서린동	남수리 106	입무, 각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김앵무	16	경성부 팔판동	남수리 232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이일점홍	16	경성부 인사동	남수리 267	입무, 가사, 시조, 서관잡가
홍죽엽	18	평안남도 평양부	남수리 267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김금홍	17	전라북도 장성군	남수리 115	입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정가패	17	경상남도 진주군	남수리 249	각항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박화연	19	경상남도 진주군	남수리 123	시조, 경성잡가
박연심	20	경성부 중림동	남수리 151	가사, 시조, 서관잡가, 입무
황채옥	22	충청남도 아산군	남수리 108	입무, 각항정재무,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문롱월	21	경상남도 진주군	남수리 190	입무, 시조, 경 · 남잡가
박금란	18	경상남도 진주군	남수리 232	입무, 각항정재무, 우계면,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오채경	15	전라북도 전주군	남수리 192	승무, 가사, 시조, 서관잡가, 남도리창
김향란	18	경성부 효제동	남수리 276	가사, 시조, 경성리곡
임산월	17	경성부 동대문 외 홍수동	남수리 249	가사, 시조, 경성속요
최진옥	19	경성부 낙원동	남수리 206	가사, 시조
박도화	23	경상북도 의성군	남수리 218	남무, 각정재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김채희	15	경성부 안국동	남수리 276	검무, 입무,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리요

『조선미인보감』에는 수원예기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33명의 기생들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그중 김향화는 3 · 1운동 당시 수원기생들을 이끌고 만세를 부른 주동자로 지목되어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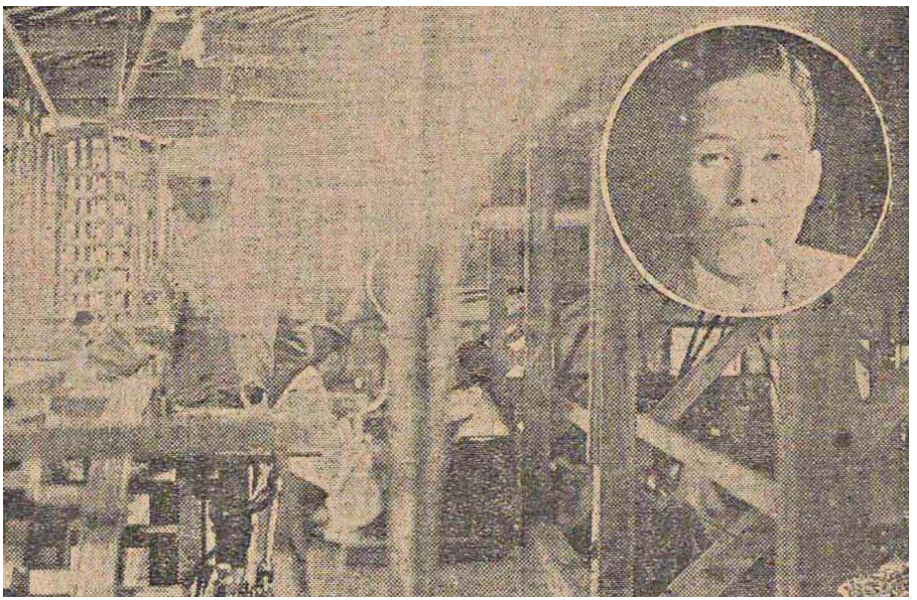
4) 가사사용인

서비스직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직업은 일제강점기 여성 직업 종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가사사용인이다. 가사사용인은 각 가정에서 고용한 가사서비스 노동자로, 흔히 '식모'라 일컬었던 일군의 여성 집단을 가리키는 식민지시기 공적 용어였다. 가사사용인은 1930년 국세조사사업에서 11개의 대분류 중에 하나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직업이었다.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직업소개소에서 가사사용인을 당당한 직업으로 알선하였는데, 1930년대에는 '어멈 전성기'라 할 정도로 가사사용인의 구직활동이 활발하였다. 이 시기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하는 구인수와 취직자수의 절반을 가사사용인이 점하고 있었다.[55] 수원 지역의 경우 일제시기 이래 서둔동 일대의 여성들이 수원고등농림학교 및 수원법원 등에 근무하는 고등관 사택에서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960년대까지 수원 읍내 중상층 집안에서는 가사사용인들이 가사와 육아 등을 수행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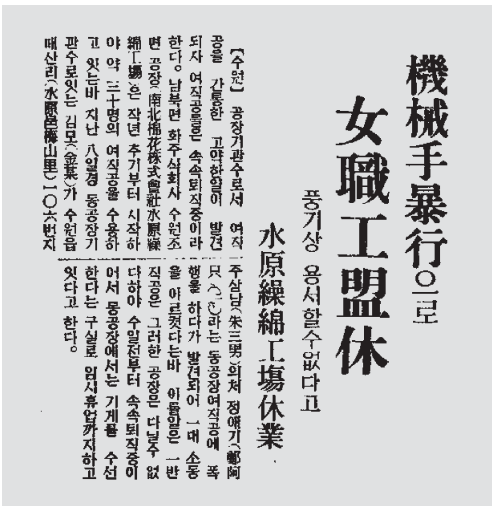
4. 생산직 노동자

일제는 조선의 공업화를 통해 자국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값싸고 순종적인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정미공장, 방직공장, 고무공장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신여성에게 직업이 '자아'를 찾는 통로였다면, 생산현장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업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56]

1930년대 수원 지역에 직물공장이 설립되면서 여성 공장노동자도 증가하였다. 1932년 8월 김학배는 수원에 직물공장을 설치한 후 30여 명의 부녀자들을 직공으로 고용하여 매일 50전 이상의 임금을 주어 실업구제는 물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57] 1935년에는 남북면업주식회사 수원공장이 설립되었고, 이어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잠사부 부속의 제사공장이 들어섰다. 그 후



김학배가 운영하던 수원직물의 직공(『매일신보』, 1934년 6월 6일)



機械手暴行으로
女職工盟休
풍기상 용서할수없다고
水原繰綿工場休業

【수원】 공장기관수로서 여직 주실남(朱三男)외저 정애기(鄭阿
공을 간통한 고얀한일이 발견 只)라는 동공장여직공에 폭
되자 여직공들은 속속퇴직중이라 행을 하다가 발견되어 一대 소동
한다。남북면 화주식회사 수원조 을 아르켓다는바 이들공은 一반
면공장 南北棉花株式會社水原繰 직공은 그러한 공장은 다닐수 없
綿工場은 작년 추기부터 시작하 다하야 수일전부터 속속퇴직중이
야 약 三十명의 여직공을 수용하 어서 동공장에서는 기계를 수선
고 잇는바 지난 八일경 동공장기 한다는 구실로 임시휴업까지하고
관수로잇는 김모(金某)가 수원읍 잇다고 한다。
매산리(水原邑梅山里) 一〇六번지

기관수의 폭행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수원조면공장 맹휴(『동아일보』, 1936년 2월 18일)

수원 지역의 직물공장은 급격히 증가하여 1940년대에는 동아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소화직물공장,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 등이 활발하게 경영되고 있었다. 특히 100대 전후의 직기를 소유한 선경직물, 선일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동흥직물공장이 운영되는 등 직물업이 발전하였다.[58]

이러한 가운데 1936년 2월 남북면화주식회사 수원조면공장의 여직공들이 파업을 벌였다. 수원공

장에는 약 30명의 여직공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2월 8일 수원공장 기관수로 있는 한국인 김모 씨가 수원읍 매산리에 사는 주부 직공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여직공들은 회사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을 단행하였다. 결국 수원조면공장은 기계를 수선한다는 구실로 임시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59]

여성 노동자들의 '밥벌이'는 가족들의 목숨을 지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박한 '생명선'이었지만 자본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장 낮은 임금을 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 감독관의 성적 통제도 일상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층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생존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이런 수원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수원 북수리 아리랑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살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타령이 왜 생겼나
   슬픈 놈 가슴이 미여진다.

2. 밭 가는 농부네 아리랑은
   도조와 장리가 걱정일세.
   일 년 열두 달 지여 논 것은
   누구의 곳집을 채워 주나.

3. 제사장 여직공 아리랑은
   시집갈 미천이 걱정일세.
   기계는 돌아서 돈을 낳고
   돈은 돌아서 어디로 가나.[60]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분노하고 동료 노동자들과 운명공동체라는 연대감을 쌓아 가면서 민족차별과 성적 모순,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다.



1. '근대'가 가져온 새로운 결혼 풍경
2. 신여성 나혜석의 연애와 결혼
3. '배운 여성' 윤영애의 결혼생활

김은주 | 서울대학교 강사
류현희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04 근대도시 1세대들의 연애와 결혼

1. '근대'가 가져온 새로운 결혼 풍경

1) '신식결혼'의 등장과 유행

근대의 물결은 결혼식의 풍경을 변화시켰다. 이른바 '신식결혼'은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 H. G.)의 주례로 1888년 3월 정동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치러진 한용경과 과부 박씨의 결혼식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를 '예배당 결혼'이라고도 불렀는데, 신랑·신부 앞에서 목사가 결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혼증빙(結婚證憑)'이라는 결혼증명서에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권자·주례·증인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결혼한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시켰다.[1]

근대 초기 신식결혼은 근대 신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치러지기 시작하였다. 대다수 대중들에게 서양식의 신식결혼은 신기한 구경거리 중 하나였다. 1899년 『독립신문』에서는 서양식 혼례가 치러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광고할 정도였다.

> 오늘 오전 10시에 배재학당 학도 문경호, 민찬호 양씨가 이화학당 학도 신 규수, 김 규수와 더불어 정동 새 예배당에서 혼인을 하는데 서양 예법으로 행한다는지라. 혹 구경하려 하는 이가 있거든 임시하여 다 그리로 가서 볼지어다.[2]

신식결혼식에서는 예복으로 신랑은 프록코트에 실크 햇을 쓰고, 신부는 드레스



서울YMCA에서 거행된 나혜석의 동생 나지석의 결혼식(수원박물관 소장)

대신 흰색 한복에 너울(면사포)을 썼다. 예식은 주로 예배당에서 거행되었고,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랑 · 신부 두 사람이 맹세를 하는 형태였다. 주로 신여성이나 일부 부유층, 기독교인 중심으로 행해지던 신식결혼식은 당시 서구적인 것을 선호하던 여성들에게는 이상적인 혼례로 비쳐졌다.

신식결혼은 점차 확산되어, 1920년대 초기가 되면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식결혼으로 예식을 치렀다. "신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반 다 이 형식을 취하며 혹 이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구식대로 혼인식을 하는 이가 있으면 오히려 이상히 생각할 만치" 변화하였다.[3] 예배당에서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이들 중 기독교신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다.

결혼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교회가 아닌 예식장도 등장하였다. 1935년에 문을 연 경성 부민관(府民館)은 본래 1,800석의 공연장이었으나, 공연보다는 결혼식이 더 많이 치러졌다. 1937년 1월부터 6월까지 부민관에서 음악 · 무용 공연은 63회, 연극은 55회 공연되었는데 결혼식은 134회나 열렸고, 『조선일보』에서는 경성 부민관이 "화촉(華燭)의 전당"이 되었다고 하였다.[4] 부민관은 집에서 올리는 전통혼례도 싫고, 신자도 아닌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부담스럽던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에게 최적의 결혼식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신부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미장원과 결혼식 전문 준비업체인 '예식부(禮式部)'도 등장하였다. 1940년 경성 시내에는 예식부가 10여 곳쯤 있었다. 예

식부에서는 한 50~60원만 들이면 신부를 웬만큼 꾸밀 수 있었으며, 한 예식부에서는 하루에 많은 날은 4~5명, 적은 날에는 1~2명 정도의 신부를 치장하였다고 한다.[5]

2) 자유연애와 자유결혼론의 확산

결혼 예식뿐만 아니라 결혼관도 변화하고 있었다. 서구의 근대사조들이 들어오면서 자유연애 · 자유결혼의 사상이 조선에도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9년 3 · 1운동을 전후한 시기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불렸던 시기로, 서구사조의 유행 등을 배경으로 개조와 진보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910년대부터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은 이러한 사조를 접하였으며, 그 물결은 1920년대 초 조선으로 밀려들어 왔다. 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자유연애', '자유결혼'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0년대 신여성들은 자유연애 · 자유결혼을 봉건적 남녀관계와 가족제도의 폐습을 타파하기 위한 여성해방의 방도로 생각하고 적극 수용하였다.

1920년대 자유주의적 연애 · 결혼 사상은 스웨덴의 엘렌 케이(Ellen Key)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엘렌 케이는 그의 저서 『연애와 결혼』에서 자유로운 연애에 따른 자유로운 결혼이 여성과 가족도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이라고 천명하였다. 당시 그의 사상은 '생명의 종교', '생명의 신앙'이라고 불릴 만큼 순수한 인간 생명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며 만약 사랑이 사라지면 혼인은 당연히 깨어지는 것이므로 자유이혼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6]

1930년대에 들어서면 그때까지의 연애와 결혼론을 연애지상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라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콜론타이나 베베르의 사상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상적인 연애론과 결혼론으로 콜론타이의 동지적 연애, 결혼론이 활발히 소개되었다. 그것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조선에서 사회주의단체가 결성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7]

1920년대 초반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 · 자유결혼론을 받아들인 1세대 신여성들은 자유로운 남녀교제를 역설하였다. 대표적으로 1921년 당시 『신여자』 주필이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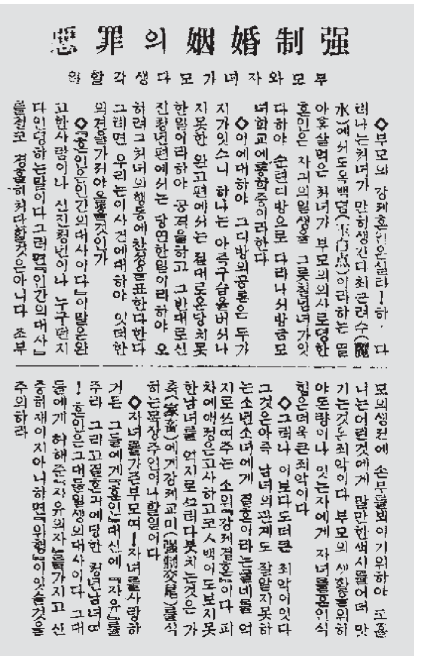
「독신여성의 정조론」(『삼천리』, 1935년 10월)

김원주(金元周 : 김일엽)는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여성이 남성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사회를 빨리 알게 되며 잘못된 혼인의 폐해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건전한 남녀교제가 행복한 결혼과 가족의 전제라는 것이다. 김원주는 자유연애를 지지하고, 특히 봉건적 가부장제 아래의 여성 정절 이데올로기에 대해 공격하였다. 그의 '신정조론'은 "정조는 애인에 대한 타율적 도덕관념이 아니고 애인에 대한 감정과 상상력의 최고 조화한 정열"이며, "정조관념은 연애의식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요 유동하는 관념으로 항상 새로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 김원주의 정조관념의 토대에는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사상이 확실히 담겨 있다. 그러나 김원주 자신의 연애, 결혼 체험이 실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사랑이 있는 한 정조는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조관념은 그동안 조선사회에서 관습화된 정조관념과는 완전히 달랐고,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던 도덕으로서의 정조관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일반사회의 완고한 의식은 새로운 정조론을 부르짖는 신여성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자유결혼'에 대한 인식은 남녀를 넘어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공감되는 의제였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자유결혼과 반대되는 '강제결혼'에 대한 열띤 논쟁과 사회적 비판이 절정에 달하였다. 『동아일보』 1924년 1월 27일자에 실린 「강제혼인의 죄악」이라는 글에서 부모가 강제한 결혼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달아난 여성을 두고 그 지방의 여론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언급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자유결혼의 옹호자들은 전통적 인습에 젖은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아직 남녀의 관계도 잘 알지 못하는 소년 소녀에게 결혼이라는 굴레를 억지로 씌워 주는 소위 강제결혼"이 가장 큰 죄악이며, 이는 "가축에게 강제교

미를 시키는 목장주인이나 할 일"이라고 비난하였다.[9]

연애는 신성하며,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관념은 1920년대에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사회 일반으로 전파되어 갔다. 연애는 근대의 뚜렷한 지표로서 예찬되고 숭배되었다. 자유연애사상은 유행으로 자리 잡아 갔으나, 한편으로 자유연애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각모'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자 상징이기도 했다.[10]


惡罪의 姻婚制强

「강제혼인의 죄악」(『동아일보』, 1924년 1월 27일)

그러나 자유연애 · 자유결혼의 사조는 신교육을 받은 계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24년에는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양반집 처녀인 정차숙이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같은 동리에 사는 박평길과 혼인을 선언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에서는 "이만 일을 지금 신교육 받은 여자가 하였다 하면 물론 별로 신기할 것이 없으나 규중처녀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가 하여 나간다는 자유사상이 팽창한 이때 향촌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이 일은 정히 한 시대사조의 반영"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11]

3) 현실과의 충돌 _ '제2부인' 문제와 자유이혼론

신여성 중심의 새로운 자유결혼관은 현실과 부딪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일례로 성악가 윤심덕을 비롯한 신여성들이 유부남들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정사(情死)한 사건들이 화제가 되었다. 기혼남과 미혼 신여성 사이의 사랑과 결혼은 사기 결혼, 이중 혼인, 도피행각 등의 각종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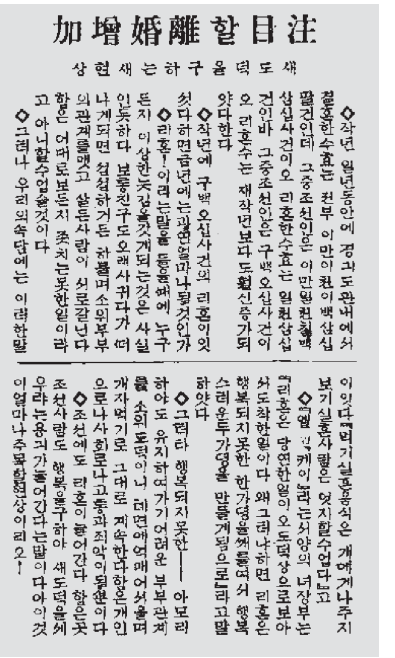
나경석과 배숙경(수원박물관 소장)

당시 신여성이 그린 이상적인 남편상은 "떳떳한 직업인, 예절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수입 보장,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이해하는 사람, 예술적 취미, 용감하고 의로운 성격, 정조를 지키는 남자, 자기 일을 자신이 하고 부르주아적 향락만 추구하지 않을 것, 학식과 교양은 적어도 여성과 비슷할 것" 등이었다.[12] 그러나 신여성들과 동등한 지식을 가질 만한 남자는 대개 이미 집안에서 짝지어 준 부인이 있는 유부남들이었다. 자유연애 · 자유결혼이 주창되는 시대에도 조혼과 같은 강제결혼은 여전히 많았던 것이다.

일본 유학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910년대에 들어와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서울이나 일본 등지에 유학한 남성들이 그곳에서 신여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고향의 부인을 버리는 일이 나타났다. 1930년대에 등장하는 이른바 '제2부인'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 시기의 이른바 '제2부인'은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이른바 '첩'으로 일컬어지는 범주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羅景錫)도 조혼으로 아내가 있었으나, '신여성'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였다. 나경석이 14살 되던 해에 수원 근처 유복한 집안의 규수 박부리(朴富利)와 결혼하였는데, 혼례가 치러지는 날 비로소 당사자들이 대면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혼인이었다.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혼례를 치른 나경석은 부인과 금슬이 좋지 못했으며, 박씨는 거의 평생을 서울 익선동(益善洞)의 집에서 홀로 지냈다고 한다.[13] 그리고 나경석은 32세에 서울에서 교육받은 신여성 배숙경(裵淑卿)

을 만났다. 형식상 결혼한 몸이었기 때문에 수원의 본가에서는 반대했지만, 결국 나경석은 배숙경과 새로 결혼생활을 꾸렸다.[14]



加增婚離할目注

상현새는하구을덕도색

◇작년 일년동안에 경과도완내에서 결혼한수효는 귄부 이만이천이백삼십 팔건인데 그중조선인은 이만일천칠백 삼십사건이오 리혼한수효는 일천삼십 건이바 그중조선인은 구백오십사건이 오 리혼수는 재작년보다도훨신증가되 얏다한다

◇작년에 구백오십사건의 리혼이잇 섯다하면금년에는과연얼마나될것인가 ◇리혼! 이러는말을 듯들때에 누구 든지 이상한늣김을깃게되는것은 사실 인늣하다 보통전구도오래사귀다가 떠나게되면 섭섭하거든 하물며소위부부 의관계를맷고 살든사람이 서로갈닌다 함은 어떠도보든지 좃치는못한일이라 고 아니할수업슬것이다

◇그러나 우리의속담에는 이러한말 이잇다 『떡가진놈이 김칫국먹기』라는 속담과 가치 리혼도 자긔가 실혼하기 실흔자는 엇지할수업다』고 보기실흔자를 ◇엘렌 케이의 『련애와 결혼』이라는 녀장부는 『리혼은 당연한일이오 도덕상으로보아 서도착한일이다 왜그러냐하면 리혼은 행복되지못한 한가정을깨틀여서 행복 스러운두가정을 만들게됨으로』라고말 하얏다

◇그런다 행복되지못한—— 아모라 하야도 유지하여가기어려운 부부관계 를 소위 도덕이니 톄면에얽매여서울며 개자먹기로 그대로 계속한다함은개인 으로나사회로나고통과죄악이될뿐이다 ◇조선에도 리혼이 늘어간다 함은곳 조선사람도 행복을구하여 새도덕을세 우랴는용기가 늘어간다는말이다 아이것 이얼마나 수뢰할현상이랴오!

「주목할 이혼증가」(『동아일보』, 1924년 3월 26일)

전통적 관습에 따라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결정에 맞춰 일찍이 결혼한 남성은 근대적 도시에서 서구문명의 세례를 받은 신여성과 조우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전통의 요구에 따라 결혼한 남성의 아내는 배우지 못했거나 개성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거부당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앞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불행에 직면하였다. 근대적 학교제도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과 지식 수준이 비슷한 남성들이 대부분 기혼자라는 사실 앞에서 배우자 선택의 어려움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근대적 사랑과 자유결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신식 지식인 남성과의 결합을 강행한 신여성들은 자신이 '밀어 낸' 남편의 전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 따른 갈등, 부모의 반대나 주위의 비난 혹은 조바심과 같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였다.[15]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혼문제가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토론을 야기하였다. 지식인들은 근대적 사랑이나 조혼의 폐해 등을 내세우면서 이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행복하지 못한, 아무리 하여도 유지하지 못할 부부관계를 소위 도덕이니 체면에 얽매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계속한다 함은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고통의 죄악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선에도 이혼이 늘어간다 함은 곧 조선 사람도 행복을 구하여 새 도덕을 세우려는 용기가 늘어간다는 말"이라고 해석하였다.[16]

이 시기의 이혼은 전통의 상징인 구여성을 거부하고 근대의 표상인 신여성을 맞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혼현상은 사회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로 인정되었으며, 이들 주장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 일부일처제와 같은 근대적 사조에 대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혼이나 조혼과 같은 봉건적 인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호하게 이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전히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사회 전반에 남아 있고, 사실상 이혼을 불허하였던 전통시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혼의 자유를 외치는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다.

2. 신여성 나혜석의 연애와 결혼

근대의 새로운 연애와 결혼의 풍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1세대 신여성 나혜석이다. 나혜석의 연애, 결혼,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최승구와의 연애 시절, 김우영과의 연애와 결혼, 최린과의 연애 및 김우영과의 이혼, 이혼 이후의 생활 등 네 시기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최승구와의 연애, 그리고 그의 죽음

나혜석은 1896년 4월 수원에서 아버지 나기정(羅基貞)과 어머니 최시의(崔是議)의 5남매 중 넷째로, 딸로는 둘째로 태어났다. 나혜석의 아버지 나기정은 고종 말년에 관직에 진출하여 합방 직전부터 1914년까지 시흥과 용인의 군수를 역임한 식민지 관료였다. 그는 새로운 시대사조에 맞춰 자녀들에게 일본 유학 등을 통하여 신교육을 받게 하는 개화된 사람이었다.[17]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장녀인 나계석을 제외한 4남매가 모두 신식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1914년 서울의 진명여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나혜석은 오빠인 나경석의 권유에 따라 도쿄로 유학하였다. 나혜석은 어려서부터 영리한데다 손재주가 있어 틈만 나면 종이에 노는 아이들이나 다듬질하는 여인, 밭 가는 농부들을 스케치했는데 그

솜씨가 범상치 않았다고 한다. 나경석은 형제 중에서 재기발랄한 나혜석을 무척 사랑해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일본여자미술전문학교로 유학하도록 도왔다.


최승구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사회는 숫자도 적은데다, 특히 여학생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드물던 때였다. 당시 일본에 유학하는 남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나혜석의 이야기뿐이었으며, 조선인 유학생들이 잘 다니는 길가 담장에는 "장차 내 아내는 나혜석"이라는 낙서가 있을 정도였다. 더구나 나혜석은 학교 성적이 일본 여학생보다 앞서는 우수한 학생인데다가, 교외의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자태는 그림으로도 나타내지 못할, 그림을 초월한 명화 한 폭을 상기시켰다고 한다.[18]

나혜석은 1914년 도쿄에서 최승구(崔承九)라는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최승구는 당시 게이오(慶應)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도쿄 유학생들의 잡지 『학지광』의 편집자였다. 최승구는 소월(素月)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과도 잘 아는 사이어서 두 사람은 잡지에 서로를 수신인으로 설정한 서한문을 자주 발표하였다.

최승구와 나혜석은 젊은 사랑을 불태웠으나 쉽게 결혼할 수는 없었다. 최승구에게는 조혼으로 맺어진 아내가 조선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나혜석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이 늦어질 것을 걱정하여 1915년 1월 나혜석을 귀국시켜 결혼을 종용하였다. 이 시기를 나혜석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이다. R이 동경유학 때였다.
> R의 아버지는 양반이고 부자고 위인이 똑똑하다는 바람에 M과 혼인 말을 건네고 R에게 속히 귀향하라 하고 심지어 학비까지 주지를 아니하여 할 수 없이 귀향을 하였으나 R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어 철석 같은 약속이 있던 때였다.
> R이 귀향한 후 R의 아버지는 날마다 M에게 시집가라고 졸랐고 심지어 회초리를 해 가지고 때리며 시집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R은 감히 엄부(嚴父) 앞에서 언약한 곳이 있다는



「원망스런 봄밤」(『신동아』, 1933년 4월) 나혜석이 어느 봄날 밤, 과거를 회상하며 첫사랑 소월 최승구가 떠나간 것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말은 못하고
"저는 혼자 살어요."
하면,
"이년 혼자 어떻게 사니."
"제가 벌어서 저 혼자 살지."
"기가 막힌 세상이다."
하시고 기가 막히고 들을 것 같지 아니하여 그만 흐지부지하는 때였다.[19]

나혜석은 마지못해 귀향하였지만 아버지가 권하는 결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최승구라는 연인의 존재를 아버지에게 밝히지도 못하였다. 이에 나혜석은 여주공립보통학교 여교사가 되는 길을 택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 데 성공한다. 그러다 12월에 아버지 나기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혜석은 다시 결혼의 자유를 얻었고 도쿄로 돌아가 복학하였다.

그러나 최승구와의 연애는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최승구는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진 결핵에 걸려 끝내 숨지고 만 것이다. 최승구의 죽음으로 나혜석은 몇 달 동안 비탄에 빠졌는데, 그때의 충격을 "그때 내 가슴의 상처는 심하여 일시 발광이 되었고, 연하여 신경쇠약이 만성에 달하였습니다."라고 쓰고 있다.[20]

2) 김우영과의 연애와 결혼

잊을 수 없는 첫 연인 최승구와 사별한 직후 나혜석에게 다가온 사람이 김우영이었다. 최승구가 사망한 그해 여름방학에 나혜석은 도쿄에서 수원으로 귀향하였는데, 그때 나경석을 만나러 김우영이 찾아왔던 것이다. 김우영에게는 조혼한 아내와 자식이 있었으나, 아내가 죽은 후 일본에 유학하여 교토대학 법학부에서 공부를 하


四年前日記中에서

「4년 전 일기 중에서」(『신여자』 4호, 1920)


友愛結婚, 試驗結婚

羅蕙錫

「우애결혼, 시험결혼」(『삼천리』, 1930년 5월) 나혜석은 결혼 전 시험결혼을 제안하고 성교육과 산아제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였다.

고 있던 때였다. 김우영은 열렬히 구애하였고, 나혜석이 이를 받아들여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였다. 나혜석은 김우영과의 연애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 씨의 편지, 씨의 말, 씨의 행동은 이성을 초월한 감정뿐이었고 열뿐이었사외다. 나는 이 열을 받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부지불각중 그 열에 녹아 들어가는 감이 생겼나이다. 이와 같이 씨는 교토, 나는 도쿄에 있으면서 1일에 1차씩 올라오기도 하고, 혹 산보하다가 순사에게 주의도 받고, 혹 보트를 타고 1일의 유쾌함을 지낸 일도 있고, 설경을 찾아 여행한 일도 있었습니다.[21]

김우영은 끈질기게 구혼하였으나 나혜석은 결혼을 주저하였다. 결국 "양편 친척들의 권유와 자기 책임상 택일을 하여" 김우영과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때 나혜

석은 김우영에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 둘째,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셋째,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해 줄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우영은 '무조건하고' 응낙하였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 나혜석이 장차의 행복감에 얼마나 도취되었는지는 1920년 6월에 나온 『신여자』 4호에 발표된 회상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4년 전의 일기 중에서」라는 제목의 회상기는 1917년 여름, 교토에서 김우영과 데이트를 하던 중의 이야기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 두 사람은 청년이로다
> 남자는 돗자리 위에 드러누웠고
> 여자는 두 발을 물에 잠그고
> 평상에 걸터앉았다
> 아!
> 너와 나와는 두 몸이되 한 몸이로다
> 너희 두 몸의 장래는
> 무엇이 있기에
> 이다지도 다정한고
> 허허, 무엇이 그리 기쁜고?
> 여자야!
> 무슨 생각하기에
> 그리고 유심히
> 흐르는 물결을 세고 앉았노?[22]

나혜석과 김우영의 결혼식은 1920년 4월 10일 서울의 정동예배당에서 거행되었으며, 마침 새로 창간한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되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 중 최승구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장안의 화제였던 이 여행은 염상섭의 소설 「해바라기」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23]



1920년 4월 10일 정동예배당에서 열린 나혜석과 김우영의 결혼식(수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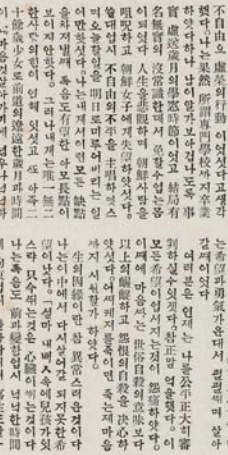


가사와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신여성의 고된 생활을 풍자한 만평(『신여자』 4호, 1920)

나혜석과 김우영의 신혼집은 서울 숭인동에 마련되었고, 마음의 정착을 얻고 행복한 주부로 새 생활에 들어간 나혜석은 가사와 육아, 작품 활동을 병행하였다. 결혼 후 1주년쯤 되었을 때 그녀는 서울에서 유화개인전을 준비하여 1921년 3월 매일신보사 안의 내청각에서 유화개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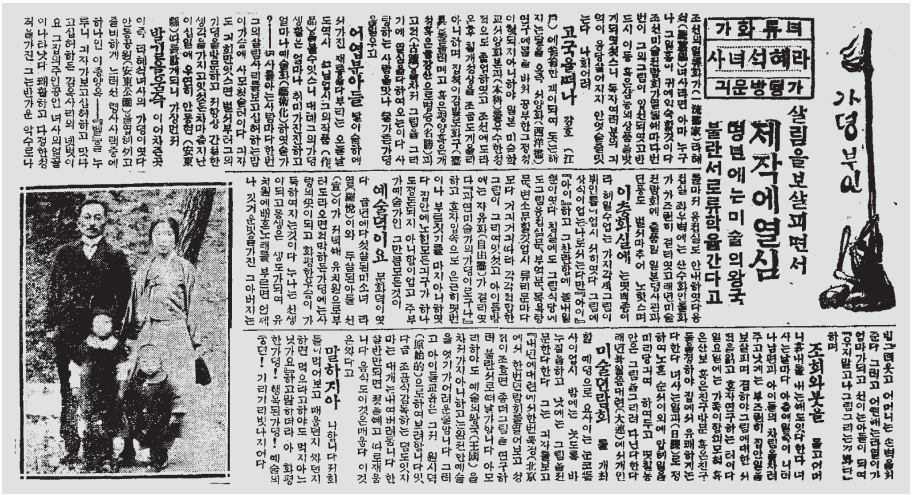
1921년 4월에 나혜석은 장녀 김나열(金羅悅)을 출산하였는데, 첫딸의 이름을

母된感想記



羅蕙錫

그것은義務나 責任問題가아니라사람으로생겨난 本意라고까지 나는거우 稱하고싶다. 그同時에 내過去二十餘年生涯에 虛僞요 懶惰요 無意味요 無識이요 不自由요 虛榮의行動 이것보다고생각 하얏다. 나는果然 所謂專門學校까지卒業 하얏다하나 남이알가보아 건나도록 虛榮의名譽밑에 깊은識見과 學力은 全然 업는 人生을悲觀하며 厭世女子에게失望하얏섯다. 엎데업시 不自由와不平을 主唱하얏스며 오늘할일을 明日로미루어버리는 일이반복되섯다. 나는내게서이런모든 缺點을 고치고저 별별애 努力을 하얏스나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나를 더욱 깁흔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얏다. 그러나 내게는 唯一無二한 참된 것이 있섯고 또 아주二十餘歲 少女로 前途의 希望과 自由月日이 많이 잇다는 마음과 깃붐이 가끔 내게 넘우나 넘치얏섯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럭저럭 헤여지지 안흐면 안될 불안한 緊張된 생활을 하게 하얏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도리혀 깃붐으로 생각하얏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잇서 가장 貴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잘 保存하고 發展식히기 爲하야 나의 全力을 다하야 努力하얏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잘 保存하고 發展식히기 爲하야 나의 全力을 다하야 努力하얏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잘 保存하고 發展식히기 爲하야 나의 全力을 다하야 努力하얏다.


가정방문
여류화가 나혜석 여사
살림을 보살피면서
체작에 열심
명편에는 미술의 왕국
불란서로 류학 을 간다고

「여류화가 나혜석 여사 가정방문기」(『조선일보』, 1925년 11월 26일)

'김' 우영과 '나' 혜석의 '기쁨(悅)'이라는 뜻으로 지을 만큼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혜석은 11년간의 결혼생활에서 4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사를 돌보았다. 1921년 남편 김우영이 만주 안동현 부영사로 임명되자 만주로 이주하였고, 외교관의 부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림과 시 · 소설 등도 활발히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였다.

나혜석은 슬하에 딸 하나와 아들 셋을 두었으나, 큰아들은 어려서 병사하고 3남매를 키웠다. 장녀인 김나열은 후일 미국 유학에서 만난 엔지니어 김창수(金昌洙)와 결혼하여 그곳에 정착했고, 둘째 아들 진(辰)은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를 지내다가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막내아들 건(建)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은행 총재, 은행감독원 원장을 역임하였다.[24]

3) 최린과의 염문, 김우영과의 이혼

나혜석의 인생에서 최대의 전환기는 1927년 6월에서 1928년 2월에 걸친 세계일주 여행이었다. 안동현 부영사 임기가 끝난 김우영에게 일본 외무성은 위로 출장의



「부군의 초상」(개인 소장)

명목으로 구미 시찰 여행을 보내 주었다. 시베리아 철도로 러시아를 횡단하여 유럽으로 가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돈 뒤 미국을 거쳐 귀국하는 여정이었고 기한은 16개월이었다.

나혜석은 이 여행에서 파리에 있던 천도교 지도자 최린을 만나게 된다. 김우영은 친구였던 최린에게 아내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베를린으로 떠났고, 나혜석은 파리에 남아 그림공부를 하며 최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훗날 나혜석이 김우영과 이혼한 뒤 최린을 고소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때 두 사람은 상당히 깊은 관계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혜석은 이러한 감정적 모험이 오히려 남편에 대한 정을 두텁게 해 주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유럽의 일반 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은 다반사이며, "남편이나 아내를 어찌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며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25]



나혜석이 그린 「파리풍경」(1928년, 개인 소장)

최린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은 조선으로 귀국한 이후의 일이었다. 나혜석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김우영의 고향 동래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삼촌들까지 모두 함께 살게 되었다.[26] 좁은 집에 대식구가 붐벼 대자 부딪치는 일도 많아졌으며, 남편 김우영의 변호사 활동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해 고정수입도 없는 어려운 살림이 계속되었다. 유럽에서 합리적인 가정을 보며 여권을 이야기하던 나혜석은 일시에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을 것이다.

나혜석은 살길이 막연해 최린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된 김우영은 격노하여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나혜석은 끝까지 이혼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1931년 봄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다. 이혼의 합의 조건은 각자가 2년간 재혼하지 않고 재결합의 가능성을 남겨 두자는 것이었다.[27] 그러나 김우영은 이 합의를 무시하고 곧 재혼해 버렸다. 나혜석은 이혼 후 많은 것을

잃었으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혼고백장」의 발표와 최린에 대한 소송사건이었다.

4) 이혼고백과 최린에 대한 소송 논란

나혜석은 1934년 8월과 9월 잡지 『삼천리』에 「이혼고백장 : 청구(靑邱) 씨에게」를 발표하고,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이 자신의 본의가 아니었고 주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부추김을 받은 김우영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2년간 재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김우영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된 최린 앞으로 보낸 편지는 곡해되어 전달되었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혼고백장」 발표 직후 나혜석은 친구인 소완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최린 앞으로 정조유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고소장에서는 나혜석(원고)과 최린(피고)의 관계와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원고를 유린하고 원고의 장래는 모두 책임진다는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태세였으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것이다.[28]

신여성의 기수로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던 여성이 「이혼고백장」을 잡지에 발표하고 애인이었던 남성을 고소하였다. 게다가 고소 내용까지 신문에 낱낱이 실리게 된 상황은 나혜석을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혜석의 이러한 행동은 이혼 이후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린에게 제기한 고소장에서 "피고(최린)는 언제든지 원고(나혜석)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수년간 말을 좌우로 칭탁하고 한 푼의 원조도 없는고로 원고는 경제적 비상한 고통을 받아 현재는 전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29] 즉 1930년대 조선의 상황에서 나혜석 정도의 집안에 상당한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 안정된 직업을 얻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혜석은 1931년 이혼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였다. 1933년에는 서울 수송동에 '여자미술학사'를



離婚告白狀

——靑邱氏에게——

羅 蕙 錫

나이四十五十에갓가웟고 專門敎育을밧앗고 남들의容易히할수업는 歐米漫遊를하엿고 또後進을指導할만한 處地에잇서서 그人格을統一치못하고 그生活을統一치못한거슨 두사람自身은勿論 붓그러워할뿐아니라一般社會에對하여서도 面目이업스며 붓그럽고謝罪하는바외다

靑邱氏!

난생처음으로當하는 이衝擊은 넘오傷處가甚하고 致命的입니다 悲哀, 動哭, 進燥, 煩悶이一齊來이一切의軌路에서 生의彷徨을하면서一便으로 深淵의밋바닥에떤진氏를 나는다시 靑邱氏!하고부름니다 靑邱氏! 하고부르는내눈에는 눈물이굿득차집니다 이거슬 世上은나를 「弱者야」하고 불를가요?

날마다當하고지내든 氏와나사이는깁히理解하고 知悉하고自負하든우리사이가 夢想에도生覺지안튼 傷處의運命의經驗을 얻어케現實의 事實노 알수가잇스릿가

모다가 꿈 모다가惡夢 지난悲劇을 나는일부러 이러케부르고십흔거시 나의거짓업는眞情입니다

「善良한남편」 적어도 당신과나사이에過去生活軌路에나타나는 姿勢가

「이혼고백장」(『삼천리』, 1934년 8~9월)

개설하여 미술 개인지도를 하는 한편, 주문을 받아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하면서 자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낙선하면서 화가로서의 명성이 점차 시들해지고 그림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글을 써서 받는 원고료에 의지하였다.



최린

최린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간의 위자료를 받은 1935년, 나혜석은 수원으로 내려가 집을 마련하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던 모양으로 1937년 말에는 김일엽을 찾아 수덕사로 가서 1943년까지 주로 수덕사 밑의 여관에 거처하면서 여러 절집을 찾아다니는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1941년 오빠 나경석이 만주 봉천에서 귀국하여 1944년에 나혜석을 서울 인왕산 청운양로원에 맡겼고(당시 49세), 1948년 서울 원효로 시립자제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나혜석은 1930년 이혼한 이후 1948년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하였고, 전 남편은 물론 친정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화가로서, 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그녀는 너무 유명하여 하층계급의 일은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 한 여성으로 만천하에 알려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교원이나 기자 등의 자리도 얻기 어려웠던 것이다.[30]

>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임의용지(任意用志)로 할 것이요,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유래 정조관념을 여자에게 한하여 요구하여 왔으나 남자도 일반일 것 같다. 왕왕 우리는 이 정조를 고수하기 위하여 나오는 웃음을 참고 끓는 피를 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다. 이 어이한 모순이냐. 그러므로 우리의 해방은 정조의 해방

으로부터 할 것이니 ……[31]

이 글은 이혼과 소송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혜석이 파리 유학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직후에 발표되었다. 1920년대 김원주에게 정조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사랑에 의해 생겨나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나혜석은 "정조는 취미"라고 잘라 말하며, 종래 여성에게만 강요되던 정조관념을 전면 부정하고 여성의 해방, 즉 인간의 해방은 정조의 해방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32] 모든 것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던 때였던 만큼 비판도 날카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 나는 18세 때부터 20년간을 두고 어지간히 남의 입에 오르내렸다. 즉 우등 1등 졸업사건, M과의 연애사건, 그와 사별 후 발광사건, 다시 K와 연애사건, 결혼 사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활약사건, 황옥 사건, 구미만유사건, 이혼사건, 이혼고백장 발표사건, 고소사건. 이렇게 별별 것을 다 겪었다.[33]

나혜석이 회고하듯이, 그녀의 일상은 각종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연애사건, 결혼사건, 이혼사건 등등 나혜석의 일생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나혜석은 파격을 통해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혜석의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지만, 나혜석은 여성으로서 근대 한국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선각 여성이었다.

3. '배운 여성' 윤영애의 결혼생활

1) 수원 부자 윤성서의 막내딸, 윤영애

윤영애는 1913년에 남창리 200번지 수원 부자(富者) 윤성서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성서는 큰아들 윤태정과 함께 수원과 인근 지역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차유순 · 양성관 · 홍사훈 · 나중석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원 부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윤영애와 정성진의 결혼식(『동아일보』, 1933년 7월 29일)

아버지 윤성서는 1920년대에 사망한 듯하며, 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어받은 아들 윤태정이 1930년대 수원 유지로서 명망을 이어 갔다. 1937년경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윤태정은 수원 · 용인 · 안성 · 진위에 걸쳐 401정보, 즉 약 120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윤태정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1930년대이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실업가로서 적극 활동하였으며, 교육사업에도 큰 공헌을 했다. 수원식림종묘회사나 수원극장(주), 화성흥산(주), 수원실업협회 등 지역 유지로서 핵심적 기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화성학원과 수원중학기성회에도 많은 돈을 희사했으며, 1939년에는 수원읍 학교 평의원에 당선되는 등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물론 당시 같이 활동했던 수원 유지들의 대부분이 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 윤태정의 아들 윤긍렬이 수원시장으로 당선되면서 3대에 걸쳐 그 명망을 유지하였다.

윤영애는 이러한 집안을 배경으로 아쉬움 없이 성장하였다.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경성실천여학교에 진학을 했다. 윤영애는 고등여학교 시절에 일본으로 전학을 한다. 수원 지역에도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여성이 많았다. 나혜석과 김숙배, 윤영애, 이현경, 박충애(박승호), 임효정(임순남) 등이 그들이다.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일찍부터 근대적 경험을 했던 오빠나 친척들이 있었던 집안의 딸이었다.

윤영애의 취미는 영화감상, 독서, 백화점 쇼핑, 스포츠 등이었다. 당시 대다수 여성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윤영애 집안이 경제적으로 윤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돌아와 이화여전에 입학을 했다.

2) 윤영애의 결혼과 시댁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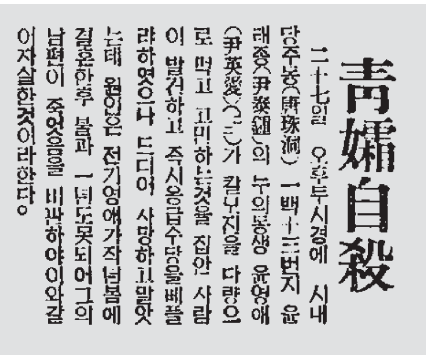
윤영애는 근대교육과 외국유학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사랑이나 일탈을 꿈꾸지는 않았다. 1932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 상대자인 정성진은 가난한 양반집 둘째 아들로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에 다닌 수재였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주례는 정성진의 대학 은사인 김병로가 맡았다. 후일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수원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윤영애는 큰오빠 윤태정의 도움을 받아 무교동에 신혼집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혼집을 마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의 간섭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는 무교동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윤영애를 타박하고 흉을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십이지장충에 의한 빈혈로 쓰러졌는데, 시부모는 모든 책임을 윤영애에게 돌리고 병간호조차 못하게 막았다. 1933년 2월 남편이 죽자 윤영애는 모든 것을 잃고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채 다섯 달이 되기도 전에 신여성인 윤영애는 칼모틴을 먹고 자살하였다.

3) 청상과부 윤영애의 자살

윤영애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니 시부모의 간섭이 있기 전까지는 가장 행복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시댁과 갈등을 겪으면서 윤영애는 쇠락해 갔다. 윤영애에게는 남편의 죽음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평생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교육도 받았고, 집안의 경제력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어렵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큰오빠 윤태정은 양장점이나 미용실을 차리고 싶어 한 윤영애의 사회활동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윤태정의 반대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윤영애에게는 남편의 죽음과 시댁의 횡포 그리고 무기력한 좌절감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1933년 7월 27일 윤영애는 22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윤영애는 친구에게 쓴 편지유서에 "이세상에는 금전도 중하지만, 금전보다도 의리가 더 중한 것을 알아



靑孀自殺

二十七日 오후두시경에 시내
당주동(唐珠洞) 一백十三번지 윤
래종(尹來鍾)의 누의동생 윤영애
(尹英愛)(二二)가 칼로찌른 다량으
로 먹고 고민하든것을 집안 사람
이 발견하고 즉시응급수당을베풀
랴하엿으나 드디어 사망하고말앗
는데 원인은 전기영애가작년봄에
결혼한후 불과 一년도못되어그의
남편이 조영응을 비관하야이와같
이자살한것이라한다。

윤영애의 자살을 다룬 기사(『동아일보』, 1933년 7월 27일)

달라."고 적었다. 근대 문화를 경험한 신여성에게 중요한 의리는 근대적 가치였을 것이다. 전통적 가족질서, 여성의 성역할 등은 신여성 윤영애에게는 구습이자 불합리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여성 윤영애는 전통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였다. 결혼도, 시댁과의 관계도, 그리고 오빠 윤태정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였다. 하지만 진정 윤영애를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미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긴 세월을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을 것이다.

근대를 온몸으로 살아간 여성들은 사회의 폭력적 구습과 근대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다. 하지만 근대적 이상은 여성에게 너무 먼 꿈이었다.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한 여성은 무자비한 시절을 견디거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윤영애의 자살은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오래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1. 수원 기생들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
2. 3·1운동과 구국민단
3. 일제강점기 계몽운동
4. 임효정의 민족운동과 친일활동
5. 사회주의자 이현경의 생애와 활동

예지숙 | 서울대학교 강사

05 일제하 수원 여성의 민족운동과 사회 참여

일제강점기에 수원의 여성운동은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1927년 주요 도시에서 근우회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활동이 없을 정도였다. 여성운동이 생겨나려면 지식 여성을 길러 내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수원의 여성교육기관으로는 감리교단에서 운영하는 삼일여학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화양여학교가 있었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수원읍을 중심으로 일부 면방직 공장이 설립되었으나, 제조업이 크게 발달한 곳이 아니어서 여성노동자들의 규모도 미미하였다. 이런 이유로 수원에서는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삼일여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여성 엘리트들이 민족운동에 나섰으며, 특히 야학을 조직하여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수원의 여성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기생이다. 전통시대부터 수원에 있던 기생들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자산으로 자선공연 등에 앞장서는 사회활동을 하였다.

여성이 국가에 대한 기여를 통해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즉 '기여를 통한 민족 구성원 되기'는 독립협회 이래 줄곧 주장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지식 여성이나 상류층 여성 사이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들은 국망의 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국체보상운동에 참가하였다. 1907년 4월 남양군의 읍내에 사는 기독교 여성들이 '부인의성회'를 조직하였는데,

발기인은 김희경 · 김혜경 · 안마리아 3명이었다. 이들은 국채보상운동 당시 각 남양군 유지의 부인들까지 참여하게 하여, 총 116명이 43원 6전의 의연금을 모아 제국신문사로 보냈다.[1] 수원 여성들의 이러한 민족운동은 식민지시기에도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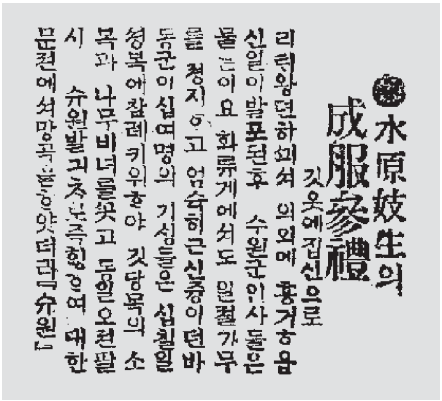
1. 수원 기생들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

3 · 1운동 당시 기생들이 시위에 참여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국은 물론 수원에서도 기생들이 3 · 1운동에 참여하였다.

기생은 조선시대에 사신접대나 궁중잔치 때 여악(女樂) 공연을 위해 만든 제도였다. 조선시대 기생들은 많은 훈련을 거쳐 예인의 지위를 얻었고, 예술인으로서 자기 위상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양반 지배층을 상대했기 때문에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즉 여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기생은 예와 지를 겸비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채보상운동, 3 · 1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당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화와 식민화의 물결 속에서 종래의 기생제도는 변질되어 갔다. 개항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인 매춘업자와 매춘여성이 조선에 밀려들어 왔고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유곽이 생겨나면서 조선에서도 성매매만을 전업으로 하는 창기가 나타났다.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혁되면서 관기들의 소속과 신분에 변화가 생겼으며, 1907년에 관기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변동 속에서 기생을 자칭하는 창기들이 생겨났고 기생을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패는 본래 의미의 기생을 의미하였고, 이패는 은근히 몸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들로 '은근자' 라고도 불렸다. 삼패는 매음을 하는 창녀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 시기 기생은 예인에서 연예인과 창녀라는 다층적이고 한층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직업이자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근대적인 인간상이 부각되던 19세기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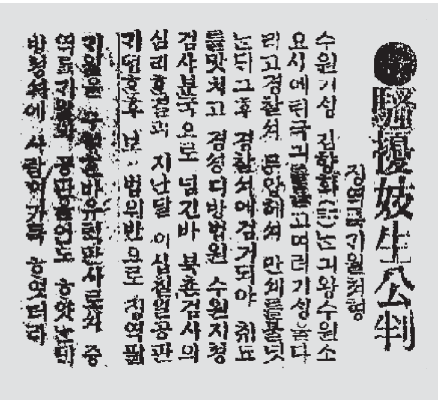


水原妓生의 成服參禮

깃옷에 집신으로

리하얏던하되셔 의외에 풍거하옵
신일이발포된후 수원군인사들은
물론이요 화류계에셔도 일절가무
를 청지아니하고 엄숙히근신중이던바
독군이십여명의 기생들은 십칠일
성복에참례키위하야 깃당목의소
복과 나무비녀를끗고 동일오전팔
시 슈원발긔차로출발하여 대한
문젼에셔망곡례를맛치고도라갓더라더라

수원 기생들의 성복 참례(『매일신보』, 1919년 1월 29일)



騷擾妓生公判

수원기생 김향화(金)등 십여명은 수원소
요사건에 뒤쓰고 경찰서에 만세를불럿
다고 경찰서에 검거되야 취조
를맛치고 경성디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긴바 복촌검사의
심리종결과 지난달 이십일일공판
에 열리엇는데 변호사로는 중
역도 출석하얏스며 방청석에는 사람이가득
히 들엇더라

수원 기생 공판기사(『매일신보』, 1919년 6월 20일)

부터 낭비 · 태만 등 조선 구악(舊惡)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남성 측에서 구악의 상징이 양반 부랑자 내지 청년 부랑자였다면, 그 반대편 성(性)에는 기생이 위치 지워졌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통시대부터 예인이었던 기생들은 사회의식도 남달랐다. 정세 변화에 민감했던 기생들의 사회의식은 당대 그 누구보다 식견 있고 민감하였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불우한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약자나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다.

기생들은 이러한 사회의식과 직업여성으로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기생들이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 금비녀를 내놓은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1923년 물산장려운동 때에도 참여하였다. 3 · 1운동 때에 민족대표들이 기생이 손님을 맞는 요릿집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했던 것은 기생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려 주는 일화가 아닐까 싶다. 기생들은 논개의 후예임을 내세우면서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사상기생' 이라고 불렀다.[2]

수원에서도 수원기생조합 기생들이 3 · 1운동에 참여하였다. 수원 기생들은 3월 29일 자혜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다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에 앞서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자 수원 기생들은 일절 가무를 금지하고 근신하였다고 한다. 수원 기생들의 사회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22년 5월 수원상업강습소 운영을 위한 자선공연에 출연하여 '재능 기부' 를 하였다.

> 수원 기생 일동은 수원극장에서 금월 3일부터 동 6일까지 4일간 동지(同地) 상업강습소를 위하야 자선극을 행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들은즉 동 강습소가 창립한 지 3년을 경하였으나 원래 기본 자금이 무하야 근근 보지(保持)하여 왔으나 근래 지원자가 격증함에 따라 교사의 협애를 고(告)하야 크게 곤란함으로써 동 기생들도 이에 다소 조력코자 하는 지(志)로 금반 자선극을 흥행하게 된 것이라더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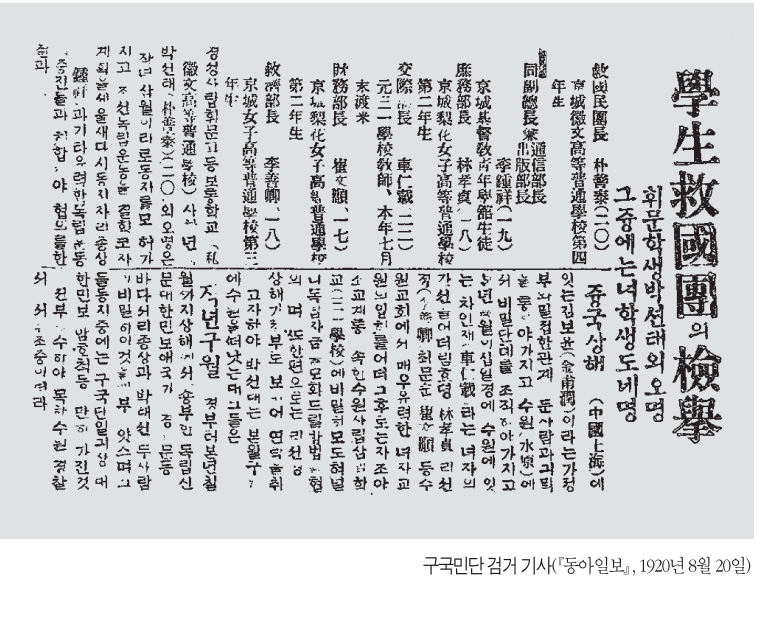
기생들은 사회악, 매음녀로 질시를 받으면서도[4]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5]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낱 '말을 알아듣는 꽃' , 성을 매개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여성 집단으로 기억되고 있는 기생은 조선시대 이래 성리학적 질서의 한 귀퉁이를 지지해 온 여성 예술인 집단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한말과 일제 초 구국운동과 만세시위에 나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여성들의 직업적 속성이었던 것이다.

2. 3 · 1운동과 구국민단

수원 여성운동의 중심에는 삼일여학교가 있었다. 수원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삼일여학교의 졸업생, 재학생, 교사들은 수원의 3 · 1운동과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구국민단사건 이후에도 여성계몽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수원 3 · 1운동의 중심에는 삼일여학교 학감이었던 김세환(金世煥)이 있었는데, 김세환을 중심으로 삼일여학교 교사였던 석은애와 이신애가 3 · 1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삼일여학교 출신의 여성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의심할 바 없이 나혜



學生救國團의檢擧

휘문학생박천래외오명

그중에는녀학생도네명

구국민단 검거 기사(『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석이다. 나혜석은 도쿄여자친목회 출신의 유학생인 황신덕, 김마리아, 박인덕 등과 함께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원의 비밀결사조직이었던 구국민단에도 여성들이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삼일여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함께 조선 독립에 힘쓰고자 결성된 구국민단에 삼일여학교 교사 차인재가 합류하고, 차인재의 소개로 이화학당에 다니던 최문순과 임순남(임효정),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이선경이 참여하게 되었다. 임효정은 1915~1919년 삼일여학교에 재학하였으며, 이후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였다. 1922년 구국민단사건으로 구금되었다가 1922년 중국 난징에 있는 명덕(明德)여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중국에서 돌아와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성여자상업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근우회에도 참여하였다. 최문순은 구국민단사건으로 구금되었다가 석방 후 1924년경에 삼일여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동아일보』 1924년 4월 18일자에 최문순이 삼일여학교 교사로서 수원부인야학에서 활약 중인 기사가 실려 있다. 이선경은 재

판일인 1921년 4월 12일에 방면되었으나 옥중에서 풀려난 지 9일 만인 1921년 4월 21일 오전 8시 수원면 매산리 119번지에서 19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3. 일제강점기 계몽운동

수원에서는 3 · 1운동 이후 여성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여성운동단체는 기독교 계열로서, 이들은 교육계몽운동을 실천사업으로 하였다. 수원의 여성단체로는 1920년에 감리교회에서 조직한 여보호회(女保護會)가 있었다. 이 단체의 간부진은 회장 이신애, 부회장 이화순, 총무 임효정이었다고 한다. 이 야학은 같은 감리교 계열의 삼일여학교 교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힘겹게 운영되었다.

> 수원종로야소교 여보호회 사업으로 경영하든 부인 야학은 그간 재정곤란으로 정지되었든바 거 21일에 다시 개학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학하지 못하였는데, 15세 이상의 부녀가 물밀듯이 입학하러 옴에 따라 삼일여학교사 김온순(金溫順) 양, 최문순(崔文順) 양, 이재순(李載順) 양 등 3씨는 자기의 수고를 불고하고 수다의 부녀를 교수하게 되얏슴으로 동 야학을 개시하게 되얏스며, 현재 학생이 사십 명이나 되며 지금도 작고 입학지원서가 온다는데 학급수는 3학급이며 수원 일반 부녀계에 3씨의 교육열을 칭송한다고.[6]

이 기사에 언급한 삼일여학교 교사 3인방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구국민단 활동 이후 계몽운동에 진력하는 최문순 등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이 외에도 수원에는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여자 야학원이 곳곳에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 진명여자야학은 1923년 10월에 마가리다와 임인재, 지중환의 발기로 창립되어 무산부인을 위한 교육을 하였다. 진명여자야학은 남문 밖 성공회 안에 위치했으며 30명의 졸업생을 냈고 생도수가 40명에 달하였는데 1930년대까지도 꾸준히 유지되었다.



1932년 2월 7일 수원진명여자야학교 일동기념(수원고등학교 소장)

> 수원 산루리 성공회에서는 근동 무식한 부녀를 교육하기 위하야 작년 10월 1일에 동 성공회 내에서 부인 야학을 시작하여 오든바 근 60여 명의 부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중 특별히 사오십여 세의 부인인 3, 4인이나 된다고.[7]

이렇듯 여자야학에 대한 호응이 높았던 것은 교육열에 비해 여성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1920년 들어 보통학교가 증설되고 '교육열'이 뜨거워지면서 1930년대 보통학교 진학 붐이 일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가 늘어나자 동아일보사 등 조선인 언론은 '교육계의 놀랄 만치 큰 사건'이라 사회문제화하는 동시에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식민 당국에 비판을 가하였다. 보통학교에 대한 조선인들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발흥한 향학열이 날로 비약하며 1920년대 말에 가면 입학 지원자의 격증과 중도 퇴학생 격감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8]

> 조선인의 향학열이 화광으로 더불어 그 빛을 다툴 만큼 치열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맹에 대한 영구하고 완전한 절연을 획득하려는 심각한 노력은 조선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한 오로지 경건한 참문화에의 민족적 총의로부터 나오는 순실한 동경임은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이 운동이 더욱 기미년 운동 이래에 총동원적으로 전 조선의 방방곡곡마다 전개되어 작고 크고 간에 민족적 교양에 힘써 오는 것은 민족적으로 실질적 덕업의 가장 융숭한 것 중의 하나인 것은 물론이며, 이와 같이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큰 일이 세계의 동일선에 비하여 그 출발점에 있어서 너무 늦은 과정이 장원한 것만큼(은) 사실이나 우리의 열망이 내부적으로 깊고 힘차게 그 뿌리를 뻗어 소리 작은 가운데에 날로날로 실질적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으로 느끼는 자랑이며, 이제 또 우리 민족 교양에 대한 실질적 비약의 한 실증이 있으니 경성부에 나타난 통계로 보아 입학 지원자가 격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위 당국자에게 유일한 구실의 재료가 되어 오던 중도 퇴학생이 격감하여 뿌리 깊은 조선인의 향학심을 엄숙한 숫자가 웅변으로 말하는 사실이 그것이다.[9]

특히 남자아이들에 비해 보통학교 진학률이 턱없이 낮았던 상황이 야학에 대한 여성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움에 목마른 여성들이 야학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1930년대에는 신간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1929년 '민중대회사건'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각 세력은 다른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1927년 금융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 1930년 농업공황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체제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모순이 식민지로 전가되어 농촌사회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1년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등 신문사에서 농촌계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수원은 협성여신학교 재학생 최용신이 수원군 반월면 샘골에 파견되어 많은 활약을 했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용신은 1931년 10월 11일부터 샘골예배당을 빌려서 농촌야학운동을 했으며, 샘골의 유지와 YMCA의 보조로 학원 건물을 건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최용신의 활약은 심훈에 의해 『상록수』로 소설화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계몽운동은 아니지만 수원의 여성운동사를 이야기하면서 여공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제국주의 본국의 모순이 식민지에 전가되는 가운데 1930년대에는 조선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수반된 민족 간, 계급 간 갈등이 격

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저항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공업화 정도가 낮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도 여공들의 저항이 있었다. 1936년 2월 8일 남북면화주식회사 수원조면공장 여직공 30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던 것이다.[10]

4. 임효정의 민족운동과 친일활동[11]

1) 구국민단 활동


임효정

임효정의 본명은 임순남(林順男)으로, 1903년 12월 21일 용인군에서 임인옥(林仁玉)의 장녀로 태어나 1907년까지 출생지에서 생활하다가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1915년 삼일학교에 입학하여 1919년 졸업한 뒤 곧바로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12] 이화여고보에 다니던 시기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에 살았다.

임효정은 이화여고보 2학년에 재학 중 1920년 6월 20일, 박선태(朴善泰)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단체 '구국민단'에 가입하여 서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13] 구국민단은 삼일학교에 비밀리에 모여서 독립자금을 모집할 방법을 계획하고, 이선경을 상해임시정부로 보내 연락을 취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구국민단은 1919년 8월부터 1920년 7월까지 상해에서 보내온 『독립신문』과 『대한민보』를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14] 구국민단의 서무부장을 맡고 있던 임효정은 1920년 8월 13일 수원경찰서에 검거되었다.[15]

1921년 4월 5일 경성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구국민단 공판이 오전 11시부터 진행되었다. 공판이 있기 전 임효정은 보석 중이었다가 이날 공판에 참석하였는데, "지금도 조선독립을 희망하느냐." 하는 판사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물론 희망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상은 견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시 "사상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찍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선생님의 말씀과 동서양 역사를 배우는 동안에 위대한 인물이 그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것을 보고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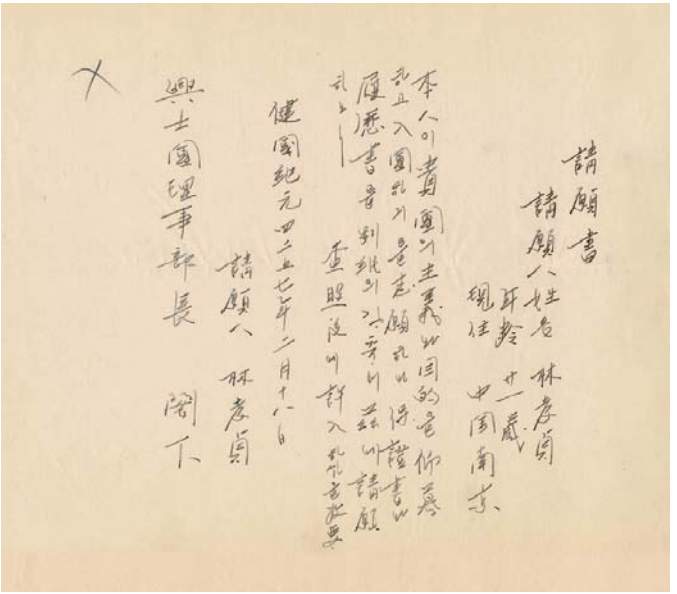
도 그렇게 되어 보고자 한 것도 사실이나 지금은 학생의 몸인즉 힘써 공부할 것이요, 한편으로 부모의 근심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없으므로 자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사상은 때를 따라 변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수원지청 예심법정에서 "미국에 갔다 온 후에 조선이 독립되면 여자 참정권을 운동하겠다."고 "성대하게 기염을 토하였다."고 한다. 임효정은 결국 1921년 4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16]

2) 수양동우회 활동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간 임효정은 남경의 명덕학교(明德學校)에 입학하여 1924년까지 수학하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흥사단에 가입하며,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 수양동우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임효정은 1924년 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개최된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의 제10회 원동대회에 '비단우(非團友)'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제10회 원동대회 참석 직후인 1924년 2월 18일자로 흥사단 이사부장(理事部長) 앞으로 입단 청원서를 제출하였다.[17] 임효정은 1924년 흥사단 가입 직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쓰다영학숙(津田英學塾)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수양동우회 도쿄지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18] 임효정은 김윤경과 함께 1926년 10월 30일 도쿄 하호총(下戶塚) 거리에 있는 우애학사(友愛學舍)에서 이광수의 지도로 수양동우회 도쿄지방회 반(班)을 조직하였는데, 이때 임효정의 서약식이 있었다. 또한 1927년 6월 5일 임효정은 우애학사에서 몇몇 회원들과 함께 이광수를 만났고, 이광수는 "사회에 비세포적(非細胞的) 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를 불건전하게 하며 그 유대인은 기타 민족에 비하여 우수한 점이 많으나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조선인도 비세포적 인물, 즉 단체적이 아닌 인물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할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19] 임효정은 1928년 귀국하기 전까지 수양동우회 도쿄지방회의 월례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참석하였다.

임효정은 근우회에도 참여하였다. 당시 도쿄에는 300여 명의 여자유학생과 상당



請願書

請願人姓名 林孝貞

現住 中國南京

年齡 二十一歲

本人이 貴國의 主義와 同的을 信仰하고 入國하기를 願하오니 保證書와 履歷書를 到着의 次로 送付하여 주시기 請願하나이다

健國紀元 四二五年 二月 八日

請願人 林孝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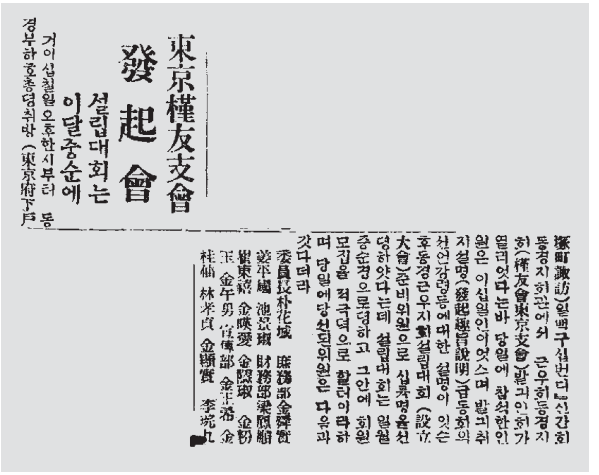
興士團理事部長 閣下

임효정 흥사단 청원서(독립기념관 소장)

수의 '노동부인들' 이 있었다. 도쿄에서도 근우회 지회를 만들기 위해 20여 명의 발기인이 구성되었고, 1927년 12월 27일 도쿄 하호총정 신간회 도쿄지회 회관에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회가 개최되었다. 발기인회에서는 발기 취지 설명과 본회 선언, 강령 설명 후 설립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6명의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폐회하였는데, 이때 임효정은 선전부원으로 당선되었다.[20]

당시 임효정을 비롯한 수양동우회 도쿄지방회원들은 신간회 도쿄지회와 근우회 도쿄지회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음모와 독권(獨權)' 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21] 이러한 이유로 임효정은 1928년 귀국한 이후 근우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효정은 1928년경 국내로 돌아와 동아일보사원 춘아(春芽) 최용환(崔容煥)과 결혼하였다.[22] 이후 경성여자상업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계속해서 수양동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1930년 경성여자소비조합 이사후보를 역임하


東京權友支會
發起會
설립대회는
이달중순에
거이십칠일오후한시부터
경부하호총덕취당(東京府下戶

도쿄 근우회 지회 발기회에 참여한 임효정(『동아일보』, 1928년 1월 8일)

였고 1934년 도쿄를 비롯해 일본 각지에 유학하여 2년 이상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서울의 조선인 여성들로 결성된 동유회(東遊會) 간사장 및 회장, 가정부인협회 보건부위원 등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경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 종로 사거리에 악기점을 차렸다.[23] 1930년대 중반까지 임효정은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친일활동

임효정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8년부터 1940년대까지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국강연회' 및 '좌담회'에 참가하며 일제의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 1941년부터는 라디오에 출연하여 강연을 하는가 하면, 조선임전보국단과 국민총력조선연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임효정은 1937년 중일전쟁 직후 발생한 '수양동우회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938년 수양동우회의 지도자인 안창호가 사망하고, 자신의 '동지'이자 남편인 최용환이 사망하면서 혹독한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 후 임효정은 일제의 식민정책과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의 '선전대'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임효정의 친일적 행위는 1938년 6월 24일 경성부각여성단체연합으로 중앙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개최된 '시국강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일제 당국에 의하면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경성의 여성단체, 특히 지식계급 여성들은 관망의 태도를 보이며 '시국연사'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



손병희 묘소에 참배하는 임효정(독립기념관 소장)

았다고 한다. 이러한 때에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지식계급 부인의 행동은 일반대중의 영향과 지도상에서 남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전문학교 이상 출신의 여성으로 조직된 동우회를 비롯하여 기독교 관계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도록 종용하였는데, 과거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그들이 이때에 즈음하여 기꺼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동우회장 임효정과 여자기독교청년회 부총무 유각경이 중심이 되어 서울의 각종 여성단체 관계자 가운데 웅변가이자 사회적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시국대강연회'를 실행하였다.[24]

'시국대강연회'의 사회는 임효정이 맡았다. 그녀는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서 '황국의 국민'으로서 장기전에 대비하여 올바른 시국인식과 강력한 각오를 가져야 하며, 중일전쟁의 후방의 여성으로서 시의적절한 이번 강연에 대하여 관념보다는 실천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25] 1938년 7월 7일에 임효정은 유각경, 황신덕 등을

비롯한 7명과 함께 중일전쟁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용산육군병원을 방문하여 부상병들에게 꽃다발을 보내 위문하기도 하였다.[26]

1941년에 들어와 임효정은 보다 적극적인 친일 양상을 보였다. 1941년 황도학회(皇道學會)의 발기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부인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다.[27] 임효정은 애국반상회에서 웅변을 하거나 문맹의 조선 여성들에게 '황도정신'을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집에서 문예 · 종교 · 정치 방면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임효정은 1941년 10월 4일 '임전생활체제 확립'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매일신보사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중견부인간담회(中堅婦人懇談會)'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효정은 "시국인식은 부족하지만 의론을 할 때가 아니라 방법을 강구할 때이니만치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애국반에서 보았던 실례를 들어 말하였다.[28] 특히 그녀는 애국반에서 늘 회합을 열어서 일반지식과 단체생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9] 또한 구장이나 반장 되는 사람들에게 강습회 같은 것을 열고 애국반에 전달하려는 것을 준비하여 좀 더 애국반을 활기 있게 해 줄 것을 제기하였다.[30]

또한 임효정은 조선임전보국단의 전시생활부원(戰時生活部員)으로 선정[31]된 직후인 1941년 12월 27일 조선임전보국단 주최로 경성의 부민관에서 개최된 '결전부인대회'에 참석하였다. 결전부인대회에서는 '전시하 생활쇄신운동'과 '군사 자재 헌납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였다.[32] 대회를 마친 다음에는 '결전부인대연설회(決戰婦人大演說會)'가 진행되었는데, 임효정은 '미몽(迷夢)에서 깨자'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이 대회에는 노천명, 모윤숙, 차사백, 고황경 등도 참여하였다.[33] 임효정은 연설에서 태평양전쟁에 직면하여 우리 조선인들에게 아들을 지원병에 보낼 것, 국채소화와 저축을 통해 전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일왕의 백성으로서 아들과 딸들을 위해 여성들도 전쟁에 나설 각오를 가질 것 등을 촉구하였다.

조선임전보국단에서는 '결전체제'에 부인도 참가하도록 '구랍결전부인대회'를 열고 전시생활부에 부인대(婦人隊)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1월 4



家庭도戰場이다
參加하라이征戰에
昨夜、決戰婦人大演說會의盛況

조선임전보국단의 결정부인대연설회 개최(『매일신보』, 1941년 12월 28일)

일 요강과 지도위원 · 간사가 발표되었는데, 임효정은 간사장으로 선정되었다.[34]

1942년 5월 25일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부 주최 '군국의 어머니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는 "징병제 실시에 대한 결심과 준비"와 그를 위해 1,300만 조선의 여성들이 나아갈 지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좌담회는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부장'인 임효정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좌담회의 의제는 첫째, 징병제 실시와 동시에 부인의 입장으로서 금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둘째,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한 일을 고쳐야 할 것인가. 셋째, 금후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가. 넷째, 부인의 교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다섯째, 부인계통 운동을 광범위로 전개할 방법은 어떠한가 등이었다.[35] 좌담회에서 임효정은 사회를 맡았으며, 인사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국의 아들을 길러 내는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 노릇을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하여 구체적 방침을 의론하자."고 하였다.[36]

5. 사회주의자 이현경의 생애와 활동[37]

이현경은 1899년 4월 25일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06번지에서 태어났고,[38] 1914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에 졸업하였다.[39] 이현경은 1917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니혼여자대학에 입학하였다. 이현경이 1924년경 일본 유학 중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경부선 열차를 타고 고향인 수원으로 내려가던 기차 안에서 무례한 일본인을 혼내 준 일은 그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회고담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현경은 배짱이 두둑하면서도 "후리후리한 키와 반짝반짝하는 백금치(白金齒)에 영리하고도 이해 잘 따지기로 유명한 수원 사람의 특징을 소유한" 여자였다고 한다.[40]

1921년 3월 1일 도쿄의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140여 명의 유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던 20명의 조선 학생이 검거되었는데, 1921년 3월 6일자 『조선일보』에는 「조선학생 20명 검속 후문, 검속된 학생 중에는 조선여학생 이현경 외 5명이 함께 검속」이란 기사가 실렸다.[41] 이현

경은 히비야공원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조선독립을 선동하고 이끌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 이후 재판의 결과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쿄 출장원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1924년 4월 말 현재 이현경은 '일본경시청 요시찰인' 에 편입되어 있었다.[42]



일본 유학 당시 이현경(이달순 제공)

이현경은 니혼여자대학에 다니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운동을 지도하던 이현경은 점차 '봉건적 억압과 자본주의적 착취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는 사명감에 불탔다.[43] 1925년 3월 재일 조선인 여성들의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삼월회가 결성되었는데, 그 중심은 이현경과 황신덕(黃信德)이었다. 이들은 "한국 여성은 계급적 · 봉건적 · 인습적 및 민족적 압박 아래 있다." 고 하면서 "무산계급 남성과 제휴하여 인류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일소하고 대중본위의 신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선언하였다. 삼월회는 '조선무산계급과 여성해방' 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회주의 사상단체로서 일월회의 자매단체였다.[44]

귀국 직후인 1926년 8월경 이현경은 조선여성동우회에 가입하였다. 그녀는 황신덕과 함께 여성운동의 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들은 여성운동의 통일을 계획하였다. 우선 서로 대립하고 있던 경성여자청년동맹과 경성여자청년회의 제휴를 추진하였고, 마침내 1926년 12월 두 단체가 합동하여 중앙여자청년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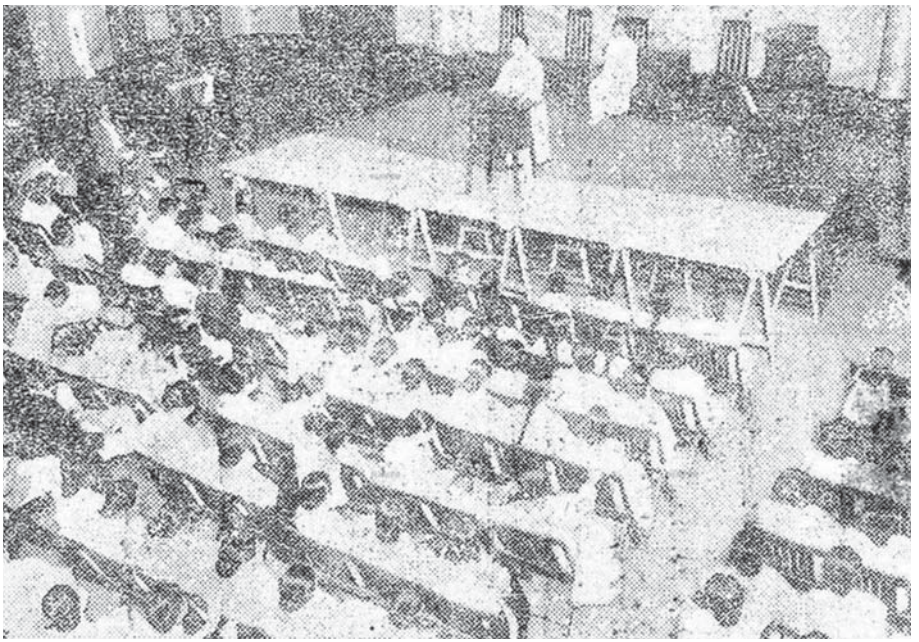
이 조직되었다.[45] 그들은 여성운동이 통일된 후에는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경성여자청년동맹과 경성여자청년회의 합동은 일반 사회운동보다 빨리,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진 파벌청산의 모범사례였다.[46]

1927년 신간회가 창립되면서 여성운동에서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의 운동가들을 아우르는 여성운동의 전국적 통일기관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그 출발은 유학생 출신들의 '친목'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27년 2월 14일 서울에서 도쿄여자유학생들의 친목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를 상설기관으로 조직하기로 결정되었고, 이현경은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1927년 4월 16일 '외국여자유학생친목회'가 열렸고 만장일치로 전국적인 단일여성단체의 결성을 결의하였다. 이어 4월 26일 발기인총회를 열고 단체의 명칭을 '근우회(槿友會)'로 결정하고 창립준비위원을 뽑았는데, 이현경은 17명의 준비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47]

마침내 1927년 5월 27일 근우회가 결성되었다. 이현경을 비롯하여 정종명, 박원희, 주세죽 등 조선여성동우회 출신의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여자교육회 및 YWCA의 기독교계 인사 등 대표적인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이 통일적인 여성운동을 위해 참여하였다. 근우회 창립대회에서 이현경은 황신덕, 박원희, 김활란, 이덕요 등과 함께 집행위원 선정을 위한 7명의 전형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48] 이현경은 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조사부에 배속되었으며, 발회식의 회가(會歌) 작성위원으로 선정되었다.[49]


근우회 전형위원이었던 이덕요(이달순 제공)

이현경은 근우회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6월 19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조사부 보고자로서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 건에 대해 보고하였다. 즉, 김활란과 유억겸이 조선대표로 태평양회의에 출석할 것이라는 신문기사에 대하여 이현경은 신간회 경성지회원과 함께 두 사람을 방문하여 사



근우회 발회식(『동아일보』, 1927년 6월 19일)

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선대표로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며, 김활란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보고를 하였다.[50] 근우회 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이현경은 조선여성동우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현경은 의장 및 서기의 자격으로 집행위원회를 이끌었는데, 이 자리에서 상무위원을 사임하였다.[51] 이는 당시 이현경이 안광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사상단체를 해체하고 '민족단일당의 매개체' 인 신간회 및 근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한다는 조선공산당의 방침에 따른 행동으로 이해된다.

또한 1927년 7월 1일 근우회 정기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이현경은 '철원사건' 과 '숙명여학교사건' 등과 같은 정치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부에서 하등 조사보고가 없음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52] 이후



1927년 금강산 서광사에 함께 간 근우회 회원(이달순 제공) 왼쪽부터 문인순, 조충성, 배숙경(뒷줄), 정칠성(앞줄 가운데), 최은희, 황신덕(뒷줄)

1928년 7월까지 이현경은 근우회 집행위원, 중앙위원, 재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근우회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다.

그러던 중 1928년 7월 근우회 임시대회를 전후하여 민족협동전선론에 입각한 조직론의 차이로 내부 갈등이 표출되었다. 1928년 7월 14~15일 이틀간 근우회 전국 임시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이현경은 대의원 자격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고, 중앙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때 근우회 도쿄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에게는 전에 본부에 의해 정권처분을 당했다는 이유로 대의원증을 교부하지 않아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 문제로 '도쿄지회파'와 '본부파'로 나뉘어 대립하였는데, 이때 본부 측의 이현경과 강정희는 도쿄지회파에 가담하였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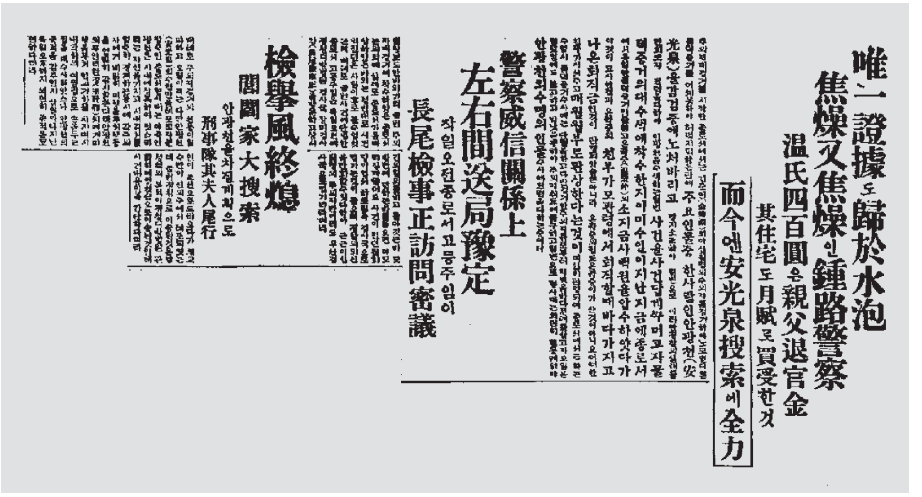
이 문제는 1928년 7월 16일 근우회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장 선

거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자리에서 황신덕은 위원장에 대한 조건으로, 첫째 전 조선 여성대중을 구호할 수 있는 인물일 것, 둘째 희생적 정신의 지주(持主)보다도 경찰당국의 주목이 적은 인물로서 당국과 기타 사교에 뛰어난 인격자일 것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현경은 도쿄지회에서 참석한 대표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경찰당국의 주목이 적은 인물 또는 희생적 정신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중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지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운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54]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28년 7월 27일 근우회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검사위원 연합위원회가 개최되었다.[55] 이때 「위원 사임의 건」에서 유각경은 "근우회는 조직 당시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기독교파를 망라하여 창립하였는데 그 후 1년간 3자는 서로 반목해 왔다. 금회의 대회에서 폭로된 당파적 파벌주의는 근우회 근본정신인 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동적 분자와 함께 행동할 수 없다. 근우회의 전도를 고려해 볼 때 혈루(血淚)가 용출한다."고 열변을 토하며, 검사위원을 사임하였다.

유각경의 사임문제를 둘러싸고 근우회 본부는 같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정종명은 "유각경 한 사람의 사임문제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민족주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전부 탈회를 할지도 모른다. 조선에서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기독교 세력의 탈회는 중요문제이므로 문제인물인 이현경 및 강정희 2명에 대하여 인책 사직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허정숙과 김수준은 "유각경 한 사람이 탈회한다고 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 전부가 탈회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양 파가 탈회하더라도 현하 조선 여성운동 상황으로 볼 때 단결력이 약한 두 세력으로는 도저히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다. 단호하게 유각경을 정권처분에 붙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56] 이 문제는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근우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현경은 1928년 7월 23일 근우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재정부에



唯一證據도 歸於水泡
焦燥又焦燥인 鍾路警察
溫氏四百圓은 親父退官金
其住宅도 月賦로 買受한것
而今엔 安光泉搜索에 全力

警察威信關係上
左右間送局豫定
작일오전중로서고등주임이
長尾檢事正訪問密議

檢擧風終熄
閭閻家大搜索
안광천을 숨겨둔 혐의로
刑事隊其夫人尾行

안광천 검거 열풍(『중외일보』, 1928년 2월 1일)

배속되었으나 8월 이후 행적을 감추었다. 1928년 6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조선공산당의 검거망이 이현경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바 있는 안광천을 추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조선총독부 경찰이 이현경을 지나칠 리 없었던 것이다.

이현경은 1926년 8월 이후 안광천이 입국하여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할 때 그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안광천과 연인관계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었고, 일본 정보당국도 이현경을 안광천의 '정부(情婦)'로 기록해 놓고 있었다. 이현경은 1927년 어느 시기엔가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928년 5월 이전 당에서 제명되었다. 1928년 5월경에 있었던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안광천의 해임문제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때 안광천이 당에서 이현경을 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허위로 신고하여 복당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조선공산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안광천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57]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의 검거선풍이 불었고, 이현경은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

되어 1928년 8월경 안광천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일제의 정보기록에 의하면, 1933년 현재 김원봉(金元鳳), 안광천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朝鮮共産黨再建設同盟) 북평지부(北平支部)의 한 야체이카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고 한다.[58]





4

해방 후 여성의 삶과 사회활동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역의 여성운동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한다. 소외되었던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지역의 이해와 역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철학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성운동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춤추는 수원을 위해 수원 여성운동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1. 전쟁미망인의 발생과 전후 원호정책
2.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삶의 특징
3. 전쟁미망인의 지위와 역사적 의미

김은경 | 방송통신대학교 연구교수

01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삶

전쟁미망인의 역사는 그동안 공식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삶의 양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전쟁으로 남성들이 전장으로 동원되자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전후 사회의 젠더질서를 변화시켰다. 한국전쟁 후 등장한 전쟁미망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당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전쟁미망인은 남성의 부재를 대신해 사회로 나와 직업활동을 하였고, 이는 전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이전의 여성들은 중·하층인 경우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농사나 길쌈 등을 하였지만, 주로 보조적인 노동에 그쳤다. 그러나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전쟁미망인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 활동에 직접 나섰다. 이와 같은 전쟁미망인의 생계 활동은 당시 여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전쟁미망인의 존재는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1950년대 민법상 기혼 여성의 지위는 법적 무능력자였다. 이는 일제시기의 구 민법을 적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일반 여성은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없거나 그 생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미망

인들은 법적인 행위 주체가 되었다. 1960년에 시행된 신민법에서는 여성을 법적 주체로서 인정하였는데, 전후 등장한 수많은 전쟁미망인의 존재는 여성의 법적 주체화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쟁미망인의 존재는 1950년대 성 담론과 여성 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사회는 홀로 된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규율을 강화시켰다. 이는 전후 급속히 유입된 서구문화에 대한 비판 담론과 함께 여성 담론을 전반적으로 보수화시켰다.

이 글에서는 전후 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전쟁미망인의 삶과 경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전쟁미망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술자들의 신상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구술자 신상정보[1]

이름	출생연도	출생지	자녀수	남편 직업	직업 경험	구술일
양금순	1929. 2.10.	전북 정읍	2남	군청 직원	삯바느질, 미망인 재활원 근무, 전도사	2012. 8.13.
구양숙	1927. 1. 3.	경북 영천	2남	건설회사 직원	곡물장사, 집장사, 골재장사, 미장원	2012. 9. 5.
오우남	1927. 9.26.	전남 광양	2남 1녀	경찰	삯바느질, 양재학원, 원호처 직원	2012. 9.24.

1. 전쟁미망인의 발생과 전후 원호정책

1) 한국전쟁과 전쟁미망인의 발생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엄청난 인적 ·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였다. 전쟁은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피해 규모와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한국전쟁 시 인명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38만 6,321명과 학살자 12만 8,936명을 합하여 총 51만 5,257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전쟁 직후부터 1953년 12월



한국전쟁 당시의 수원(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민(EuroCreon 지원)

〈표 2〉 한국전쟁 인명 피해[2]

(단위 : 명)

구분		총계	사망	실종	부상	학살	납치
군인		608,033	137,899	19,392	450,742		
경찰 · 청년단		19,034	3,759	7,306	7,432		537
민간인	남	764,281	166,104	253,271	168,849	97,680	78,377
	여	226,687	78,559	49,941	60,776	31,256	6,155
총계		1,618,035	386,321	329,910	687,799	128,936	85,069

까지의 통계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실제 사망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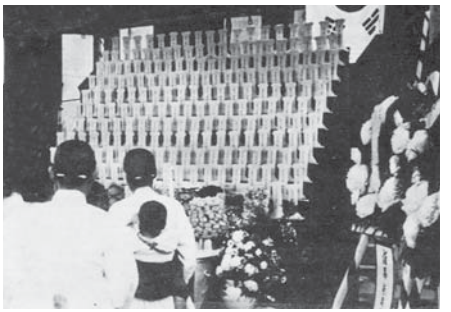
수원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1951년 1 · 4후퇴 후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선이 바뀌면서 격전이 치러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쟁 발발 후부터 1951년 9월 1일까지의 수원의 인명 피해 상황은 사망자가 남자 296명, 여자 184명이었다. 그리고 납치된 자는 남자 24명, 여자 16명이었으며, 행방불명자는 남자 174명, 여자 115명이었다. 부상자는 남자 33명, 여자 22명이었다.[3] 이에 따르면 당시 사상자는 총 535명이었으나, 여기에는 좌우익 갈등에 따른 학살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선이 바뀌면서 좌익 혹은 우익에 의한 학살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사상자수가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전쟁미망인이 발생하였다. 전쟁미망인 혹은 전재미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죽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부인을 일컫는 말이다. 즉, 경찰이나 군인 혹은 제2국민병으로 전장에 나가 사망한 자, 그리고 행방불명된 자의 부인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전 중 사망한 사람뿐만 아니라, 좌익 · 우익에 의한 피학살자와 납치자, 월북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전쟁미망인이 현실적으로 '남편의 부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 이렇게 본다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 실질적으로 전쟁미망인으로 살았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쟁미망인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당시 신문에서 그 수가 30만 명[5] 혹은 50만 명[6]에 이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던 점과 보건사회부의



제3차 수원 출신 전몰장병 합동장례식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분향하는 전쟁미망인들(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통계[7] 등을 고려하여 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우익에 의한 학살자 미망인이나 월북자 부인 등을 포함할 경우 전쟁으로 홀로 된 미망인의 규모는 좀 더 많아질 수 있다.[8]

한국전쟁 후 조사된 수원의 전쟁미망인은 722명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군인 미망인이 135명이었으며, 경찰 미망인이 41명, 민간인 미망인이 546명이었다.[9] 1960~1970년대에 조사된 수원 지역 원호대상자 중 전쟁미망인의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1961~1970년 수원 지역 원호대상자 중 미망인의 수[10]

연도	미망인수(명)	연도	미망인수(명)
1962	92	1963	81
1964	209	1965	404
1966	193	1967	199
1968	196	1969	198
1970	204		

1950년대 후반 보건사회부에서 조사한 미망인들의 생활 정도를 보면, 전체의 약 75%가 하층에 속하였다.[11] 물론 이는 전쟁미망인뿐만 아니라 일반 미망인들을 포함하는 전체 통계지만, 전쟁미망인의 경제적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전쟁미망인은 대부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직접

경제활동에 나섰다. 당시에는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은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였고, 그 외에 상업과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였다. 1950년대 미망인의 직업 활동을 보면 약 7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통계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1955~1959년 미망인의 직업활동[12]

(단위 : 명, %)

구분		1955	1956	1957	1958	1959
농림어업	인구	227,912	236,612	206,929	212,205	255,479
	구성비	46.27	46.42	48.68	49.37	50.29
광업	인구	480	1,424	957	1,207	1,177
	구성비	0.1	0.28	0.23	0.28	0.23
제조업	인구	4,031	2,577	2,287	2,576	3,103
	구성비	0.82	0.51	0.54	0.6	0.61
상업 · 금융 부동산업	인구	35,676	41,717	34,260	33,616	39,666
	구성비	7.24	8.14	8.06	7.82	7.81
운수보관 및 통신업	인구	1,190	915	713	848	639
	구성비	0.24	0.18	0.17	0.2	0.13
서비스업	인구	7,776	8,128	5,075	6,761	5,373
	구성비	1.58	1.59	1.19	1.57	1.06
기타	인구	63,387	52,929	44,514	38,464	46,506
	구성비	12.87	10.38	10.47	8.95	9.15
무직	인구	152,139	165,407	130,355	134,131	156,052
	구성비	30.89	32.45	30.67	31.21	30.72
총계		492,591	509,709	425,090	429,809	507,995

〈표 4〉는 전체 미망인의 직업활동을 보여 주고 있는데, 전쟁미망인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전쟁미망인들은 농사, 행상, 삯바느질, 공장 노동 등의 일을 했으며, 정부의 구호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전쟁미망인들은 남성에 비해 직업 경험이 적었고 비숙련자와 저학력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임금구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원 지역 전쟁미망인들의 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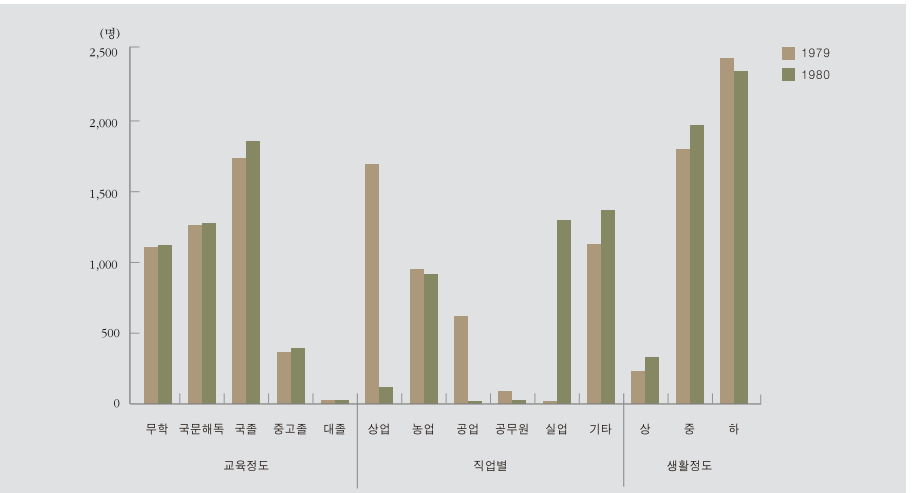
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79년과 1980년에 조사된 미망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수원의 종류별 · 연령별 미망인 실태[13]

연도	총계	종류별			연령별				
		군인	경찰	일반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979	4,383	280	32	4,071	4	119	580	1,412	2,268
1980	4,552	286	36	4,230	7	98	570	1,412	2,465

〈표 6〉 수원의 교육 · 직업 · 생활별 미망인 실태[14]

연도	교육 정도					직업별						생활 정도		
	무학	국문해독	국졸	중고졸	대졸	상업	농업	공업	공무원	실업	기타	상	중	하
1979	1,080	1,234	1,708	355	6	1,665	933	595	74	14	1,102	214	1,764	2,405
1980	1,095	1,251	1,817	381	8	1,007	893	9	20	1,277	1,346	311	1,934	2,307



수원의 교육 · 직업 · 생활별 미망인 실태

이 조사에 따르면, 1979년에 총 4,383명의 미망인 중에는 군인 미망인 280명, 경찰 미망인 3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1980년에 총 4,552명 중에는 군인 미망인 286

명, 경찰 미망인 36명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40~50대 이상이 많았으며, 학력은 국졸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상업에 종사하는 미망인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 정도는 50% 이상이 하층에 속하였다.

2) 원호정책과 전쟁미망인에 대한 처우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법령 제127호)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사회부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사업이 실시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원호대상자가 급증하자 종전의 군사원호과는 1951년 7월 31일에 사회부 원호국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원호과 · 보도과 · 연금과를 신설하고, 3개의 직업보도원과 4개의 정양원 및 중앙재활원을 설치하였다.[15]

원호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는 기존의 「군사원호법」을 재정비하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1년 2월), 「경찰원호법」 및 「경찰원호법 시행령」(1951년 4월),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및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시행령」(1952년 9월) 등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연금과 사금 지급, 직업보도 등의 원호정책을 시행하였다.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및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 지급 대상자는 전몰군경의 조부모 · 부모 · 배우자(사실혼관계 배우자 포함) · 자녀,[16] 상이군경, 「군속 ·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자 · 청년단 · 방위대 · 소방관 · 의용소방대 등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군경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로 상이를 받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이었다. 이에 비해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사금은 전사자의 직급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되었다.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공포 이후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표 7〉과 같다.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지불규칙」에 의거하여 연금 수급권자에게 체신부 산하의 지정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금 및 사금 지급은 초기 정책 시행 기관의 미비로 한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표 7〉 1952~1961년 연금 지급액[17]

연도	대상	금액(연액)
1952.10.~1955. 6.	상이군경 및 유족	6,000환
1955. 7.~1960. 6.	상동	12,000환
1960. 7.~1961. 4.	상동	24,000환

전쟁미망인들의 구술에서도 알 수 있다.

> 오우남 : 처음엔 (연금이) 없었다가 몇 년 후에 긍게, 전몰군경 내가 미망인이거든요, 전몰로 그때 6 · 25 때니까. 그래서 인자 처음에 1년에 6,000원씩을 줬습니다. 6,000원을 주고, 그 뒤에 인자 1기분에 6,000원 주고, 2기분에 6,000원 주고, 만 2,000원, 오래돼서 주고. (연금을 올려 달라는) 데모 많이 했어요. 청와대까지 가서 앞에 광장에서 한 사람이 울면은 설움이 터져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서 이거라도 연금이 오른 거예요. 우리 데모 많이 했습니다.

위의 구술에서처럼, 정부의 원호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의 연금 지급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 · 공포하여 원호업무 전담부서를 내각 산하에 설치하고 「군사원호보상법」을 비롯한 새로운 관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원호정책은 조금씩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18] 그리고 이마저도 군인과 경찰 미망인의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일반 전쟁미망인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수원에서 전쟁미망인회가 창립된 것은 1963년 8월 25일이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수원지회'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경기도지부 수원지회'와 더불어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당시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에 협조하는 한편, 전쟁미망인 연금 인상과 처우 개선, 생활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였다.

원호정책은 연금법 외에 보호 · 수용 시설 설치와 직업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1954년 미망인과 그 자녀의 수용 · 보호를 위한 시설인 모자원 직제를 공포하고 국



양재를 배우는 전쟁미망인들(『동아일보』, 1954년 11월 19일)

립모자원을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였다. 서울의 국립모자원은 건립 당시 총 61세대, 176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모자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무의탁모자로서 고향이 서울 이북이고, 만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전쟁미망인이어야 했다. 이들에게 하루에 배당되는 식량은 1인당 4홉과 부식비 70환이었다. 또한 모자원에서는 미망인들의 직업보도를 위해 양재부, 편물부, 이발부, 미용부 등을 두었다.[19]

그러나 서울 국립모자원의 미망인들은 각종 기술을 연마한 뒤 다른 미망인을 위해 퇴소를 해야 했다. 입소 후 구직을 위해 기술을 배운 뒤 1년 이내에 다른 미망인들에게 자리를 내어 줘야 했던 것이다. 이는 전쟁미망인의 수에 비해 모자원이 매우 부족했던 현실을 보여 준다. 1954년 11월 현재, 전국의 모자원에 수용된 인원은 서울에 200명, 경남에 300명, 갱생원에 200명, 기타 민간유지의 구호로 1,000명 정도가 있었다.[20] 이 숫자는 수십만을 헤아리는 전쟁미망인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

전쟁미망인의 직업보도를 위해 정부는 보건사회부 산하에 '전쟁미망인직업보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업보도와 직업 알선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각 시도에는 '수산장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전쟁미망인 수산장은 직업훈련과 판매를 위한 조직으로, 당시 운크라 원조 예산으로 설치되었다. 1956년에 전국에 88개소의 수산장이 있었으며, 1958년에는 재봉기 495대, 편물기 510대가 수산장에 비치되었다.[21]

수원 지역 전쟁미망인의 직업보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다만 군경유가족의 취업 실태를 통해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군경유가족의 취업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1964년에 취업자가 급증하는데, 이는 1963년에 국립원호원이 발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61년 군사원호청 발족 이후 1963년 1월 18일 국립원호원이 개원하



수원시전재미망인수산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표 8〉 1961~1970년 수원시 군경유가족 취업 현황[22]

(단위 : 명)

연도	총계	관공서	일반 회사 및 공장
1961	60	18	42
1962	48	3	45
1963	48	18	30
1964	139	104	35
1965	125	94	31
1966	165	116	49
1967	176	140	36
1968	206	124	82
1969	166	61	105
1970	435	256	179



수원 종합원호원 전경(창훈대교회, 『창훈대 40년사』, 2004)

였다. 여기에는 아동보육소, 직업보도소, 농사보도소, 양로소 등이 있어 원호대상자의 보호 · 수용과 직업보도를 실시하였다.[23]

2.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삶의 특징

1) 남편의 동원과 사망

정부 수립 후 지원병제에 기초하고 있었던 병무정책은 전쟁 발발 이후 헌병대, 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강제동원을 통해 병력을 충원하였다. 9 · 28서울수복 이후 전선 확대에 따라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제2국민병의 등록을 실시하여 병력예비대를 모집하였다. 초기 병무행정은 가두소집과 강제 모병을 하는 등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24] 이와 같은 모집 방식을 통해 전쟁 기간에 약 100만 명의 남성들이 동원

〈표 9〉 한국전쟁 시 병력 보충 상황[25]

(단위 : 명)

연도	사병 충원 현황				계	징소집 인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1950	214,049	2,443	1,162	5,610	223,264	약 200,000
1951	154,586	1,475	2,616	9,138	167,815	125,385
1952	239,998	1,519	4,569	105,518	351,604	272,231
1953	292,377	2,940	3,476	6,903	305,696	386,083
합계	901,010	8,377	11,823	127,169	1,048,379	983,699

되었다. 〈표 9〉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병력 보충 상황을 보여 주는 통계이다.

병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두고 전장에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1951년 군 지휘부의 부정부패로 9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하여 징집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리하여 1951년부터 1953년 사이에 총 133만 2,904명의 징집 대상자 중 기피인원이 29만 4,979명에 달하였다.[26] 구양숙의 구술에는 징집에 불응하려던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동원에 응해 출정하게 된 과정이 언급되어 있다.

> 구양숙 : "군인을 뽑는다, 누구든지 희망자는 다 나오라."고 이러니까 그 양반이 좀 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나 인자 군대 가기 싫으니까 안 갈 거다. 자진해서 가지 말고 다 안 간다 합디다. 온 동네 사람이 안 간다 하니까 뭐 때문에 군에 가겠소?" (동사무소 직원이) 오면 (내가) 없다 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카니 자기가 쫓아 나가더만 영장을 받아가 들어옵디다. "안 간다 해 놓고 나도 몰라, 왜 받았는지."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가서 이제 훈련 갔어요.

구양숙의 남편은 일제 말기에도 징병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 후 영장이 나와도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결혼해서 어린 아들과 부인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직원이 영장을 가지고 오자 엉겁결에 그것을 받고 훈련소로 갔다. 구양숙은 남편과의 힘겨웠던 이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구양숙 : 김밥을 싸고, 조금도 안 싸고 여럿이 갈 때 먹으라고 많이 싸서 머리에다 이고, 애를 하나 업고, 하나 잡고 이래가 가니까 부산진역에서 막, 지금 차는 소리 안 나지만 그땐 기적 소리가 왕- 나잖아요. "아이고야 느그 아버지가 떠나는 갑다, 어서 가자." 큰애를 보고, "얘 좀 빨리 걸어라." 카고 가니까 이래 차창에서 내다보더니만 쫓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울먹이며] "이 포대기 끈 끌러라, 창범이 한 번 안아 보자." 그러대요. 그래 끌러 주니까 "아버지가 갔다 올 테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게 마지막이요. 그래가 보낸 기 인자 그 후로서 우리가 막을 내렸다고요.

영장을 받은 남편은 훈련소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고 바로 전장으로 갔고, 구양숙은 이후 남편과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전쟁미망인들은 대부분 남편이 전장으로 동원되어 간 뒤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사망 소식도 같이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남편이 경찰이었던 미망인은 비교적 남편의 활동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가끔 집에 다녀가기도 해서 대체로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대개 이들은 남편의 사망 직후 통보를 받았으며, 사망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오우남 : 셋째 딸을, 딸을 가졌는데 6 · 25사변이 나서 (남편이) 경찰로 있으면서 지리산 토벌작전에서 그만 돌아가신 거야. 긍게 뭐 피골산이라는, 핏물이 됐다는,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 갖고 인자 스물너이(스물넷)에 애기를 서이(셋)나 두고 혼자 돼서 그때는 참 기가 맥혔지.

하지만 일반 병사로 동원되어 간 경우 사망통지서를 못 받거나 전달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다. 양금순은 사망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남편과 같이 전장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경우 남편의 사망 날짜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

양금순 : 사망통지서도 못 받고, 갔던 사람이 얘기해서 알았다니까. 갔던 사람이 살아와 갖고.

이와 달리, 시부모가 사망통지서를 받고도 사망지급금을 가지려고 며느리에게 사망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구양숙의 구술은 이를 잘 보여 준다.

> 구양숙 : 사망통지서를 나는 내가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장사 댕기니까, 애들 맡겨 놓고 댕기니까. 어느 날 우리 시고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내가 엔간하면 말 안 할라 그랬더만 요번에 해야 되겠다. 니 가서 느그 시어머니 보고 창석 아바이한테 나온 돈 달라 캐라." "무슨 돈요?" 이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탔단다, 밀린 거를 마이 탔단다." 그러더라고. "무슨 돈인데?" 카니까 "야, 이 사람아 그기 우리 불쌍한 만원이(남편 이름) 목숨값이란다."

구양숙은 남편이 동원된 후 아이들을 시집에 맡겨 놓고 장사를 하러 다니느라 사망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하였다. 그녀의 시부모는 사망통지서를 며느리에게 전해 주지 않고 사망 후 지급되는 돈을 타서 사용하였다. 시부모가 남편의 사망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들의 혼인신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원호법」은 호적상의 본처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인도 수령권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혼인 후 호적 신고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이 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양숙의 경우에는 시부모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속여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이 전장으로 동원되고 난 뒤부터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남편의 사망 소식도 국가로부터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라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경우가 있었다. 혹 사망통지서가 왔더라도 당시 법률혼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부모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아 한동안 모르고 지냈던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소박한 삶을 영위하던 구술자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고 일상을 파괴당하였다.

2) 전후 여성 노동과 미망인의 경제활동

대부분의 전쟁미망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접 경제활동에 나섰다. 이들 중 친정이나 시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살아 돌아올 기약이 없이 떠난 남편을 대신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다음

기사는 전쟁 후 남성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직접 경제 활동을 위해 나서는 여성들이 많았던 사회상을 담고 있다.

> 출정한 남편을 대신하여 전사한 행방불명인 남편과 아들을 대신하여 후방 고향의 농사는 젊은 아내와 노모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청년들이 군문에 들어간 생산 공장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미혼인 젊은 처녀들의 수가 늘어졌고, 관청, 은행, 회사 등 기관에는 여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무를 보게 되었다. 경향 각지 시장에 나타난 광주리 행상에서부터 노점, 점포를 막론하고 크고 작게 자리 잡은 대다수의 상인들은 다 여성들이며 일가의 주부로서 수입이 부족한 가정의 남편을 도웁고 출정 전몰 납치 가족의 어머니로서 어느 남편과 아들에 못지않게 굳세게 싸우고 있다.[27]

당시 전쟁미망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일반 미망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앞서 서술한 〈표 4〉에서 보면, 1955년부터 1959년까지 농림어업에 종사한 미망인의 비율은 46~50%였으며, 상업 종사자는 7~8%였다.[28] 당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을 고려해 볼 때, 미망인의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상업 인구가 그 다음으로 높다는 점이다. 당시 학력이 높지 않고 특정한 기술이 없는 여성들에게 장사는 비교적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미망인들도 행상이나 장사를 많이 했다.

>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천변시장으로 풍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발길을 옮겨 본다. 콩나물장사, 미역장사, 더덕장사부터 시작해서 양담배장사, 양주장사, 양과자장사, 딸라장사, 양말장사, 샤쓰장사, 양단장사, 나이론장사, 좌우 옆 포목전의 주인이 모두 다 묘령의 처녀가 아니면 허우대 좋은 점잖은 중년부인들이다. 목침덩이보다 더 큰 1,000환짜리, 500환짜리 뭉치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상거래를 해서 거침없이 서로들 주고받는다.[29]

이 기사는 서울의 주요 시장에서 각종 장사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

다. 여기에서 열거된 장사는 주로 소규모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외상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물건을 먼저 받고 이를 팔고 난 뒤 물건 값을 돌려주는 방식도 많았다. 이렇게 1950년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업은 전쟁미망인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미망인의 직업 실태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서울부녀자직업보도소의 통계이다. 이는 직업보도소에 입소한 50명의 미망인들의 입소 이전의 직업활동에 대한 것이다.

〈표 10〉 서울부녀자직업보도소 미망인들의 직업 실태[30]

직업	행상	가정살림	편물	방직공장	내의 만들기	가정일	생선장사	재봉
인원수	19	6	4	1	1	8	1	2
직업	세탁	고아원 보모	직조	양재	자수	전도사	피난민 수용소	학교
인원수	1	1	1	1	1	1	1	1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부녀자직업보도소에 입소한 미망인들은 도시 지역의 특성상 농어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없었고, 전체 50명 중 행상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가사보조인으로 추정되는 가정일 종사자가 8명, 가정에서 살림한 경우가 6명으로 많았다. 그리고 편물 4명, 재봉 2명, 직조, 양재, 자수 등이 각기 1명씩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가 의류산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편물과 양재, 바느질 등이 수공업적 형태로 성행했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망인의 직업활동처럼, 전쟁미망인들도 이러한 직업군에 종사하며 경제활동을 했다. 구술자들도 모두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 교육을 위해 직접 직업을 가지며 사회활동을 했다. 다만 시집이나 친정의 경제력에 따라 직업을 가진 시기가 달랐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전쟁미망인은 남편의 동원 직후에는 가정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다가 사망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경제활동에 나섰다. 남편이 군청 직원이었고 시집이 농사를 많이 지어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

았던 양금순과 친정아버지가 면장이자 지역 유지였던 오우남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을 시작하였다.

양금순 : 바느질 했어, 집에서 바느질. 깨끼저고리 같은 거, 색동저고리 같은 거 미싱으로 바느질해서 수입을 좀 했어요. (전쟁이 끝난) 그 뒤에. 뭐 할 것 없으니까, 미싱 있으니까 저고리도 해 달라 하믄 내가 해 주고, 조끼도 해 주라믄, 몸빼도 해 주라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느질쟁이가 돼 부랐드라구요.

오우남 : 너무 기가 찼지, 뭐. 긍게 저는 애기 아부지 죽고 나서 이렇게 무슨 뭐, 노동일도 안 하던 사람이라. 그래도 내가 솜씨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틀(재봉틀)을 하나 사 줘서 (바느질을 했어요). 그때는 명 적삼을 하나씩 해 주면 (일꾼들이) 일을 하루씩 해 주거든요. 그렇께 그 친정에서 다- 놉(삯일꾼)을, 내가 (바느질을) 해서 논도 메고 밭도 메고 그러는 셈이라.

이에 비해 구양숙은 남편이 동원되어 전장으로 간 뒤, 의붓시어머니와 큰집의 눈치가 보여 시고모의 도움으로 곡물장사를 시작하였다.

구양숙 : '내가 뭐라도 해야 저 애들을 장차 교육문제도 해결하고 이러는데 어떡하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그 소리도 몬 하고 우리 시고모님이 부산서 범일동 시장에서 큰 곡물장사를 했어, 쌀장사, 잡곡하고 쫙 많이 있는 거, 그 상회가 커요. 근데 시고모님 댁에 갔어요.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만 "아이고, 생각 잘 했다, 니가 만날 거기 묵어 봐야 있어 봐야 아침 묵고 나면 더운 점심해서 상 채려야 되고 저녁이고 이러니까 나와서 돈 벌어라. 밑천은 내가 대 주꾸마." 그러대 인자 처음에는 애 업고 거서 사 오라 카는 대로 사 옵니다. 오늘 녹두를 몇 대 사 오라 카면 녹두 몇 대, 판 몇 대. 그래 시작한 기가 처음 내 끼(내 것이) 하나도 없고 했는데 차차 하루 갔다 오면 한두 대 벌이고, 또 다음 날 가면 또 몇 대 벌이고. 이래 가지고 인자 얼추 내 끼 한두 가마니쯤 됐어요. 그 기쁜 마음, 돈만 보마(보면) 너무너무 그것만 기뻐요, '나도 이것만 하면 장사 밑천을 마련을 하겠다.' 그런 걸로. 그래 가지고 한 게 고모님 댁에서 한 열다섯 가마니쯤 했어요. 해가 인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애들하고 산다.' 카는 큰 기대를 가지고. (중략) 작은 애를 포대기에다 업고 덮어 가지고 오는데 언제든지 그동안에 한두 달쯤은 겨울에 추울

때도 가고,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곡물을 팔러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삼량리에서 내리 가지고 밀양이 먼 사십 립니다. 삼량리에 와서 방 큰 거 하나 얻어 갖고 한 30명이 한방에 잡니다. 내가 제일 젊지, 딴 사람들은 나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는 뭐 한디?" 이리하면 "군에 갔어요."카면 다 동정해요. 그래서 먼 30리를 이틀에 한 번씩 걷다 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애 업었지요, 돈은 허리에 찼지요, 머리에는 마대로 보통 한 10개 얼매 이고 가지요.

위의 구술에서처럼, 구양숙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자 곡물장사를 하게 되었다. 곡물을 사기 위해 이틀에 한 번은 먼 길을 가야 했는데, 이때 어린 아들을 업고 머리에 물건을 이고 30리를 걸어 다녔다고 한다. 이처럼 구양숙은 남편이 동원된 후부터 남편의 부재를 경험했고, 사실상 이때부터 전쟁미망인으로서 삶을 살았다.

친정이나 시집의 경제력이 전쟁미망인의 초기 경제 활동 유무에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부터 구술자들은 집안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두 직업전선에 나섰다. 오우남은 아버지가 사 준 재봉틀로 삯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으거나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그 뒤로는 양재학원을 하면서 수산장 간판을 걸어 운영을 하기도 했다.

오우남 : 애기들은 인자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그러고 양재학원을 한 3개월 다녀 갖고 집에서 인자 쪼끔 왔다가 갔다가 그때 그러고. 그때는 또 처녀들이 양재학원을 나가야 좋은 디로 시집을 간다고 양재학원을 다 모두 많이 나왔거든요, 시골서도 읍에서도. 그때 내가 광양읍으로 또 이사를 갔지. 그래 갖고는 저, 양재학원을 차려서 한 2년 했어요.

오우남은 양재학원을 경영하면서도 밤에는 삯바느질을 했다. 친정에서 식량과 양념을 대 줘 기본 생계에 도움을 받았지만,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

오우남 : 그때 인자 이리저리 바느질도 하고, 저축한 게 있었던가. 그리고 또 친정에서도 좀 대 주고. 그렁께 어머니 살아서는 간장까지 뭐 고추장까지 식량까지 다 대 줬어요. (중

략) (하루에) 많이 자면 3시간 (잤어요). 그래 또 그걸 갖다 맡기는 사람이 언제 입는다고 그러면 독촉을 하거든요. 그렇께 또 그리 해서 해 줘야죠. 노동은 안 했어도 참 험한 세상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거라도 배우고, 그런 기술이라도 있었으니께 그리 했는데. 우리 6 · 25미망인들은 그 무엇을 해서 (머리에) 이고 어디로 팔러 가면 그때는 돈이 없응게 쌀을 주면 그놈을 도루 이고 오고. 우리 미망인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오우남은 양재학원을 차리면서부터 친정에서 나와 혼자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면서 학원 강의를 했고 밤에는 삯바느질을 했다. 그리고 원호청에 찾아가 자신의 학원이 미망인 수산장의 간판을 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수산장을 운영하였다. 그 뒤에는 보훈처의 공무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망인들은 여러 일을 한꺼번에 병행하거나,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일을 했다. 구양숙 역시 곡물장사, 집장사, 골재장사, 미용실 운영 등 다양한 일을 했다.

구양숙 : 나 한 거 많아. 그러고 나서 또 그것도 저것도 안 가니까 인자 뭘 하꼬-하고 뭐 좀 하다가, 깨장사 크게 수입 들어오는 거 하다가 그거 때문에 다 망해 무뿌고는(먹고는) 할 게 없어서.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쌀장사를 접고, 인자는 뭘 할까? 하다가 그 저기 뭐야, 미장원을 또 했어.

전쟁미망인들은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저축이나 계를 할 정도의 여윳돈이 없었다고 한다. 양금순도 전쟁미망인 재활원에서 군복 바느질을 했고 밤에는 삯바느질을 했지만, 저축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녀가 버는 수입으로는 아이들과 기본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였다.

양금순 : 저금헐 것이 어딨어? 내가 그냥 갖고 오면 쌀 사 먹고 뭣 사 먹고 그랬지. 저금헐 것이 없더라고. (중략) (월급으로 받은) 그 사천 원 갖고 생활하고, 애기들 학비 같은 거 뭐 학용품 같은 거 뭐. 근데 모지래드라구요, 못 사겠더라구요. 그래 갖고 집이 와서도 또 바느질 했어. 공장에 댕기면서도. 그래 가지고 집이서도 바느질 해 가지고. 하나씩 하믄 오백 원 받으니까. 공장에 갖다 오믄 하나씩은 해요. 그래서 한 삼천 원씩 받아 가지고 그 아들 용돈 쓰라고 주구 그랬어요. 안 놀았어요. 전부 나가서 밖에 가서 놀고, 저녁이믄 밥 먹

고 나와서 놀고 하는데, 밖에 가서 한 번도 못 놀았어, 나 바느질 하느라고. (웃음) 그때도 바느질 하느라고. 그랬어요.

양금순과 구양숙이 본인의 수입을 직접 관리했던 것과 달리, 아버지가 재력이 있었던 오우남은 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맡겼다. 오우남이 돈을 맡기면 아버지는 저축을 하거나 장리곡을 내서 이자를 받는 등 재산 관리를 대신 해 주었다. 아버지 사후에는 남동생이 오우남의 이름으로 된 옛 집을 처분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오우남 : 그리고 인자 아버지가 돈을 얼매 벌으면 거시기, 아버지가 살아계셔서는 저축 같은 걸 해 주고. 그렇께 아버지를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항상 딸이 혼자 사니까 굉장히 앤스럽게(안쓰럽게) 생각을 했지. (중략) 그래 나를 국민학교 들어갔다고(우리 집이 국민학교에 팔렸다고) 집값을 얼매 준 것 같애요, 동생이.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생이 날 준 것 같애.

이처럼 친정이 경제력이 있었던 오우남은 친정아버지가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였으며, 집을 팔고 사는 등의 경제권 행사도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 아버지나 남동생이 대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정의 재력이 클 경우 친정의 남성들에 훨씬 의존적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양숙과 양금순처럼 독립적으로 가계를 운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3) 젠더 규범과 모성

1950년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여성규범으로 모성을 중시하였다. 전쟁을 겪으면서 등장했던 전쟁미망인의 존재는 기존의 가부장제적 성도덕과 윤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에 당시 사회는 모성의 강조를 통해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개입하고자 했다. 즉 어머니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쟁미망인의 성을 통제하고 자녀 양육의 의무를 지우려고 했다. 당시 전쟁미망인의 재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많은 논자들은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무방하지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어머니로 살라고 당부하였다. 소설가 장덕조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전쟁미망인의 재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녀가 없는 미망인의 재혼에 대해서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고 우수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녀 없는 미망인의 기회를 막아 버리는 것은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장애는 물론 오히려 종족 발전의 방해가 되는 일"이라며 찬성하였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재혼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있는 미망인의 연애는 감정문제나 생활문제나 성욕문제보다도 그 기본을 모성의 보호, 모권 확립의 입장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31] 이처럼 '어머니 됨'을 여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견해는 당시 여러 글에서 볼 수 있다.

> 우리는 고인의 소망과 기대에 어긋남 없이 이 나라를 지켜서 부강하게 하고 정의를 사랑하여 선의 나라로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2세들을 길러 내도록 합시다. 우리 대한의 어머니는 자고로 그전 생활을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통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남편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인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나라 여성들과는 특이한 한국의 전통인 줄 압니다.[32]

> 암탉이 병아리를 품었을 때의 그 독기, 즉 어떤 위험에서라도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모성애, 모든 위험에서 자기 자신과 어린이와 부모를 건전하게 생활시키기 위해서의 정신무장은 그 어떠한 위대한 인간에게서도 이렇게 한국의 어머니처럼 고도화된 정신무장은 또 유례가 없을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자기방위, 가장 위대한 모성애가 여기에 깃들어 있다. 한국의 여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정조관념이 강한 것은 이러한 정신무장에 기인한다.[33]

이처럼 전후 사회는 항상 모성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에 개입하였다. 그 어떤 강압적인 규율보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를 내세워 어머니임을 각성시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통제 효과를 발휘하였다. 구술자들도 대부분 재혼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로 자녀문제를 들었다.

> 구양숙 : 아이고, 새끼가 둘이나 있는데 그걸 어디다 버리고 가니? 그러카고 우리 나이 때는 재혼이라 카는 거는 생각을 몬했다. 왜 몬했냐면은 친정집 부모가 "출가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걸 극복을 하고 오로지 자식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 카는 그 굳은 정신이 머리에 딱 백혔어. 그러카고 지금 앞으로 살기가 막막한데 재가가 뭐야, 응?

양금순 : 지금까지도 안 해 보고, 새끼들 둘, 셋이나 놓고 미망인들 시집가는 거 보고, 아이 저 미친년들 세상에 자식들은 암만 부모, 조부모들이 잘한다 해도 부모만 못 허잖아요, 자식한테는. 그런 생각만 들고 산 거예요.

오우남 : 나도 재가, 개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것들이 어디 큰아버지나 잘 살믄 모르겠지만도 자기 자식들도 교육을 못 시키는데 (우리 애들까지 돌봐 줄 여력이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때는 요만도 안 했어요. 그래 요새 사람들은 무신 남편이 실패를 하고 텔레비에 보면 어디로 도망을 간다,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저럴꼬. 우리들은 그것들을 어찌라도 키울라고 애를 썼지.

구술자들의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이들의 재혼을 극구 만류하였다. 이러한 주위 어른들의 반대도 구술자들이 재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큰 이유였다.

오우남 : 그런(재혼) 얘기는 안 하지요. 애기가 서이나 되는데 그런 소리를 넣을 수도 없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거기서 유지기 땀새(때문에) 누가 많이 넘어다보는 사람도 있었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무서와서 (그렇게 못했어요). "절대적 자식은 고아가 된다, 니가 개가를 하믄은. 그러니까 너는 절대적으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딱 앉히 놓고 말을 하는디 친정어머니는 행여나 그럴까 싶어서(재혼할까 봐) 애기들도 봐 주고, 아부지 몰래 돈도 쪼금 쥐 주고, 뭐 쌀 그런 것도 몰리(몰래) 팔아 갖고 그렇게도 허고.

양금순 : (시부모들이) 그런 얘기 안 하지. 갈까 싶어 벌벌 떠는데, 애기들 둘이나 있는데.

이처럼 구술자들은 양가 부모의 반대와 자식의 존재 때문에 재혼할 생각을 안 해 봤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재혼을 하면 자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전쟁미망인의 재혼담론과 모성이데올로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당시 민법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즉 1950년대 적용되었던

구민법과 1960년 이후의 신민법에서는 재혼 여성의 자녀를 입적할 때 반드시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처럼 호주제의 모순과 모성이데올로기는 당시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재혼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게 만들었다.

4) 모자원에서의 생활 경험 _ 경제와 생활 공동체

1954년 「모자원직제」가 공포되고 난 뒤 서울의 국립모자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모자원이 설립되었다. 모자원은 남편이 없는 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입소하였는데 모자원마다 입 · 퇴소 규정과 사정이 달랐다. 서울의 국립모자원은 입소 후 1년 동안 생계 보조를 받으며 구직을 위한 기술연마를 한 뒤 퇴소해야 했지만,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했던 곳도 있었고, 유지 · 관리비를 받고 임대하다가 차후에 불하를 한 곳도 있었다. 양금순이 1963년 입소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모자원은 초기에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차후에 불하를 하였다.

> 양금순 : 그 집(모자원)을 세를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한 달에 지금 돈으로 12만 원 정도 내. 세를 내, 세를. 거그도 이런 거(지금 사는 아파트) 같은 거 지었어, 산에다. 그래 갖고 218호 살았는데 한 달에 12만 원씩 내고 한 몇년 사니께 불하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당시 대부분의 모자원에서는 미망인의 직업보도를 위한 작업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서울의 국립모자원도 재단, 양재, 미용 등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기술 연마와 더불어 약간의 임금을 받았다.[34] 양금순이 입소한 모자원은 전쟁미망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모자원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재활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재활원에는 피복공장과 인쇄공장 등 5개의 공장이 있었으며, 여기에서 상이군인과 미망인이 일을 했다고 한다.

> 양금순 : 그러고 인자 그 뒤에 인자 여그(수원 모자원에) 와서 쪼끔씩 주드라구요. 근데 여그 와서 봉급을 받았잖아. 4,000원 받았어, 처음에 와서. 재활원에 와서. 바느질하는데. 군복 바느질 했잖아요, 군인들 옷 입는. 미망인들이 100명이 왔어요, 101명이. 여그 벽산(아파트) 자리가 그 우리 공장 자리야. 피복공장 있지, 재활, 거시기, 인쇄공장 있지, 고철공




재활원에서 군복 바느질을 하고 있는 전쟁미망인들(「직업재활원」, 『대한뉴스』 458호, 1964년 3월 6일)

> 장 있지. 다섯 개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 상이용사들도 오고, 인제 우리 미망인들도 101명이 와 가지고 그 안에서 바느질 한 거여.

양금순이 다니던 재활원은 직업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기보다 공장과 같은 노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공장의 설비와 판매 경로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재활원에서 군복 바느질을 했다는 양금순의 구술로 미루어 생산품의 대부분을 국가기관에 납품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국립모자원의 경우 해외에서 구호품으로 보내온 의류의 실을 풀어 만든 제품을 시의 부녀부에 납품하였다.[35] 당시 대부분의 국·공립모자원의 재활사업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금순이 일했던 재활원은 101명의 미망인이 근무를 했으며, 작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6시까지였다. 그러나 작업 방식이 대부분 조별 할당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날 할당받은 작업량을 조원이 모두 다 끝마쳐야 퇴근할 수 있었다. 즉 한 조에 속한 20명이 할당받은 양을 분업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작업자마다 숙련도에 차이가 있어서 다른 조원이 일을 늦게 하면 자신의 작업도 늦어져서 늦게 귀가를 했다고 한다.

양금순 : 일감이 많지요, 책임량을 주면은. 그러니께 (미망인이) 101명이 왔으니께 한 조가 20명, 다섯 조야, 여그 벽산아파트 자리가. 다섯 조가 일을 하면은 잘 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못 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느질을. 밑에서(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안 나오면 욱(위)에서는 놀고, 여기서는 꾸부리고 앉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이 바쁘잖아. 납품이 바쁘면은 책임량을 줘요. 그러믄은 다른 사람은 3시에도 나가고 2시에도 나가고, 손이 빠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조는 2조였었는데, 우와기(웃옷) 조였어. 저 욱(위)에서 꾸무리고(늑장 부리고) 있고 여그서는 놀고. 20명이 하나하나 해 가지고 저그서 옷이 딱 떨어지잖아요. 긍게 못 나간 거여. 5시 반, 6시까지. 그렇게 했어요.

재활원에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으며, 오전 10시와 오후 3시쯤 약간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점심은 대체로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고, 쉬는 시간에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짬을 내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도 했다.

양금순 : (쉬는 시간에는) 수다 떨고 그러지 뭐. 자고, 또. 옷이 많잖아요. 그놈 속에 팍- 파묻혀 덮고 자요. 그러면 한 잠씩 자요. 한 10분, 15분? 그 순간에는 또 깜박 자요. 피곤하니까.

이와 같이 재활원에서의 노동은 하루에 8~9시간이었으며,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당시 4,000원이었고, 점차 조금씩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월급의 인상 방식은 근무연수나 숙련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선별적으로 인상을 했다.

양금순 : 봉급을 올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려 줘야 되는데 다 못 올려 주니까. 거기서 몇 사람만 올려 준 거야, 잘하는 사람만. 그래 갖고 인제 시험 봐 가지고 올려 주는 거야. 우(위) 아래 군복 한 벌을 딱 말아 가지고 다이(대)에다 갖다 놓고 종 딱 치믄 인제 하는 거야. 거서 1등 하면은 (상을 타). 그것도 바느질 땀도 13땀,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래가 13땀 하고서 일등 하면은 상 탔어. 금반지 탔다니까.

양금순은 4,000원의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자녀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저녁에 집에 와서 삯바느질을 했다. 당시의 노동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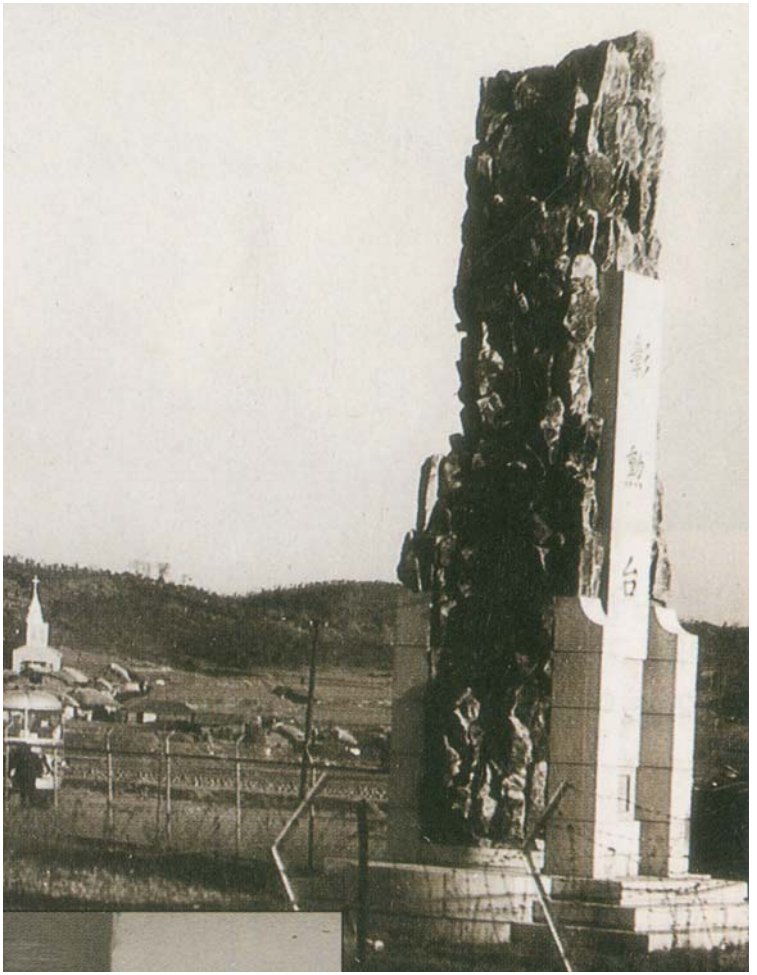
월급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금순이 재활원에서 받은 돈은 취업자의 평균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2년 3월에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취업자의 평균 봉급 조사에 따르면, 당시 단순 노무자의 평균 월급이 2만 7,286환, 기능직 종사자가 3만 1,981환이었으며, 전체 취업자 평균은 4만 1,000환이었다.[36] 1962년 6월 통화개혁 후 화폐단위가 환(圜)에서 원(圓)으로 바뀌고 10환이 1원으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당시 양금순이 받았던 4,000원은 개혁 이전의 4만 환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재활원에서 받는 급여는 당시 취업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금순은 때로 외상으로 매점에서 쌀을 사 먹기도 했고, 아들의 수학여행비도 내주지 못할 만큼 어려워 밤에 삯바느질을 했다. 1962년 말 서울의 도매물가는 쌀 한 가마가 1,910원, 찹쌀 한 가마가 2,400원이었다는 점을 볼 때,[37] 4,000원의 월급은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빠듯한 금액이었다.

미망인들의 생활공간이었던 모자원은 근대식 건물로 한 동에 8평씩 두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내부에는 방 두 개와 부엌이 있었으며, 개별 가구가 사용하는 화장실과 빨래하는 곳이 외부에 있었다.

> 양금순 : 방이 두 개였어. 화장실은 밖에가 있고. 거가(건물 외벽에) 붙어 있어요. 쬐깐한 거 있어요, 밖에가. 밖에다 붙여 놨더라고. 그리고 부엌은 쪼끄막한 거. [방을 반으로 나누는 시늉을 하며] 여그서 요만이나 해. 그래 갖고 거그다 탄불 때갖고 밥 해 먹고 그랬어.

건물 내부에 있던 부엌은 방에서 신을 신고 내려가는 곳으로 흙바닥이었다. 부엌에는 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시멘트로 조그만 개수대를 만들어 음식 재료를 씻거나 다듬을 수 있었다. 찬장은 따로 없었고 사과상자 등을 활용하였다.

> 양금순 : 수도에 따라서 (개수대가) 있어. 딱 요만한, 요만한 거. 그러니까 거기서 쌀 씻고, 뭐 씻거 먹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물 버리고. (빨래는) 밖에서 빨라면 호수만 대면 밖에서 빨래 빨고.



창훈대와 창훈대교회(창훈대교회, 『창훈대교회 40년사』, 2004)

전북 정읍에서 살다가 수원의 모자원에 입소한 양금순은 모자원의 시설이 편리하고 좋았다고 한다. 또한 시집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미망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서 "낯선 곳이라도 똑같은 사람들끼리 왔으니까 좋"고 편했다고 한다. 모자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미망인들은 어려운 처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동네

이웃이었으며 직장 동료였다. 이처럼 모자원은 미망인들에게 일상을 함께하며 슬픔과 즐거움을 나누는 생활공동체였다. 특히, 양금순은 1964년에 모자원 근처에 세워진 창훈대교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는데, 이때부터 같이 교회에 다녔던 미망인들과는 가족처럼 지냈다.

> 양금순 : 네, 여기 오니까 공장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마음이 편해. 친한 친구는 교회 교인들. 그때 63년도서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왔거든. 그런 사람들이 한 여나므 명 돼요. 그런 사람들은 형제간 같이 살죠. 교회 지을 때도 공사하고, 밥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손이 맞으니까 항상 친구가 아니고 형제간 같으지.

이와 같이 모자원이 생활공동체이자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입주해 살았던 전쟁미망인들은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쟁미망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처우가 낮았던 시절 그녀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3. 전쟁미망인의 지위와 역사적 의미

한국전쟁 후 발생한 수십만 전쟁미망인의 존재는 1950년대 사회질서와 담론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전쟁미망인의 발생은 '어머니 중심 가족'[38]을 증가시켰으며,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전쟁미망인의 지위와 전쟁미망인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미망인의 발생은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렸으며, 이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여성노동을 가시화하였다. 그동안 서민층 여성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산적 노동에 참여해 왔지만, 이는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전후 전쟁미망인 가족을 비롯한 '어머니 중심 가족'의 증가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이 비약적으로 늘면서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다음의

잡지 기사는 전후 남성 부재의 현실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 출정한 남편을 대신하여 전사한 행방불명인 남편과 아들을 대신하여 후방 고향의 농사는 젊은 아내와 노모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향 각지 시장에 나타난 광주리 행상에서부터 노점, 점포를 막론하고 크고 작게 자리 잡은 대다수의 상인들은 다 여성들이며 일가의 주부로서 수입이 부족한 가정의 남편을 도웁고 출정 전몰 납치 가족의 어머니로서 어느 남편과 아들에 못지않게 굳세게 싸우고 있다.[39]

둘째, 여성이 피부양자의 위치에서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부양자가 됨에 따라 가족과 사회 내에서 지위가 높아졌다. 가정 내에서는 가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고,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 법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기혼여성 노동인구의 증가는 1950년대 여성 노동 분야에서 모성보호 논의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당시 민법상 '처의 무능력' 조항을 폐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쟁 이전 많은 기혼 여성들은 경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의 재산도 남편을 통해 행사하였다. 1950년대에 적용되었던 구민법이 결혼한 여성을 법적 무능력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하거나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여성이 법적 주체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었다.[40] 따라서 전쟁미망인들은 남편의 부재로 인해 독자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차후 신민법에서 '처의 무능력' 조항을 폐지하는 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전쟁미망인의 존재는 근대 가족의 핵심 요소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가져왔다. 주지하다시피, 현모양처는 아동 양육과 가사의 합리화 및 과학화를 추구하는 여성 주체로서 근대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남성은 공적 영역을, 여성은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근대적 성역할 분담론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모양처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가사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이는 중상류층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 이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전후 발생한 수많은 전쟁미망인들은 남편의 월급으로 가정

을 꾸리고 아동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당시 만연했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가져왔다. 전쟁미망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활동은 1950년대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괴리를 불러왔다.



1. 『청포도』의 체제와 성격
2. 『청포도』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지위
3. 교육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

이혜영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02 1950~1960년대 여학생들의 여성 역할 인식과 사회 진출

_ 수원여고 『청포도』지 분석을 중심으로

1. 『청포도』의 체제와 성격

8 · 15해방은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학교 교육을 보편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에서 남녀평등은 중요한 근간이 되었는데, 초등의무교육의 실시와 남녀 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남녀 공학제 실시, 여교장 임명 등의 교육정책이 마련되었고 여성교육의 기틀이 확립되었다.



1950년 발간된 『청포도』 창간호(수원여자고등학교 소장)

이 글에서는 해방 후 확대된 교육기회에 따라 여성들의 삶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전파된 여성 담론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여학생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발간한 『청포도』를 분석하였다.

『청포도』는 1950년 창간호가 간행되었으나 전쟁으로 휴간되었다가 1956년 속간

되어 지금까지 매년 1년에 한 권씩 간행되었다. 주목할 점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교사논단' , '기획란' , '특별기고' , '학생연구란' 등을 통해 당대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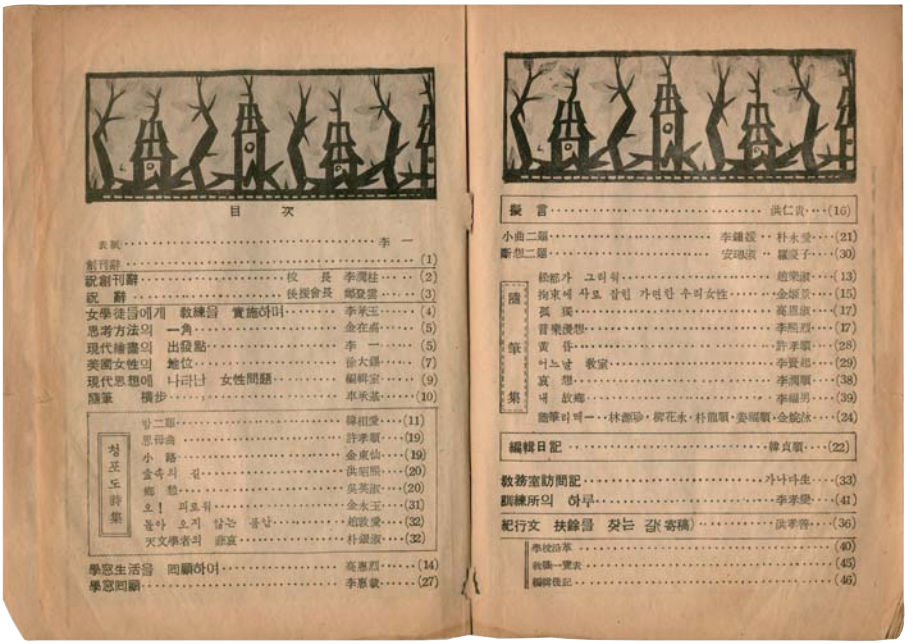
1950~1960년대 수원여고 교지 편집위원들은 교지가 문예지의 단계를 넘어 학생들의 경험이 드러나고 다양한 인식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 으로 만들어 지기를 바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청포도』에 발표된 작품들은 당시 여학생들의 현실인식과 여성에 대한 의식, 즉 여성의 현실 참여를 비롯하여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청포도』에는 교사 또는 사회 인사들이 사고하는 여성의 역할과 여성 교육의 내용, 졸업생들의 사회적 경험 등이 담겨 있다. 결국 『청포도』는 해방 후 여학생들의 일상적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고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자, 여성 담론이 유통되는 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포도』는 이 시기 교육현장에서 형성된 여성 담론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



교지 편집위원들의 모습(제14회 졸업생 신현채 제공)

〈표 1〉 1950~1960년대 『청포도』의 체제

제1호(1950)		제11호(1966)	
머리글	창간사	머리말	『청포도』지에 부치는 글
	축창간사		바라는 마음
	축사		인생설계
논단	여학생들에게 교련을 실시하며		거들 줄 아는 인간이 되라
	사고방식의 일각	교사논단	American English란 무엇인가
	현대회화의 출발점		가정관실습을 통한 여성으로서의 자질향상
	미국여성의 지위		우리의 가난과 금리현실화
	현대사상에 나타난 여성문제	특별기고	독일과 이탈리아 가곡의 비교
	수필 횡보(橫步)		첫 시집을 내고
청포도 시집	밤 이제(二題)		우리 고장의 자랑
	사모곡		내가 본 수원여고
	소로(小路)	학생연구란	탁아소 운영안
	숲속의 길		상점 경영안
	향수	회상기	학생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오! 괴로워		창가에서
	돌아오지 않는 품안	기자탐방	옛 스승을 찾아 한양 천리길
	천문학자의 비애		신혼 가정을 찾아서
회상기	학창생활을 회고하여		홍영선 선생님 댁 방문
	학창회고	견학기	
제언		좌담회	
수필집	소곡이제(小曲二題)	실습기	현장 실습을 마치고
	단상이제(斷想二題)		화성군 농촌지도소 실습을 마치고
	송도가 그리워	감상문	
	구속에 사로잡힌 가련한 우리 여성	일기	
	고독	서간문	
	음악 만상(漫想)	기행문	
	황혼	교내백일장	
	어느 날 교실	시원(詩苑)	
	애상	수필	
	내 고향	문예소품	
	수필 리레	꽁트	
편집일기		창작	
방문기	교무실방문기	특별활동 상황	
	훈련소의 하루		
기행문	부여를 찾는 길		



目 次

卷頭 …… 李 一
創刊辭 …… (1)
祝創刊辭 …… 校 長 李潤柱 …… (2)
祝 辭 …… 後援會長 鄭登雲 …… (3)
女學徒들에게 敎練을 實施하며 …… 李永玉 …… (4)
思考方法의 一角 …… 金在卓 …… (5)
現代繪畵의 出發點 …… 李 一 …… (5)
美國女性의 地位 …… 徐大錫 …… (7)
現代思想에 나타난 女性問題 …… 編輯室 …… (9)
隨筆 橫步 …… 車承基 …… (10)

청포도詩集
밤二題 …… 韓相愛 …… (11)
思母曲 …… 許孝順 …… (19)
小 路 …… 金東仙 …… (19)
숲속의 집 …… 洪昭熙 …… (20)
鄕 愁 …… 吳英淑 …… (20)
오! 피오줘 …… 金永玉 …… (31)
돌아 오지 않는 공난 …… 趙敬愛 …… (32)
天文學者의 夜宴 …… 朴銀淑 …… (32)

學窓生活을 回顧하여 …… 高惠四 …… (14)
學窓回顧 …… 李惠敬 …… (27)

髮 言 …… 洪仁貴 …… (16)
小曲二題 …… 李鍾援 · 朴永愛 …… (21)
斷想二題 …… 安珊淑 · 羅愛子 …… (30)

隨筆集
都會가 그리워 …… 趙榮淑 …… (13)
拘束에 싸모 잡힌 가련한 우리女性 …… 金順景 …… (15)
孤 獨 …… 高惠淑 …… (17)
音樂漫想 …… 李熙烈 …… (17)
黃 昏 …… 許孝順 …… (28)
어느날 敎室 …… 李賢祖 …… (29)
哀 想 …… 李潤順 …… (38)
내 故鄕 …… 李福男 …… (39)
隨筆미덕 …… 林鼎珍 · 權花永 · 朴龍順 · 姜福順 · 金銀沐 …… (24)

編輯日記 …… 韓貞順 …… (22)

敎務室訪問記 …… 가나다生 …… (33)
訓練所의 하루 …… 李孝愛 …… (41)
紀行文 扶餘를 찾는 길(寄稿) …… 洪孝善 …… (36)
學校沿革 …… (40)
執筆一覽表 …… (45)
編輯後記 …… (46)

『청포도』 창간호 목차



청 포 도 〈제 11 호〉 차 례

卷頭言 …… 김학두
「청포도」여 무지는 말 …… 박정 외 …… (1)
바라는 마음 …… 최희정 …… (1)
人生設計 …… 정옥순 …… (1)
새학기 여는 인상이 되라 …… 수원공업고등학교 …… (1)

과외활동
Australia English …… 교사 홍 순 …… (2)
우리의 자랑과 문제점들 …… 교사 최 순 …… (2)

특별기고
Decently Easy …… 한인철 …… (3)

학생연구난
…… (6)
…… (6)

시 가
…… (6)
…… (6)

문 예 란
…… (7)
…… (7)
…… (8)

화 단 희 …… (8)

수 필
…… (10)
…… (10)
…… (10)

서 간 문
…… (11)
…… (11)

기 행 문
…… (12)
…… (12)

고 대 백 일 장
…… (13)
…… (13)
…… (14)

수 필
…… (14)
…… (14)
…… (15)

시 작
…… (15)
…… (15)
…… (16)

편 집 후 기 …… (16)

『청포도』 제11호 목차

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하는지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청포도』을 통해 1950~1960년대 여학생들에게 전달된 여성 담론의 내용과 여학생들의 여성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다.

2. 『청포도』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지위

1) 1950년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1950년대에는 의무교육의 실시로 남성과 여성 간 교육기회의 평등이 제도적 ·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남녀평등이 교육의 중요한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성과 신분 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개방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듯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 현실은 여성에게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였다. 가부장적 규범은 여성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았고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 또는 조력자로 제한하였다. 1950년대는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자녀교육에 힘쓰는 여성을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포도』에서도 이런 글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 원래 여성이란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체요 남편이 돛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성이 삿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산파역이다. 순산만을 바라는 산파는 있을 수 없으며 때 아닌 난산을 각오하여야 한다. 난산에 신경질은 금물이며 어디까지나 온화하여야 할 최선의 성의를 보여 주어야 모든 점에 안심을 가질 수 있다. ……모름지기 여성은 온화하고 강건하고 명랑하고 활발하고 이지적이어야만 한다. 나아가서 어린이 교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에 좌우된다고 본다.[1]

이처럼 이 글은 가정을 여성의 모체로 규정하고 가정에서 남편이 돛대, 여성이 삿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이들 문제도 여성의 태도에 좌우되므로 가정의 분위기와 아이들 문제를 위해서 여성은 항상 온화하고 명랑하며 이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은 자녀교육 담당자이자 가정을 관리하는 존재이다. 여성의 역할을 산파에 비유하며 가정 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상 현모양처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여성의 위치를 가정 내에 두며 한 가정의 흥망은 여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내치론과 내용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을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부덕을 갖추고 가정 내에서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형화하였다. 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은 사회 참여나 직업을 갖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여성이 가정의 재산과 금전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당시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는 현실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 여성은 모든 조건이 사회에서 열렬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 여성은 가정을 경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특히 아국으로서는 가장 적임인 줄 생각한다. 결국 가장 건전한 국가를 이루려면 첫째 건실한 가정을 이룩하여야 되며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은 주부에게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고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여성들조차 결혼 후 사회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가정 내의 역할과 지위에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였던 것이다. 대다수의 직종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으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관례로 통하던 상황이었기에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가정 내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 결혼 청첩장은 으레 사표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 더 다녀 볼 생각도 못했어.[3]

> 결혼한 여교사들 책상을 말도 없이 치워 버리는 거야 사표 써라 이거지.[4]

이렇듯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의 삶이 구성되어 갔다. 즉 "남편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며 가정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자녀교육을 위해 애쓰는 '현모양처'가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자리매김하

였다.

한편 주부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역할론이 나타났는데, 재래(在來)의 주부는 남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라 인식하였으나 지금의 여성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재래의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 폐단으로 말미암아 임기응변의 기만이 생기고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종래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창의적, 능동적, 자유의 원리에 의한 주부의 가정 경영 참여가 있어야만 명랑한 사회의 단위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창의적이고 능동적이요 자유의 원리에 의한 주부의 가정 경영 참여가 있어야만 명랑한 사회의 단위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와 가정과 나와의 연관과 유기성을 각성하고 부여된 주부의 새로운 책무와 역할을 다할 협력과 정성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이 책무와 역할의 순행은 명랑하고 도의적인 Home-maker로서의 굳건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공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5]

여기서 창의적, 능동적, 자유의 원리에 의한 가정 경영자는 '홈메이커'라 일컬어졌다. 진정한 홈메이커는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그치지 않고, 주부로서의 부덕을 갖춘 동시에 능동적이며 자유의 원리에 의해 가정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근대적 여성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홈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려면 주부로서의 소양과 재봉, 수예, 요리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했다. 이처럼 여성이 속한 가정 안에서 가사 개량의 주체로서 좀 더 창의적, 능동적, 자유의 원리에 의하여 가정을 경영하는 것을 새로운 여성상으로 제시하며 이전의 주부 역할과 차별화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과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여성들의 가정 내 활동은 곧 사회 · 국가 건설에의 기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전한 국가를 이루려면 건실한 가정"을 이룩해야 하는데 그 기초를 주부로 전제하고 여성들은 "명랑하고 온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힘쓰고 가족의 화목과 가정 경영 및 관리를 잘함으로써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주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모양처로 교육되고 있는 여학생들한테




수원여고 학생들의 요리 · 재봉실습 광경(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958)

도 설득력을 얻었다. 조연희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학생이 되자」에서 민주현모양처로서 남편을 잘 받들고 제2국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곧 사회와 국가에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국가와 사회의 구성요소는 가정이며 또한 가정의 핵심요소는 주부에 있다 할 것이다. 각 개 가정이 안정되고 평화스러우며 명랑한 데에서 사회의 안정이나 평화가 지속 발전될 것이요.[6]

> 우리 젊은 여학생들이야말로 가정이나 사회를 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로이 생각하여 우리들의 위치 의무에 대하여 방관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학생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민주현모양처로서 남편을 잘 받들고 제2국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사회와 국가에도 봉사하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7]

이러한 인식의 기반은 여성들의 교육기회 확대, 남녀평등권의 보장,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아가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비록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에서 비롯되었다. 여성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접합점을 찾기 시작하였다. 가정 내에서 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곧 새로운 사회 ·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내면화하였다. 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이 진학이나 취직, 사회 진출보다 중요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감내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가정에서 홈메이커로서의 역할 수행이 곧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가치를 수용하였다. 과거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성들의 부속물로 남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가정 경영의 주체가 되어 가정 경리와 자녀의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1950년대 지배적인 여성 담론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제한하고 홈메이커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전후 질서의 회복과 근대화라는 국가적 위업 속에서 여성들을 어머니와 아내 역할로만 고정하고, 국가 구성의 한 분자로서 사회 참여의 방식을 가정 경리, 자녀교육과 남편 내조라는 방식으로 환원한 것이었다.

2) 1950년대 여성 담론의 균열

현모양처는 근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여성상이었다. 그러나 현모양처라는 여성 담론은 시대적 ·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특히 1950년대에는 여성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가정 경영의 주체인 '홈메이커' 로서 규정하면서, 과거의 현모양처와는 차별화되는 근대적 주부로 인식하였다.

한편 홈메이커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상징해 주는 대표적 여성상이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의 활동에만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진출을 통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에 대한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은 여성들이 가정에 얽매여 속박당하는 삶에 대한 불만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경험하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 석양을 바라보고 섰든 나의 머릿속에 다시금 "언제나 이 구속된 가정에서 여성을 해방시

> 키느냐." 아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비애와 애닯음을 느끼게 하였든가 나에게는 자유도 교육도 권리도 이해하여 주지 않는 가정! 사회에서는 남녀동등을 부르짖는 오늘이건만 가정에서 용서치 않는 여성의 자유이며 희망이요 권리였으며 오로지 구속의 죄악하에 비참한 우리 여성의 삶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에게는 자유와 포부 남녀동등을 부르짖을 만한 능력조차 소멸된 오늘이었다. 그것은 구속의 쇠사슬로 나의 몸을 포박한 까닭이다.[8]

> 우리는 아직도 여성을 가정 속에 속박시키고 이것을 도덕 내지 부덕이라고 이릅니다. 사회는 우리들 여성에게 너희들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너의 남편과 너의 아이들에게 만족하여야 한다고 종언합니다.[9]

1950년대 여학생들은 『인형의 집』을 읽고 여성의 자아 각성과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 깊은 공감과 동경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여 가정이라는 곳을 자유도, 교육도, 권리도 이해해 주지 않는 곳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형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자유와 희망은 짓밟히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절규하였다.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처럼 어버이의 손에서 남편의 손으로 양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여성문제는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0] 또한 개인으로서의 도덕은 근본정신에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성에게만 부덕을 강조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을 사회적으로 속박하는 부덕을 강조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당대의 여학생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이같이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페미니스트이거나 배운 여성이기에 가진 엘리트적 소양 때문만은 아니었다. 시대적 관습에 얽매여 구속받는 어머니나 선배, 동료들의 삶을 목도하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그들이 감내하며 겪어 왔던 경험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사실 1950~1960년대만 하더라도 여학생들의 배움은 결혼을 위한 '스펙' 중의 하나로 통하였다. 수원여고만 하더라도 신붓감을 고르기 위해 미래의 시어머니들이



수원여고 학생들의 「인형의 집」 공연(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959)

학교 주변을 서성거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 졸업 후 신부수업을 받는다거나 결혼 전까지 적당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불편한 시선과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제한성, 남녀 성차에 따른 사회구조적 불평등 등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으며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사회 진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남녀차별이라는 사회적 장벽은 여성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는데, 이러한 것은 다음의 글을 통해 짐작이 가능하다.

> 이 과대히 받은 교육, 가정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받은 교육의 용도는 어데 가서 찾겠습니까. 여성이 받은 교육이 무용의 폐물이 되고 말진대 여성의 전문교육 아니 고등교육까지도 불필요할 것이며 여성에는 간단한 학과 속법, 서법, 산수만의 교육으로서 충분할 것입

니다. 말하자면 고등학과로서는 다만 화장법, 운동 구락부를 즐길 수 있는 요령, 매력 있는 주부가 되는 법, 유아취급법 등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까.[11]

여성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행하면서도 가정의 안주만을 종용하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은 배운 여성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능숙한 주부가 되는 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성교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사회적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여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과 법적 지위의 보장이 곧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보았다.[12] 따라서 여학생들은 학교 졸업 후 집에서 결혼할 때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지 말고 여성이 찾은 법적 권리에 분발하여 여성 자신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역설하고 있다.

여성이 찾은 법적 권리에 분발하여 여성 자신의 지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여고를 졸업하고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낸 뒤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하여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선배들이 많았었든가? …… 여성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리를 위해서라도 사회 전반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야 될 것이며, 그러므로서 우리의 염원인 민주주의 사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워질 것이라고 믿는다.[13]

더 나아가 이 시기 『청포도』지에서는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을 언급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이전과 달리 여성들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므로 남성에 뒤지지 않도록 경제적 · 지식적 실력을 배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이 근로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인으로 한몫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 지금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고 남성들과 동일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었으므로 …… 경제적 능력과 지식적 능력을 배양하고 고매한 인격과 근로정신으로 국가사회에 상부 협조함으로써 대한의 여성을 빛내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4]



개량된 작업복을 농촌부녀자에게 보급하는 가정교도원 (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특히 농촌 여성의 유휴노동력에 주목하고 그 활용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였다. 여성의 노동력이 생산으로 이어질 때 여성이 농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물론 농촌의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해 왔던 출산과 육아, 가사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즉 가사와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화가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성 자신들의 삶은 고단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참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 여성은 출산과 육아의 천직이 있다. 동시에 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아모런 방도도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야 공동기관을 가지고 있다.[15]

이처럼 여성들은 전후 복구와 국가 건설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간소화와 육아와 출산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을 사회적 생산으로 연결하여 경제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산의 참여와 경제활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사노동의 간소화와 출산 · 육아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고 고민하는 흔적들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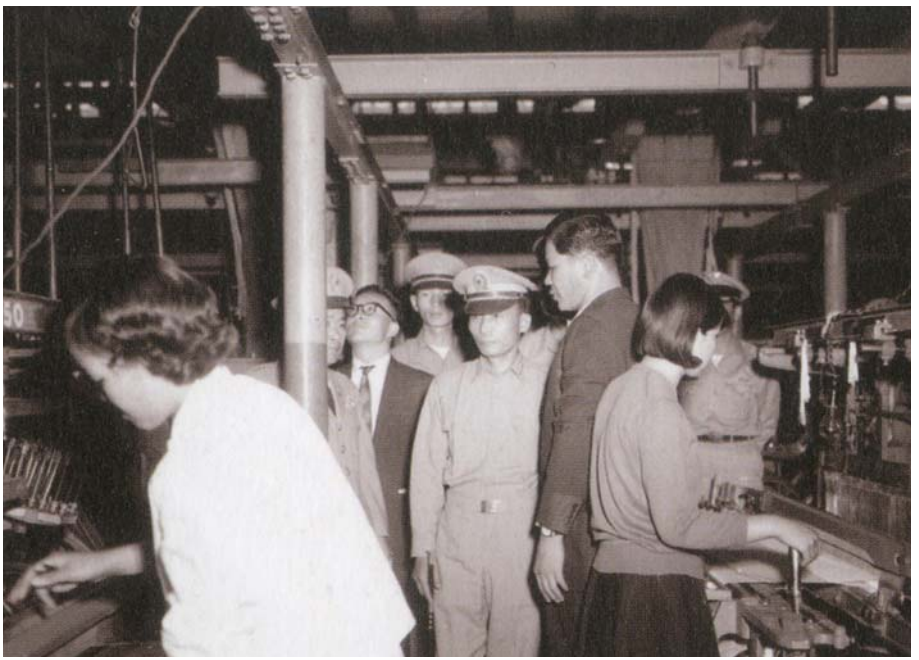
하지만 여성이 직업을 가질 경우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회적 편견과 출산 · 육아 · 가사 문제는 오롯이 여성 개인이 풀어야 할 몫이었다.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생산 참여를 주창했지만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는데,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첫째 가정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여성의 사회활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전후 복구와 국가 건설이라는 당면과업 속에서 여성들의 생산 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함께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여성이 될 것을 부여받았지만, 여자의 직업은 남자와 달리 가정에서의 책임과 도의를 다하고 가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의 범주에서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 발전 기여라는 거창한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여성의 사회 진출로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공백과 남녀차별이라는 사회의 장벽은 여성들이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3) 1960년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1960년대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조국 근대화론이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요한 인적 자원이자 조국 근대화의 보조자로 남성과 함께 국가 재건에 참여해야 할 대상으로 호명되었다.

> 그대들은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이었다. 도탄에서 허덕이는 조국을 구해 내고저 가냘픈 몸이 노도와도 같은 대열 속에 뛰어들어 목매어 울부짖던 대한의 딸들이었다. …… 경제적 안정이 없이 문화적 향상은 없는 것이다. 부의 창조자는 여성이라고 어떤 경제학자는 말하였다. ……

> 세기의 딸들아! 누가 그대들을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하겠는가? …… 서독 역시 한국과 비슷한 실정에서 우리 이상의 경제면에 곤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경과된 오늘날 그들은 어느 국가보다도 행복된 생을 영위하고 있다 한다. 물론 유리한 조건도 갖추



1961년 선경직물을 방문한 박정희와 여성 노동자(선경,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 어 있지만 이것 역시 그 나라 여성들이 국민경제발전에 큰 공적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란다. 그 여성들은 경제적 자주성과 인내성으로 근면하여 실질적인 생으로 빈곤한 역경을 극복하였다.[16]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공적인 영역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졌다. 여성들은 기간산업의 확충과 수출 증대, 근대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경제 개발을 통한 조국 선진화의 열망을 국가와 공유하였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가족에게 봉사하는 삶을 여성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던 관념에서 점차 탈피하여 여성의 영역을 사회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바람직한 근대적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생산자이자 부의 창조자로 대변되었다. 자녀교육을 잘 수행하여 위대



1962년 수원여중고 재건학생회의 학생회날 집회(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962)

한 지도자나 위인을 생산하고 사회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담당자로 칭송되었다.[17] 자녀교육과 가정을 위해 경제적 노고도 마다하지 않으며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은 여성 고유의 특성으로 회자되었다. 여성은 꽃이 아니라 뿌리와 같은 존재로 불렸고 힘의 근원으로 상징되었다.

> 여성을 흔히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하지만 실상은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 독일의 불사조 같은 재기의 힘의 근원은 아무래도 독일 여성들인 것 같다. 독일 여성들의 그 착실하고 명랑하고 활발하고 끈기 있고 알뜰하고 실속 있고 또 억척스러운 진취성이 독일을 오늘의 번영으로 끌어올린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여성들을 찬미하듯이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찬미하는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게 하라. 그날이 곧 이 민족이 광명을 맞이할 날이 될 것이다.[18]

일선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독일은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다. 불사조 같은 독일의 힘은 독일 여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독일 여성들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

적을 앞다투어 소개하였다. 한국보다 경제적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어느 국가보다도 행복한 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독일 여성들의 경제적 자주성과 근면하며 빈곤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19] 독일 여성들의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독일의 번영을 이끈 주역으로 한국 여성들도 독일 여성들과 같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가정 영역에 한정되었던 희생과 봉사의 모성은 사회적 범주로 확장되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요청되었다.

1960년대 가난은 죄이자 민족 최대의 악이며 근대화에 역행하는 것[20]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는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여성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다.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인내하는 모성은 국가 발전과 사회이익을 위해 그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담론들이 모색되었다. 이제 희생과 봉사하는 여성상은 국가 건설과 근대화에 기여하는 모성으로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재탄생되었다.

> 부의 창조자는 여성이다. 대한의 딸들아! 귀족연 하지 말자. 이는 망국노의 가는 길이니 경우와 처지에 따라서는 삼베 치마에 호미자루를 들고 혹은 공장으로 뛰어들 용기를 갖자. 허영과 허위를 버리고 절약하며 검소하고 근면하며 책임감 있는 그리고 올바른 사물의 판단력과 지혜를 가진 신축성 있는 여성이 되자.[21]

가정의 모성과 사회적 모성의 근간은 희생과 인내로 형상화되었으며, 가정 안에서의 모성이 사회적 영역의 실천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즉 여성의 인내와 근면은 1950년대까지 가정의 범주에서 모성과 관련하여 사유되었으나,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근대화 프로젝트와 결합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사회적 모성으로 표상되었다.

여학생들도 이러한 사유체계를 흡수하면서 이를 내면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삯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악착같이 살아서 애들도 내 힘으로 훌륭히 공부" 시키는 어머니상[22]을 교훈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한여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새우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 고생을 낙으로 알고 참아 가

는 엄마"[23]를 여성의 참모습으로 그려 나갔다.

> 악착같이 살아야지 살아서 애들도 내 힘으로 훌륭히 공부시켜야 한다. 이 세상에 노력만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인수 아빠도 늘 그러셨어 하며 더 열심히 재봉틀을 돌렸다.[24]

> 한여름을 지새우며 허리를 졸라매고 허리띠로 양식을 하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 고생을 낙으로 알고 참아가는 엄마의 참모습에 이 딸은 고개를 숙이며 …… [25]

> 한평생을 가난한 살림으로 자식을 키우고 추울가 더울가 걱정하시고 살아가며 늙은 대한의 어머니들 그렇게도 보기 싫은 주름살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지는 것 같다. 여자로서의 나를 배웠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마들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해서 밟지 않아야 한다고 보다 나은 생활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26]

이 시기 여학생들 사이에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만이 여자로서의 임무이고 훌륭한 일은 아니다.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형태로 이상적인 여성상이 응집되어 가고 있었다. 장차 며느리 · 아내로서 습득해야 할 스킬과 기량을 연마하는 시간으로 이해되었던 가정관 실습은 여성의 자질 함양과 협동심 · 책임감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대체되었다. 여학생들은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졸업 후 대학 진학과 결혼 이외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은 자신 스스로를 예비모성자, 잠재노동력 제공자로서 위치 짓고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대비한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업과 진로, 가정과 직업에 대한 고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학생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 그대 소녀들 어린 마음에서의 동경은 대학이지만 꿈만으론 살 수 없는 현실이니까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행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지금 여성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대로 간판을 위한 대학을 가느니보다는 여성다운 직업을 택해 사회 진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27]

이처럼 무엇보다 자신의 행로와 진로를 결정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논리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집에만 있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며 가정형편은 어려운데 진학만을 고집하는 것은 허영과 사치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현실은 꿈으로만 살 수 없으므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행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졸업 후 집에서 신부수업만 받다가 결혼을 한다든가, 대학 갈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진학만 고집하는 것은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라는 시대적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결혼 이후 현실적으로 경제적 문제들이 동반되면서 육아와 가사만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자신이 모성의 담지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난한 대한의 엄마들이 걸어 간 고단한 삶을 똑같이 되풀이해서 밟지 말고 보다 나은 생활을 창조해야 한다."는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28]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요청은 기존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잠재적 노동력인 여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근간이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가정과 가족의 범주 안에 있었던 여성의 모성애를 사회로 확장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희생적이고 근면한 여성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가정 내에서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홈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능력 있는 어머니, 일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능력 있는 어머니, 일하는 아내'는 기존의 현모양처상과 결합하면서 여학생에게 새로운 여성상으로 부상하였다. 즉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 진출을 통해 경제력이 있는 여성이 되거나 조국의 근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성'이기를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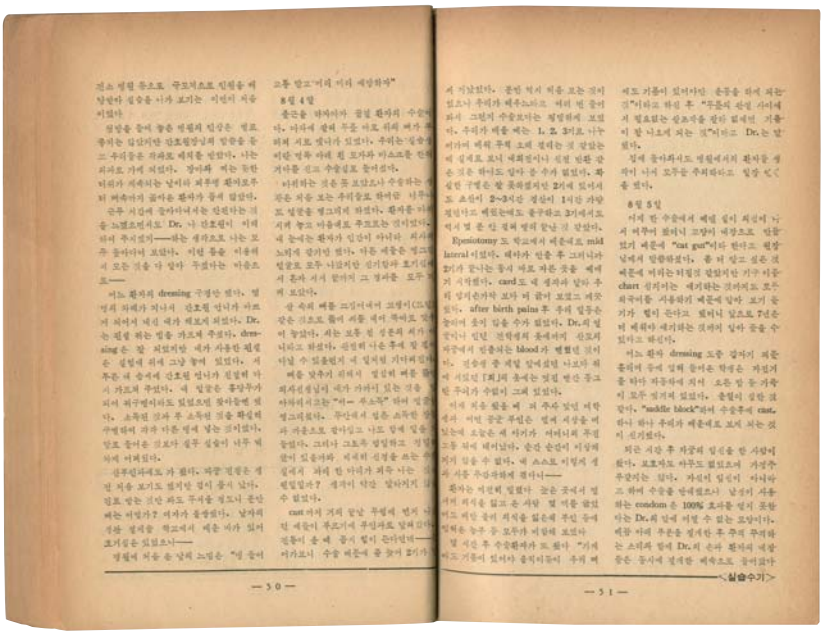

수원여고의 직업교육 광경(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966)

3. 교육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좀 더 많은 사례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학교 안에서 조직되는 다양한 모임과 그 활동 경험, 학교에서 시행한 '직업교육'은 여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수원여고에서도 1961년부터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다.[29] 학교 측은 기존에 인문과 1개 과였던 것을 인문 · 상과 · 가정과 3개 과로 나누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상과 · 가정과 학생들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체제로 개편하였다.[30] 그리고 미진학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대비해 기초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실업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을 확충하고 복선형구조의 실업고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직업훈련교육의 목표는 1인 1기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가정과를 전공한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와 소질, 그리고 취미에 따라서 주전공을 갖도록 하여 가정과 각 학생들에게 5개 분야(아동복, 유아복, 편물, 자수, 공예)에 걸쳐 주전공 코스를 밟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 개편이 실제로 학생들의 구직활동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직장 내에서 구가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려는 학교 측의 직업훈



『청포도』에 실린 이숙자의 「도립병원 실습기」(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965)

련교육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것임은 틀림없다.

수원여고 교지에는 이러한 직업교육의 내용이 '체험기'와 '학생연구란' 등에 실려 있다.[31] 체험기는 20일간의 취업실습 생활에 대한 내용과 경험을 기록하여 싣는 코너였다. 학생들은 직장의 분위기와 업무내용, 예비사회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하였다. 체험기는 단순한 실습생활의 기록 이상의 것으로 취업을 앞둔 여고생들의 진로상담서였다. 졸업 후의 직장 내의 생활상을 미리 보여주고 선택 가능한 범위의 직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체험기에는 은행이나 협동조합, 시청, 군청에서부터 우체국, 병원, 영아원까지 다양한 체험수기가 실려 있다.

이 중 「도립병원 실습기」(고 3, 이숙자)는 여고생이 병실과 수술실에서 실습하면서 겪은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응급실의 상황, 병원의 일상적인 진료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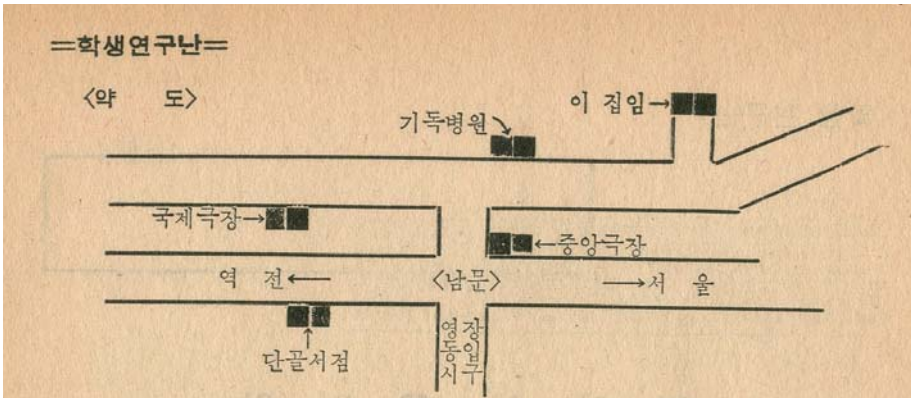
용과 생활, 수술실이 주는 긴장감과 수술 장면 등 간호사 생활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인간적 고뇌 등도 담고 있다. 그날그날의 실습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이 글은 실습이 주는 현장감을 잘 전달하고 있어서 당대의 여학생들의 유용한 취업설명서였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8월 4일
> 살 속의 뼈를 끄집어내어 드릴로 뚫어 쇠를 대어 똑바로 맞추어 놓았다. 쇠는 보통 철 성분의 쇠가 아니라고 하셨다. 뼈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뼈를 뚫던 의사선생님이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어-부소독" 하며 얼굴을 찡그리셨다. 완전히 나은 후에 잘 걸어 다닐 수 있을는지 내 일처럼 기다려진다.[32]

> 8월 8일
> 배를 절개하니 수없이 매달리는 가위모양의 케리와 Hemostate-근육이 늘어난 채 메스는 여전히 파고들었다. 드디어 수없이 겹쳐진 배 가죽들이 모두 중심을 잃은 채 양쪽의 케리와 Hemostate의 줄달이기 속에서 허덕였다.
> 오후에는 물에 빠져 질식해 버린 아이가 실려 왔다. 의사는 청진기를 손에 들기만 한 채 진단을 해 보려는 생각조차 않고 한 번 그 아이의 몸을 만져 보더니 다시는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 담배만 피우고 있는 의사선생님과는 달리 이미 죽은 몸인 줄 알면서도 찬 몸을 부여안고 길길이 날뛰는 부모님의 애처로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돌아서고 말았다.[33]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965년 10호부터는 창업을 기획하는 '학생연구란'이 생겼다. 학생연구란은 창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코너였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벤처기업 CEO가 되어 자신의 창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경영에 관한 기획을 세우고 창업제안서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경영자 또는 창업자가 되어 창업(상점) 경영의 개요, 자본금, 거래처, 점포 위치의 설정 이유, 점원의 채용, 비품 구입 등 경영계획안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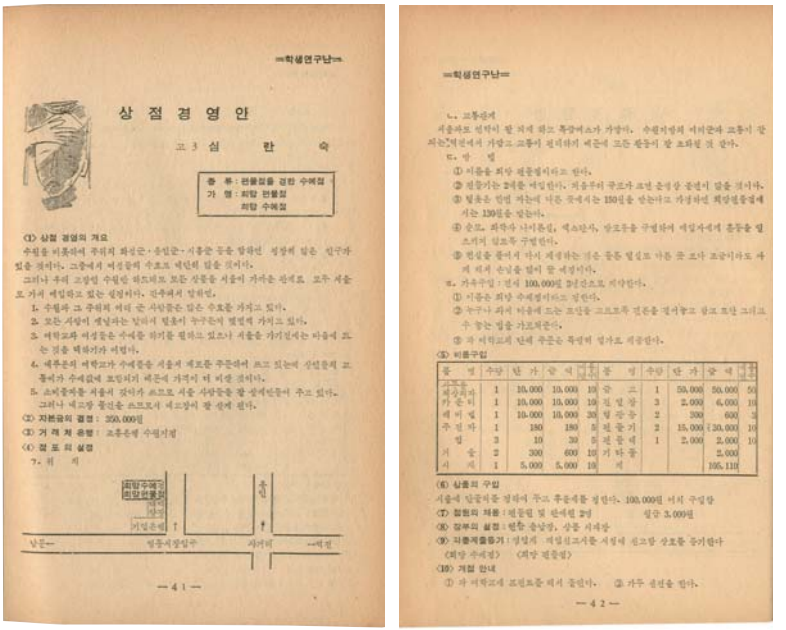
학생들이 작성한 창업제안서를 살펴보면, 창업 동기로는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탁아소 운영안」을 쓴 홍선자(고3)는 한 사람의 수입으로 5~6명의



홍선자의 「탁아소 운영안」에 실린 약도(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965) 버스정류장과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탁아소의 위치를 정하였다.

식구가 생활하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가정불화의 원인이라고 보았다.[34] 따라서 주부로서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면서, 가정과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창업아이템을 잡았다. 결혼청첩장이 곧 사표로 통하던 시절 당대의 여학생들은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을 기획하였던 것이다. 즉 한 가정의 주부로서 좀 더 향상된 가정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가정주부의 역할과 직업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가정주부가 직업여성이 된다면 피할 수 없는 난관, 즉 어린 자녀의 양육문제가 제일의 조건이라고 보고 직장여성들이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탁아소를 창업아이템으로 정하였다. 장소 설정에서도 수원에 탁아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 아이 건강 및 성장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병원 근처로 한다는 점,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새로 지은 살림집이라는 조건 등을 설득력 있게 명시하였다. 「탁아소 운영안」에는 명칭과 함께 ① 취지, ② 자본금, ③ 거래처은행, ④ 탁아소의 설정(장소설정, 교통, 방법), ⑤ 비품 구입, ⑥ 내무원 채용 ⑦ 개점안내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상점 경영안」에서 편물수예점 창업을 기획한 심란숙(고3)은 수원을 비롯한 화성 · 용인 · 시흥군 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편물점과 수예점을 겸한 창업기획 제



심란숙의 「상점 경영안」(수원여자고등학교, 『청포도』, 1966)

안서를 실었다.[35] 상점 경영의 개요에서 여학교와 여성들의 수예에 대한 수요가 창업동기로 열거되고 있다. 특히 수원이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수예품이 유행에 뒤쳐져 서울로 수예 수요자들을 뺏기고 있다고 하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수예점과 강습을 겸한 연구소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새로운 교육을 토대로 보다 주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들을 자각하면서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국가 구성인자로서 그 역할이 주목되면서 여성들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배운 여성으로서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재건과 근대화를 위해 여성들의 생산 참여를 요청하는 사회적 담론 속에서 기존의 여성 역할이나 이미지의 틀을 깨고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가

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여성의 힘은 크다."라는 말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대표적 언사였지만 여성은 남자와 달리 가정에서의 책임과 도의를 다하고 가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의 범주에서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가정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사회에서는 노동의 제공자로 여성상이 구성됨에 따라, 이제 여성들은 능력 있는 어머니, 일하는 아내로서 가정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함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과 가사문제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만능 슈퍼우먼이 되어야 했다. 결국 1950년대를 주도한 '가정 경영의 능동적 주체로서 홈메이커'라는 여성의 표식은 퇴색되고 근대화 사회를 주도할 '능력 있는 어머니, 일하는 아내'는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패러다임이 되었다.



1. 근현대 수원의 가족 변화
2. 수원 여성의 가사노동 경험과 특징
3. 수원 여성의 출산 및 육아 경험과 특징

김은경 | 방송통신대학교 연구교수

03 해방 후 수원의 가족 변화와 가족생활

1. 근현대 수원의 가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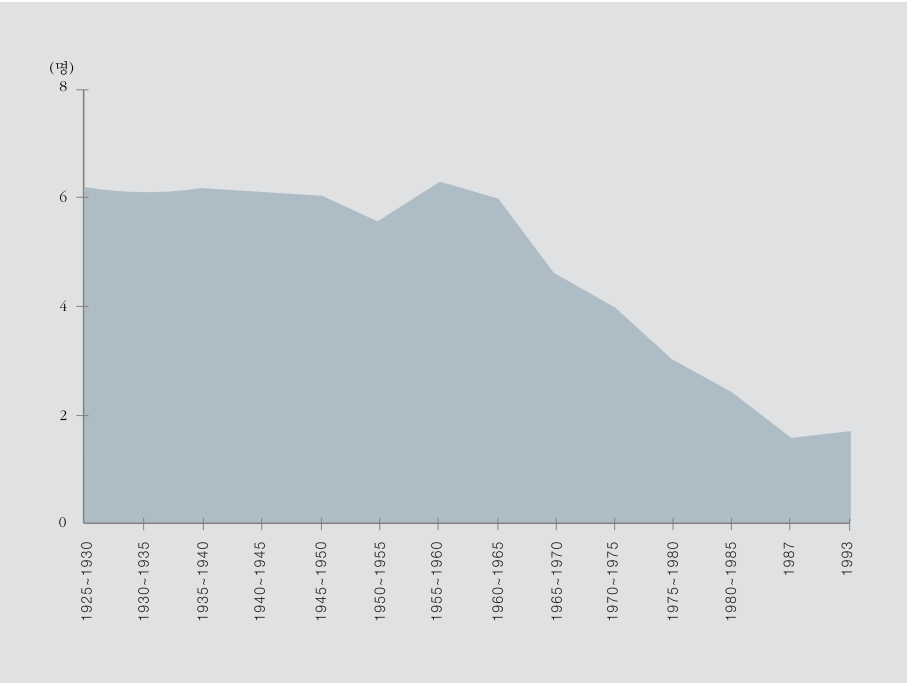
1) 가족구조의 변화

근현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가족은 치열한 근대화 과정을 겪었다. 학자들마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한국 가족은 근대 · 현대화에 따라 그 형태와 구조가 대가족(직계가족)에서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1] 일반적으로 근대 가족의 특징은 핵가족화, 애정적 가족관계, 모성애의 강화(현모양처의 등장) 등으로 이야기된다.[2] 즉,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핵가족의 보편화,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애정적 가족관계, 중산층 전업주부를 모델로 하는 현모양처의 등장이 근대 가족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한국에서 근대 가족으로의 변모는 일제시기 일본식 가제도(家制度 : 이에제도)를 이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국가 아래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족제도를 재편한 것으로, 조선의 종법적 가족질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장남 이하의 아들이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가 됨으로써 핵가족화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1963년 법정분가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한국의 가족 규모는 대가족이 많았다.

여러 세대가 동거하는 복합가족일 경우에도 대가족의 면모를 보이지만, 출산율이 높아 아이를 많이 낳을 때에도 대가족을 형성한다. 따라서 가족의 근대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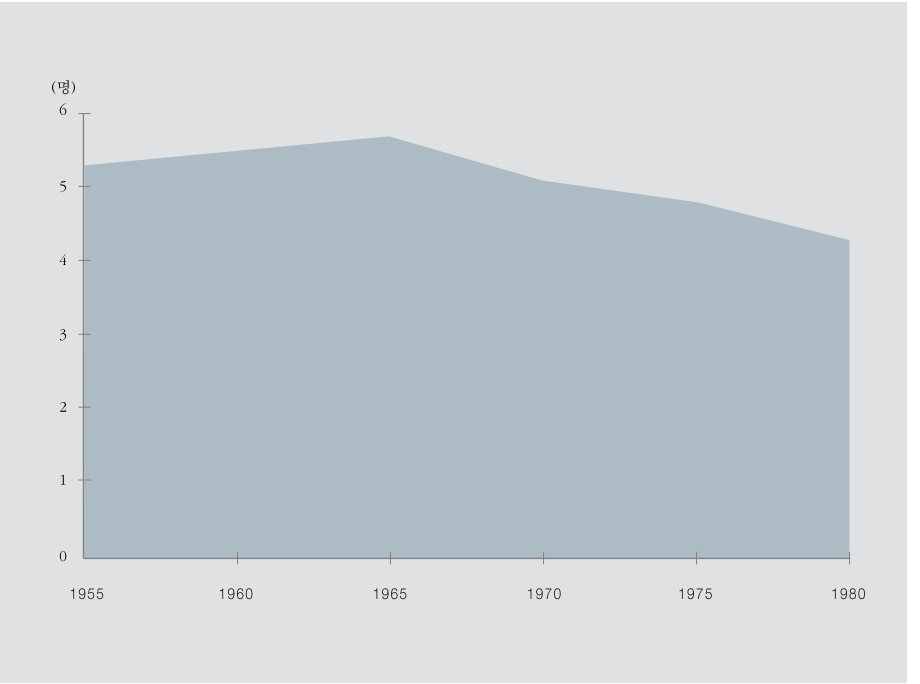
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가구원수의 변화를 모두 추적해야 한다.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1925~1993년 한국의 출산율 변화[3]

한국전쟁기를 제외하면 1960년대 전반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6명 정도였다. 출산율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3~4명으로 줄었고, 1980년대 전반에는 2명,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는 2명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출산율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 규모도 점차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이행하였다.

수원의 가족 규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55년부터 1980년까지 수원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5~1980년 수원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 변화[4]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는 대체로 5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5명 이내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출산율의 변화에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족수가 4~5명 정도로, 평균 출산율보다 낮다. 그러나 이것이 수원의 가족 규모나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60년대까지 전국의 평균 출산율이 6명 정도였는데, 같은 시기 수원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5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은 '1955~1980년 수원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 통계가 실제 가구의 거주자를 조사하는 인구센서스 방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조사는 다른 지역에 일하러 나간 가족수가 실제 조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호적상 가족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



1960년대 5남매(김선희 제공)



1970년대 푸른지대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신현채 제공)

결론적으로, 수원에서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이는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원에서 소가족 혹은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근대 주부와 현모양처 규범의 확산

흔히 신사임당으로 상징되는 현모양처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근대 가족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근대 주부를 일컫는다. '현명한 어머니' 와 '좋은 아내' 라는 뜻의 현모양처는 근대 국가의 2세 국민인 아동을 양육하는 주체이자, 남편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설정된 주체이다. 전통시대의 여성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아동교육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근대적 지식을 갖춘 현모양처는 집에서 아동 양육과 함께 교육을 책임진다. 또한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해 가족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한다. 전통시대 주부의 역할이 봉제사(奉祭祀)와 손님 접대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현모양처는 자녀 교육과 남편 내조를 중시한다. 따라서 현모양처는 전통시대의 주부상이 아니라 근대의 주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동의 형태는 공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인 노동과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가사노동으로 이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노동을 담당하는 주체이고,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차별적인 성역할 분담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성별이분법에 의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주체는 남성(남편)이 되고, 사적인 영역에서 남편의 휴식과 가사를 전담하는 주체는 여성(주부)이 되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와 근대 가족이 등장하면서 근대 가족의 여성상으로 만들어진 현모양처는 남편이 봉급생활자인 중산층 전업주부를 모델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며 아이를 키우려면 남편의 월급만으로 가족의 재생산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취업주부나 남편의 월급만으



1950년대 수원여자고등학교 가정관 실습(신현채 제공) 여학교에서는 교육 목표를 현모양처 육성으로 정하고 가정관 실습을 하였다.



1960년대 수원여자고등학교 요리 실습(이은자 제공)

로 살림이 어려운 하층 주부는 현실적으로 현모양처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모양처 규범은 일제시기부터 1960~1970년대에 여성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며, 사회 전 계층의 여성 규범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 역할이 근대 가족의 주부 역할로 고착되면서 많은 여성들은 그들의 조건과 계층에 상관없이 결혼과 동시에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중산층 전업주부는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가사전문가'가 되어야 했으며, 취업 주부나 하층 여성들 또한 이와 같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직장과 가사를 병행해야 했다.

2. 수원 여성의 가사노동 경험과 특징

1) 가사노동 수행의 시대적 조건

근대 이후 가족의 노동 분업은 남성이 공적인 공간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노동과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주부는 장보기, 요리, 청소, 의복 만들기 및 관리, 육아 등의 일을 해야 했다. 가사노동은 전근대 사회의 양반층의 경우 주로 노비가 수행했지만, 신분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식모와 같은 가사고용인과 더불어 가정주부가 담당하였다. 이에 식모나 하인에게 가사를 맡기지 말고 주부가 직접 아동 양육과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근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다른 예시문은 한 여류 인사가 '식모 폐지론'을 주창한 것으로 가사에서 주부의 주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가사가 주부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기혼 여성들은 누구나 가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했다.

> 우리의 재래 인습으로 볼 것 같으면 집안에 하인들을 많이 두는 것을 한 자랑으로 삼는 동시에 하인 없는 것을 부끄럽게까지 생각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단연 악습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의 힘으로 한 가정을 처리함으로써 자랑을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의 주부들은 흔히 부엌일로부터 집안 살림살이하는 것을 귀찮은 일의 하나로 또 대수롭지 않은 일의 하나로 아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 얼마나 그릇된 인식의 착오이겠습니까.



1960년대 초반 경기도농사원에서 배부한 옷본(수원박물관 소장)

> 한 가족의 귀중한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이 부엌의 관리를 어찌 잠시라도 무식한 식모나 일하는 아이들 손에만 일임해 두고 마음을 놓고 있겠으며 더욱이 귀한 자녀들까지 그들 손에 맡겨 가지고 중차대한 육아의 책임까지 소홀히 하는 것은 어디로 보든지 천만 불합리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5]

가사노동의 양태는 시대적 ·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가사노동의 시대적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의 변천과 시대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의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은 의복 만들기, 의복 수선, 세탁 등이다. 1950~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류산업이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이 많았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양재 · 편물학원에 다녔으며, 각종 여성지에 소개된 옷 만드는 법을 참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옷을 만

들어 입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다. 특히 재봉틀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일일이 손바느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또한 1950~1960년대에는 세탁기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복 세탁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평균 가족수가 6~7명이었던 시절, 가족들의 빨래를 주부가 혼자 감당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특히, 당시는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일반 주택이나 초가집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겨울에 동네 하천이나 수돗가에서 빨래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된 노동이었다. 또한 서민층들은 갈아입을 옷이 없어 매일 빨래를 해서 입기도 했다. 이 경우 빨래를 하여 말린 뒤 다리는 일을 밤새 해야 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는 의류산업이 본격화되어 값싸게 옷을 살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옷을 직접 짓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세탁기와 다리미 등이 대중화되면서 의복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은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이다. 음식의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하거나 직접 재배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식품산업의 규모가 커져 가공식품의 공급과 소비가 급증하였다.[6] 또한 외식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 집에서 해결했으며, 집 밖에서 먹는 경우에도 도시락을 싸는 일이 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외식이 대중화되면서부터 한 달에 몇 차례씩 외식을 하는 가정이 늘었다. 이러한 식생활의 산업화는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 가사노동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부엌 구조와 상하수도 시설 등도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후반 서울에서 수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약 55%에 불과하였다.[7] 또한 1962년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도를 부엌 안에 설치한 가구는 1만 9,000호, 부엌 밖에 설치한 가구는 7만 2,500호, 부엌 안팎에 모두 설치한 가구는 1만 1,300호, 수도가 없는 가구는 7만 2,500호로, 부엌 안에 수도가 있는 가구가 전체의 17%였다.[8] 이처럼 1960년대 초반만 해도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이



1950년대 수원천에서 빨래하는 여성들(수원박물관 소장). 뒤편에 양잿물을 끓여 파는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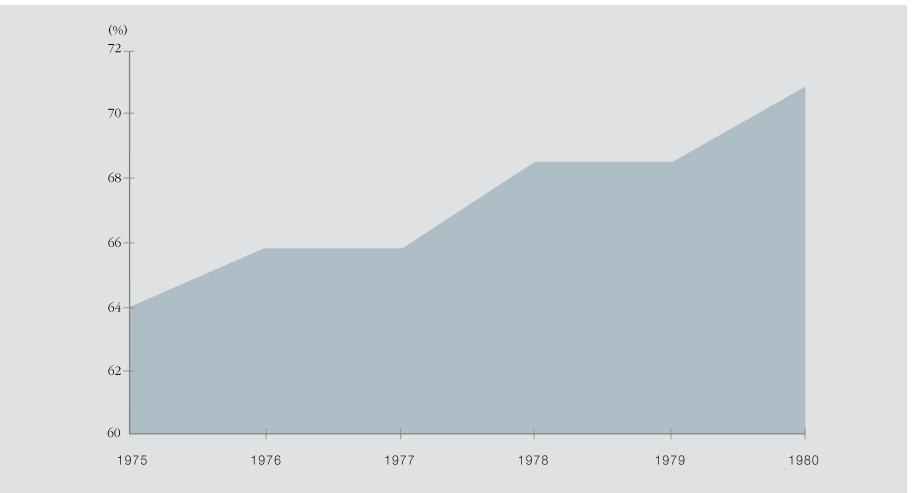


1970년대 집안 수돗가에서 빨래하는 여성

설치되어 조리와 설거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가구는 매우 적었다. 수원시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1980년에 이르러서야 70%를 넘었다.

〈표 1〉 1975~1980년 수원시 상수도 보급 상황[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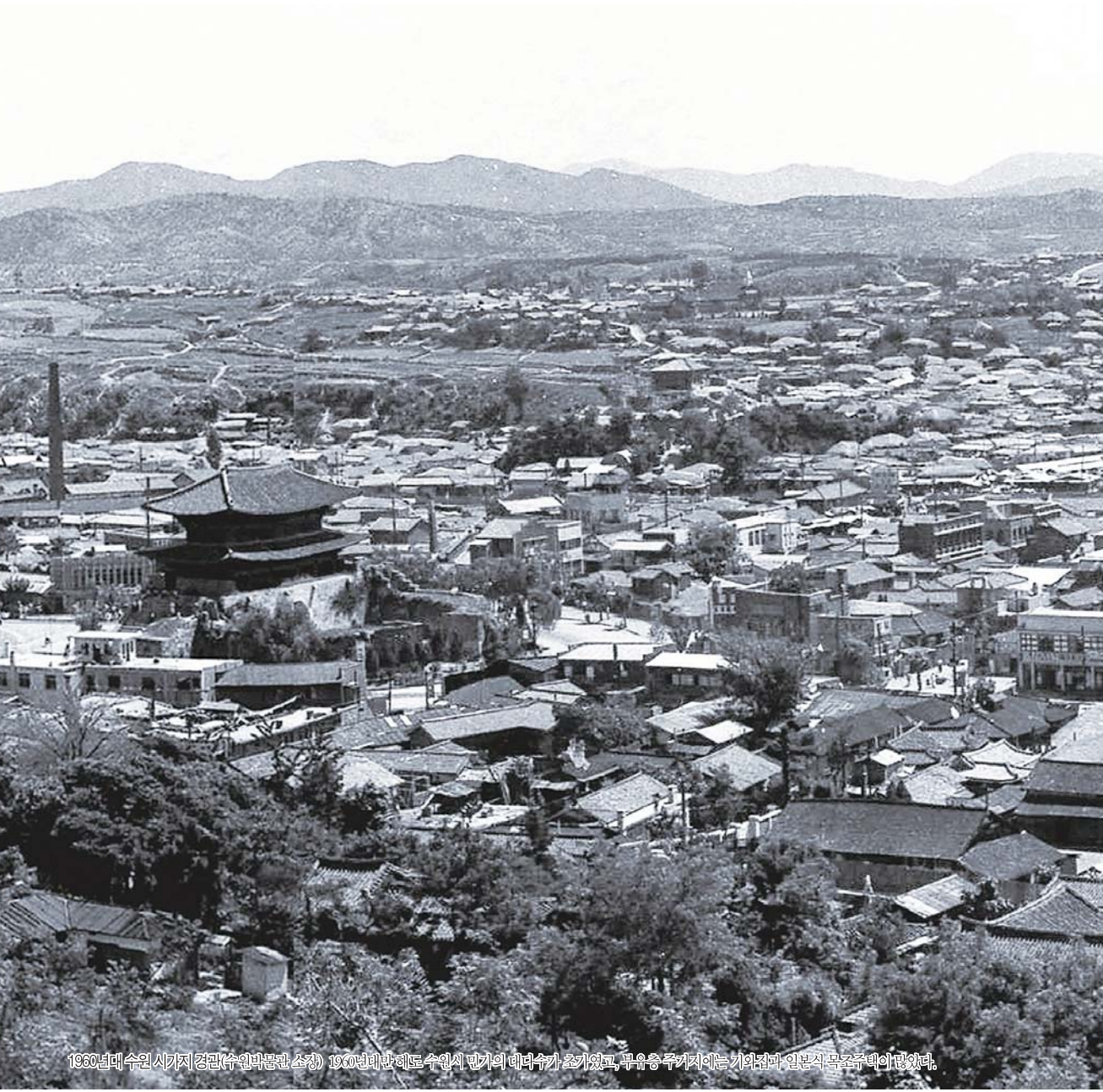
연도	급수 개시일	급수 구역		상수도 보급률(%)
		가구(호)	인구(명)	
1975	1958. 5.28.	46,645	–	64.1
1976	1958. 5.28.	47,812	–	65.9
1977	1958. 5.28.	49,989	–	65.8
1978	1958. 5.28.	54,771	–	68.6
1979	1958. 5.28.	60,016	238,257	68.6
1980	1958. 5.28.	67,003	288,265	70.9



1975~1980년 수원시 상수도 보급률

대체로 1980년대 이후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고 부엌 구조가 입식으로 바뀌면서 주부의 동선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부담도 적어지게 되었다.

셋째, 주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은 청소, 주택 관리 등이다. 이는 주택구조와 밀



1960년대 수원 시가지 경관(수원박물관 소장) 1960년대 말에도 수원시 민가의 대다수가 초가였고, 부유층 주거지이는 기와집과 일본식 목조주택이 많았다.





1960년대 초기구조(게리 헨신, 수원박물관 소장)



1970년대 상류층 주택구조(이덕운 제공)

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 초반 서울에는 한옥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양옥과 같은 현대식 주택은 약 9%에 불과하였다.[10] 수원시의 경우 1970년대까지 초가집이 있었으며, 목조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초가집이 없어졌으며, 석조와 기와로 된 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2〉 1975~1980년 수원시 주택 상황[11]

연도	인구(명)	세대수(가구)	주택수(개소)	주택 구조(개소)				
				철골조	석조 연와조	목조, 블록조	초가	기타
1975	224,177	46,645	26,506	568	6,088	13,109	1,293	5,154
1980	310,757	71,154	40,624	9,152	15,945	13,637	–	658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현대식 주택의 증가는 재래식 주택에 비해 난방 방식과 부엌구조 등을 크게 개선시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동을 좀 더 쉽게 만들었다. 아궁이에 신탄이나 나뭇가지 등을 때는 대신 구공탄이나 연탄을 사용하면서 훨씬 간편하게 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재래식 주택은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 방보다 낮게 설계되었는데, 현대식 주택은 난방과 취사를 분리함으로써 부엌 바닥을 높였다. 이는 부엌을 입식화하여 주부가 상을 차려 방으로 가지고 가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부엌이 집안 내부로 들어옴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가사 분담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2) 가사노동 경험과 가사 분담

여성들의 가사노동 양태는 앞서 살펴본 시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였다. 1950~1960년대에는 가전제품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의복과 식품의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한 가사노동 시간이 길었다. 주부들은 빨래와 청소를 직접 해야 했으며,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기본적인 양념을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쁜 일상을 보내야 했다. 당시 평균 4~6명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사를 도맡아야 했기 때문에 대개의 주부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이는 수원 여성들의 구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70년대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던 전업주부(이순영 제공)



1970년대 후반 입식 부엌

양금순은 1960년대 초반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의 교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매일 빨래를 해서 말리느라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결혼을 하여 한동안 대식구 살림을 했던 신현채도 이불을 뜯어서 삶아 풀하고 다듬이질까지 하는 과정을 매우 힘들어 하였다.

양금순 : 나는 (밤에) 바느질하다가도, 이렇게 (교복이) 여름에 홑겹 바지에다가 욱(위)에는 남방이잖아요. 그럼 그놈 빨아 가지고 탄을, 솥에다 물을 발발발 끓인다고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교복을)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또 뒤집어 놓고. 그래 해 가지고 말라요. 바느질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그러고 새벽에 싹 대려서 입히고. 옷이 두 벌이나 할 돈이 없잖아. 두 벌이나 하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한 벌만 갖고 입으니까. 그럼 갔다 오면 빨아서, 그날 빨아 가지고 풀해 가지고, 아침에 대려서 입혔다니까. 더럽게(힘들게) 살았지요.

신현채 : 그때는 다 홑이불을 다, 홑이불을 뜯어서 삶어서 풀해서 다듬이하던 시절. 그러니까 빨래가 널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 빨래해야지 또 청소해야지 음식 또 때맞춰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갈 꿈도 못 꿨어요.

빨래뿐만 아니라 신현채는 신혼 초에 요리에 서투른데다 전기밥솥이 없어 밥을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부엌이 입식화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아궁이가 난방과 취사를 겸했기 때문에 연탄에 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불 조절이 쉽지 않아 밥을 먹기 좋게 익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현채는 신여성이었던 시어머니 덕분에 가스 화덕에 밥을 하였지만 불 조절에 실패해 자주 삼층밥을 하였다.

> 신현채 : 그때는 밥솥이 없었어요. 밥을 그냥 해야 되는데 또 쌀에 돌이 얼마나 많았던 시절이야. 다 일어야 되거든. (취사 연료는) 가스렌지가 아니고 왜 그 음식점에 가면 가스 이렇게 팍팍 나오는 것 그거, 그것 썼어요. 연탄은 물론 방에 연탄을 쓰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밥을 하면은 삼층밥이란 말 들었어요? 밑엔 타고 중간만 밥이야, 위는 설고. 그 때는 밥솥도 형편이 없는 시절이지. 그러자 이제 압력솥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밥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졌지). 하지만 그전에는 맨날 실수니까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기 전에는 매일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야간학습까지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두 배로 싸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여러 개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취업주부였던 차혜영은 식모와 시어머니가 가사를 도맡아 했지만, 아이들의 도시락은 직접 장만하였다.

> 차혜영 : (아이들이) 국민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부엌에를 드나드는데 도시락 반찬을 해야지, 그래도. 도시락 반찬 하느라고 (부엌) 일을 시작을 했죠. (반찬을) 뭐 하나 하면은 맨날 그것만 넣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는 뭐 하나 배워 오면은 맨날 똑같은 것만 맨날 며칠 먹여서 진력이 나서 못 먹게 만들어 준다." 고 이래요, 우리 애들이. 김밥을 잘 싸거든 내가. 김밥 말아 주는 거. 도시락 쉽잖아요, 그게. 김밥 해 주고. 또 뭐 계란 튀겨서 잘라 주는 거, 테레비에서 나오고 책에서 나오면, 그거 한 가지 배워 오면은 또 그것만 해 주는 거야. 내 딴에는 열심히 싸 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불만이 많죠. 똑같은 것만 해 주니까.

이처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가사노동 시간이 적지 않았던 시절, 주부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사고용인이 가사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10~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가정부로 고용되었다. 이들은 아주 적은 월급을 받거나,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수 비용의 일부를 목돈으로 받기도 했다.

신현채 :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셨으니까. 저하고 동갑짜리 식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먹고 자고 다 같이 사는 거야, 기거를. 그렇게 하고, 월급은 얼마를 줬었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은 계를 들어가지고 한몫해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식모의 월급이 일반화되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의 형편대로 주는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애들 거의 뭐 월급도 안 주고 데려만 가도 고마워했어. 가서 밥만 멕여 줘도.

차혜영 : 가정부가 항상 있었으니까. 없으면 어떡해?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밥 하겠어요? 가정부는 항상 상주하는 사람은 있었지. 그 당시에는 가정부 구하기도 쉬웠고. 지금처럼 힘들지가 않았으니까 항상 있었죠, 가정부는. 최근에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부를 파출부로 바꾼 것이죠. 그전에는 항상 있었어요.

대개의 경우 어린 가정부들은 애보기나 빨래 등의 일을 했는데, 이들은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점차 시간제 가사고용인인 파출부로 대체되었다.

신현채 : 그때는 식모는 저희 집에서 자고 66년에서 한 76년, 10년쯤 되었을 때 식모는 없어졌어요. 제가 외출을 한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제가 파출부를 불러 놓고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식모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숙식을 같이한다는 자체가. 그 아이(식모) 자체도 건사해야 되고, 옷도 사 줘야 되고, 멕여야 되고, 또 시어른도 모셔야 되고, 중간에서 골치 아픈 건 나야. 그러자 세탁기가 생겼어. 걔네들이 주로 빨래를 했거든요. 하는 일이 빨래인데 세탁기가 빨래를 하니까 이제 식모는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부를 수 있는 게 파출부. 얼마나 좋아, 하루만 부르면 되니까.

가정부 이외에 주부의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주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였다. 전문직 종사자였던 차혜영은 시어머니가 가사를 책임졌는데, 김장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면 꼭 며느리가 출근하는 평일에 했다. 가게를 운영했던 차화영도 시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또 공무원이었던 박명자는 가까이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와 친정 동생들의 도움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취업주부들을 대신하여 가사를 책임져 준 조력자였다.(안병세 제공)

차혜영 : "어머니 저 있을 때, 일요일날 하세요." 그러면 "그냥 쉬어야지." 그러고서 주중에 하시고, 아주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셨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나는) 일도 못 했고. 있어 봤자 뭐 별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러셨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지금 편할 텐데.' 싶은 마음도 들어요.

차화영 : 시어머니가 애기 다 봐 주고 살림해 주고. 원래 살림해 주고 애기 봐 주는데. 나는 나, 몸땡이만 나와서 돈 벌은 거야.

박명자 : 친정어머니가 수원에 가차이(가깝게) 살고 계셨고, 또 아까 얘기한 여동생 둘이 주변에 있어 가지고 하루는 와서 빨래도 해 주고 또 모두 반찬 같은 것도 봐 주셨죠. 그랬으니까 어린 애들을 두고 활동하기가 쉬웠죠.

이처럼 가사노동은 대개 집안의 여성들이 전담을 했고, 친정 식구들이 가까이 사는 경우 부분적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가사를 분담하는 남성들은 많지 않았는데, 취업주부의 경우 일부 남편들이 가사를 돕기도 했다.

박명자 : 그리고 또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이라 그냥 갔다 오면은 기저귀 같은 것이, 천기저귀였죠. 그때 이렇게 금방 빨래를 못하고 쌓여 놓으면 당신이 와 가지고 막 빨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예요. 그랬으니까 여성이 사회에서 일하고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일을 하지.

정복순 : (집안일을) 애기 아빠가 많이 도와주고. 음식 만드는 것은 안 도와줬지. 다른 것,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고, 뭐 다 잘 해 주는데, 음식 하는 것은 안 해. 밥은 잘 해 먹는데.

이처럼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시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의 경우 시어머니와 가사분담을 하거나 가사고용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핵가족인 경우 전업주부는 가사를 혼자 도맡아 하였지만, 취업주부는 주로 남편과 가사를 분담하였다.

3. 수원 여성의 출산 및 육아 경험과 특징

1) 피임과 출산 경험

흔히 모성(母性)은 여성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모성은 여성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적 모성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제도이다.[12] 따라서 모성을 여성의 본질로 규정하거나 신비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모성의 사회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어머니 됨(mothering)' 은 수많은 갈등과 모순의 과정 속에서 수행된다. 모성을 단일하고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탄생한 불안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피임, 출산, 육아의 과정과 모성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60~1970년대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는 피임에 대한 정보나 도구 등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심하였다. 1959년에 실시한 농촌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피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여성은 86.1%, 남성은 32.7%로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피임 자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



경기도가족계획시범진료소(안병세 제공)



가족계획시범진료안내(안병세 제공) 시술을 받는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간단한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조사에서 피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여성은 52.7%나 되었다.[13]

1958년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 300세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녀가 많거나 이상적인 자녀수가 충족되면 산아제한에 찬성한다는 여성이 51.5%였고, 반대하는 여성은 44.6%였다. 대체로 경제적 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이처럼 1950~1960년대 초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피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많지 않았다. 피임에 성공하지 못한 여성들은 사후적 조치로 인공적인 중절 방법을 택하였다. "유일한 피임법이라곤 골목마다 짓는 하꼬방 산부인과를 찾아가 적당한 처치, 인공유산을 받고 다대한 수술료를 내고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14]이라는 한 의사의 지적은 당대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일제시기에는 인공유산이 엄격한 법의 제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음성적으로 인공유산이 행해졌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15]

인공유산이 성행했던 데에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반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피임에 실패할 경우 인공유산을 했다. 1966년에 결혼한 신현채는 여성의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피임과 인공유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1968년에 첫 출산을 한 차혜영도 본인과 남편이 의사였지만, 피임을 하거나 의식적인 출산 조절을 하지 않았다.

> 신현채 : 저는 중절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서 중절하고 나와서 밥 먹고. 그냥 가서 중절하고 오면 고만이야. 하루 몸조리도 안 할 정도로. 정말 그건 죄악이지. 그리고 지식인 공부한 여자고 안 한 여자고 똑같았어. 무식한 건 똑같고. 난 그건 나라에서 너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 차혜영 : 아니. 그런(피임) 거 없어요. 그런 것(터울 조정)도 없었나 봐. (아이들이) 그냥 지금 3살 차이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뭐 의사라 그래도 그런 거 제대로 못했을 때니까. 그때는 피임도 제대로 못 하잖아. 가지면 낳아야지. 나중에는 한 번 경험은 있지만.



1950년대 보구산부인과(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보구산부인과 의료기구(수원박물관 소장)

여성들은 과다한 가사노동 부담과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임 지식과 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인공유산으로 이어졌다. 인공유산은 음성적으로 행해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은 여성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현채 : 우리 또래는 좀 덜해.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셋만 낳으면 안 낳으려는 생각이 굳건한, 옛날엔 생기는 대로 낳던 시절에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기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전혀. 그래 가지고 뭐 심지어 다섯을 떼었다, 여섯을 떼었다, 일곱을 떼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허리가 꼬불어져. 모든 부인병의 근원이 젊었을 때 중절한 거예요. 그래서 헌다 하는 부잣집, 인테리집 부인들이 나중에 뭐 남자는 멀쩡하지. 남자는 멀쩡하고 부인은 그냥 골병들어서 죽는 거, 그런 것 너무 많이 봤어요.

구평자 : 산부인과 가서, 제가 가서 (인공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다시는 애기 안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자 아이가 또 생기고. 그때는 보면 저만 그러는 게



1976년 가족계획어머니회의 가족계획캠페인

> 아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 2명 한 아이도 있고, 3명 한 아이도 있고,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여자들이 그거 한 번 하면 그렇게 몸이 축나 가주고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임에 대한 지식과 기구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0~1970년대 이후이다. 1950년대 말부터 '인구과잉론'이 확산되면서 인구통제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피임도구를 보급했고 출산통제정책을 폈다. 인구통제를 통해 저개발국의 빈곤을 탈출한다는 목표 아래 여성들의 출산과 피임이 가장 먼저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평균 출산율이 5~6명이던 것이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4.6명으로 줄었고, 1980년대에는 2.4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수원시의 가족계획사업은 주로 강연과 방문상담을 통한 계몽활동, 피임기구의 보급, 불임시술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원의 가족계획 계몽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1966~1980년 수원시 가족계획 계몽사업 현황[16]

연도	등록자수 (명)	내소 상담 (건)	가정 방문 (건)	강연회		좌담회		기타	
				횟수	인원수	횟수	인원수	횟수	인원수
1966	3,713	5,003	10,899	11	882	190	5,849	22	2,288
1967	1,802	3,428	13,575	13	1,114	293	4,363	5	344
1968	1,572	3,071	10,028	10	835	328	5,075		
1969	1,709	4,429	10,947	12	978	338	4,459		
1970	1,709	6,894	12,717	9	658	336	4,342		
1980	2,760	6,200	5,227	258	14,141				

〈표 4〉 1966~1970년 피임약품과 피임기구 공급 상황[17]

연도	먹는 피임약		발포성정제		콘돔		제리		정관 수술	루프 장치
	수	인원	수	인원	수	인원	수	인원		
1966			420	420	9,915	11,185	482	482	105	1,499
1967			734	725	8,827	8,728	672	572	83	1,577
1968	329	191							93	1,429
1969	4,791	3,584							81	1,551
1970	8,279	9,408			9,839	9,837			90	1,791

〈표 5〉 1985~1990년 수원시 가족계획사업 실적[18]

연별	계	불임 시술	
		정관	난관
1980	2,341	330	2,011
1985	4,699	2,495	2,204
1986	4,564	2,065	2,499
1987	4,100	1,572	2,528
1988	3,140	1,253	1,887
1989	3,222	1,443	1,779
1990	2,526	1,335	1,191

1960년대 후반 수원시의 피임약품과 피임기구 공급 상황은 〈표 4〉와 같고, 1980년대 수원시의 가족계획사업 실적은 〈표 5〉와 같다.

이처럼 가족계획사업으로 출산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반화되었다. 1964년에 결혼하여 그 이듬해 아이를 낳은 변호자는 피임을 통해 출산을 조절하였다. 미용사였던 그녀는 입덧이 심해 임신을 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피임을 택하였다.

> 변호자 : (가족계획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러나 하나만 낳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인제 "애기를 더 있다 낳아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루프라는 게 있었죠. 애기 못 낳게 하는, 그것을 했었죠. 보건소에서 해 줬어요. 남자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그 당시에 루프 많이 했어요. (루프 시술을 받은 뒤) 뭐, 스물 네 시간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 이거 안 되겠다. 가서 빼야겠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인제 그 이튿날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손님이 있어서 못 갔어요. 스물 네 시간이 딱 지나니까 싹 가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몇 년을 끼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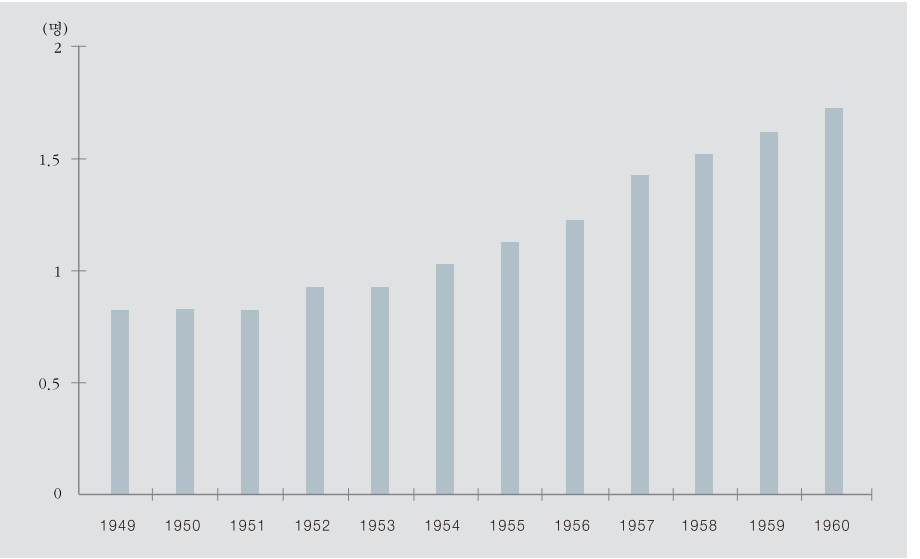
변호자는 둘째 아이를 나중에 가질 생각으로 보건소에 가서 루프 시술을 받았다. 첫째 아이가 7살이 되던 해까지 루프를 사용했다. 당시는 남편들이 불임 시술을 받는 것을 꺼려해서 주로 여자들이 피임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심한 입덧으로 중절 수술을 하였다. 당시 중절 수술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가서 수술을 했으며, 인공유산 후 몸조리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했다.

> 변호자 : 아이, 그럼요. (인공유산을 위해 병원에) 혼자 갔죠. 수술을 하면요, 속상하죠.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뭐, 낙태를, 꼭 낳아야 되는 애를 낙태를 하고 나면 참, 속상하지. 남편도 원망스럽겠지. 그런데 허고 나면 그 속 메스꺼린 게 그냥 가셔 버려, 그 당시부터. 그리고는 결심을 했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제 피임을 아주 (철저하게 했지요).

1950~1960년대까지 출산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들은 병원이나 전문 조산원의 도움을 받기보다 집에서 출산을 하였다.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전국의 조산원의 수는 〈표 6〉과 같다.

〈표 6〉 1949~1960년 전국의 조산원수[19]

연도	조산원 총수(명)	인구 1만 명당 조산원수(명)	연도	조산원 총수(명)	인구 1만 명당 조산원수(명)
1949	1,559	0.8	1950	1,677	0.8
1951	1,700	0.8	1952	1,909	0.9
1953	2,001	0.9	1954	2,126	1.0
1955	2,369	1.1	1956	2,579	1.2
1957	2,878	1.4	1958	3,374	1.5
1959	3,789	1.6	1960	4,134	1.7



1949~1960년 인구 1만 명당 조산원수

1950년대 전국의 조산사는 인구 1만 명당 0.8~1.6명에 불과하였다. 조산사의 총수는 1953년에 간신히 2,000명을 넘었고, 1960년에는 이의 두 배인 4,000명을 넘었지만, 이 역시 인구 1만 명당 1.7명에 불과한 규모였다. 또한 전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등록 의사수는 1950년에 4,577명, 1955년에 6,141명, 1960년에 7,765명이었다. 의료 시설수는 1955년에 6,073개, 1960년에 7,700개였다. 이 당시 의사수는 인구 1만 명당 2.3명(1950년), 3.0명(1955년), 3.1명(1960년)에 지나지 않았다.[20]



1960년대 조산원(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삼광약방 위에 조산원 간판이 보인다.

수원시의 경우도 전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61년 수원의 조산원수는 11개였고 1966년에 26개로 늘었지만, 이 역시 인구 1만 명당 2명에 불과한 규모였다.[21] 이러한 상황에서 1950~1960년대의 많은 여성들은 재래의 방식대로 집에서 주위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다. 1948년과 1950년에 출산한 양금순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몸조리도 시집에서 했다.

양금순 : (아이를) 시집에서 낳았죠. 그런 것(산파)도 없어. 그냥, 혼자 낳았지. 산후조리는 그 시누가 밥해 먹구, 그 인자 한 일주일 지나서 (일하러) 나왔죠. (산후조리를 하러 친정에) 못 가지. 가라고 해야 가지. 그때는 가라고 해야지. 마음대로 못 하지.

1970년대에 아이를 낳은 정옥선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산하였다.

정옥선 : 큰애는 강화서 낳았지, 친정에 가서. 낳으려고 하는데 아프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읍내에서 우리 아버지가 병원을, 의사를 불렀어. 간호사하고. (해산 후 몸조리는) 그때는 잘했지, 친정에서 한 달.

정옥선은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당시 진통이 심해 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집으로 불렀다고 한다. 산파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왕진을 와서 아이를 받는 일이 당시로서는 흔하였다. 이에 정옥선은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할 수 있었다. 출산 후에는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서 한 달 동안 몸조리를 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씻기고 돌보는 일까지 도맡아 해 주

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는 1950년대에 시집에서 출산과 몸조리를 했던 양금순이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바로 일을 시작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여성들의 출산 경험은 시대적 조건과 시집살이의 정도 혹은 시부모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 자녀교육 경험과 특징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은 여성의 가사노동에서 아동교육의 비중을 점차 늘렸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교육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아동교육은 가장 중요한 모성의 실천으로 인식되었다. 전후 가족주의가 강화되면서 고등교육을 통한 가족의 존립과 출세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다. 또한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교육을 받은 학생층이 증가하였고 대학의 서열화가 확연해졌다. 이러한 입시 과열 경쟁은 도시 중산층 주부의 '치맛바람'과 농민의 '우골탑(牛骨塔)'과 같은 사회현상을 낳았다.[22] 다음은 이러한 1950년대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 경쟁에 같이 뛰어들지 않으면 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경쟁에 뛰어들어서 뛰는 수밖에 없는데, 어느 놈이 어느만큼 많이 뛰느냐가 문제 거던. 지금 현재 나도 과외수업을 시키고 있는데, 요는 두뇌문제가 아니고 시험 치는 방법문제에요. 시험에 많이 숙련한 아이일수록 시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숙련이라 말이에요.[23]

이처럼 한국전쟁 후 급격히 고양된 교육열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40년대생으로 1960년대 말에 결혼을 한 차혜영과 박명자는 모두 직장에 다니는 취업주부였지만, 아이들 교육은 직접 챙겼다. 이들은 숙제와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퇴근 후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 박명자 : 그러니까 인저 퇴근하고 가면은 아이에 대해서 내일 학교에 갈 고거 다 일일이 메모해 가면서 체크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꼼꼼한 것을 너무 지나쳐 가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까지 연결이 될 정도로 매사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1960년대 동광유치원 학부형 참관수업(이광운 제공)

차혜영 : 내 자식 내가 키워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이런 게 너무 강해 가지고 6시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옷 벗으면서 우리 딸이 수진인데 "수진아, 상 펴라. 너 오늘 숙제해 놓은 거 보자." 그 짓 한다고. 애하고 오자마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이 나는 그렇게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파쇼, 파쇼 엄마래, 날 보고. 가정교사를 두면 됐을 텐데.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뒀어요. 과외를 안 시키고 내가 가르쳤어요. (중략) 3~4학년, 5학년까지 가르쳤죠. 학교에서 애들 갔다 오는 시간에 전화하죠. "너 숙제 뭐 받았냐? 그럼 다 해 놔라." 한 마디도 다정한 말을 안 한 거야. 숙제 챙기고, 그리고 6시 되면 "어여, 숙제한 거 내놔 봐." 옷 벗으면서 "숙제한 거 내놔 봐."부터 하고. 안 했으면 야단치고, 회초리 두르고 이랬다고.

위의 두 구술자는 모두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차혜영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도 자녀의 숙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며, 퇴근 후에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숙제 확인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동을 직접 가르치고 아이의




수원여자중학교 졸업식 광경과 시상 후 어머니와 함께한 모습(이은자 제공)

학교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은 모성적 실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정복순도 취업주부였지만, 학교 숙제를 봐주거나 학교와 관련된 일은 직접 했다. 남편이 거의 전적으로 집안의 가사를 책임졌지만, 아이들 교육문제는 정복순이 도맡았다.

> 정복순 : 우리 큰애 때도 그렇고 학교 일은 내가 다 해 줬던 것 같아. 유치원 때는 계속 아빠가 더 많이 저기 해 주고 했는데, 큰애 때는 학교 일은 거의 내가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근대 가족의 성립과 함께 등장한 현모양처주의는 여성을 아동양육과 교육의 담당자로 설정했고, 이에 따라 주부가 아동교육에 열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모성애의 실천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전쟁 후 입시경쟁체제가 정착하면서 사회의 교육열과 어머니의 아동교육에 대한 역할은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면 급상승하였다. 하지만 '치맛바람' 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사회 한편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너나할 것 없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 출세시키겠다는 욕구가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이를 주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모성 수행에 대한 성찰은 과도한 경쟁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1. 수원의 상업 발달과 여성 상인
2. 수원 여성 상인의 노동 경험
3. 가사노동의 분담과 자녀 양육
4. 여성 상인들의 생활세계

김은경 | 방송통신대학교 연구교수

04 수원 여성의 상업활동과 상업 노동

1. 수원의 상업 발달과 여성 상인

수원에서 시장은 1794년 축조된 화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상업의 성장과 함께 발달한 수원시장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확대되었다. 시장의 개장일은 3일, 5일, 9일, 10일 등 다양했지만, 점차 상설시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1970년 수원의 주요 시장은 〈표 1〉과 같다.

〈표 1〉 1970년 수원의 주요 시장

시장 이름	설립연도	점포수(개소)	시장 이름	설립연도	점포수(개소)
영동시장	1919	310	미곡시장	1951	52
매산시장	1949	146	가축시장	1919	12
도매시장	1962	102	지동시장	1966	45

이처럼 수원에는 1919년에 개장한 영동시장을 비롯하여 역사가 오래된 재래시장이 많이 있다. 이들 시장은 1985년에는 13개로 늘었고, 1988년에는 14개, 1990년에는 21개로 증가하였다. 시장이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



1970년대 영동시장 노점



2000년대 영등시장(관덜푼시장, 『영이 만든 시장-수원관덜푼시장』, 2011)

수원의 상업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1960~1970년대 수원의 점포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965~1975년 수원의 상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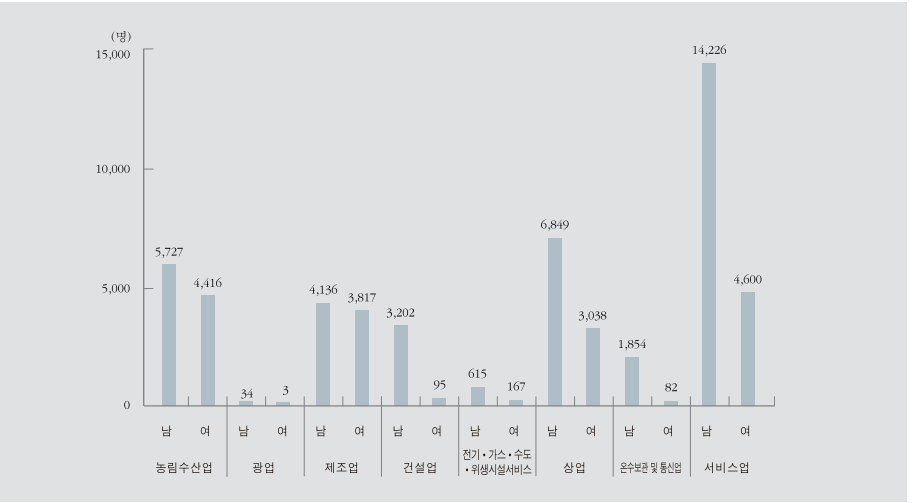
연도	총수	도매상점수	소매상점수	서비스업수
1965	2,711	88	2,623	–
1970	3,614	156	2,220	1,238
1975	3,982	403	3,043	536

위의 통계에 나온 상점의 종류를 살펴보면, 식료품, 섬유제품, 섬유원품, 농림수산물, 의복, 장식품, 화장품, 의약품, 화학제품, 기계, 기구 · 전구 · 집기, 건축재료, 서적, 문방구, 자전거, 연료, 지류, 잡화, 음료품, 기타 등이었다. 당시에는 식료품, 섬유제품, 의복 등의 점포수가 가장 많았다.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상점을 경영하거나 고용되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점포를 갖지 못한 노점상도 많이 존재하며, 중간에서 물건만 거래하는 거래상들도 있다. 상업 인구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1970년에 조사된 산업별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1969년 수원의 산업별 취업자수

구분		취업자수	구분		취업자수
농림수산업	남	5,727	상업	남	6,849
	여	4,416		여	3,038
광업	남	34	운수보관 및 통신업	남	1,854
	여	3		여	82
제조업	남	4,136	서비스업	남	14,226
	여	3,817		여	4,600
건설업	남	3,202	합계	남	36,653
	여	95		여	16,218
전기 · 가스 · 수도 · 위생 시설 서비스	남	615		계	52,871
	여	167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9년 취업자수 5만 2,871명 가운데 남자는 3만 6,653명이었고, 여자는 1만 6,218명으로 전체의 약 30.7%였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이 남자 1만 4,226명, 여자 4,6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가 농림수산업으로 남자 5,727명, 여자 4,416명이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상업 종사자는 남자 6,849명, 여자 3,038명이었다.

여성의 취업 인구만을 따로 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4,600명), 그다음으로 농림수산업(4,416명), 제조업(3,817명), 상업(3,038명)의 순이다. 이처럼 여성 상업 인구는 전체 산업별 취업자 중에서 네 번째를 차지했지만, 여성 상업 인구의 비율이 약 18.7%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크게 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 인구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상업은 제조업 공장에 취직하기 어려운 기혼여성이나 저학력 여성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높은 학력을 갖추지 않았어도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단기간에 전문기술을 익힌 여성들이 관련 상업 분야에 진출하기도 했다. 1950~1960



1970년대 제재소에서 근무하던 여성(김행자 제공)

년대 이후 '1인 1기' 의 실업교육이 강조되면서 여성들은 양재, 편물, 미용 등 전문적 기술교육을 받고 난 뒤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였다. 이 경우 비교적 취직도 용이했고,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상점의 주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오래 장사를 해 왔던 여성 상인들의 노동 경험과 생활세계를 구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술자의 인적 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구술자 인적 사항

이름	출생연도	출생지	장사 업종	장사 경력	수원 이주 시기	구술일
정복순	1966. 4.12.	경기 안산	한복점	30년	1977년	2012. 8.14.
차화영	1933.10.20.	경기 수원	포목상, 한복점	50여 년	수원 출생	2012. 9. 5.
정옥선	1948. 8.15.	경기 강화	부동산중개업	24년	1973년	2012. 9.24.
변호자	1940. 8.16.	나고야	미용업	50여 년	1972년	2012.11. 6.



1953년 수원양재학원 본과 제6회 졸업기념(수원박물관 소장)



1960~1970년대 경기공업센터에서 편물을 짜는 여성들(수원상공회의소 소장)

2. 수원 여성 상인의 노동 경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 학력의 높고 낮음이나 결혼 유무에 구애받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도 비교적 용이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장사를 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주로 가정형편상 생계를 위해 시작한 경우가 많지만, 대대로 장사를 해 온 집안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다. 정복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다가 새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동시장의 한복집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하였다.

> 정복순 : 그때는 집에서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으니까. 집에 가면 글쎄,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학교 고집 피웠으면 고등학교 갈 수도 있었는데. 또 모르지 뭐 심적인 마음이 빨리 탈출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겠지.

변호자는 해방 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부모의 짐을 덜기 위해 미용기술을 익혀 미용사 보조로 일을 하였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서 가사 일을 돕다가 친척의 권유로 부산의 미용학원을 다녔고, 졸업 후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무보수로 미용실에서 일하였다.

> 변호자 : (초등학교 졸업 후) 그냥 뭐, 집에 일 도왔죠. 돕다가 인제 우리 친척이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를 따라 가자." 그래 가지고선 내가 부산을 갔었어요. 친척 집에를. 그래 가지고 거기서 미용을 가르쳤어요, 그 집에서. 시골에서는 뭐 감히 그것을 할 생각을 안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얘기를 하기를 "나는 뭐를 하나 배우고 싶다. 양재를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하고 싶다." "그럼, 네 맘대로 학원을 다녀 봐라." 해 가지고 미용학원을 내가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스무 살 때 졸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미용에 아주 매달렸지.

정복순과 변호자는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결혼 전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이때



1960년대 미장원(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정복순은 16살이었으며, 변호자도 10대 후반이었다. 정복순은 처음에 한복감을 재단해 놓은 것을 바느질집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과 같은 잔심부름을 하였으며, 주인 할머니와 같이 기거하는 집의 살림까지 도맡아서 했다.

> 정복순 : 처음에는 뭐 잡일이지 뭐. 바느질집 심부름 다녀야 되고, 그런 것부터 배운 것이죠. 바느질집 다니면서도 다 했죠. (중략) 내가 집에 가서 (밥을) 해서 (주인) 할머니 해다 드렸지. 그때 할머니 친구 분들이 식사를 하시러 매일 같이 오셨으니까. 가게 하는 데는 노인네 모이시면 내가 할머니들 진지 다 해다 드렸으니까. 점심, 저녁까지. (가사일도) 다 하고. 그때는 세탁기도 없어서 손빨래로 다 했었지.

1950년대 후반에 일을 시작했던 변호자도 역시 미용사 보조일을 하면서도 주인집의 가사일까지 도와야 했다. 그것이 힘들어서 처음 취직한 곳을 나온 변호자는 자격증이 있는 미용사와 함께 미용실을 차려서,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였다.

> 변호자 : 나는 미장원에 가면 먹고 자는 데는 있었죠. 그래 가지고 그때서부터 또 고생이죠. 지금처럼 이렇지 않고 그냥 살림하는 집을 가면 미용사인지, 식모인지. 그래서 그거는 또 아니고. (그곳에서) 나와 가지고 처녀가 하는 데로 갔죠. 그러면 둘이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그 집 살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용 기술을) 배운 것이죠. (중략) 그 양반이(미용사가) 면허증 다 있고, 나는 미용실을 얻는데, 보증금을 그 때 돈 한 5만 원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기술만 배우는 조건으로 (일을 했어요). 나는 손님을 못 받죠, 배우는 중이니까. 그 사람이 해 가지고 둘이서 밥만, 밥만 거기서 해 먹고 둘이서.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건 해결이 나잖아요.

10대 소녀였던 정복순과 변호자는 기술을 배우고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기꺼이 보조일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유소년 노동층의 대부분은 1980년대까지도 정식 월급을 받기보다 숙식을 해결하면서 기술이나 장사 수완을 습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일을 시작했던 변호자와 1980년대 초에 한복집에서 일했던 정복순의 사례는 당시의 영세 상업의 현실과 노동조건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또 한편, 이들이 일했던 가게의 도제식 운영 방식은 정복순과 변호자가 각기 한복 재단사와 미용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정복순은 주인 할머니로부터 재단하는 법을 배워 심부름뿐만 아니라 직접 한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변호자도 미용사 보조로 실습기간을 거친 뒤 직접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정복순은 8년간의 보조 생활 끝에 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았다. 변호자는 보조로 일한 지 1년 만에 충청남도 합덕에서 미용사로 취직하여 보조를 데리고 일을 하였다.

> 정복순 : 여기 영동시장(에서 가게를 했어요). (할머니의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그만두시면서 제가 인수해서 제가 자립을 한 것이죠. 상호도, 저 상호가 할머니가 하시던 '만금상회' 도 내가 안 바꾸는 간판이에요. 햇수로는 거의 60년 됐다고 해야 되나, '만금상회' 가.

변호자 : (미용실) 사장님은 미용 기술은 전혀 없고, 자기네 가게에서 포목장사를 했어요. 포목장사를, 미용사를 두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서 미용사 노릇을 했죠. 그때는 손님이 괜찮았었어요. (중략) 그때 돈, 그때 돈으로 1,500원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멕여 주고 재워 주고 미용사로 있은 거니까. 그런데 돈 번다고 생각이 안 들었을 정도로 돈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밑으로 (보조가)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어야 됐어요, 그때는. 미용사 밑에 사람이 하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두고 둘이서 했죠.

숙련 기간을 거쳐 어렵게 기술을 배운 이들은 점차 자신이 속한 업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일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컸다.

정복순 : 한복은 그래도 한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볼 줄은 알아야지 잘못됐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도 볼 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도 저는 빨리 배운 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도 맨 처음에는 심부름 다니고 했었어도, 3~4년부터는 내가 치수, 사이즈 재는 것서부터 다 했으니까, 그때는. 빨리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도 믿고 여행 가시고 했어도 내가 다 했으니까. 2년 안에 다 터득했었던 것 같아. (할머니가 여행을 가시면) 손님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빨리 배웠지.

변호자 : 아유, 그전에는 그야말로 배운다는 이유로 제대로, 옛날에는요 고데를요, 3년 아니면 머리를 못 만졌어요. 옛날 미용사가 진짜 미용사예요. 고데를 3년 안에 손님 머리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선 조금 옛날에는 고데를, 머리를 살려준다고(부풀려 놓는다고) 그랬어요. 걔가(보조가) 살려놓고, 인제 머리를 하는 거는 미용사가 했고. 머리를 빗어 놓는다든지 이쁘게 살려 놓고, 그렇게 하면 미용사가 머리를 했죠. 걔는 그런 거만 하고. (중략) (보조에게) 한, 두 개는 이쪽저쪽 말아 보라고 그러긴 하는데, 미용사가 봐서 됐다 싶으면 맡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맡겨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고데도 하기 힘들지, 그렇다고 (파마를 위해) 머리를 맡기지도 않지. 그러니까 미용사 노릇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당시 취직하기가 그렇게 어려워도요 미용사 취직은 참-많았어요. 수월하고 많았어요.

정복순은 보조로 일을 시작하고 난 3~4년 후부터는 주인 할머니가 없을 때 직접

손님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는 일까지 완벽하게 해서 주인의 빈자리를 대신하였다. 한복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직접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자는 미용사로 취직하면서부터 바로 보조를 거느리고 일을 하면서 자신도 기술을 전수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력에 대해 더 자부심이 강하였다. 변호자에 따르면, 당시는 파마보다 고데가 유행을 했는데, 고데는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아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용 기술을 배운 지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데를 할 수 있었다. 또 파마의 경우도 파마 롤을 일률적으로 배치하고 아프지 않도록 적당히 감는 것이 어려워 보조에게는 이를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보조는 손님의 머리를 감겨 주거나 파마 롤을 건네주는 일, 그리고 올리는 머리를 할 때 머리를 부풀리는 일 등을 했다.

> 변호자 : (고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불에다 넣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지금은 전기 고데가 있어서 그거 뭐, 온도를 조절해 주는데, 이건 온도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직감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연탄불 펴 놓고, 연탄가스가 나게끔 그 자체가 되어 있어요. 옆에 뚫어 봤어요. 거기다 넣고 고데를 하고 그랬어요. 연탄을 썼어요. 항시 [고데기를 얼굴에 가까이 대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얼굴에다 대보지. 열기를. 대봐서 하는데 그게 실수할 때가 많죠. 그때가 참, 미용사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호자에 따르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도 전기 고데기가 일반화되지 않아 연탄불에 고데기를 달궈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때 고데기가 너무 뜨거우면 머리카락이 타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원하는 머리형을 만들 수 없었다. 또한 뜨거운 고데기가 손님의 두피나 얼굴에 닿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도 파마보다 고데나 올린머리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변호자도 다년간 여러 손님의 머리를 해 주면서 고데를 하는 기술이 좋아져 이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변호자 : 그러니까 짧은 머리를, 머리를 올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고데기를 꼭 (써야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소도마끼(そとまき : 머리카락 끝이 바깥쪽을 향해 말리는 머리형)' 라는 게 있었죠. 모르지? '소도마끼' 라는 것이 있었어. 끝머리를 다 올리는 머리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머리의 중간 부분을 가리키며] 여까지 올라왔어야 했어요. 그런 머리일 경우 그 고데기를 써요. 그런데 가끔 지금도 저는 써요. 가스불에다가. 아-주 정확해요. 참 머리도 이쁘게 나와요. (중략)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우찌마끼(うちまき : 머리카락의 끝이 안으로 말리는 머리형)' 라는 게 또 있죠. [머리카락을 손으로 안쪽으로 말며] 요렇게 안에 들어가는 것. 아주 이뻤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 머리하고, 한참 유행했었어요. (나는) 특히 '소도마끼' 잘 했어요. (중략) 올리는 머리도 고데로 말아 가지고 머리를 말면요. [손으로 물결치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웨이브가 나와요, 착착. 그럼 그걸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요 아, 머리기가 막혔었어요. 우리 위(선배)에 때는 올리는 머리를 해 놓으면요, 장미꽃이 붙은 것 같았었어요, 뒤가. 내가 시다 노릇할 때 그 언니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그 머리를. 그 머리가요, 한번 하면요, 잠만 잘 자면 며칠이 갔어요. 그렇게 잘했어요. 그게 미용사였어요, 그게. 지금은 뭐 그거 찾아볼 수도 없고.

변호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크게 유행했던 고데 중에서 머리카락을 밖으로 마는 머리(소도마끼)를 특히 잘했다고 한다. 연령대가 높은 동네 단골의 경우 지금도 가끔 이 머리형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보다 한 세대 위인 선배 미용사들은 올리는 머리를 잘했는데 이는 거의 예술작품과 같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변호자는 자신을 포함해 기술력을 갖춘 과거의 미용들이 '진짜 미용사' 라고 했다. 이는 미용기계가 발달하기 이전 시기에 미용 보조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기술력을 갖춘 재래의 미용사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 준다.

정복순과 변호자가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20세가 채 안 된 나이에 일을 시작했던 것과 달리, 차화영은 수원 남문 근처에서 포목상을 했던 어머니의 권유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차화영 : 그런 바느질은 아니어도 이런 장사해는 거를, 심부름을 많이 해 줬어요. 그다음에 이걸(현재 영동시장 건물을) 짓고 아동복 장사도 많이 했어. 서울 동대문에 가 (물건을)



1990년대 미용학원

띠어(떼어) 오는 건데, 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너 그것 좀 가서 가져와라." 그럼 머리에다 (물건을 이고 와), (서울에) 가서. (중략) (어머니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니까, 자유당 때거든.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되지, 죽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너는 장사를 시키면 잘하겠다."고. 이제 해 봤으니까 이런 거 심부름. 그리고 나는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될 수가 없어. 가게 내줬는데. 왜 그랬냐면 저거를 해야만 살겠대는 거를, 내 수중에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대는 생각이 있어.

차화영의 외할아버지는 일제시기 수원에서 유명한 포목상을 했으며, 어머니 역시 이를 이어받아 포목장사를 했다. 차화영은 여학교에 다니던 때부터 서울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장사가 끝나면 팔던 옷감을 나르는 등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다. 한국전쟁 후 피난을 갔을 때에도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닥치는 대로 팔아서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1950년대 후반 무렵,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된다."며 장사를 권유하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양품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양품



1960년대 한복가게(수원박물관, 『세류동지』, 2012)



1968년 경기도 공예품 전시회에 출품된 가발과 눈썹(수원상공회의소 소장)

점을 차릴 수 있는 장사 밑천을 대 주었고, 남편이 회사에 다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화영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 후 서구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양품이 유행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3년 정도 양품점을 운영하던 차화영은 한복점으로 전환하였다.

차화영 : 그 장사는 양품가겐데 돈 없어도 해, 가게만 가지면은. 물건은 (물건 공급하는 상인이) 아침에 와서 싹- 줘. 그때는 장사가 잘되는 시절 아니야? 물건 와서 싹 주구. 저녁때면 내가 다 팔고 있어. 내가 그렇게 장사가 잘됐어. 내가 안 산다고 해도 갖다가 막 맡겨 그러면 뭐 벨 거, 브라자까지도 나중에는 양품, 그랬는데 [목소리를 낮추며] 양품가게니까 수입 코너도 끼고, 옷감도 끼고. 울 엄마가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물건은) 내가 힛트야. 다 도리빵(한 사람이 모두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해. 돈 없어도 싹 줘. 그러면 나는 돈, 파는 대로 은행에 딱 넣어. 그런 게 맘대로 불르는 게 가격이야 그때는.

상품을 구비하기 위해 먼저 돈을 내고 물건을 사지 않아도 공급자가 아침에 물건을 대 주고 그날 저녁에 물건 값을 회수할 만큼 장사가 잘되었다. 당시에는 전후 재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수입품이 무척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벨벳과 같은 수입 옷감은 사치품으로 지목되었지만, 격증하는 수요를 막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차화영은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정옥선은 남편의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던 서민층 주부였으나, 남편의 사망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본격적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남편

이 살아있을 때에도 집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인조 눈썹을 만드는 가내부업을 했지만, 이는 "반찬값에 보태는" 수준의 보조적인 것이었다.

> 정옥선 : 그때만 해도 수출하는 뜨개질을 했어, 집에서 놀면서. 그거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생기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눈썹 뜨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 와 가지고도 거른방(건넌방) 아줌마하고 딱 먹고 시간 나면은 그거 뜨는 거야. 그러다 샘(시샘)을 하다가 그 아줌마가 병이 났어. 나도 좀 하다가 병이 나서 그만뒀지.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욕심에. 반찬거리는 되죠(수입이 반찬거리 살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돈이 고스란히 모인 거지. (중략) (남편의) 장례식 치르고, 삼오제 치르고, 도대체 밖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오기도 싫고 힘도 없고 막 울고 들어만 있으니까 아주버님이 "제수씨는 구멍가게라도 할 생각 하셔야죠." 그런데 혼자서는 구멍가게도 어떻게. 그때는 애들이 이미 커 가지고 사춘기가 돌아오고 그러는데, 우리 딸 중3, 아들 중1,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이런데 걔들 두고 나와서 벌이 할 게 없어, 내 생각에. 그래서 부동산 시작한 것이지. 내가 동네에서 뛰고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어쨌든 나가 보자.

정옥선은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시집 식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였다. 당시 어린 아이들을 두고 먼 직장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집 근처에서 운영하던 오토바이 센터 자리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였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정옥선은 동네 사람들과도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낯설고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 정옥선 : (내가 그동안) 마실 다니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성격도 그랬고. 처음에는 사람 많이 있는 데 말만 많이 해도 어지러웠어. (중략) 처음에는 뭐 그냥 (가게에) 나가 앉았었는데, 동네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고. 아침에는 애들 학교 보내고 나가서 앉아 있으면, 그때 내가 1년은 아저씨(남편)도 보이고,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래.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오시기 시작하더라고. 여자가 있으니까 편하잖아. 그리고 조금 (장사가) 되는 거야. 그냥 뭐 살게 되더라고. 넉넉히는 못 살았어.

정옥선은 가게를 개업하고 난 뒤 한동안은 죽은 남편 생각과 사회생활 경험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성격도 적극적이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폭넓게 교유



영동시장 포목점

하지 못해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동네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곧 주민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여성이라는 특성상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점차 손님이 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 상인들의 노동 경험과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복순과 변호자는 궁핍한 가정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게에 취직해 숙식을 해결하면서 기술을 배웠다. 이들은 도제식의 견습 과정을 거쳐 숙련된 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장사꾼' 보다는 '전문기술자' 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였다.

둘째, 차화영은 일제시기부터 포목상을 했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가게를 개업하였다. 장사를 시작했던 것도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본인의 결심 때문이었다. 차화영의 경험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했던 여성

들은 거의 전문직이었다는 선입견을 깨는 사례이다.

셋째, 정옥선은 전업주부로서 살림만 하던 여성이 남편의 사후 생업전선에 전면적으로 나선 경우이다. 그녀는 변호자나 정복순처럼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나, 차화영처럼 장사에 수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을 통해 이웃과 교류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활동 경험을 넓혔다.

3. 가사노동의 분담과 자녀 양육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를 일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 상인들도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임신 · 출산 · 양육의 과정에서 이중고를 경험한다. 하지만 이는 일률적이지 않다. 가사와 육아 부담은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양하다. 정복순과 차화영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 정복순은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졌다. 남편은 정복순의 산후조리부터 아이 양육까지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들은 가게가 있는 건물의 위층에 거주하였는데, 집과 일터가 가까운 특성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남편과 가사분담을 하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

> 정복순 : 그때는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새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해 주긴 뭘 해죠? 신랑이 해 줬지. 미역국 끓여 주고, 애 목욕시킬 때 같이 씻겨 주고, 뭐 다 해 줬으니까. 많이 자상하니까. (중략) 애가 지금 3남매인데, 애기 아빠가 셋을 다 키워 줬지. 왜냐하면 낮에는 내가 손님하고 애하고 부대끼면 안 되니까, 애기 아빠가 집에 가서 애 보고 우유 타 먹이고 기저귀 갈아 주고 다 했지. 아침에는 또 데리고 (가게에)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중략) 음식 만드는 것은 안 도와줬지. 다른 것,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고 뭐 다 잘 해주는데, 음식 하는 것은 안 해. 밥은 잘 해 먹는데. 지금도 그래요. 밥은 퇴근해갖고 가면 밥은 해 놔. 그런데 반찬은 안 해 놔.

차화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가사 고용인의 도움을 받아 가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게리 헬센, 수원박물관 소장)

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 시어머니는 차화영이 장사하는 것을 최대한 돕기 위해 산후조리를 비롯해 육아와 가사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시어머니는 힘든 일을 해야 될 때면 남편의 퇴근시간을 기다려서 남편에게 시킬 정도로 며느리를 아꼈다. 이러한 가족들의 협조로 차화영은 아침 9~10시쯤 가게에 나와 저녁 8~9시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

차화영 : 아우, 불만 그런 건 몰라. 애기 낳고 사는데, 애기 날 적마다 부자가 잘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식구들이 신바람 날 거 아니여. 그리구서는 (시어머니가) 애들 날 적마다 백일을 드러누어 있으래. 바깥에 나가지 말고. 시어머니가 (가사일을) 다 해 줬어. 시어머니가 다 해 줘. 빨래도 안 시켜. 그때는 뽐뿌질(펌프질 해야지, 여기(냇가) 가서 다 기저귀 빨았는데, 시어머니가 얼음 깨뜨려서 기저귈 (빠서). 근데도 나 한 번도 안 시켰어. 냇가를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부자 되니까 다행이었지. 애 셋을 다 시어머니가 그렇

게 길렀어. (중략) (나는 일을) 안 했어. (시어머니가) 도와줬어, 다. 시어머니가 애기 다 봐 주고 살림해 주고. 나는 내 몸땡이만 나와서 돈 벌은 거야. 아침 먹고 나서 보통 아홉 시, 열 시, (가게에) 나왔겠지. 그래 가지고 다들 문 닫을 때면, 한 아홉 시나 여덟 시겠지 또. 그죠?다 고만둘 때. 다 똑같이 닫을 때 비슷하게 들어갔겠지.

변호자는 아이가 어렸을 때 미혼인 시누이의 도움을 받았다. 시누이는 같이 살면서 어린 아이를 봐 주고 살림을 맡아 해 주었다. 당시 변호자가 경영했던 미용실에는 살림집이 함께 있었지만, 쉬지 않고 매일 일을 하며 바빴기 때문에 가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변호자 : 그 당시만 해도 시다(미용사 보조)라는 사람이 살림을 안 해 줬어요. 그때만 해도 인제 살림을 안 해 주니까 애기 기르면서 시누가 다 살림을 해 줬죠. (나는) 집안일이야 뭐 하는 게 없지, 식구도 없고 그러니까. 미용실만 전념을 했지. 반찬은 내가 했고. 장 보는 것도 우리 시누가 본 것 같아요. 내가 나갈 새가 없으니까.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동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야 했던 정옥선은 혼자 일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였다. 당시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두었던 정옥선은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방치하였다. 그녀의 어린 아들은 엄마가 일을 마칠 때까지 동네의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며 하루를 보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택가의 골목 문화와 동네 이웃들의 관계망이 촘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옥선은 자신이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동네 이웃들을 통해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정옥선 : (애들을 봐 주는 사람은) 없죠. (집이) 저 아래 여기니까. 저녁때는 들어오니까. 그때는 뭐 어두울라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막내아들은 방과 후에) 노는 거지, 뭐. 딱지치기하고 뭐, 구슬치기하고. 어느 날은 그래, 동네 아줌마가. 집이 아들(당신 아들) 장사를 한대. 봤더니, 동네 애들한테 "장난감 다 가지고 와라." 그래 놓고 파는 거야. 장사를, 장부도 있어. 그래야 애들이 믿고 한다는 거야.

구술자들은 모두 가사와 육아에서 가족과 친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항상 바쁘고 시간에 쫓기면서도 아이들의 숙제를 봐 주거나 학교에 찾아가는 등의 열성을 보였다.

정복순 : 큰애 때는 잘 찾아 갔어요. 우리 둘째 때는 못 가고. (가게는) 그냥 비워 놓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큰애 때는 내가 중학교 엄마 활동까지 했었는데. 뭣하면 가게 비워 놓고 그래 갖고 둘째는 아예 안 갔지. 우리 큰애 때도 그렇고 학교 일은 내가 다 해 줬던 것 같아.

변호자 : 아무튼 (아들을) 유치원을 보냈어요, 나는. 잘 길러 본다고 한 것이지. 미장원 오는 사람들은 여하튼 어려운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사람들(손님들) 위주로 산 것이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유치원 보내고 그랬어요. (미용실 손님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그러니까 좋은 데로 보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을. (중략) 우리 아들이 잘생겼는데요, 내가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따라 주지 않는 거야. 이게 의사나 변호사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런데 안 따라 주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내 죄인데, 애도 좀 다독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애를 하나를 기르기 때문에 난 굉장히 엄하게 길렀어요. (중략) 아이고, 과외도 시켜 봤죠. 또 자식은 잘 모르잖아요. 내 욕심이죠. 그래 가지고 6학년 때 5등 안에 드는 애들 속에 과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5등 안에 들은 엄마들이 "왜 쟤를 이 반에다 넣었냐?" 이 소리를 5등 안에 드는 엄마 한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쟤가 못 건디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못 견뎌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소리가 내가 인제 뼈에 벡였지(박혔지). 그렇게 욕심을 내가 부려 봤어요. 내가 돈은 좀 벌겠다 인제, 아들 하나 제대로 가르쳐 볼려고. 되지도 않는 짓을 한 거야, 내 욕심으로. 과외 비쌌어요.

정복순은 큰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가게를 비우고서라도 학교에 찾아가거나 어머니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남편과 가사 분담을 했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은 주로 정복순이 직접 챙겼다. 집에서 알림장과 숙제를 검사하거나 진로를 상담해 줄 때도 늘 정복순이 주도적으로 했다. 변호자는 미용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많은 주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교육에 더 적극적이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던 1970년대 초반, 변

호자는 아들을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유치원에 보냈다. 또 초등학생 아들을 성적이 최상위인 아이들이 속한 과외 그룹에 무리해서 넣기도 했다. 정복순과 변호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자, 다른 전업주부처럼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4. 여성 상인들의 생활세계

여성 상인들은 공장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 비교적 약하다. 행상을 하거나 점포를 경영하는 상인들은 대체로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손님을 상대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편, 여성 상인들은 처지가 비슷한데다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많다.

> 정복순 : (주변 상인들과) 다 친하고 좋아요. 매일 같이 보니까. 여기 앞집 애들은 서로 점심 같이 먹고, 아침에 나오면 으레 커피 같이들 먹고 시작하고, 좋아요.

정복순은 같은 시장 건물에서 일하는 이웃 상인들과 매우 친하다. 정복순의 가게 주변에는 한복집과 이불집이 몰려 있는데, 이들 업종은 주로 여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서로 스스럼없이 지낸다. 이들은 점심을 같이 먹거나 차를 마시며 여유 시간을 같이 보낸다. 또한 친목을 위해 계를 같이 하기도 한다.

> 정복순 : 거의 하면 스물네 명이 모여 가지고, '번호 계' 몇 번, 몇 번 타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두 번 해 봤나? 지금은 재미로 10만 원씩 놓고 '뽑기 계' 이자 없이 그냥 돈 놓고 뽑아 갖고 타는 사람이 임자. 그러면 커피 한 잔씩들 돌려서 먹고. 지금은 그 재미로 하지 막 곗돈으로는 안 해.

이렇게 여성 상인들은 매우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정보가 교류되는 데 중요한 장소인 미용실(경향DB)

을 때는 가게를 서로 봐 주기도 한다. 또 각기 가족의 대소사에도 참여하여 서로 돕는다. 이들은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도 함께 하며, 호칭도 "언니", "동생"으로 부른다.

정복순 :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가면 서로 가게도 봐 주고, 무슨 일 있으면 와서 해 주고, 많이들 도와주죠. 요번에도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거든. 1일날, 여기 쉬는 날 돌아가셨거든. 그랬더니 다음 날 연락을 듣고, 인제 옷들은 못 갈아입고 오시니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도 와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 많이 도와줬지.

이처럼, 한복집을 경영하는 정복순의 경우 주변 상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매우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공적(公的)' 성격보다 '사적(私的)' 성격이 강하다.

정복순과 달리, 변호자는 동종 업계에 있는 미용사보다 손님과 더 친하다. 손님은 대부분 동네 여성들이고 주기적으로 미용실에 오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미용사는 손님들과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단골을 확보한다. 또 미용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하는 미용사의 입장에서 손님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변호자 : 미용실이란 게 아유-. 누가, 아무개는 거기서 과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들 좀 넣어 보자(고 했죠). 미용실에서는 (동네의 정보를) 다 알죠. 다 알아요.

(아이를) 하나만 낳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제 "애기를 더 있다 낳아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루프라는 게 있었죠. 애기 못 낳게 하는, 그것을 했었죠. (면담자 : 그걸 어떻게 아시고?) 아, 그거 뭐 미장원인데, 다 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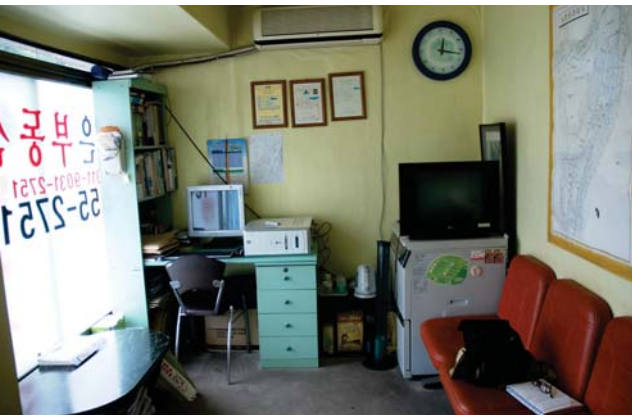
변호자는 미용실에 오는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식 교육과 피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미용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데다 같은 동네의 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공통의 화제가 많았다.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다른 상거래와 달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를 나누기가 쉬웠다. 이리하여 미용실은 동네 정보의 교류처 구실을 해 왔다. 이처럼 손님과 미용사의 관계는 상거래를 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한 동네 주민이자 말동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상인들은 주변 상인들이나 손님들과 일상을 함께 하며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장사를 통해 손님이나 주변 상인들을 만나면서 삶의 보람을 느꼈다. 또 한편 이들은 경제적 여유와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일을 통해 확장된 사회생활 경험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정복순 : 이 장사(한복 파는 것)는 여자들한테 좋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일반 옷가게는 어떨지 몰라도 여기는 점잖으신 분들만 오지. 혼수라든가, 여자들 상대하니까 좀 지저분한 꼴은 잘 안 보는 편이잖아, 다른 장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저거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장사에 비하면 깨끗하다.

변호자 :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업을 갖지 않는 그런 저기라 미용사하면 아무튼 어른들은 "팔자가 거세다, 뭐 젊은 사람들은 바람둥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안 좋았어요. (미용일이) 지금이야 [힘주어 말하며] 긍지지.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애들한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진짜 돈 벌면 그냥 쌓이고. 또 돈을 벌으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우리 나이에 죽을 때나 기다리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아, 이거 얼마 벌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희망도 있고, 지금은요 살맛이 나요. 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우리 영감이 싹 달라졌어요. 싹 달라져 가지고 내 보조를 다 해.





주택에 딸린 부동산중개소

정복순은 자신이 한복 기술자로서 주로 혼수를 장만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장사보다 점잖고 깨끗하다며 만족해 하였다. 변호자도 예전에는 미용사가 '팔자가 세다.' 거나 '바람둥이' 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녀는 칠순이 넘은 나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 살맛도 난다고 했다. 일을 한 뒤로 사회적 경험의 폭이 넓어진 정옥선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았다.

정옥선 : 그런데 부동산을 하면서 옛날에, 새마을부녀회를 들으래. 그래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를 하다가 중간에, 나는 그것 때문에도 또 정서적으로도 애들도 좀 편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마을문고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을문고 회장님이 그것을 하래, 회장을 하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기금은 나왔더라고. (마을문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을 했어, 동에서 해 줘 갖고. 마을문고 3층인가? 그래 가지고 거기다 책장 사 놓고 책 사고 또 헌책이 있으면 얻어 오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책 정리를 했지. 마을문고라고 시작을 했어. 거기다 내 시간도 뺏기지만 그것도 좋더라고.

정옥선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지역의 각종 네트워크에 관여하였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에 참여하면서 각종 모임과 연수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많은 사

람들과 교유하게 되었다. 또 회장직을 맡아 마을문고를 만드는 일을 도맡아 했다. 이러한 일은 정옥선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위안을 찾았다. 이리하여, 예전에는 팔자가 세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업주부를 보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사회생활과 경제적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정옥선 : 그런데 그 사람들이(전업주부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한쪽으로만 산 사람들 좀 답답하다고 그럴까? 나도 깨이진 못했지만, 잘못 본 건지 몰라도, 그게 전업주부로만 그냥 진짜 사는 것도, 나는 전에는, 삶을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팔자가 세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하나?' 그런 마음도 들 적이 있었는데 보면 답답한 면도 있겠다. 남편들도 봤을 때,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몰라. 어떻게 내가 가장 노릇을 해 왔는지, 나도 독했구나.



1. 여성운동은 밝은 미래다
2. 수원 여성, 변화를 꿈꾸다
3. 여성, 수원의 변화를 꿈꾸다
4. 수원 여성운동,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박정애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05 수원의 여성운동과 지역사회 변화

1. 여성운동은 밝은 미래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19세기 말 찬양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신분과 규문(閨門)의 창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여성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여남평등에 관해 함께 목소리를 내었다. 그로부터 1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과 성격을 보이며 변화되어 왔다. 반봉건이나 항일을 내걸기도 했고, 반독재와 민주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반가부장제나 성해방을 목표로 하기도 했다. 한편 친일이나 반민주와 가부장제에 편승하면서 여성해방을 외친 여성운동이 존재했던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여성운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조건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삶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가족, 일상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자율적인 제도정치의 공간과 시민사회 공간의 확대로 독자적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여성운동은 1990년대 들어와 정치, 환경, 평화, 문화, 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1] 특히 1990년대를 거치

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인 풀뿌리 지역 여성운동이 성장했다는 점은 공사 영역을 넘어선 여성의 사회 역할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1995년 이후 주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생활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여성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 이웃, 직장 등 일상의 영역에서 겪는 공공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2] 여성들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사적인 경험을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 성별성(젠더)의 문제로 인식해 나갔다. 주로 여성단체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면서 힘을 모으고 발휘했는데, 여성단체는 여성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구심체였다. 지역정치는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참여하는 생활정치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 여성운동이 여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염두에 두면서 수원 지역 여성운동에 접근하고자 한다. 수원 지역 여성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수원 지역 여성운동이 여성 자신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술한 여성 활동가는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자 인적 사항

번호	구술자	구술일	출생연도	출생지	수원이주시기	경력	면담자
1	임은지	2012. 7.27.	1974	경북 청송	1997년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박정애
2	조영숙	2012. 8.27.	1968	경기 수원	수원 출생	수원여성회 소식지 편집팀장	박정애
3	신현채	2012. 4.10. 2012. 4.17.	1937	서울	1944년	수원YWCA 회장(1982~1984년) 수원YWCA 이사(1975~2006년)	이혜영

신현채는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는 아니지만, 선배 여성활동가로서 후배 활동가들과 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지점이 있어 이 글에서 구술 내용을 활용하였다. 여성의 단체활동 참여가 여성 본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되

고 있는지 시대를 초월하여 보여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면담은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듣되, 여성운동 참여를 계기로 구술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속 단체의 활동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주의자)들이 모여 단체활동을 하는 것의 장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수원 지역 여성운동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으려고 하였다. 구술자들은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해 주었으며, 수원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비교적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주로 1회 면담에 그쳤고,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수원의 여성들이 여성과 지역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접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원 지역 여성운동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생산적인 모색이 있길 바란다.

2. 수원 여성, 변화를 꿈꾸다

1) 개인에서 활동가로

여성 개인을 여성단체 활동가로 만드는 동력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여성운동은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기혼자인 구술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육아에 매몰된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여성단체를 찾았다고 말했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육아에 매이게 되면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삶에 대해 생각했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 임은지 : 수원일하는여성회를 시작한 게 스물아홉 살. 10년, 올해 딱 10년차 됐어요. 제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스물네 살에 결혼을 해 가지고 수원에 오게 되면서 …… 애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됐죠. 한 2년 집에 있었어요. 둘째 낳을 때까지. 첫째는 스물다섯에 낳았고, 둘째는 스물일곱에 낳았는데, 나이도 되게 어렸잖아요. 너무 어려서 애도 모르고, 남편은 너무 바쁘고, 우울증도 심하게 앓았고. 아마 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인데. …… 1~2년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전에 지역에서 그전에 활동, 예전에 학생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운동을 했던 분들이 애를 낳으면은 여자들이 점점 더 육아만 신경 쓰는 그런 분들이 인제 자아는 높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모여 가지고 이런 여성과 관련된, 다들 육아와 관련된 고민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아이도 키우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다. …… 저희가 2002년도에 10월 10일 날 발족을 했죠, 다섯 명이서. 그래서 발족을 해서 그때는 어쨌든 이름을 지명할 때도 우리가 여성운동 공부를 3개월, 5개월 하면서 우리가 여성운동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성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사회적 활동에서 뒤쳐지지 않게 육아의 문제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여성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회를 만들었죠. …… 우리 일하자, 우리에게 맞는 일을 하자, 그래서 수원일하는여성회라고 정했는데, 이름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지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일하게 된 수원일하는여성회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됐어요.

조영숙 : 저는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직장생활 같이하면서 아이 키우다가 둘째는 더 이상 맡기기가 미안해서, 엄마한테 맡겼었거든요. 둘째는 내가 키우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를 누가 도와주면서 키웠던 거랑 둘째를 올곧이 저 혼자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그때 [수원]여성회에 이미 있던 친구가 소개를 해 줬죠. "여성회 한번 나와 봐라." 그래서 인제 애기 업고 여성회를 나온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이를 업고 딱 나왔는데 처음에는 거의 얼굴에 생기가 안 보였대요, 제 얼굴에. …… 처음에 아이가 어리니까, 둘째 애였거든요, 걔가. 그림책 반에 와서 같은 아이들 둔 사람들하고 만나고, 생활 얘기하고, 그림책에 대해서, 그림책의 이해라든가, 전문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그림책을 직접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성회에 발을 들여 놨는데, 여성회가 그때 얼마 안 있어서 보육 조례 때문에 거리 선전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참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딱 어떻게 보면, 좁아지는 나 자신을 내가 막 뭔가 존재감이 없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존재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인제 저한테 만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계속 여성회 일 있을 때는 열심히 나와서 활동하고,

애 들쳐 업고 젖 먹여 가면서 활동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2~3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인제 다른 사람한테, 동네 아줌마한테 "한번 와 봐라. 정말 괜찮은 단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행복해 보였나 봐요. 1주일씩 나가서 동네 사람 아니고, 다른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봐도 제가 많이 생기가 돌아오고.



엄마가 보여 주는 신기한 노래동화 강좌(수원일하는여성회 제공)

여성단체를 찾기 전에 임은지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조영숙도 너무 힘들어서 시름시름 앓았다고 했다. 몇 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이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만나 '공부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이는 적극적인 단체활동으로 이어졌다. 단체활동을 통해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가며 자아를 찾거나 행복해졌다는 것이다.

여성의 조직화는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 에 도움을 준다. 조직화는 서로간의 대화 속에서 성찰과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집합적 신념과 유대를 만들어 집합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기 때문이다.[3] 일반적으로 개인, 조직, 사회적 수준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힘 갖추기' 는 서로간 영향을 주며 사회 변화의 잠재력을 발생시킨다. 개인적 수준의 '힘 갖추기' 가 조직적 수준의 '힘 갖추기' 를 촉진시키거나 역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사회적 수준의 '힘 갖추기' 에 도달하는 것이다. 래퍼포트(Rappaport)의 정의에 따르면 '힘 갖추기' 는 '개인, 조직, 사회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과정' 으로, 개인적 차원의 '힘 갖추기' 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4]

정답이 없는 육아를 겪으면서 힘겨움을 함부로 토로할 수도 없었던 임은지와 조영숙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찾으면서 육아의 어려움이 사회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면서 생기를 찾아갔다.

이러한 여성운동 참여 과정은 1970년대에 여성단체 YWCA 문을 두드린 신현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여성단체를 접하면서 '너무 좋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다.

> 신현채 : 첫 번째 외출이 큰애가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그때 대문 열고 나가 본 것 같애, 기억에 …… 친구가 그래요. 좋은 데니까 염려 말고 들어오라고. 가입서 내가 써야 되는데 자기가 다 썼대. 그래서 1년 회비 얼마 내는, 그래서 갔더니 어, 처음 외출이죠 뭐. 동창회 아닌 사람 만나는 거. ……그때 저기 뭐야 슬픔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노래도 부르고 박수치고 율동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하고 너무 좋은 거야. 집에서 생전 그냥 우울[하고] 꼼짝 못 하다가. 그러다 그때는 또 견학이 주로였어요. 간장이라면 간장공장 견학. 맥주라면 맥주공장 견학. 얼마나 재밌어. 견학도 하지, 또 가면 선물 받아 오지.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레크레이션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뜻이 맞는 여성들을 만났잖아.

무엇보다 구술자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은 단체활동이 개인사나 가정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활동의 성격을 가진 점이었다. 개인 문제나 집안 얘기를 넘어 '이슈가 있는 이야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만족을 했다는 것이다.

> 신현채 : 집안 얘기 뭐 그런 얘기 아니고 무슨 그때 소비자 보호를 하자, 이슈가 있는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건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어쩌다 보니까 몇 년, 몇 년.

> 조영숙 :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이익이나 이것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만족을 어디서 찾냐면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같은 여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힘을 쓸 수 있고, 이런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라서 …… 큰 욕심 안 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가정사 아닌 다른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사적 공간에 머물면서 제대로 가치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사와 육아에 매진했던 여성들은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적 성취감도 얻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을 하였다. 이렇게 '너무 좋은 기분'으로 나타난 만족감이 계속해서 단체활동을 하게 했다. 나아가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임은지 : 다섯 명이 모여 가지고 학습을 한, 같이 공부를 한 5개월인가 한 것 같아요. 여성주의 뭐 여성운동, 법과 관련된 각자 발제해 오고 하는데, 사실상 한 사람당 아이가 둘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돌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임이, 다섯 명이 애들이 열 명이니까, 회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애들도 막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 우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면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맡겨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데를 찾으러 다녀요, 같이. 그런데 이제 저는 가격이 싸고 제일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위탁을, 우리 같이 모여서 어디가 좋다, 지역이 제일 가깝고, 공동육아를 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육아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일 손쉽게 저렴한 곳을, 아이를 믿을 만한 곳을 맡기자고 해서 맡기기 시작했어요.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조영숙 : 우리 그림책 반의 특징은 무조건 '플러스알파'야. 아이가 따라 붙는 거야. 여성회에서도 그림책 반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탁아를 하나 붙여 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공간이 되게 허름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림책 반 활동할 때는 너무 편했던 게, 마당이 독립적으로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우리는 모임하고. 우리가 떴다 하면 좀 시끄럽긴 한데, 저희는 되게 편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 갖고 여성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탁아는 기본, 그래서 저희가 여성주의적인 시각이라는 게 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성이 참여하기를 바라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뭔가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뭔가 탁상에서 하게 되면, "모여라." 하고 탁아나 이런 거나, 탁아 시설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둘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회에서 어떤 뭔가를 하게 되면 항상 오는 사람들 먼저 보고, 이 사람들한테 탁아가 필요하면 탁아, 뭐가 필요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같이 데리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에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구술자들에게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아이 키우기의 기쁨과 보람, 중요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절감했던 여성들은 "가격이 싸고 제일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아내어 공동으로 위탁함으로써, 또는 단체활동에 탁아를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해법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단체활동에 집중력이 생기면서 조직 차원의 '힘 갖추기'가 성취된다.

2) 단체를 꾸려 가는 여성들

조직 차원의 여성운동은 대부분 단체를 구심체로 삼는다. 단체의 공간과 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를 찾고, 여성문제를 이슈화한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 그리고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단체를 새롭게 만들 경우 사무실을 마련하는 문제는 더욱 절실해진다. 단체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한편 단체활동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임은지 : 저희가 2003년도에 사무실 얻었어요. 얻은 게, 저희가 추진력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육아, 우리처럼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린이집은 못 만들지만 공부방은 만들 수 있잖아요. …… 그래서 공부방을 만들면서 이 공부방 운영과 여성회 사무실을 얻기 위한 재정사업을 진행했죠. 그래 가지고 곶감을 팔았어요. 다섯 명이서 곶감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더라? 아는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2,000만 원을 모은 것 같아요. …… 그리고 저희가 아는 지인들 있잖아요. 선배들, 운동 선배들 찾아가서 100만 원, 50만 원, 작게는 10만 원, 약정서를 받았어요. 저희 활동가들도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도 100, 200만 원씩 모아 가지고 …… 우리가 이러지 말고 제대로 여성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발족하자마자 사무실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4월 달에 북수동에 사무실을 얻어요. 발족한 지 5개월 만에 사무실을 얻었죠, 북수동에.

수원일하는여성회는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사업과 후원금을 통해 5개월 만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곶감을 팔아 2,000만 원을 모았다고 했는데, 임은지 스스로도 인정하듯 대단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무실을 얻어야지 제대로 여성사업을 할 수 있다.' 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회원 현황은 단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다. 회비 접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회원 중심의 활동은 단체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구술자들 또한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은지 :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비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원을 모집을 했어요. 주변에 인맥들 해서 소모임들을 하면서 뭐 풍물 소모임, 글쓰기 소모임, 역사, 그다음에 뭐 있었지? 다섯 개 소모임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이것 좋아하는 사람 모이세요!" 그래 가지고 모았죠.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운영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2003년도에 저희가 제1기 여성문화아카데미를 해요. 회원 확대를 하는데 저희가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오죠. 1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러면서 회원 확대가 확 되죠. 발족한 지 1년인가 2년 만에 100명이 되죠.

조영숙 : 소모임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소모임 뭐 그림책반 같은 데 뭐 모임원이 한 열네 명, 열다섯 명까지 있어서 모임할 때, "너무 사람이 많다. 분반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여성학반도 그랬고. 각 소모임을 그렇게 다 막, 정말 활기차게 활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쫙 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사 가거나 아이들이 크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원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급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모임이 침체기가 왔어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침체기가 계속 되니까, 그럼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자. 그리고 수원 지역에서 우리가 중심이 계속 모이긴 하는데, 결국은 마을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마을을 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한번 바꿔 보자. 우리가 마을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찾아보고, 우리가 마을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지역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수원이 너무 커져 버려서, 이제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마다 각자 현안이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찾아내보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현채 : 광역도시니까. 수원이 커지는데 와이[YWCA]는 항상 쪼그라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주택가에 위치한 수원여성회 사무실 입구(『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 2009년 10월 1일)

대대적으로 한번 모아 보자. "수원 여자들이 얼마나 짠데, 수원 여자들이 할 것 같으냐?"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해 보자." 해서 힘을 합해서 회원 증모 기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군대처럼 조를 짰어. 1조, 2조, 3조 해서 한 사람이 몇 명 해 오기. …… 좋은 교육을 했어요. 100명의 요원들을 데려다가 와이의 사명 …… 일반 부인들 모임이 아니고, 와이의 역사, 왜 와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이건, 와이는 나만 좋으면 …… 와이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여성으로서 본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했으면 그걸 전도하는 마음으로 데려오자.

일반적으로 조직의 '힘 갖추기'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관계성을 기초로 하여 힘을 계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것이다.[5] 위에서 언급한 수원의 여성단체들은 회원 확보를 통해 재정 증대와 조직의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단체가 회원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의미 있게 파고들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사회 민주화운동과 지역 풀뿌리 운동을 배경으로 탄생하고 성장한 수원일하는여성회나 수원여성회가 여성 회원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회원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성별화된 공/사 영역의 패러다임 안에서 결혼·출산과 함께 사적 영역에 고립되고 파편화되기 십상인 여성들은 모임을 꾸리고 무언가 함께 배우는 것을 통해 활기를 얻게 된다. 풍물을 배우고 글쓰기를 하고 여성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 안의 역량에 직면하고 여성들의 가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온건한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받는 YWCA[6]가 오래된 여성단체로서 저력을 발휘하는 것도 YWCA 안에서 활기를 찾는 여성들의 참여 때문이다. 이는 여성 활동가의 단체 참여 과정에서 이미 겪었던 경험으로,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스스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을 단체활동



글쓰기 소모임 활동(수원일하는여성회 제공)

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이자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단체 참여는 더욱 적극성을 갖게 된다.

임은지 : 글쓰기 소모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대, 젊은 주부들인데, 아이 문제 때문에 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몇 년 하면서 이게 내가 잘 서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도 행복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시기가 2~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만큼 이제 소모임마다 변화되는 속도가 되게 틀려요.

조영숙 : 저희는 사무국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활동 회원들 중에서 일반 그냥 회원으로 들어왔다가 활동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소모임 짱을 하고, 소모임 짱에서 소모임 짱 회의에서 또 소모임 짱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맞고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컸어요.

> 내부에서 커서 사무국에 들어가서 조직부장을 한다든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지금 있으신 분, 지금 대표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 안에서 다 커서, 내부에서 커서 사무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충성도하고 자기 만족도로 이것을 버티는 것이죠.

소모임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여성들은 소모임 활동을 넘어 수원일하는여성회가 추진하는 여성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소모임 활동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나 공부 모임이 아니라, 여성과 가족, 사회의 구조적 관계를 자각하고 그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인식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영숙의 말처럼 경제적 반대급부가 열악해도 단체 안에서 성장하면서 힘든 일을 해낸다. 이를 버티게 하는 힘이 '충성도하고 자기만족도' 라고 하는데,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기만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운동을 같이 하는 동료에 대한 애정이 여성 활동가를 양산하고 단체를 "버티게 한다." 개인의 '힘 갖추기' 가 조직의 '힘 갖추기' 로, 조직의 '힘 갖추기' 가 개인의 '힘 갖추기' 로 서로 이어지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3. 여성, 수원의 변화를 꿈꾸다

1) 수원, 여성, 운동

여성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수준의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여성운동은 조직과 대중적 기반을 중심으로 일상적 차원의 변화를 도모한다.[7] 이전의 여성운동은 지역 소재의 여성단체라 하더라도 중앙의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여성운동은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행동 영역을 넓혀 왔다고 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실현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여성' 이 새로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떠올랐던 것이다.[8]

정치 및 사회 변혁의 문제와 여성해방의 관계를 긴밀하게 설정하는 수원일하는



수원일하는여성회 '신나는가게' 의 나눔장터(수원일하는여성회 제공)

여성회나 수원여성회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사회와 여성운동이 만나는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은지 : 저희가 문예교실이나 어머니 한글교실이나 이런 한부모 사업을 위한 나눔가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개념이 꼭 회비를 내는 회원이 아니어도 외향적인 확대를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저희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걸로 따지면 아까 말대로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이 많다는 거, 운동 경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하고 접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나는가게만 봐도 꼭 여성 회원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봉사자로 일 한다든가, 아니면 이 가게에 온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고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분들이 외형적인, 이런 지역 사업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매탄3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지역리더 역량강화교육' (수원여성회 제공)

조영숙 :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게 사회 변화에 발 맞춰서 주부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기수별 활동을 하다가 주부 중심으로 가면서 소모임 중심의 활동이 됐다가 올해부터 지역분과 활동으로 바뀌었어요. …… 수원에 구가 넷 있으니까, 여기가 저희가 있는 여성회로 나와서 모든 소모임들이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모이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그래서 활동을 엮어내 보자, 얘기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장안, 팔달, 영통, 권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일단은 같이 각자 소모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모인 거라서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같은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친해지면서 뭔가 할 거리를 [찾는] 그런 1년이 지금, 올해는 그래요.

수원일하는여성회나 수원여성회 모두 2012년 현재 주력사업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수원일하는여성회의 경우 애초부터 수원 지역의 여성정치 참여에 중점을 두고 2002년에 설립[9]했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을 만나고 지역 현안을 찾는 일에 매우 부지런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원여성회의 변화는 20여 년에 걸친 수원 지역 여성운동의 성격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0] 수원여성회는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통해 여성해방을 이룬다는 목표로 1989년 수원여민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로 정체성 갈등을 겪은 후 수원여성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중성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앞의 구술에서 주부 중심의 소모임 활동이 활발했다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이다. 수원여성회는 대중



여성정치학교(수원일하는여성회 제공)

여성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념과 노동의 문제를 넘어 출산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단체 속에서 풀어 가려고 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주부 중심으로 단체활동이 재구성되었다. 수원여성회는 2003년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수원 지역 대중여성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제도적 지원, 지방정부 정책의 주민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전개했던 이 운동은 2007년이 되어서야 의회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수원 지역에 수원여성회의 인지도를 넓히고 지역정치와 여성의 삶의 연관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11] 수원시 보육조례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개인의 육아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사회의 철학에 대한 문제이며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발견' 하였다. 또 지역여성의 삶이 지역정치의 성(性) 인지 수준과 관련되어 있



수원여성회 부설 평동어린이집(수원여성회 제공)

음을 절감하였다. 이는 공/사 영역을 재정치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권 중심 보육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여성운동 참여를 통해 기존의 공/사 개념을 재조명하고 보육문제를 공/사 간의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접근을 통해 풀어가는 페미니즘의 정치학[12]을 실천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원여성회는 수원 여성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속에서 여성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장안, 팔달, 영통, 권선 지구에서 소모임을 꾸리고 지역여성들을 만나면서 '뭔가 할 거리는 찾는' 방식으로 여성운동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풀뿌리 수준 여성들의 관심은 보통 생활상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들인 경우가 많기[13] 때문에 일상적 차원의 여성이슈들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따라서 지역 여성운동은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자각을 하든 하지 않든 성별 위계질서에 도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가치를 두는 특정한 양식의 '페미니스트 운동'[14]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여성 활동가들은 수원 지역이 '보수적' 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여성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영숙 : 수원이 진짜 보수적인 동네예요. …… 수원이 어떻게 보면 '벨트타운' 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저쪽 북수원 쪽은 버스 잘 다니고 하는 쪽은 원룸도 엄청 많고, 거의 그렇죠. 영통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젊어지긴 했는데, 충성도라고 할까요? 지역에 대한. 이런 거는 아닌 것이죠. 수원이 내가 거처하는 곳일 뿐이지, 수원이 내 뭐 고장이거나 이 안에서 활동, 생활하는 것은 아니니까. ……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충성도가 확 떨어지고 애정도가 확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 백화점[같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정책 생산도 하고, 정책 참여 예산이나 기존의 경기도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이렇게 해서 거의 전국에서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의제를 생산했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갖고 왔던 것도 저희였고, 보육조례, 급식조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랬고. 올해는 인제 수원시에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에, 시립보육시설에 보육실 내 '씨씨티브이(CCTV)'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거 막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저희 안에.

임은지 : 수원은 지금 110만이 넘었거든요.…… 효에 뭐에 이래 가지고 정조, 무슨 여성상 하여튼 되게 보수적인 동네이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이제 아직은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지역에 있는 여성들 생각하는 거나, 구도시의 여성들이 생각거랑 딱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10년을 되돌아보면 진짜 많이 변화됐던 거 같아요. 여성들이…… 의식이. "여성이, 이제는 여성이 정치활동으로 온다면, 여성이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전까지는 이제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전에는 여자들이 뭘 하겠냐면, 지금은 워낙 정치가 엉망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하면 그래도 낫다, 이런 의견인 거고. 또 그 지역에서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마다 다 고민인데 지역 공동체가 다 깨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봉사가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 지역 공동체도 그나마 지역의 활동, 부녀회 활동들도 되게 왕성하게 많이 돼 있고. ……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육아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많이 하고.

조영숙은 수원이 보수적이고 최근의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도와 충성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라는 주제로 열린 수원일하는여성회 월례회(수원일하는여성회 제공)

낮기 때문에 여성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활동가가 체감하는 수원 지역의 특성은 수원여성회의 '백화점식'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지역애(地域愛)에 호소하는 운동보다는 생활에 밀착되어 있거나 여성의 실제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 설치나 보육조례, 보육시설의 문제 등 말이다.

한편 지역 여성운동의 성장 안에서 탄생하여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수원일하는여성회는 수원 지역이 보수적이지만, 그래서 공동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보수적이든 개량적이든 지역 여성에 의한 봉사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육아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임은지는 2006년과 2010년에 수원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에 여성정치에 관해 인식 변화를 보인 수원의 유권자를 만나면서 수원 지역 여성운동의 성과를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보수적이고 이해에 밝다는 수원의 특성이 반드시 지역 여성운동에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닌 듯하다. 지역 여성운동은 거창한 이념의 실현보다는 현실의 지역 여성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왔고 무엇보다 수원시 지방정치에서 여성정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15] 보수성 또한 지역 여성운동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며,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와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보수적인 여성조직이 풀뿌리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상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16] 보수와 대립 구도의 여성운동 인식은 중앙 수준의 여성운동 담론이며, 지역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여성조직이 지역 내에서 여성들의 욕구를 수렴해 왔다는 사실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수원의 진보여성조직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여성운동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지만,[17] 지역 여성운동은 정치적 이슈 중심의 중앙 여성운동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중앙 중심의 여성운동 과정에서 지역 여성들의 참여와 현안이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인식틀을 달리하여 지역에서 비롯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구적 수준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면,[18] 꼭 민주주의나 페미니즘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사회 민주화와 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상의 정치들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수원의 여성운동은 그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2) 수원 여성운동의 미래

오늘날 수원 여성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내보이고 있다. 수원 여성운동 조직은 수원 여성의 이해와 접점이 맞는 지점에서 여성운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여성운동은 개인과 조직, 지역 사회 차원에서 건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전의 여성운동이 활동가 중심이었다면 현재 지역 여성운동의 주체는 다양해졌으며, 여성운동의 이슈 또한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 여성운동은 할 일이 더욱 많아졌으며 반면 운동의 구심체는 모호해졌다.

이러한 지역 여성운동의 흐름은 여성단체에게 위기로 다가오기도 했다. 여성단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목소리는 내려는 여성들의 모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여성층에게서 두드러진다.

조영숙 : 요새는 더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떻게 말해야 되나,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시나 아날로그적이고, 20대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이런 게 우리랑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한동안 했었거든요. 우리도. …… 이게 그런 거잖아요. 30대가 있어야지 30대 고민이 나오고, 20대가 있어야지 20대 고민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가 잘못해서, 우리가 신입회원이 왜 안 될까, 알음알음 이렇게 친한 사람 있어, "이 사람이 활동 참 잘 하고 있네." 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후원해 주는 사람은 있는데, 어떤 그렇게 좀 옛날처럼 그런 식의 신입회원은 수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우리 상임대표 있으시고, 공동대표 있으시고, 사무국장 있고, 조직부장 있고, 요번에 사무국원 또 한 명 새로 뽑았거든요. 거의 뭐 일은 시간 엄청, 주말까지 뭐 야근까지 하는데, 최소생계비고 거의 그렇죠. …… 활동가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제일 미안한 게 그런 거예요. 일을 저렇게 막 힘들게 하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신입회원 수급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체의 인력과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가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 단체활동을 병행해야 하고, 임원과 상근자들은 최소생계비를 받으면서 주말 야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활동가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조직의 동력 약화로 이어진다.

임은지 : 여성이 갖고 있는, 아까 말했듯이 중산층이 아닌 우리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도움을 주는, 이게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사업하기 때문에 간부들이 많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쉬어요. 쉬는 간부들이 많아요. 원래 한 5명에서 많게나 10명 넘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준 거죠. 많이. 힘드니까 …… 자기 체화가 돼야 되요.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 삶이랑 괴리되면 안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 했듯이,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런 건 다 힘들잖아요.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화, 내 삶이다 생각하고 이런 삶이, 지금의 살고 있는 삶이나 집에 가서의 삶이 똑같으면 이게 이제 그냥 가는 건데, 집에 가서 있는 삶이 틀리고 밖에 나가서의 삶이 틀리니까 이게 괴리가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격차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걸 버리려면 내가 이 삶에 체득이 돼야 되는 거죠. ……

중간에 한 번 큰 고비가 있었어요. …… 그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한 5년 전에 '내가 여길 떠나야 되나? 사람하고 갈등,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 제 문제 갖고 '왜 나만 갖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내 내면의 거울을 보는 계기를 갖게 됐더라구요. 근데 그건 거 같아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됐어요. '내 문제구나' ,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딱 '내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내려놔 버리니까 자존심도 없어지더라구요. 자존심은, 싸움도 적하고 싸워야지 남편하고 싸울 필요 없는 것처럼 적이 명확하고 자존심도 세워야 될 때 세워야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 그때 이제 고게 딱 제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찾게 됐죠. ……

작년하고 재작년은 주로 저희가 너무 힘든 시기라 힘든 시기에는 주로 쉼 프로, 마음 나누기. 마음 나누기 강사 불러 가지고 자기 삶 이런 거 했던 거고, 작년까지 그걸 했던 거고 올해는 올해 간부교육할 때는 우리 여성회에 같이,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그게 돌아가요. 그게 계속 너무 우리도 성별 역량 평가 교육하러 갔는데 3년 전에 예산 교육하러 온 언니가 5년에 와서 자기가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단체도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돌아가더라구. 교육 내용은. 어쩔 때는 마음 나누기 했다가 어쩔 때는 여성의 가치나 아니면 여기 내가 왜 있는지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돌고 도는 거 같아.

조영숙 : 여성회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즐거운 회원 활동인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1년 지나면 쉬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정말 이렇게 회원, 한동안은 회원 수련회, 활동가 수련회 9월 달에도 가거든요. 가면 정말 머리 깨지게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우린 쉬어야 돼' 이러면 진짜 쉼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꽉 채워서 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즐거운 회원 활동이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가 즐거



수원여성회 회원수련회(수원여성회 제공)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수원일하는여성회 제공)

워야지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부 갈등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과로 등으로 사람과 단체의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 활동가들은 그 극복방법으로서 자기 체화와 성찰, 그리고 '쉼'을 제안한다. 여성운동의 이슈가 그렇듯이 여성 활동가도 삶과 운동이 괴리되지 않았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문제를 짊어진 계몽자로서의 여성 활동가가 아니라 여성 활동가도 끊임없이 자각과 성찰이 필요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내적 고통과 생활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성운동을 계속하는가. 여성 활동가들은 공동체 안의 나눔과 공감이 주는 삶의 감동이 여성운동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한다.

임은지 : 저희도 회원 중에도 보면 다양한 아픔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 한부모들도 많고. 자기가 벌면서 이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고. 소외계층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궁핍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정신만 부자이고 생활은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돈에 연연 안하고 살기 때문에 ……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 욕심을 안 내면 돼. 교육과 관련된 것도 애를 학원 안 보내면 돼요. 우리는 방과 후에 이제, 그래서 방과 후를 만든 거예요. …… 이 아이들이 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도 자기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배우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자기뿐이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또 커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요번에 공부방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데 요번에 우리 수원 지역에서 기부 올림픽을 해요. 그 아이들이 그 '캄보디아'에 무료급식소, '캄보디아' 제정이 어려워지면서 그 무료 급식소가, 학교 급식소가 다 폐지가 됐대요.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만드는데 200만 원이 든대. 그걸 하는데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0만 원 모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걔네들이 쓴, 내가 어저께 나도 처음 봤거든요. 우리 아람이[딸 이름]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쓴 걸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네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1318 다니는 청소년,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우리도 가정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이런 도움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수원여성회가 개최한 한부모 캠페인(수원여성회 제공)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걸 하게 됐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구요.

조영숙 : 여성회 회원들 중에도 보면 한부모 가정 그 사업을 한 번 했었거든요. …… 그분들 보면 여유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남편이 없이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건사하고 생계까지 책임지고 하니까 힘든데, 그분들도 역시 회비 내고, 여기 와서 모여서 뭔가를 같이 나누는 게, 어디 가서 같은 처지의 자기를 편안하게 드러내고 얘기하고 같이 그리고 가정, 개인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얘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 공감이죠.…… 본인의 문제를 사회와 공감하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나 혼자 책임지고, 나만 내가 뭔가 불행한 운을 갖고 태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안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그분들도 좀 더 훨씬 편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 그 안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일상을 꾸려 나가고 내 아이를 보호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서로가 서로한테 칭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도 있고, 사회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여성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여성운동의 의미는 개인의 '힘 갖추기'로 돌아온다. 성차별적인 시간을 거쳐 온 여성들의 역사는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사회 모순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삶 안에서도 행복과 보람이 있다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여성운동의 삶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 부와 가난, 어른과 아이, 한국과 캄보디아라는 경계는 허물어지고 새롭게 '사람'이 발견되는 것이다.

신현채 :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여성운동을 한다 그러면 좀 거세다는 인상 들고, 반항적이다. 남자를 대항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애. 저는 여성운동은 내가 찾지 못한 여성의 위치를 찾을 뿐이지. 평화가 기본이어야 될 것 같애. 평화. …… 여성 와이(Y)에서 활동하면서도 제가 항상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 가든지 저는 평화, 화목. 다툼은 싫어요. 그래서 뭐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또 와이(Y)활동이 그런 건 아니야. 우린 그저 제자리를 지키고 또 어느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소리 하고. 우리 바른 소리해야 할 때 꼭 하죠. 그래서 와이(Y)가 그렇게 좋아, 어, 관청에서 볼 때 그렇게 반가운, 예쁜 단체는 아니야. 어떤 경우는 우리는 협조 안 하거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한부모 모임의 음악치료(수원일하는여성회 제공)

조영숙 :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건, 평등하고 평화로운, 여성이 성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가족 내에 일은 결국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기조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들도, 이미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딸들이 정말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 온 것 말고, 얘네들은 좀 더 나은 출발점에서, 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 우리랑 똑같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그런 거와 그리고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려질까. 이미 수원에서는 뭐, 관이나 웬만한 운동하는 단체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또 모르잖아요. 각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안에서 모르니까, 지역 안에서 좀 깊이 단단하게 뭉치면서 외연도 확장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게, 체질도 바꾸고 하는, [수원여성회가] 25주년, 30주년 가면서 가져가야 할 부분인 것이죠.

개인의 변화는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지구적으로 생각하

고 지역에서 실천하라."는 지방정치시대의 테제는 나와 주변, 지역의 변화가 전 세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 신현채와 조영숙의 말처럼 여성운동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 때문에 '사람'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 관청의 입장에서 '예쁜 단체' 가 아닐지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할 때는 꼭 한다." 이 모든 욕구의 시작은 '지역' 이다. "지역 안에서 단단하게 뭉치면서 외연도 확장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4. 수원 여성운동,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세계화가 곧 지방화로 인식되는 시대에 지역여성은 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타났다. 수원 지역에서는 보수적 여성조직이 상호부조와 봉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1990년대를 전후로 자생적인 여성단체들이 설립, 활발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19]

연령을 막론하고 여성 활동가들은 결혼 후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강하게 인식했으며, 여성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사적인 삶을 사회화하면서 '자아' 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조직을 통해 개인의 '힘 갖추기' 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개인의 '힘 갖추기' 는 조직과 사회의 '힘 갖추기' 로 이어졌다.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관계성에 기초한 힘이 계발되고,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실현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수원 여성운동은 수원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행동을 넓혀 왔다. 지역 여성들을 만나면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보육, 환경, 급식 등의 문제를 이슈화했고, 여성들은 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공/사 개념을 재조명하고 각 영역 간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지역 여성운동은 기존 여성운동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지역적 삶의 변화를 세상 변화의 발원지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여한 수원 여성들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역의 여성운동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한다. 소외되었던 '사람' 의 삶을 생각하고 지역의 이해와 역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철학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성운동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춤추는 수원을 위해 수원 여성운동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1. 여성 정치? 여성 정치!
2. 수원 여성 정치의 시작
3. 여성, 수원 정치 속으로
4. 여성 정치, 수원의 변화
5. 수원 여성 정치의 미래

박정애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06 여성의 정치 참여, 수원을 바꾸다

1. 여성 정치? 여성 정치!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여성 정치'는 대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불경기와 불평등한 분배 속에서 삶의 피로도가 높은 한국인들에게 '여성 정치'는 희망의 메시지다. 2012년 봄과 겨울에 있었던 선거에서 각 당은 여성대표를 내세워 정치쇄신을 도모했고, 여성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정치공간에서 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여성 정치인이 있다 하더라고 남장을 한다든가, '여성이 아닌 정치인'임을 강조해야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여성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답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성 정치'는 여성과 정치의 조합어이지만 내포된 의미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단순하게는 여성이 하는 정치를 말하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정치, 여성주의 지향을 갖는 정치, 여성이 참여하는 정치를 포괄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 정치인의 증가가 곧바로 '여성 정치'의 질적 향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반여성의식을 지니거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여성 정치인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여성 정치인의 증가가 '여성 정치'의 성장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남성 중심적인 정치세계에 여성이 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정치

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여성 정치' 에 관한 투표인들의 젠더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정치는 부패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여성의 권익 증대에 기여한다.[1] 따라서 공정함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지방자치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참여하는 지방정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 글은 수원 여성 정치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 미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여성 정치의 역사가 그렇듯이, 수원에서도 여성이 정치의 주체가 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연구방법은 여성 정치 관련자의 구술에 의존하였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거나 현재 수원시의원을 지내고 있는 여성 정치인을 면담하였다. 여성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정치행정을 담당하면서 정책을 수행했던 여성 공무원도 '여성 정치' 의 범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담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면담에 참여해 준 구술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자 인적 사항

구술자	구술일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고교	경력
박명자	2012. 6.18. 2012. 6.25.	1944	경기 수원	수원여고	경기도의회 5대 의원 역임(비례) 경기도청여성정책국장 수원시의회 8대 의원 역임(비례)
홍수자	2012. 7.31.	1946	경기 화성	수원여고	장안구청 가정복지과장 경기도보건복지국 부녀복지과장
백정선	2012. 9. 1.	1968	부산	부산 동주여상	수원시의회 8대 의원 역임(비례) 수원시의회 9대 의원(선출)
전애리	2012. 9.24.	1960	경기 수원	수원여고	수원시의회 9대 의원(비례)

구술자들을 여성 정치 관련자라 명명한 이유는 이들이 여성과 정치라는 키워드만 공유하고 있을 뿐, 여성관이나 정치관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뚜렷한 정체성으로 묶이지 않는 구술자들의 구술을 통해서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더듬어 보고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열린 규정을 하였다. 여성 정치의 가능성

은 여성으로서의 삶의 경험과 정치의 관계, 여성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 가족과의 관계, 남성 중심적인 정치관행과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들의 구술을 통해서 그동안 수원시에서 이루어 온 여성 정치의 성과와 이를 이어 가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들이 조감될 것이다.

2. 수원 여성 정치의 시작 _ 정책의 대상과 수행자로서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 정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는 여성정책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한국에서 여성정책의 개념이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여성운동이 여성정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해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정책은 부녀복지라는 이름으로 요보호여성의 관리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2] 또한 생활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선전과 계몽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혜와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실시된 정책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홍수자 : 제가 67년도에 면사무소 일을, 그때는 임시직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비봉면사무소. 그해에 9월 1일부터는 근무를 했는데 그게 임시직이니까 이제 해마다 예산이 서야지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해 지나서 그다음 해까지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부녀계몽요원이라는 걸로 들어간 거거든요. 부녀계몽요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시골에 정말 부엌 개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잖아. 계몽하는 그런 거. 절미, 저축 [웃음] 그런 게 주 사업이었어요. 부락 찾아다니면서 뭐 여성들 모아 놓고 그런 거 하는 거가 거의 부녀계몽요원의 활동이었는데. 면사무소에 자연부락들이 쫙 있잖아요. 23개 리였어요. 거기 면사무소가. 그래 가지고 걸어서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산속에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인제 찾아가고, 주로 또 여자들이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을 만나려면은 그것도 밤에 또 가야 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게 또 좀 어렵고. 또 그때는 또 다산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가족계획을 많이 장려한 때였었잖아요. 그때 면사무소에 가족계획 계몽요원

도 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그러한 생활 개선, 부엌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다든가 뭐 가족계획을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부녀자들을 모아 놓고 그렇게 했지요.

여고를 졸업한 홍수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 것은 면사무소의 여성 대상 업무였다. 비록 계몽의 대상으로 깨우쳐야 할 존재로서 취급되기는 했지만 여성 대상의 정책이 '부녀계몽요원' 이라는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이다. 홍수자는 낮에는 밭일과 집안일에 바쁜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주로 밤에 일을 했으며, 위생과 가정개량 등에 관한 계몽활동을 했다. '가족계획계몽요원' 과 함께 피임 등 가족계획방법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홍수자 : 그 부녀계몽요원을 1년, 9월 달부터 했으니까, 3개월인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없어진 거야. 예산이 없어서 다 그냥 죽여 버렸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열심히 해 가지고 그때 거의 여성 공무원들, 지방에서 공개 채용한 것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화성시에서 공개 채용하는 데 응시를 해 가지고 합격을 해서 또 그냥 거의 바로 또 발령을 받았어요. 일찍. 한 5월, 1월 1일부터 내가 쉬었었는데 그 사이에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리고 6월 20일인가, 그때부터 근무를 발령받아서 하게 됐으니까, 5월 20일인가 하여튼 빨리 그게 진행이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인제 일반 행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된 거야.
그때에 74년도에 경기도에, 도에서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민원실이 대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거의 다가 자동차등록 업무였었어요.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업무가, 95% 정도가 거의 자동차 관련 업무가 민원실에서 이루어졌었어요. 다 도청에서만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는 데에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위조 해가지고 등록도 하고 무슨 뭐 하여튼 야로가 많대요. 그래 가지고 그때 조병규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인데, "그래도 여자들은 맑고 깨끗하게 한다. 창구 직원들을 여성 공무원으로 다 바꿔라." 그런 지시를 하셨대요. 그래 가지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 군에다가 모집을 했어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응모를 해라. 그래 가지고 인제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전입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해서 일약 면사무소에서 도청으로 입성을 하게 됐지요. 안 그러면은 진짜 면사무소에서 도청에를 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거



창구 담당 직원이 전부 여성이었던 1970년대 경기도청 민원실(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제공)

의 없어요, 그런 게.
민원실에서 거의 10년, 오래 있었어요. 창구마다 안 다닌 데가 없이. 처음에 민원실 각종 민원들이 다 오잖아. 별 게 다 있잖아. 창구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돌다시피 민원실에서, 옛날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리가, 보직을 그렇게 안 줬잖아요. 거의 민원실 들어와서 거의 거기만 여성이 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지 딴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임시직에 불과했던 여성의 일은 예산의 감축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면사무소에서 1년 3개월 만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녀계몽요원' 자리부터 없앴던 것이다. 위기의 순간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회가 왔다. 경기도청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여성을 뽑았던 것이다. 남성들이 맡은 업무에서 각종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자들은 맑고 깨끗하게 한다. 창구 직원들을 다 여성 공무원으로 다 바꿔라."라는 도지사의 지시는 여성 행정에 대한 정치계의 기대를 보여 준다. 홍수자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일약 면사무소에서 도청으로 입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에게 더 이상의 역할을 주려 하지 않았다. 여성에게 열어 놓은 정규직 자리는 민원실 창구에 한해서였다. 이 때문에 홍수자는 거의 10년 동안 민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홍수자 : 그다음에는 제가 저기, 수원시청으로 내려왔어요. 수원시청에 내려왔는데 6급이었었거든요, 그때가. 6급 공무원이었는데 진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시 · 군에서는 6급이 계장급이에요. 6급이면 다 계장 발령을 주는데 6급인데 계장 발령을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6급 계장 밑에 6급 자리래요, 그게. 그런데 의료보호담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의료보험공단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료보호담당을 하나씩 주사 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있었어요, 그 자리가.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거의 3년 했는데, 그렇게 보직 없이 계장 밑에 그렇게 두더라고, 80년대였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진짜 시장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한 적도 있었어요. [웃음] 그래 가지고 나중에 민원계장 보직을 줬어요. 수원에서도 여성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장 보직을 받은 것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정규직 10여 년 만에 6급 공무원이 된 홍수자는 남성이면 당연히 받았을 계장 보직이 주어지지 않는 "진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다." 같은 6급이면서도 홍수자는 계장인 남성 밑에 있어야 했던 것이다. 3년을 견딘 후 홍수자가 택한 방법은 시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 민원계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수원시에서 최초의 여성 계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홍수자는 차별적인 인사조치에 직면하자 최고 인사 결정권자를 찾아가 직접 부딪치는 방법을 선택했고 답변이 궁색했던 시청은 비로소 여성을 보직의 반열에 들여놓았다. 이후에도 홍수자는 경기도와 수원 여성보직의 최초를 열어 1988년에는 최초의 장안구청 가정복지과장이, 2003년에는 최초의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이 된다.

여성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운동이 발전하고, 한국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이 되면서 정책 대상을 요보호여성에서 일반 여성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



장안구청 가정복지과장 재직시절의 홍수자(홍수자 제공)

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은 젠더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평등정책으로 전환되었다.[3]

여성정책의 질적 도약과 더불어 수원에서도 여성이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회에 여성 후보 2명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전체 의원의 불과 4.0% 수준이었지만[4] 수원 여성이 정책의 수행 및 대상에서 정책입안자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수원시의회 여성 의원의 수는 2002년 2명, 2006년 4명, 2010년 7명이 되었다. 200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여성공천할당제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5] 2010년 여성 의원 당선자 7명 중 5명이 선출직이었다는 사실[6]은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해 온 여성 정치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 부녀복지과장 재직시절의 홍수자(홍수자 제공)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 경기도 각 시군 가정복지과장을 인솔하여 경기도 단장으로 참석하였다. 맨 오른쪽 붉은 셔츠 차림이 홍수자이다.

3. 여성, 수원 정치 속으로

여기에서는 전 · 현직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의 구술을 중심으로 수원 여성의 정치경험을 재구성한다. 여성이 정치와 맞닿는 시점을 재현하면서 여성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치에 진입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구술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여성의 정치방식을 정리하고 남성 중심적인 정치세계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여성 정치 특성의 일면과 수원 정치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의 시작

면담자들은 정치 입문 과정을 구술하면서 하나같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거나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라고 했다. 정치는 '특별' 하거나 '사기꾼', '무능



제5대 수원시의회 두 명의 여성 의원 가운데 정금란 의원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첫 여성 대표위원을 지냈고, 허영란 의원은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팔달구 후보 경선에 참가하였다.

한 자' 가 하는 것이었으므로 본인이 들어갈 데가 아닌 곳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박명자 : 저의 선입견이 정당은 다 사기꾼들만 모여서 일하는 덴데 내가 왜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

백정선 : 사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평범한 아줌마? 그런데 어느 날, 2002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노사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역 구도를, 지역색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정치인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원칙, 상식,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실천도 하는 사람이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게, 장인어른이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거운동할 때 그랬을 때, 노무현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마누라를 버려야 되나?" 이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나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어요. 정치인은 숨기기 바빴을 것이다, 변명하기 바빴을

것이다, 변명하지 않고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마누라를 버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것. 그런 것에서부터 매력을 느꼈죠.

전애리 : 2002년도에 누가 날 보고 정치하라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봤는데, 정치인들이 또 제 속성에 안 맞는 게, 정치인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래서 된대는 건지 안 된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만 막 화려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거 돈을 해 준다는 거야. 우리는 그게 참 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당시로 봐서는 너무 이상해서 나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정치에 관심 없는 평범한 아줌마" 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백정선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접하고 정치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인은 숨기기 바빴을 것이다, 변명하기 바빴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실망하고 기대를 접었던 정치에 대한 '관심' 을 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현실정치를 평가하고 있는 여성의 '관심' 이 배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백정선의 경우,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는 정치인을 보고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이때 노무현의 정치적 행보 못지않게 아내에게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평범한 아줌마' 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적인 태도는 노무현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입증' 한다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정치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던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는 주로 주변의 강권에 의해서였다. 정치와 상관없이 본인의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그 모습을 평가한 주변 동료들이 이들을 정치세계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박명자 : 도청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단체에 15년 있다 보니까 아마 지역사회에서 참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주변에서 인정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시절에 인저 당에도, 그때가 86년 무렵이었으니까 당에도 여성들을 키워야 되고 또

여성을 담당하는 여성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여성을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었을 때예요. 당에서 오신 분이, "일을 좀 함께하면 어떠냐?" 그런 제의가 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를 누군가로 메꾸지 않고 또 공석으로 아직도 두었대요. 그래 가지고 또다시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나도 좀 큰 세계로 도전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아주 그냥 결심을 해 봤어요.

백정선 : 정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자가 참 없어요.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다 여자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당 내에서 정당인들을 보면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여성위원장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때 젊은 친구들이 "누나가 하는 게 어떠냐? 여성위원장을" 그래서 뭔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원시 최초, 열린우리당 여성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쩌면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2006년도에 처음으로 기초단체에 비례대표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마감하기 이틀 전 날, 우리 남편을 설득을 시킨 거야. 당원들이. "누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그걸 하냐? 그것은 정말로 정치에 뜻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밥만 하던 아줌마가 어떻게 하냐?" 내가 당원들 수십 명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먹인 적은 있지만, 내가 뭔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고 끝까지 고사를 하고 했었는데, 마감 이틀을 남겨 놓고 또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거야, 당원들이. 그래 갖고 끌려 나가서 서류를 다 챙겼어요.

주변의 동료들은 여성이 일을 하는 능력이나 열정을 보고 정치를 할 사람으로 '낙점' 을 한다. 따라서 여성 정치는 어느 정도 검증된 인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간 자리는 여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박명자는 정당의 여성부장을, 백정선은 정당의 여성위원장과 여성에게 할당된 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맡았다. 곧 아무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남성 정치인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을 위해 마련된 정치공간이 여성 정치인을 '발굴' 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당 내 여성조직이나 여성할당제가 유효한 이유이다.

반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전애리는 직접 정당에 입당하고 시의원 출마를 '선택' 한다.

> 전애리 : 근데 누가 수원시 시의원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비례가. 정치를 하자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좀 실무적인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게 재밌는 거구나 하고 일단 듣고 보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걸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육을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라고 하면 내가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사실은. 시의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가 시의원을 선택을 했어요.
>
> 저는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정당에 한 번 들어가 보라고 그러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떤 성향일까? "음, 나는 보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경기도당에 들어가서 나 혼자 가 가지고 뻘쭘하게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냐?" "입당하려고 왔는데요." 저돌적인 게 있어요. 약간 똘아이 기질이라고나 할까.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며 공연을 기획하고 개최하기도 했던 전애리는 문화예술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정치를 생각한다.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덕분에 인맥과 정보 취득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성찰과 선택, 결정으로 정치의 문을 연다. 전문성과 사회경험에서 비롯된 뚜렷한 정치적 목표가 두려움 없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2) 여성들이 정치하는 방식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정치를 시작한 여성들에게 의정활동은 만만치 않았다. 2006년과 2010년에 수원시의회에 입성한 백정선과 전애리는 처음에는 의원으로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고 한다.

백정선 : 되고 나서 과정을 얘기하면 4년 동안 매일 후회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산서를 볼 줄을 아나, 감사를 할 줄을 아나,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공부를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 주변에 당원들도 생활정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2년은 정말 몸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 게 없었어.
재선 때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이 첫째였었고, 남편이 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하지 말라." 초선 때 너무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었고, 내가 비례를 하면서 느낀 게 선출직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설득을 했어요, 남편을. 그래 갖고 남편이 설득을 당했지. 그래서 각오가 새롭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요즘도 제가 있는 위원회가 문화, 복지, 체육 이쪽이어서 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성복지, 여성에 관련된 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애리 : [시의원이 된 후] 반 년은 진짜 애들 말로 눈치를 봤어요. 시의원이 뭐 하는 건지 그리 '스터디' 도 못 하고 사실은 됐거든요. 대충 알고 있지만 그래서 뭘 하는지. '이 기관에서 왜 날 부를까' 6개월은 정말 공부를, 눈치, 이 책을 보고서, 그러니까 설명회를 해요. 사업설명회를 해. 책을 보면서 예술 쪽은 알겠어요. 문화관광과 쪽은 알겠는데. 복지 쪽도 하잖아요. 교육 쪽도 알겠더라구요. 해 봤던 것도 있고. 복지 쪽은 한국말을 써 놨는데도 못 알아먹겠더라구요. 진짜 못 알아먹겠더라구. 그래서 못 알아먹을 때는,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답이 안 보일 때에는 10번, 100번 읽어라." 정말 그 책을 무슨 뭐 읽듯이 열심히, 그 복지에 관련된 것을 읽었는데 처음엔 모르겠더니 설명을 듣고 그리고 왜 모르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게 되고, 신문에 그런 게 나오면 열심히 '스크랩' 도 하게 되고, 뭐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기를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문화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좋은 건지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할 곳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함께 공부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몸으로 부딪쳐 가며 하는 의정활동은 '후회' 와 '눈치' 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공약과 정치적 포부를 내걸고 나왔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 헤매는 시기가 있



제8대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백정선 의원(수원시의회 제공)

었던 것이다. 백정선은 "4년 동안 매일 후회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의정 공부를 해야 했다. 그리고 4년간의 경험 끝에 다시 정치를 하길 바랐고, 선출직에 출마하여 2010년 재선에 성공하였다. 수원시의회 최초로 여성 재선의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백정선은 제외하면 현재까지 수원시의회 여성 의원들은 초선 경험밖에 없었다. 많은 여성 의원들이 4년간 고군분투해서 익힌 실전 정치감각을 다시 훈련하거나 나누어 볼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제도 마련을 통해 여성 정치인의 수적인 증가는 이루었지만 이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계승될 만한 정치환경이나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정에 익숙해지면서 여성 의원들은 익숙지 않은 일상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남성 의원들인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의회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백정선이 봤을 때 이런 태도는 "일을 잘 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행위였다.

백정선 : 조금 알기 시작을 하면서는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 거 아니지만 내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던 게, 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오후까지 이어져서 일을 할 때, 점심을 먹으면 남자들이 다 술을 마시는 거야.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어. 어느 날부터 술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런 것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예산을 뺏어 온다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을 대하는 게 너무 막 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자, 뭐 예산을 아무리 잘 보고, 감사 아무리 잘 해도, 저런 식이면은 어디 가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의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 점심 먹을 때 술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다녔더니, 남자들이 싫어하겠죠. 원래는 담배를 안 피는 게 당연한 거거든. 공공기관에서는 전체가 금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펴요. 그런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인제 주장을 하면서, 하게 되면서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조례도 하나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백정선은 "소소한 것부터" 고쳐 나가면서 의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상대가 싫어 해도 "원래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성 의원들은 의정 생활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간다. 그것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일 처리와는 다른 것이었다.

백정선 : 남자들은 잘 뭉치죠, 일단. 뭉쳐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혼자 해야 되는 거지, 뭐든지. 여자들이 대체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현안이 생겼다고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러요, 담당자들을. 가까운 뭐 자기들끼리 뭉친다든가, 다 불러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이런 저런 일로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언성이 높아지고 "의원님이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요. 안 불러요. 전화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방법이 있냐?" 그럼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의원님 얼굴 보고 얘기할게요." 자기가 알아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나한테 부탁을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지. 그런데 남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화를 안 해요, 안 되는 경우는. 공무원 보고 전화를 하

라고 그러지.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애리 : 그러니까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은 없어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기업인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소관이 아니면 그쪽의 여자 의원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요. 만나서 조례를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남자한테 안 줘! 그리고 행정상 정보가 된통 하나 걸렸어. 남자한테 안 줘. 왜냐하면 자기네끼리도 그러거든. 그리고 여자들은, 진짜 아직은 사회가 좀 뭐라 그럴까. 남성 위주다 보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을 적에는 아무래도 정보에 약해요. 그럴 때는 서로, 저는 그쪽에 여자한테 주고, 쿨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문제를 도모하거나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인맥과 지위를 동원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거나 압박을 주어 해결한다. 백정선은 이를 "남자들은 잘 뭉쳐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문제에 직면해서 직접 그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서 해결하거나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전애리는 여성이 처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을 초월해서 여성 의원들끼리 공부를 하며 조례를 논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배타적으로 공유한다. 전애리는 정보를 독점하여 여성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 오랫동안 남성 중심 사회를 유지시킨 원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정보는 여성들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에 대한 지적, 사안에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태도, 여성 중심의 정보를 생산하여 남성 중심 사회와 경쟁하려는 모습 등은 여성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로써 남성 중심적인 정치문화는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제8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현장 방문(수원시의회 제공) 여성은 박명자 의원뿐이다.

3) 수원 정치계의 남녀 차별 문화와 대응

오랜 기간 남성들이 정치를 독점해 오면서 정치계에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들이 산재해 왔다. 성평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 노력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현재에도 성차별에 대한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의 온도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구술자들은 경기도의회 또는 수원시의회 내에서 눈에 띄게 확연한 성차별은 겪지 않았지만, 여성 차별적인 시선과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였다.

박명자 : 남성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 보기를, 굉장히 말을, 못할 말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작은 예로 이런 사람이 있어. 아직도 여성은 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 [경기도의회] 의원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열 몇 개 위원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만드는 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모 의원이 저더러 이러는 거야. 우리 위원회 꽃인 누구누구 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추천을 한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의원님,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의원인데 왜 저더러 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 굉장히 불쾌합니다. 당장 여성단체 동원해 가지고 의원님 지역에서 다시 못 나오게 여성을 비하 발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의원한테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구전 보도가 되었나 봐.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조심도 하고 이렇게 좀 여성 의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경험도 했어요.

전애리 : 시의회를 딱 들어와 보니까 여자가 별로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 일곱 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슨 꽃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래, 내가 꽃이면 당신들도 꽃 하자. 아니면 꽃밭에 지렁이?" 내가 막 그래. "지렁이 하실래요? 꽃 하실래요?" 화내고 얘기를 안 해요. 웃으면서 살살 긁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1998년에 5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박명자는 여성 의원을 꽃으로 지칭하는 남성 의원의 태도에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하였다. 의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보다 여성으로서의 외모를 우선시하는 남성 의원들의 태도에서 모욕감을 느꼈던 것이다. 여성 의원을 분위기를 돋아 주는 꽃으로 치부하는 남성 의원들의 태도가 오늘날에도 크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현재 수원시의원을 지내고 있는 전애리의 구술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박명자는 "여성단체를 동원해서 의원님을 지역에서 다시 못 나오게 하겠다." 고 강경하게 대응했던 반면, 전애리는 "내가 꽃이면 당신은 꽃밭에 지렁이?" 라는 식으로 "살살 긁는" 방식을 취한다. 조직 내에서 남성들을 겪어 온 결과 강경한 대응은 적을 만들고 변화도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정치계에 은근한 여성비하 발언은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에 반해 여성 의원들의 대응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 의원을 '꽃' 으로 보는 남성 의원들의 시선은 조직 내에서 요직을 주지 않고 여성 의원을 '돌리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전애리 : 요번에 재선 여자 의원이 위원장이 처음 됐는데, 남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민주당 내에서 이분을 약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곳에 위원장을 안 주고, 조금 끝발 안 센 데로 [보내려고]. 그래서 내가 딱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 당을 떠나서 "왜 그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안 되냐? 여자라?" 아주 정곡을 확 찔렀어요. "여자라서 안 되나요?" "그 의원님이 엄마 뱃속에서 5개월 만에 나왔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무슨 결함이 있나요?" 그러면서 살살 웃으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다음 번에 위원장을 했어요.

국가조직과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임으로 국가적 이상을 가장 앞장서서 실현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조직 내의 성차별은 대개 무의식과 관습에 기대어 은근히 일어난다. 이 때문에 드러내어 지적하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공론화되는 순간 엄격한 기준은 가차 없이 작동한다. "정곡을 확 찌른" 전애리의 지적에 바로 시정될 수 있었던 것도 드러내는 순간, 은근히 성차별을 공모하고 있던 조직의 가부장성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구술자들이 성차별 문화로 지적한 것은 회식 문화이다. 술과 회식을 통해 정치적인 사안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백정선 : 남자들은 막 공무원들 불러내서 술도 한 잔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또 못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답답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문제는 일단 술을 먹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문제인 것이죠. 취하고 나면은 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다음 날, "어제 어쨌느냐 뭐 이번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뭐 숨겨 놓은 예산 내 놔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감사를 앞두면은 산하단체나 속해 있는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서에서 식사를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요. "저녁 먹자. 저녁 먹자."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을 같이 먹으면은 당연히 뭐 술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 인제 "집행부에서 이번 감사 살살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정선은 '술'을 통해 일을 하는 정치관행을 여성 차별적인 문화로 지적하면서 여성 의원들은 직접 찾아가고 설득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힘든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도 술자리의 힘을 빌린 일처리는 '부작용'의 모습이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정선이 술자리와 거리를 두고, 이를 없애려 노력하면서 남성 중심적인 정치문화를 돌파하려 한다면, 술자리 회식에 적극 참여하면서 여성에게 불리한 정치문화를 극복해 보려는 여성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힘겨운 방법이라고 전애리는 지적한다.

> 전애리 : 여자 의원 중에 남자들처럼 막 맨날 같이 술 먹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술을 전혀 못 하지는 않지만, 매일 해 봐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안 할 적에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술 마시면", 그리고 솔직하게 "그 대신 제가 마신 것처럼 할게요." 여성으로서 터득을 하는 것이죠.

회식을 통해 정치적 사안을 풀어 보려는 현재의 정치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남성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결과적으로 일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스스로 돌봐야 하는 입장이므로 몸을 혹사시키는 술자리 문화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애리의 조언은 새겨 둘 만 하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작용'이 지적되는 정치인의 술자리에 대해 정치계에서는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동반하는 엄격한 윤리규정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한편 대표적인 조직 내의 성차별 행위로 꼽히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는 '많이 개선'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예전에 비해 긴장하는 것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추문이다. 그간의 사례에서 가해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을 목격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지 교육 연수가 효과를 내고 있다. 즉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성희롱 및 성추행인지에 대해 남성들이 깨달아 간다는 것이다.

> 백정선 : [성희롱 성추행 문제는] 많이 개선됐죠. 요새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다, 성추행이다, 이런 것 다 아니까, 좀 친해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방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할 때마다 제가 워낙 정색을 하니까 요새는 "좋아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당신은 반갑고 좋아도 나는 너무 불쾌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요새는 그렇게 저한테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인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하다못해 의원들의 연수 가지고도 그러고 뭐 남자들이 여자를 대하는 어떤 경우에는 성추행이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았잖아. 불쾌해도 참고 뭐 그런데 요즘은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니까. 그러니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연수 같은 것 갔을 때도 몇 년 전이지? 제가 초선 때 연수를 갔을 때, 성인지 교육 연수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다. 권력자의 정의롭지 못한 욕구가 관철되는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이유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우위인 사회 권력구조 때문이다. 성폭력 문제의 이러한 속성을 생각했을 때 의원들 사이에서 성폭력 문제가 '많이 개선'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백정선은 여성들이 "정확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정치계에 진출하고 여성주체의 발언과 활동영역을 넓힌 결과 수원시의회 내에서는 여성들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밝히는 것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이 시의원직을 수행하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뜻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관철시켰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전애리 : "수렵시대에나 알맞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정보화 시대에 말들이 많어." 그래요. (면담자 :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서는 그냥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그러면 "허허허" 웃어.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학력이 자기들보다 좀 높다고 웬만큼 말하면 들어주더라구. [내가] 교수였다. 그런 것 같아요.



경기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전애리 의원(수원시의회 제공)

따라서 여성들이 권력의 중심에 파고들어가 영역을 만들고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소외된 위치에 있으면서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고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응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정계에 진출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경향이 있다. "전문성도 없고 개념 없는" 여성 정치인들은 정계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 전애리 : 준비된 여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을 비례로 공천할 때 보면은, 도의원도 그렇고, 누구누구 국회의원 되는 데 열성적으로 앞장을 선 사람들, 그런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러면 용서가 되는데, 여자가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남자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러면 너무 표가 나. 몇 명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묻혀요. 그리고 남자한테는 관대해요. 우리나라 남녀가 다, 그래서 여자들

이 정말 실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서 나가기 너무 어려워요.

전애리는 여성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한 평가 잣대를 굳이 없애려 하지 않는다. 비판의 대상은 남성한테만 관대한 현재 정치현실이다. 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여성 정치인만큼 걸러지지 않은 남성 정치인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여자들이 정말 실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서 나가기 너무 어렵다."는 지적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여성 정치인의 실력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4. 여성 정치, 수원의 변화

여기에서는 백정선과 전애리의 구술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을 검토하고 수원시의회 내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구술자들이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나온 정치인들이 아니고, 면담 자체가 구술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듣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던 만큼,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정치문화의 변화에는 당을 넘어 여성과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모색하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절을 달리해서 정치 이전과 그 이후 여성 정치인과 가족들의 관계 및 일상을 청취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어떠한 주변여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여성이 만들어 가는 정치, 수원의 변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정치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다.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 친화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백정선 : 저 같은 경우는 초선 때 여성, 가임 여성 수영장 할인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것 만들 때, 남자들이 왜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농담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임 여성이 생리 중인 걸 어떻게 확인을 해? 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도 있고 그래서 벽이 참 두텁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막 설득을 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그것을 그냥 만들 [수도], 울산이나 여러 군데서 다 실시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베껴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수영장에 가서. 수원은 그게 없으니까 수영장에 직접 가서 설문지를 돌리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들이 더 찬성을 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서 주는 거니까 깎아 주는 게 좋지."

생리 기간 수영 강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가임 여성 수영장 할인 조례를 만든 백정선은, 처음에는 두터운 벽에 부딪혀야 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고 보편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백정선은 수원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난관을 돌파한다. 그리고 남성들은 더 많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백정선에게 화답하였다. 물론 "내가 버는 돈 깎아 주니 좋지."라는 반응은 고정된 성역할 분업에 기댄 낡은 반응이었지만,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성의 문제가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 여성의 권리를 찾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백정선 : 한나라당 여성 의원님이 장애 여성이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뭐 여성한테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끼리 합해 갖고 남성 의원 설득을 시키고 그랬었어요. 서로 힘이 많이 돼 주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여성문제에서는 없었어요. 여성 정책이나 여성 조례를 만들 때, 서로 도와주고 뭐 어떤 시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보다 더 좋더라, 이렇게 정보도 주고 막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죠.

흥미로운 것은 여성정책이나 조례를 만들 때, 여성 의원들은 당을 넘어 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 여성 출산 지원문제에 대해 여성 의원들이 당을 초월



경기 지방의회 여성의원 협의회 창립 여성 의원들은 여성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만들 때 당과 지역을 넘어 연대함으로써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여 힘을 모았다는 위의 사례는 '공감' 이 정책 결정에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는지 말해 준다. 생리, 출산, 부모 되기, 양육 등 개인이나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문제들을 사회자원 재생산, 인권, 돌봄의 가치 확산 등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공감이 여성 관련 이슈들을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 의 크기와 힘이 정책 실현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여성들은 수를 늘리거나 요직에 가까이 가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백정선 : 대단히 보수적이죠, 수원이. 이번에 우리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 의장단 구성을 할 때, 제가 수원시 최초의 여성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수원시 최초의 여성 재선의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인 동네예요.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3선 이상이 된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 물망에도 못 올랐지만 그 하다못해 간사 자리 하나도 여자한테, 전반기 때는 간사 자리 하나도 여자 의원들한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른네 명 중에서 일곱 명이면 벌써 5%

정도 되잖아요. 아니지,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사 자리 하나를 못 했어요, 전반기 때. 그 정도로 보수적이에요, 남자들이. 그런데 또 보면 후반기 들어와서는 제가 위원장이 됐고, 여성 간사가 두 명이 나오고 해서 좀 많이 나아진 편이죠. 나아지게 되는 배경이 여성들이 뭉치니까, 뭐 여자들끼리 우리 일곱 명에서 얘기할 때, 만약에 위원장 자리 안 주면 특위를, 여성특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특위위원장이라도 누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뭉치고 여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니까 많이 달라지죠.
우선 후반기에 의장단 구성을 할 때, 여자가 일곱 명인데 재선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겠다는, 여자한테 안 주겠다는 것보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내가 해야만 다음 번, 2014년도 선거에서 또 여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남자들끼리만 얼렁뚱땅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애리 : 엮는 걸 잘 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여자 분인데, 다 당연히 당이 다르죠. 다르지만, 의논을 해요.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있을 때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도와주자. 혹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우리끼리 좀 의논을 하는 편이에요. 그것은 잘 되어 있어요. 여자들 막 서로 맨 처음에 당 뭐 그다음에 지역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니면서 일대일로 다 꼬셔 놨지 한 마디로. 잘, 그래도 화합이 잘되는 편인데, 모여서 뭐 하자, 그런 건 별로 안 하는데, 같이 밥은 먹고, 가끔 만들어요, 제가. 지역에 여자 기자들하고, 여자 의원들하고.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수원시의회에서는 2010년에 들어와 비로소 여성 재선의원이 등장했고, 이는 최초의 여성위원장 선출로 이어졌다. 수원 여성 정치의 역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성별 관점에서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수원이 변하고 있는 셈인데, 백정선은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이 뭉치니까." 가능했다고 말한다. 우선 전대(前代) 의회에 2명, 4명에 불과했던 여성 의원이 2010년에 구성된 제9대에서는 7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여성이슈를 중심으로 뭉치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위원장직은 개인의 명예와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여성에게 위원장직을 열어 주는 것과 "남자들끼리만 얼렁뚱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여성 의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9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현장방문에 참가한 백정선 · 전애리 의원(수원시의회 제공)

여성위원장을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기존의 자리를 열어 주지 않으면 새롭게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여성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성 의원들은 당을 넘어 한목소리를 냈으며, 그렇게 획득한 자리와 영역에서 '의논과 화합' 을 하면서 일을 꾸려 간다. 술자리는 갖지 않아도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이루어 냈다는 성취감이 이들을 당을 넘어 논의하게 하는 것이다.

여성의 의회 진출은 기존의 정치풍토에서 비롯된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인 정치문화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정책결정의 장으로 바꾸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7] 그러나 소수의 여성만이 발탁되는 구조만으로는 여성 정치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 최소한 '논의와 화합' 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야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는 것이다.

'논의와 화합' 을 통한 소통방식은 여성주의적 가치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권력



제9대 수원시의회 역대 수원시의회 중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다.

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정치구조 속에서 권력은 피지배자와 추종자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군림하는 권력' 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여성이 가지는 관계 중심적 사고와 수평적 질서개념은 '군림하는 권력' 에 대해 '함께하는 권력' 으로 대응한다. 함께하는 권력구조에서 구성원들은 출신과 지위에 따른 위계구조가 아니라 공동체의 동료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8]

> 전애리 : 일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수원시의회에 중창반 만들었잖아요. 의원님들 중창반을. [웃음] 중창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지지난번 연수 때, 의원 연수를 할 때 공무원 분들, 감독 공무원들이 오시거든요. 와서 저희가 했어요. 그랬더니 염 시장님이 말하기를 "아니, 의원들이 화음을 내네." [웃음] 이중으로 그래도 화음을 내요. 요번에 10월 9일 날, 수원음협 주최로 합창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특별출연으로 하는데, 진짜 악보를 못 보셔요. 되게 이분들이 그런 거 하면서 사실은 목적은 음악하는 게, 예술하는 게, 부단한 연습 없이는 어림도 없다는 거야. 언제든지 부르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전애리 의원의 노력으로 결성된 수원시의회 중창반(수원시의회 제공)

것을 좀 알리고 싶어요. 알았을 거라고 짐작이 들어요.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 하실 것 아니야. 재밌게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요.

전애리는 수원시의회 내에 의원 중창반을 만들어 '의원들의 화음' 을 이끌어 내기에 힘쓴다. "예술이 부단한 연습 없이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본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를 하고 탁상 위에서 난상토론을 벌이기보다 함께 경험해 보는 쪽을 택한 것이다. 쓸모없는 논쟁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화합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소통을 중시하는 여성주의적 가치에서 비롯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의 정치, 가족관계의 변화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대두된다.

가사와 육아,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중심역할을 하던 여성이 사회공간에 진출함으로써, 그간 여성이 해 왔던 역할을 가족들이 분배하여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결핍으로 남게 되면 가족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여성은 일하기에 앞서 가족들 간 의견 조율에 힘을 기울인다.

전애리 : 우리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 밀어 준 편이었어요. 일단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따라가느라고 내가 교수 그만두지 않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량 있는 여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다고 할 때, "너가 성향이 맞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뭐 공천, 돼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가서 많이 해 주고, 그렇게 많이 써 주고, 의논 많이 하고, 지금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 분야는 내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 주죠.

백정선 : [비례대표 후보 등록] 마감하기 이틀 전날, 우리 남편을 설득을 시킨 거야. 당원들이. "누나밖에 없다."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다가 설득을 당해 갖고 와서 나보고 해 보라는 거예요.
재선 때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이 첫째였었고, 남편이 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하지 말라." 초선 때 너무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남편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비례를 하면서 느낀 게 선출직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설득을 했어요., 남편을. 그래 갖고 남편이 설득을 당했지. 그래서 각오가 새롭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요즘도 제가 있는 위원회가 문화, 복지, 체육 이쪽이어서 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성복지, 여성에 관련된 복지, 장애인 복지,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1회에 불과했던 면담에서 구술자들이 사적 관계를 솔직하게 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가족관계 및 가정 분위기는 엿볼 수 있다. 토론을 자주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구술자들은 정치를 시작할 때 가족들의 저항을 그리 받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고 망설이던 중에 격려를 받기도 했다. 평소 소통이 이루어지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욕구와 역량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정치활동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다. 조언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설득을 당하기도 한다. 의회 내에서 정치적인 토론과 타협을 하기에 앞서, 가족 관계 속에서 토론과 조율을 경험하는 셈이다.

구술자들은 '엄마의 자리'를 둘러싸고 자녀들과 갈등과 생길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전애리 : 벌어 봤자 소용도 없고, 애들한테는 애들한테 대로 미안하고.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 시기 지나면 또 아이들하고, 애들한테 큰소리칠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 이 지구는 공존하는 지구라 내가 그것 니들 것 모른다고 해서 그러지 마. 니들도 내 것 모르잖아." 이러고 큰소리를 빵 치거든요. 공존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얘네들이 우리랑 다른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왜 나만 인정을 해요? "니네도 인정 해. 나 옛날에 성격 있었어!"

> 백정선 :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식구들한테 제일 많이 미안한 게 연수를 갈 때, 보통 보면은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1주일 정도 집을 비우고, 국내연수도 2박 3일 그렇게 가니까 그럴 때 가기 전에 나 나름으로 준비를, 밑반찬 같은 것 준비를 해 놓는데 어떤 때는 너무 바쁘니까 못 하고 가면 애들이 인제 반란을 일으키죠. 먹을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뭐 돈도 안 주고 가고 뭐 이러면서, 나는 아빠가 있으니까 돈을 안 주고 왔는데, 인제 뭐 "아빠하고 같이 넷이서 우리 뭐 먹고 살았는지 아냐?" 그런 것에 막 그렇게 막 짜증을 내면 저도 짜증이 나죠. "우리 뭐 먹고 살았는지 알아?" 그러면 "나는 뭐 잘 먹은 지 알아?" 이러고 막 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맛있는 것 먹으면서 풀죠, 주로.

바깥일로 어쩔 수 없이 가정 일이 소홀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구술자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이들이 바라는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술자 모두 미안함을 느끼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사과'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 대한 요구이다. 엄마도 욕구가 있는 사람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를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는다고 한다. 엄마가 시의원으로서 '수원일'을 한다는 자부심 또한 아이들이 구술자들을 인



제7대 수원시의회 하반기 의원연수(수원시의회 제공) 출장이나 모임이 잦은 의정활동의 특성상 주부 역할을 병행하는 여성 의원의 경우 가족의 지지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정하고 존중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백정선 : 남편하고 내가 의정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남편하고 갈등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제가 민주당 소속인데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대선 후보 뽑는 그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모집을 하라고 당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남편은 그런 건 절대 안 도와줘요. 나보고 나가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럴 때 "엄마가 이번에 어떤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하고 같이, 엄마 혼자서 못 하니까 여성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도 성평등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대략 나왔을 때 우리 아들, 딸 보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엄마 이것보다도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같이 조례 준비하는 여성단체 회원 분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하면 "어, 그거 맞는 말이다."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죠. 크니까.

민주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훈련된 정치인이 탄생하고, 정치하는 엄마의 삶을 중심으로 가족들은 다시 민주주의를 훈련한다. 가족들과 정치색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토론하고 조언을 듣는다는 백정선의 구술은 일상과 정치가 유리되지 않은 여성 정치인의 삶을 잘 보여 준다.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에 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간의 소통 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가족들 또한 정치하는 아내 및 엄마를 위해 가정 내 역할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가족 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소통이 좋은 여성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는 조건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정과 정치활동의 조율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일을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배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미래의 민주주의 사회는 가족과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이 본인의 위치를 자각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행복하게 풀어나가는 가운데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수원 여성 정치의 미래

수원은 일반적으로 지역적 단결이 강하고 그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반면 유동인구도 많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잘 따진다는 인상도 가지고 있다. 수원정치 또한 수원 출신과 남성들이 독점해 오고 있다는 이미지와, 정치적 대의와 지역의 이익 앞에서는 당색과 성별을 넘어 연대를 하고 있다는 양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성 정치가 성장하는 데 열악한 조건인 듯한 수원시에서 짧은 기간에 여성 정치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수원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2000년 이후 지방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수원시 여성 의원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고 여성 재선의원이 출현했으며 여성위원장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수원 여성 정치



2008년 한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명자 전 의원(수원시의회 제공)



200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희정 제8대 수원시의원(수원시의회 제공)

의 양적, 질적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10여 년에 불과한 그 기간을 봤을 때, 수원의 여성 정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여성적 가치에 '공감' 해 가며 힘을 합하고 난관을 넘어야 할 여성 정치세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의원의 수적 증가와 여성위원장의 출현만으로 수원 여성 정리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아직도 숙제가 많은 듯이 보인다.

백정선 :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간다거나 가면 없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오죽하면은 위원회에 여성 30%는 꼭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를 채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 실무자들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내가 후배라고 얘기를 종종 하는데,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동네에서 좀 활동적이고 똘똘한 사람이 있으면 "시의원 좀 해 봐라. 나는 시의원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가 지금도 있거든요. 있는데, 많이 좀 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 주고 그래야지, 현장에 가면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나도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활동적인 너는 참 잘할 것이다. 너 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내 자리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막 손사래를 치죠.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전애리 : 기왕이면은 어떤 문제에 전문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하던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 훈련을 해서 의원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여성들이 발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북적 북적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있는 단체에 있는 단체의 장들이거나 사무국장이거나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뭐라 그래, 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발을 걸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떨결에 됐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준비 된 사람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문제의식이 있는, 여성문제에 의식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어찌어찌 하다, 진짜 들은 얘기로 문제의식이 생긴 사람이고, 하면서 터득을 한 것이고. 진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

현재 수원시의원을 지내고 있는 구술자들은 전문적인 여성 정치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성 정치가 해야 할 것도 많고 지난 경험을 통해 가능성

도 봤는데, 현재 함께 일해 나갈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술자들이 보기에 여성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다. 충분히 역량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정치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서 현실정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가정과 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분위기는 여성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데 저해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주의적 가치에 '공감'을 가지고 하는 여성 정치는 보편적인 인권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존의 폐쇄적인 정치문화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가치에 대한 '공감'은 우선 여성집단의 형성과 여성들의 발언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제1부 전통시대 여성의 삶과 지위

01 | 전통시대 수원 여성의 삶

_주

1) 정구선, 『공녀』, 국학자료원, 2002, 28쪽.
2) 정구선, 『공녀』, 국학자료원, 2002, 51 · 56쪽.
3)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4월 16일(갑오).
4)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4월 16일(갑오).
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1일(을유);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2일(병진).
6)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2일(병진).
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2일(병진).
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2일(병진).
9)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26일(경자).
10) 조선에서 성조에게 바친 여성은 1408년 5명 이외에 2차(1410년)로 1명, 3차(1417년)로 2명이 더 있었다. 이 8명 모두 후궁이 되었으므로 후궁 31명 중 8명은 조선 여성이었다. 곧 공헌현비 권씨(恭獻賢妃 權氏 : 1391~1410), 강혜장숙여비 한씨(康惠莊淑麗妃 韓氏 : ?~1424), 순비 임씨(順妃 任氏 : 1392~1414), 소의 이씨(昭儀 李氏 : 1392~1414), 미인 여씨(美人 呂氏 : 1393~1414), 미인 최씨(美人 崔氏 : 1395~1424), 정씨(鄭氏 : 1392~1414), 황씨(黃氏 : ?~1414)이다.
11)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0월 17일(무오).
12)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0월 17일(무오).
1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2일(갑신).
14)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6월 12일(병신).
15)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7월 5일(갑자). 이때 기사에는 홍려시 경, 광록시 소경의 품계를 모두 4품이라 했으나, 『명사(明史)』에 근거하여 실제 품계로 고쳤다.
16)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일(병진).
17)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2월 19일(임신).
18)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5월 25일(병자).
19) 『세종실록』 권42, 세종 10년 12월 26일(계묘).
20) 허균, 『성옹복부고(惺翁覆瓿稿)』 권24, 설부(說部) 3, 「성옹식소록(惺翁識小錄)」 하.
21) 『세종실록』, 세종 12년 경술 7월 28일(병인).
22) 심노숭, 『효전산고』, 「계섬전」(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민속원, 2002).
23) 박애경, 「가기(歌妓) 계섬과 그 주변-제도, 문화, 인물」, 『언어사실과 관점』 제26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0, 129쪽.

24) 조선시대 임금이 종친(宗親)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려주던 관노비(官奴婢)이다.
25) 수원박물관, 『(2011 수원박물관 특별 기획전)나는 나혜석이다』, 2011, 42~43쪽.
26)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3, 21 · 27쪽.
27) 한동민, 「수원의 나주 나씨와 나혜석의 부모 형제들」, 『(2011 수원박물관 특별 기획전)나는 나혜석이다』, 수원박물관, 2011, 252쪽.

02 | 조선시대 수원 여성의 지위와 일상

_주

1) 에드워드 와그너 지음, 이훈상 · 손숙경 옮김, 「조선전기에 출간된 두 족보 『안동권씨성화보』와 『문화유씨가정보』 그리고 여성의 지위」(1984년 논문),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230~238쪽.
2) 『경국대전』 권5, 형전, 사천(私賤). "父母奴婢 承重子 加五分之一 衆子女平分 良妾子女 七分之一 賤妾子女 十分之一 〈田地同〉."
3) 「오재훈(吳載勳) 남매 화회문기(和會文記)」(1701), 『박물관도록』,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8, 315쪽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120쪽 자료D 번역문 재인용.
4) 『경국대전』 권1,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 문무관처(文武官妻).
5) 『경국대전』 권3, 예전(禮典), 추증(追贈).
6) 『경국대전』 권1, 이전, 외명부.
7) 〈표 2〉의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 서술한 각 집안에 대한 소개는 이 자료집에 근거했음을 밝혀 둔다.
   - 해풍 :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 무신의 길, 그 오백년의 발자취』(화성시 · 화성문화원, 2008).
   - 들목 :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화성시, 2006).
   - 화성 : 『화성사람들, 정조를 만나다』(화성문화원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4).
   - 기증 : 『기증유물로 보는 수원』(수원박물관, 2010).
   - 거창 : 『(화성시의 고문헌VI) 거창신씨 동추공파 - 서봉산 아래 백리에 잠든 꿈』(화성시, 2012).
   - 남양 : 『(화성시의 고문헌III) 남양홍씨 정효공파 -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화성시 · 화성문화원, 2010).
   - 함평 : 『분화천에 뿌리 내린 장군의 후예 - 함평이씨 함성군파 종손가』(화성시 · 화성문화원, 2011).
   - 추연 : 『(탈초 · 역주)추연선생일기(秋淵先生日記)』(화성시, 2008).
8) 『경국대전』 권3, 예전, 혼가(婚嫁).
9) 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역사와 현실』 51, 2004, 212쪽.
10) 이순구, 「해제」, 『청대일기』(상), 국사편찬위원회, 2003, 9쪽.
11) 정해은, 「조선시대 혼례와 혼수」,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159쪽.
12)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화성시의 고문헌 1), 화성시, 2006, 36 · 167쪽.

13) 『화성사람들, 정조를 만나다』, 화성문화원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4, 32~33쪽.
14)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하), 풍양조씨(豊壤趙氏), 175쪽.
15) 「입안(立案)」,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167쪽.
16) 『화성사람들, 정조를 만나다』와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에는 조명덕이 별세한 해를 1713년으로 밝혀 놓았다. 그런데 조명덕의 부인 이씨가 계후입안을 받은 해가 1705년(숙종 31)이며, 입안에 '고(故) 통덕랑 조명덕' 이라 되어 있다. 그래서 조명덕이 별세한 해는 1705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17) 정약용, 『여유당전서』 예집(禮集), 권11, 상례(喪禮) 사전(四箋), 상기별(喪期別), 출후(出後) 9 〈사이후립후(死而后立後)〉(마크 피터슨 지음, 김혜정 옮김, 『유교사회의 창출-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2000, 187쪽 주41번 재인용).
18) 이순구, 「조선중기 총부권과 입후의 강화」, 『고문서연구』 9 · 10, 1996, 266~273쪽.
19) 김윤정, 「조선중기 제사승계와 형망제급(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회』 20, 2002, 121~127쪽.
20)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화성시의 고문헌 1), 2006, 55쪽 번역문 재인용.
21)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화성시의 고문헌 1), 2006, 173~174쪽.
22) 이순구,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00쪽.
23) 밭의 경우 딸 · 아들 · 첩의 아들에게 일일경(一日耕) 또는 이일경(二日耕)으로 표시된 땅도 있다. 하지만 그 비중이 매우 적고, 두락지(斗落只)와 단위가 달라 〈표 3〉에서는 생략하였다. 일일경 또는 이일경으로 표시된 밭의 규모를 보면, 딸은 60복(卜) 62속(束), 아들은 53복 23속, 첩의 아들은 55복 9속이다.
24)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서(에드워드 와그너 지음, 이훈상 · 손숙경 옮김, 「조선전기에 출간된 두 족보 『안동권씨성화보』와 『문화유씨가정보』 그리고 여성의 지위」(1984년 논문),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236쪽 주11번 재인용).
25)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26) 『경국대전』 권6, 예전, 제과(諸科).
27) 『경국대전』 권6, 형전, 금제(禁制).
28) 『성종실록』 권66, 성종 7년 4월 26일(기해).
29) 『성종실록』 권133, 성종 12년 9월 19일(경인).
30)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3일(갑술).
31) 『성종실록』 권53, 성종 6년 3월 5일(갑인); 『성종실록』 권67, 성종 7년 5월 2일(갑자); 『성종실록』 권67, 성종 7년 5월 16일(무오).
32)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21일(임진).
33)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21일(임진).
34)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3일(갑술).
35) 『성종실록』 권67, 성종 7년 5월 28일(경오); 『성종실록』 권74, 성종 7년 12월 1일(경오).
36) 이식, 『택당선생별집(澤堂先生別集)』 권13, 책문(策問) 부부(夫婦).
37)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73 · 90쪽.

38)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73쪽.
39) 『서봉산 아래 백리에 잠든 꿈』(화성시의 고문헌 VI-거창신씨 동추공파), 화성시, 2012, 179쪽.
40) 『분화천에 뿌리 내린 장군의 후예-함평이씨 함성군파 종손가』, 화성시 · 화성문화원, 2011, 114쪽.
41) 김경란, 「단성호적에 나타난 여성주호의 기재실태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105~107쪽.
42) 『갑오식호적사목(甲午式戶籍事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소장)(김경란, 「단성호적에 나타난 여성주호의 기재실태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98쪽 주6번 재인용).
43) 김경란, 「단성호적에 나타난 여성주호의 기재실태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103쪽 〈표 1-2〉.
44)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172~177쪽.
45)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화성시의 고문헌 1), 2006, 435쪽.
46)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화성시의 고문헌 1), 2006, 338쪽.

03 | 조선시대 수원 여성을 둘러싼 사건

_주

1) 이 글에서 이용한 『수원부읍지』(규장각 소장), 『수원군읍지』(장서각 소장)는 『국역 수원부(군) · 남양부(군)읍지』(2006, 화성시)를 참조하였다. 아래에서 따로 각주를 밝히지 않았다.
2)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233쪽.
3) (부) : 『수원부읍지』, (군) : 『수원군읍지』, (여) : 『여지도서』.
4) 『선조실록』 권30, 선조 25년 9월 27일(갑신); 9월 29일(병술).
5) 『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 4월 9일(계사).
6) 『선조실록』 권60, 선조 28년 2월 6일(기유).
7) 『선조실록』 권60, 선조 28년 2월 6일(기유).
8)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권6, 「목사한명윤 부인 밀양박씨」.
9) 『수원부읍지』 효부; 『수원군읍지』 효부. 『수원부읍지』에는 남편의 등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했으나, 『수원군읍지』는 남편의 등을 검게 물들였다고 되어 있다.
10) 각종 읍지에 기록된 열녀 함안 이씨, 용인 이씨 기록의 차이점

이름	『여지도서』 · 『수원부읍지』	『수원군읍지』
함안 이씨	첨정 이자견(李自堅) 부인	첨정 이자수(李自竪) 부인 병자호란 때 며느리 박씨와 이씨, 손녀 이씨를 데리고 섬으로 피난했다가 적병의 욕을 피하여 네 여인이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음.
(처자) 용인 이씨	이자견(李自見) 처 병자호란 때 며느리 박씨와 이씨, 손녀 이씨와 함께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적병이 들이닥쳐 겁탈을 면하지 못할 듯하자 네 여인이 일시에 물에 몸을 던져 죽음.	함안 이씨의 손녀

11)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111~132쪽.
12) 『심리록』 권8, 임인(1782) 1, 경기 수원윤조이옥[水原召史獄]; 『심리록』 권2, 경신(1800), 경기 수원이춘성옥(水原李春成獄).
13)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112~115쪽.
14) 『심리록』 권8, 임인(1782) 1, 경기 수원윤조이옥.
15) 『심리록』 권8, 임인(1782) 1, 경기 수원윤조이옥.
16) 『승정원일기』 1510책, 정조 6년 5월 29일(을축).
17) 『심리록』 권8, 임인(1782) 1, 경기 수원윤조이옥.
18) 『승정원일기』 1510책, 정조 6년 5월 29일(을축).
19) 『승정원일기』 1510책, 정조 6년 5월 29일(을축).
20) 김선경, 「조선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70~71쪽.
21) 정약용 저, 박석무 · 정해렴 역주, 『역주 흠흠신서』 3, 현대실학사, 1999, 82쪽.
22) 칠출(七出 : 七去)은 시부모에게 불순, 무자(無子), 음란, 절도, 투기, 나쁜 병, 말이 많은 경우이다. 삼불거(三不去)는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을 경우, 이전에 가난했다가 이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이다.
23) 『당율소의』 호율(戶律), 호혼(戶婚), 처무칠출(妻無七出).
24)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 현실』 75, 한국역사연구회, 2010, 119~120쪽.
25)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3집, 예집(禮集) 제10권, 상례사전(喪禮四箋) 상기별(喪期別) 3, 출모(出母) 7. "婦人之罪 淫爲上也"
26) 『융희 3년 한국관습조사보고서-평북편』, 「제134. 이혼에 관한 관습은 어떠한가」.
27)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 2005, 67쪽 재인용.
28) 『일성록』, 1800년 5월 25일.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제2부 근대의 옷을 입은 여성

01 | 수원 여성의 근대 교육 경험

_참고자료

『독립신문』; 『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기호흥학회월보』.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경기도, 『京畿道の教育と宗教』, 1937.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 50년사』, 1986.
매향학원, 『매향 100년사』, 2006.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 사례연구-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박정애, 「1910년-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김부자, 「식민지 조선에서의 보통학교 '불취학' 과 젠더, 민족, 계급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764호, 2002.
김경일, 「식민지 조선의 여성교육과 신여성」, 『신여성 :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2003, 청년사.
한동민, 「3 · 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3 · 1운동』,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2008.
한동민, 「근대 수원의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학교-일어 화성학교와 수원소학교를 중심으로」,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한신대출판부, 2008.
김부자(조경희 · 김우자 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 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교육』, 일조각, 2009.

_주

1) 『독립신문』, 1897년 5월 18일 논설.
2) 「여학교설시통문」, 『독립신문』, 1898년 9월 9일.
3) 「여자교육」, 『독립신문』, 1899년 3월 1일.
4) 「日女教師」, 『황성신문』, 1909년 5월 27일.
5) 김경일, 「식민지 조선의 여성교육과 신여성」, 『신여성 :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125쪽.
6) 김부자, 「식민지 조선에서의 보통학교 '불취학' 과 젠더, 민족, 계급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764호, 2002, 15쪽.
7) 매향학원, 『매향 100년사』, 2006, 96~99쪽.
8) 「學界彙問-女師高明」, 『기호흥학회월보』, 1909년 2월, 40쪽.
9) 한동민, 「3 · 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편, 『수원지역 3 · 1운동』,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61~71쪽.
10) 「수원여교」, 『황성신문』, 1906년 4월 9일 잡보.
11) 수원 유지인 홍왕유의 딸로, 이완성과 결혼하였다. 이완성은 수원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인 이현경 · 이선경의 큰오빠이다.
12) 박충애는 1922년 8월 4일 최승구의 사촌동생인 최승만과 결혼하였고, 한국전쟁 중 세 딸과 함께 납북되었다.
13)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17~18쪽에서 재구성.
14) 경기도, 『京畿道の教育と宗教』, 1937, 24~25쪽.

15) 「水原高女를 세우자」, 『동아일보』, 1939년 7월 21일.

02 | 수원여자잠업강습소의 설치와 운영

_참고자료

『(대한제국)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농회, 『조선농회보』 3, 1911년 3월.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報告)』 제10~17호, 1914~1922.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蠶業試驗所女子蠶業講習所一覽)』, 1929.
권태억, 「일제시기 농촌의 직물업」, 『한국사론』 19, 1988.
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2009.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윤광빈, 『한국잠업사』, 대한잠사회 , 1963.

_주

1) 윤광빈, 『한국잠업사』, 대한잠사회, 1963, 7~12쪽.
2)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7~35쪽.
3) 권태억, 「일제시기 농촌의 직물업」, 『한국사론』 19, 1988.
4)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19쪽.
5) 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2009, 123~124쪽.
6)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19쪽.
7) 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2009, 124~125쪽;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19쪽.
8) 『한국중앙농회』 2-12, 1908년 12월, 37쪽(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2009, 124쪽에서 재인용).
9)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19쪽; 『황성신문』, 1910년 2월 1일.
10) 『(대한제국) 관보』 제4590호, 1910년(융희 4) 1월 31일.
11) 『蠶業學生募集』, 『황성신문』, 1910년 2월 22일.
12) 『(대한제국) 관보』 제4611호, 1910년 2월 24일; 『황성신문』, 1910년 2월 25일.
13) 『(대한제국) 관보』 제4611호, 1910년 2월 24일.
14)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19쪽.
15)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의 '농사시험장' 계획을 무산시킨 이유는 대한제국 정부의 농업계획이 관철될 경우 일제의 의도대로 식량공급기지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전통재래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2009, 67쪽).

16) 조선농회,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여자잠업강습소보고」, 『조선농회보』 3, 1911년 3월, 38~39쪽.
17)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0쪽.
18)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0쪽; 「잠업강습소 이전」, 『매일신보』, 1914년 11월 12일.
19)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9호.
20)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1~23쪽.
21) 「지방통신 : 경상북도, 여생도 모집」, 『매일신보』, 1916년 1월 22일.
22)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0~17호. 강습생들의 실습을 통한 누에고치, 생사, 진면(眞綿) 등의 생산량은 보고서에 매번 기재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23)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0~17호.
24)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0호.
25)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1호.
26)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2호.
27)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3호.
28)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4호.
29)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5호.
30)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6호.
31)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7호.
32)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7호.
33)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0 · 11 · 12 · 13 · 15 · 17호.
34)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35쪽. 1911년 졸업생이 없는 것은 강습기간이 1911년부터 9개월에서 10개월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35)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0쪽.
36)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0쪽.
37) 칙령 제279호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관제(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官制)」, 『조선총독부 관보』 제0820호, 1929년 9월 24일.
38) 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2009, 174~180쪽 참조.
39)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6쪽. 강조는 필자주이다.
40)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6~27쪽.
41)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9~34쪽.
42)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29~31쪽.
43)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31쪽. '공보' 는 공립보통학교, '지방잠업' 은 지방잠업강(전)습소를 말한다.
44) 1933년에 이르러서도 보통학교를 포함하는 각급 학교의 여학생 총수가 여성 총인구비의 1.2%에 해당하는 13만 6,000명에 불과하였으며, 여성 문맹자는 전체 인구의 92%인 92만 4, 846명에 달했다(문옥표, 「조선과 일본의 신여성 : 나혜석과 히라츠카 라이초우의 생애사 비교」, 『신여성』, 청년사, 2003).

참고 자료

45) 「朝鮮農事試驗場의 事業(7) 女子蠶業講習所 斯界에 貢獻莫大」, 『매일신보』, 1932년 9월 18일.
46)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2호;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32쪽.
47)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일람』, 1929, 36~37쪽. A=창덕궁 친잠실, B=도농회 기수, C=지방 잠업강(전)습소 교사, D=치잠공동사육부 교사. '누계'는 졸업생 전체의 누계를, '계'는 1923~1927년 5개년간의 계를 말한다.
48) 창덕궁에서는 일제시기에도 왕비 친잠례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었으며, 이때 예식을 거들거나 궁 안의 잠실에서 직접 사육하는 일을 맡은 것이 여자잠업강습소 졸업생이었다(「大妃殿下께서 今年부터 親蠶 궁중에서 누예를 치신다」, 『매일신보』, 1928년 5월 22일; 「昌德宮大妃殿下 親蠶收繭式 十五日에 擧行」, 『매일신보』, 1929년 6월 18일; 「昌德宮大妃殿下 親蠶御收繭式」, 『매일신보』, 1936년 7월 2일).
49)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보고』 제12호.
50) 「여류 실업가 조중환 여사」, 『매일신보』, 1934년 6월 6일.
51) 「農事敎導局員講習會盛況」, 『동아일보』, 1948년 12월 29일.
52) 「내무부 각종 事業所 대폭정비」, 『동아일보』, 1976년 3월 6일.

03 | 수원 여자 유학생의 일본 경험과 근대적 지식체득

_참고자료

「여기자 군상」, 『개벽』 제4호, 1935년.
「여류명사의 동성연애기」, 『별건곤』, 1930년 11월.
C.W(나혜석), 「잡감 : K언니에게 여(與)함」, 『학지광(學之光)』 제13호, 1917.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제3호, 1914.
노영희, 「요시노 사쿠조와 근대 한국여성들의 교류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제49집, 2001.
박경식,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1권, 1987.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박정애, 「1910-20년대 초반 여자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박정애, 「여자를 사랑한 여자」, 『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박찬승, 「1910년대 도일(渡日) 유학과 유학생활」, 『호서사학(湖西史學)』 제34집, 2003.
박찬승, 「1920년대 도일(渡日) 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2004.
배영미, 「1920年代における在日朝鮮人留学生に関する研究」, 橋大学 社會學 硏究科 박사학위논문, 2010.
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 유학과 여성현실인식-191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39집, 2009.
소현숙,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이현경」,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②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경기도, 2002.

송연옥, 「야마카와 기쿠에와 황신덕」, 『여성과 역사』 제15집(일본어), 2011.
신남주, 「1920년대 지식인 여성의 등장과 해외유학」, 『여성과 역사』 제3집, 2005.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이여성 · 김세용, 『숫자조선연구(數字朝鮮硏究)』 제4집, 193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이화여대 출판부, 1994.
정명희, 「신여성 임효정의 생애와 활동」, 『수원학연구』 제8호, 2011.
정미경, 「일제시기 '배운여성'의 근대교육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0.
중앙여고동창회, 『우리 황신덕 선생』, 중앙여자중고등학교, 1978.
최승만, 『나의 회고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5.
최은희, 『추계 최은희 전집 3 : 한국 근대여성사(하)』 추계최은희문화사업회, 1991.
최은희, 『추계 최은희 전집 5 : 여성전진 70년』 추계최은희문화사업회, 1991.
한동민, 「수원의 나주나씨와 나혜석의 부모형제들」, 『(도록) 나는 나혜석이다』, 수원박물관, 2011.
한동민,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수원박물관, 2011.

_주

1) 정미경, 「일제시기 '배운여성'의 근대교육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67~74쪽.
2) 조선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은 1912년 0.004%, 1921년 0.013%에 불과하였다(이여성 · 김세용, 『숫자조선연구(數字朝鮮硏究)』 제4집, 1933, 31쪽).
3)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설치되는 1925년까지 이화학당 대학과의 졸업생은 17명에 불과하였다(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이화여대 출판부, 1994, 106~165쪽).
4) 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 유학과 여성현실인식-191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39집, 2009, 3쪽.
5) 1909년 무렵 여자 일본 유학생은 9명에 불과하였다(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 유학과 여성현실인식-191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39집, 2009, 3쪽).
6) 박정애, 「1910-20년대 초반 여자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15쪽.
7) 1910년대 내내 전체 일본 유학생의 수는 800명이 넘었던 1908년, 1909년의 수에 미치지 못하였다(박찬승, 「1910년대 도일(渡日) 유학과 유학생활」, 『호서사학(湖西史學)』 제34집, 2003, 116~117쪽). 식민지 기간 내내 여자 일본 유학생의 수는 남자 일본 유학생수의 10%에 미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41쪽), 전체 일본 유학생수의 감소는 남자 일본 유학생이 줄어든 결과로 봐도 좋다.
8) 박정애, 「1910-20년대 초반 여자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19쪽.
9) 박정애, 「1910-20년대 초반 여자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24쪽. 반면 남자 유학생들의 전공은 법정, 경제, 사회과에 집중되어 있다(박찬승, 「1910년대 도일

유학과 유학생활」, 『호서사학』 제34집, 2003, 120쪽). 이는 남자 유학생들의 관료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총독부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10)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41쪽.

11)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46쪽.

12) 박찬승, 「1910년대 도일(渡日) 유학과 유학생활」, 『호서사학(湖西史學)』 제34집, 2003, 117쪽.

13)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52쪽. 1920년대 이후 비교적 후대에 일본 유학을 경험했던 여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가정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유학이 가능했다는 것은 초기 유학생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다(박정애, 「1910-20년대 초반 여자 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21쪽).

14) 한동민, 「수원의 나주나씨와 나혜석의 부모형제들」, 『(도록) 나는 나혜석이다』, 수원박물관, 2011, 251~255쪽.

15) 『동아일보』, 1926년 5월 18일.

16)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61쪽.

17) 『동아일보』, 1936년 5월 22일.

18)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51~52쪽.

19) 최승만, 『나의 회고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5, 50~53쪽.

20) 최승만, 『나의 회고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5, 63쪽.

21) 노영희, 「요시노 사쿠조와 근대 한국여성들의 교류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제49집, 2001, 377~382쪽.

22) 『매일신보』, 1920년 8월 2일.

23) 『동아일보』, 1929년 2월 21일.

24) 노영희, 「요시노 사쿠조와 근대 한국여성들의 교류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제49집, 2001, 384쪽.

25) 한동민,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수원박물관, 2011, 231쪽.

26) 『별건곤』, 1930년 11월, 123쪽.

27) 박정애, 「여자를 사랑한 여자」, 『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102~106쪽. 이 시기 '동성연애' 라는 말은 동성(同性)인 여학생들끼리의 연애, 곧 배타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학생들은 성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이 말하는 '동성연애' 와는 의미가 다르고, 이성애와 대비되는 개념인 '동성애' 와도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28) 배영미, 「1920年代における在日朝鮮人留学生に関する研究」, 橋大学 社會學 研究科 박사학위논문, 2010, 161쪽. 특례 조항은 1929년 4월 「植民地學生取扱二關スル件」에 의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조선인 유학생들도 똑같이 입학시험을 통해 진학을 해야 했다.

29) 수원박물관, 『(도록) 나는 나혜석이다』, 2011, 182~183쪽. 나혜석 연보를 참조하였다.

30) 정확한 명칭은 니혼여자대학 사회사업학부 여공보전과(女工保全科)이다. 대학이란 명칭을 붙이고 있었으나 고등과정인 전문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였다. 니혼여자대학에서 사회사업학부는 1921년 9월에 개설되었는데, 이현경은 황신덕 · 박순천 등과 함께 1기생으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현경이 1919년 9월에 니혼여자대학 '사회과'에 입학했다는 일제 측의 기록이 있다(조선헌병대사령부, 『근우회수뇌간부조서』, 1930, 571쪽). 착오일 수도 있고, 이현경이 사회사업부에 입학하기 이전 예비과정을 다녔을 가능성도 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31) 『별건곤』, 1930년 11월, 123쪽.
32) 1918년에 정식인가를 받고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
33) 1933년에 작고한 설립자(津田梅子)의 이름을 기려 츠다(津田)여자영학숙으로 개칭하였다.
34)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55쪽.
35) 박정애, 「1910-20년대 초반-여자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68쪽.
36) 정명희, 「신여성 임효정의 생애와 활동」, 『수원학연구』 제8호, 2011, 165 · 169쪽.
37) 박찬승, 「1910년대 도일(渡日) 유학과 유학생활」, 『호서사학(湖西史學)』 제34집, 2003, 124~125쪽.
38) 「우리소식」, 『학지광』 5, 1915, 64쪽.
39) 박정애, 「1910-20년대 초반 여자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28쪽.
40) 「삼대여성이 본 문화반세기」, 『동아일보』, 1939년 1월 3일.
41) 여자친목회에 관한 최초의 기사에는 "김숙경, 김정화, 김필례, 최숙자 제씨의 발기"로 단체를 조직했다고 나와 있다(「우리소식」, 『학지광』 5, 1915, 64쪽).
42) 경보국 보안과, 「조선인 개황」 제3, 1920, 9쪽(박경식,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1권, 1987, 89쪽).
43) 여자친목회의 기관지 『여자계』는 여자친목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1917년 6월에 창간되었다. 창간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나혜석의 소설은 제목만 전하고 있다.
44) 경보국 보안과, 「조선인 개황」 제3, 1920, 11쪽(박경식,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1권, 1987, 91쪽)
45) 「소식」, 『여자계』 제6호, 1921년 1월, 51쪽.
46) 경보국 보안과, 「조선인 개황」 제3, 1920, 11쪽(박경식,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1권, 1987, 91쪽).
47) 「소식」, 『여자계』 제6호, 1921년 1월, 52쪽.
48) 박정애, 「1910-20년대 초반 여자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30~31쪽.
49) 중앙여고동창회, 『우리 황신덕 선생』, 중앙여자중고등학교, 1978, 441쪽.
50) 『동아일보』, 1921년 3월 5일; 『조선일보』, 1921년 3월 6일; 『신한민보』, 1921년 4월 21일.
51) 송연옥, 「야마카와 기쿠에와 황신덕」, 『여성과 역사』 제15집(일본어), 2011, 162쪽.
52) 송연옥, 「야마카와 기쿠에와 황신덕」, 『여성과 역사』 제15집(일본어), 2011, 164쪽.
53) 1921년 3 · 1운동 기념 만세시위 당시 이현경은 박순천과 한방에서 하숙하고 있을 정도로 절친하였다(최은희, 『추계 최은희 전집 3 : 한국 근대여성사(하)』, 추계최은희문화사업회, 1991, 320~321쪽). 이들보다 1년 늦게 니혼여자대학에 유학했던 최은희는 "황신덕, 박순천, 이현경은

사회사업학부 동반생으로 행동을 같이했다." 고 회고하였다(최은희, 『추계 최은희 전집 5 : 여성 전진 70년』, 추계최은희문화사업회, 1991, 66쪽).
54) 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所, 「재경(在京)조선인 개황」, 1924, 10~11쪽(박경식,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1권, 1987, 142~143쪽). 당시 박순천은 박명련(朴明連)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55) 『사상운동』 제3권 제1호, 1926년 1월, 46쪽(박찬승, 「1920년대 도일(渡日) 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2004, 119쪽에서 재인용).
56) 「여기자 군상」, 『개벽』 제4호, 1935, 72쪽.
57) 「일본여자대학 사회사업부를 졸업하시는 우리의 세 재원」, 『동아일보』, 1926년 2월 1일.
58) 소현숙,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이현경」,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②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경기도, 2002, 131~135쪽.
59)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제3호, 1914, 13~14쪽.
60) C.W(나혜석), 「잡감 : K언니에게 여(與)함」, 『학지광(學之光)』 제13호, 1917, 66~68쪽.

제3부 근대사회와 여성 생활

01 | 한말 · 일제하 가족 구성과 출산력의 변화

_참고자료

권태환 ·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2.
김남일 · 이지현, 「평균 초혼 연령 측정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18-2, 1995.
김두얼, 「행장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출산과 인구변동」, 『경제사학』 52, 2012.
박기주 · 김성남,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경남 언양 사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2년 8월.
박이택,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 추계의 재검토-1910~1940」, 『대동문화연구』 63, 2008.
박희진, 「조선후기 가계당 평균구수 추세 : 족보를 이용한 가족재구성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33, 2002.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 1535-1945-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 2006.
박희진 · 차명수,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변동 : 전주이씨 장천군파와 함양박씨 정랑공파 족보의 분석」, 『경제사학』 35, 2003.
石南國, 韓國の人口增加の分析, けいそ書房, 1972.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 9 · 10, 1996.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차명수, 「경제성장 · 소득분배 · 구조변화」,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몰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8-1, 2009.
Becker, G.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otical Economy 81.
Kwon, T. H., H. Y. Lee, Y. Chang & E. Y. Yu, The Population of Korea, SNU Press, 1975.

_주

1) 박이택,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 추계의 재검토-1910~1940」, 『대동문화연구』 63, 2008.
2)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
3)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 9 · 10, 1996.
4) 石南國, 『韓國の人口增加の分析』, けいそ書房, 1972; Kwon, T. H., H. Y. Lee, Y. Chang & E. Y. Yu, The Population of Korea, SNU Press, 1975; 차명수, 「경제성장 · 소득분배 · 구조변화」,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
5) 박희진, 「조선후기 가계당 평균구수 추세 : 족보를 이용한 가족재구성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33, 2002; 박희진 · 차명수,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변동 : 전주이씨 장천군파와 함양박씨 정랑공파 족보의 분석」, 『경제사학』 35, 2003;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몰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8-1, 2009.
6) 박기주 · 김성남,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경남 언양 사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2년 8월.
7) 이후에 주로 수원면을 구성하게 되는 남부면과 북부면의 인구는 2,419호 1만 1,396명이었다(이헌창,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75쪽).
8) 민적의 작성경과에 대해서는 조석곤, 「한말 · 일제 초 민적부를 통해 본 '가족' 편제방식의 변화」,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수원시사 7권, 2014를 참고하라.
9) ① 부 1명은 양자로 들어간 호주의 생부임. 모에는 18명의 양모와 2명의 서모가 포함되었다. ② 자에는 30명의 양자가, 여에는 3명의 양녀가 포함되었다.
10) 여성 호주의 경우는 이 가계도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남성 호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여성 호주는 자신 이외의 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11) 〈그림 1〉에 나타난 서자녀의 수는 사생자녀도 포함된 숫자이다.
12) 80세 이상 인구가 96명(1.1%)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7세인 사람도 한 명 있다.
13) Becker, G.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 Journal of Polotical Economy 81.
14) 몽고침입기의 고려시대나 식민지시대 말기의 여성노동력 징용 등이 좋은 예이다.
15) 권태환 ·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2.
16) 박기주 · 김성남,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경남 언양 사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2년 8월.
17) 김남일 · 이지현이 제시한 수정공식을 활용하였다(김남일 · 이지현, 「평균초혼 연령 측정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18-2, 1995). 그들은 또 1925년 Hajnal 방법에 의한 한국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16.7세로서 권태환 · 김두섭의 그것보다 약간 높아 과대평가의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8)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1535-1945-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 2006.

19)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몰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8-1, 2009.

20) 박기주 · 김성남,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경남 언양 사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2년 8월.

21) 기혼자 중 결혼연령을 알 수 없었던 958명은 제외하였다.

22) 10세 미만에 결혼한 사람은 3명이었는데 모두 여성이었다. 실제 그 나이에 결혼했는지, 아니면 기재상의 오류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둔다. 50대에 결혼한 여성도 3명 있었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가 의심이 되지만 그대로 두었다. 이 중 2명은 전처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것인데, 연령대로 보아 '첩' 에서 '처' 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23) 여기서 초혼 연령은 기혼자의 초혼 연령을 성별로 단순평균한 것이다.

24)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 1535-1945-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 2006.

25) 박이택,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 추계의 재검토-1910~1940」, 『대동문화연구』 63, 2008.

26) 여기에서의 의미는 각 사망자 기대수명의 단순평균이며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므로 통상 사용하는 평균수명과는 차이가 있다.

27)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1910년대 출생코호트의 기대수명은 최대 35년이며, 극단적으로 1940년대 출생코호트의 기대수명은 5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8) 박이택,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 추계의 재검토-1910~1940」, 『대동문화연구』 63, 2008.

29)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전반기의 사망자수의 추이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 준다. 1915년 51명이었던 사망자는 191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919년 154명으로 급증하였다가 1920년 82명으로 준 후 다시 1921년 131명, 1922년 162명, 1923년 144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24년 이후 100명 대 이하로 감소하였다. 1919년에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1918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1920년대 초반 사망인원이 급증한 것은 「조선호적령」 공포로 사망한 유아의 민적 등록률이 높아진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20년대 초반의 급증은 그러한 등록상의 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급격한 증가이다.

30) 박이택,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 추계의 재검토-1910~1940」, 『대동문화연구』 63, 2008, 361쪽.

02 | 수원 전도부인들의 삶과 활동

_참고자료

이경숙, 「예수는 내생활의 보혜사」, 『승리의 생활』, 조선예수교서회, 1927.

수원 · 화성지역 감리사 협의회, 『수원지방 교회사 자료집』, 198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5, 2003.
양미강,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6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김수경, 「전도부인이 초기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허연숙, 「초기 감리교회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 1885-1935」,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홍성사, 2007.
장성진, 『한국교회의 잊혀진 이야기 : 초기한국 개신교 선교와 교회 성장에서의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장진경, 「초기 개신교 전도부인의 교육과 여성선교」, 『기독교교육정보』 21,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8.
정희성, 「한국 근대 기독교와 여성의 타자화-전도부인과 기독교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 한국기독교학회, 2009.
오철상, 「개신교 초기 전도부인에 대한 연구(1884-1934)」,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_주

1) 매향학원, 『매향 100년사』, 2006, 74쪽.
2) Annie Oakes, "Woman's Work in our Mission Stations, Korea", Oriental Missionary Standard, 1915(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5, 2003, 135쪽).
3) 장진경, 「초기 개신교 전도부인의 교육과 여성선교」, 『기독교교육정보』 21,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8, 222쪽.
4) 장진경, 「초기 개신교 전도부인의 교육과 여성선교」, 『기독교교육정보』 21,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8, 224쪽.
5) 허연숙, 「초기 감리교회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 1885-1935」,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9~50쪽.
6) 양미강,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6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145~147쪽.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67쪽에서 재구성.
8)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홍성사, 2007, 85~97쪽.
9) M.F.Scranton, "Missionary Work Among Woman", *The Korean Repository* Vol.5, No.8, 9 Sep., 1898.
10) 이경숙, 「예수는 내생활의 보혜사」, 『승리의 생활』, 조선예수교서회, 1927.
11)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홍성사, 2007, 85~97쪽.
12) 매향학원, 『매향 100년사』, 2006, 98쪽.
13)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홍성사, 2007, 90~97쪽.

14) 장진경, 「초기 개신교 전도부인의 교육과 여성선교」, 『기독교교육정보』 21,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8, 233~234쪽.
15) 1907년 3월 Mrs. M.F.Scranton의 보고, "Day Schools and Bible Women The Korean Mission Field"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360~361쪽).
16) 수원 · 화성지역 감리사 협의회 편, 『수원지방 교회사 자료집』, 1987, 43쪽.
17) 1905년 M.F.Scranton의 보고, "Minutes of the Korean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oscopal Church"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38쪽).
18) 1912년 Mary Hillman and Lula Miller의 보고, "Minutes of the Korean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oscopal Church"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44~445쪽).
19) 1912년 Mary Hillman and Lula Miller의 보고, "Minutes of the Korean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oscopal Church"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47쪽).
20) 1917년 Lula Miller and Lulu Frey의 보고, "Minutes of the Korean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oscopal Church"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57쪽).
21) 1918년 Lulu Frey의 보고, "Minutes of the Korean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oscopal Church"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58쪽).
22) 1916년 Lula Miller의 보고, "Minutes of the Korean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oscopal Church"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엮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53쪽).
23) 장진경, 「초기 개신교 전도부인의 교육과 여성선교」, 『기독교교육정보』 21,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8, 235쪽.

03 | 근대 수원의 직업세계와 직업여성의 등장

_주

1)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57쪽.
2) 「여자교육의 방침」, 『매일신보』, 1910년 9월 16일.
3) 「직업부인으로서 성공한 몃 개 조건」, 『동아일보』, 1923년 1월 26일.
4) 김활란, 「직업 전선과 조선여성」, 『신동아』, 1932년 9월.
5) 전경옥 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255쪽.
6) 『동아일보』, 1922년 7월 9일.

7) 「경성여자단체의 신년 계획-직업부인협회」, 『신가정』, 1934년 1월.
8) 전경옥 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257쪽.
9) 전경옥 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60쪽.
10) 전우용,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1910~1930)」,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3, 2007.
11) 이배용, 「일제하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 『국사관논총』 8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12) 강이수, 「일제하 근대 여성 서비스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 연구』 5, 한국여성연구소, 2005.
13)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1935.
14)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15)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16)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17) 「관립학교 졸업자 상황」, 『조선일보』, 1924년 9월 13일(전우용,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1910~1930)」,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3, 2007, 123쪽 재인용).
18) 이윤진, 「식민지 시기 새롭게 탄생한 제2의 어머니 '보모'」, 『한국교육사학』 28, 2006.
19) 이윤진, 「식민지 시기 새롭게 탄생한 제2의 어머니 '보모'」, 『한국교육사학』 28, 2006.
20)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15일;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16일;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1일.
21) 젠쇼 에이스케, 『생활상태조사(1)-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22) 일본인이 세운 병원은 개항장에 설치되었는데 1880년 부산 제생병원, 원산 생생의원(生生醫院), 인천 일본의원, 1883년 6월 한성에 일본관의원이 개설되었다(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 지성사, 2004, 267쪽).
23) 명성황후가 '보구' 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보구여관이라 하였다.
24)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 ⑧ 첫 한국인 졸업간호원 이그레이스, 1908년」, 『간호신문』, 1912년 11월 27일.
25)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한울아카데미, 2003, 26쪽.
26) 「돈벌이 하는 여자직업 심방기」, 『동아일보』, 1928년 2월 27일.
27)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28)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29)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30) 보통 초봉이 80원 정도였다고 한다.
31)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32) 사카이 마사노스케, 『發展せる水原』, 1914.
33) 수원자혜의원의 명칭은 관립수원자혜의원 → 도립수원자혜의원(1925년) → 도립수원의원으로 변경되었다.
34) 『京畿道勢概要』 1935, 『도립의원직원급경비』 각 연도(한동민, 「근대 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에서 재인용).
35) 젠쇼 에이스케, 『생활상태조사(1)-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125쪽.

36) 수원시의사회, 『수원시의사회사』, 2000, 571 · 575 · 583쪽.
37)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보고』, 1930.
38)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84~88쪽.
39) 조선식산은행, 『직원명부』, 1943년 4월, 41~42쪽.
40)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41) 사진은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105쪽 하단에 있음.
42)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126쪽.
43)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151~165쪽.
44)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45) 「모던-여자, 모던-직업. 신여자의 신직업」, 『별건곤』, 1928년 12월.
46) 「모던-여자, 모던-직업. 신여자의 신직업」, 『별건곤』, 1928년 12월.
47) 「여자직업 안내」, 『별건곤』, 1927년 3월.
48) 「수원뻐스개통 2일부터 운전」, 『동아일보』, 1928년 12월 6일.
49) 『중외일보』, 1929년 10월 8일.
50) 강이수, 「일제하 근대 여성 서비스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 연구』 5, 한국여성연구소, 2005.
51)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138쪽.
52) 『조선일보』, 1932년 3월 3일.
53) 靑柳綱太郎, 『朝鮮美人寶鑑』, 朝鮮硏究會 · 新舊書林, 1918.
54) 『동아일보』, 1921년 11월 17일.
55) 이아리,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수급」, 미발표 원고, 2012.
56) 박정애, 「을밀대 위의 투사, 강주룡」, 『20세기 여성 사건사』, 2001, 97~98쪽.
57) 「수원에 직물공장, 극빈부녀 구제, 김학배씨 사업」, 『매일신보』, 1932년 8월 18일.
58)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통권 1호), 수원박물관, 2011, 143~153쪽.
59) 「기계수 폭행으로 여직공 맹휴」, 『동아일보』, 1936년 2월 18일.
60) 『조선지광』, 1929년 6월.

04 | 근대도시 1세대들의 연애와 결혼

_참고자료

『독립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천리』; 『신여성』.
김일엽, 「진리를 모릅니다 : 나의 회상기」,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일엽선사문집간행위원회, 1974.
문옥표 외, 『신여성 :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윤범모, 『첫사랑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다』, 다할미디어, 2007.
김경일, 「일제하 여성의 결혼과 가족생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나남, 2009.
이구열, 『나혜석 :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2011.
최홍규,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1.
수원박물관, 『나는 나혜석이다』(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전시도록), 2011.

_주

1)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199쪽.
2) 「서양혼례」, 『독립신문』, 1899년 7월 14일.
3) 「대개 형식에 불과한 소위 신식결혼식」, 『동아일보』, 1925년 11월 17일.
4) 「華燭殿堂化한 府民館. 반년간에 결혼식 134회. 그 다음은 간담회로 120회의 多數」, 『조선일보』, 1937년 7월 28일.
5) 「봄을 만드는 곳(2). 예식부 편. 예복뿐일까요? 식장 역시 기성품. 결심만 되면 언제든지 "결혼 마치"」, 『조선일보』, 1940년 4월 5일.
6)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205~206쪽.
7)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조선 '신여성'의 연애관과 결혼관의 변혁」, 『신여성 :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168~169쪽.
8) 김일엽, 「우리의 이상」, 『부녀지광』 창간호, 1924년 4월.
9) 「강제혼인의 죄악」, 『동아일보』, 1924년 1월 27일.
10)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22~129쪽.
11) 「신부의 임의결혼으로」, 『동아일보』, 1924년 1월 5일.
12) 이동 좌담, 「내가 이상하는 남편」, 『신여성』 5권 12호, 1931년 12월.
13)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28~29쪽.
14)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89~92쪽.
15) 김경일, 「일제하 여성의 결혼과 가족생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나남, 2009, 537~538쪽.
16) 「주목할 이혼증가」, 『동아일보』, 1924년 3월 26일.
17) 최홍규,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1, 441쪽.
18) 김일엽, 「진리를 모릅니다 : 나의 회상기」,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일엽선사문집간행위원회, 1974, 287쪽.
19) 나혜석, 「나의 여교원시대」, 『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년 7월.
20) 나혜석, 「이혼고백장」,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년 8월.
21) 나혜석, 「이혼고백장」,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년 8월.
22) 나혜석, 「4년 전의 일기 중에서」, 『신여자』 4호, 1920년 6월(이구열, 2011, 『나혜석 :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119쪽에서 재인용).
23) 윤범모, 『첫사랑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다』, 다할미디어, 2007, 279쪽.

24)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163쪽.
25) 나혜석, 「이혼고백장」,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년 8월.
26)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174~175쪽.
27) 나혜석, 「이혼고백장」,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년 8월.
28) 최린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은 『동아일보』, 1934년 9월 20일자에 자세히 보도되었다.
29) 「소장에 나타난 …… 청구이유의 전문」, 『동아일보』, 1934년 9월 20일.
30) 문옥표, 「조선과 일본의 신여성–나혜석과 히라츠카 라이초우의 생애사 비교」, 『신여성 :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262~263쪽.
31)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제7권 제2호, 1935년 2월.
32)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조선 '신여성'의 연애관과 결혼관의 변혁」, 『신여성 :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184~195쪽.
33)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제7권 제2호, 1935년 2월.

05 | 일제하 수원 여성의 민족운동과 사회 참여

_주

1) 「부인열성」, 『제국신문』, 1907년 4월 7일.
2) 박정애 외, 『20세기 여성사건사』, 2001, 여성신문사.
3) 「수원기생 자선극」, 『동아일보』, 1922년 5월 7일.
4) 「지방단평 : 수원고등교학생 모씨는 불철주야하고 기생이나 밀매음집을 다녀」, 『동아일보』, 1925년 2월 19일; 「지방잡신」, 『동아일보』, 1929년 4월 5일.
5) 「참단한 한수재와 각지 동포의 동정」, 『동아일보』, 1928년 10월 21일. 수원에 있는 각 사회단체에는 금번 북 이재민을 위하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정금 모집 방법을 강구하야 보았으나 모다 불여의하게 되어 최후로 수원신간지회, 수원청년회, 인공친목회, 학생친목회 등 4단체 연합으로 …… 수해 구제 동정극을 공연키로 결정하고 …… 수원극장에서 동정극을 상연하얏섯다는 바 특히 여역(女役)으로 수원화성권번에 강초선, 박옥선, 한비 세 기생의 출연이 있었다.
6) 『동아일보』, 1924년 4월 27일.
7) 「수원여자부인야학개학」, 『동아일보』, 1924년 4월 18일.
8) 오성철, 『식민지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34쪽.
9) 「중도퇴학생의 격감」, 『동아일보』, 1928년 8월 17일.
10) 「기계수 폭행으로 여직공맹휴」, 『동아일보』, 1936년 2월 18일.
11) 박철하, 「같은 길, 다른 선택 - 혁명과 친일의 갈림길에 서다」, 『수원지역 여성과 3 · 1운동』, 경기도, 2008, 169~203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2) 「(홍사단 입단) 청원서」, 1924년 2월 18일. 임순남(林順男)이라고도 하며, 1924년 현재 아버지는 45세였으며, 어머니는 30세의 계모 황성옥(黃聖玉)이고, 동생으로 임기선(林奇善 : 17세, 남), 임효근(林孝根 : 7세, 여), 임효은(林孝恩 : 3세, 여) 등이 있다.

13) 「수원에서 체포된 구국단원 6명」, 『매일신보』, 1920년 8월 20일.
14) 「학생 구군단의 검거」, 『신한민보』, 1920년 9월 23일. 어느 단원에게서는 구국단 일기장과 『대한민보』, 암호책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15) 「남녀학생의 피촉-가택수색을 하며 한편으로 구인해」, 『동아일보』, 1920년 8월 17일.
16) 「판결사건 일속(一束), 구국민단사건」, 『독립신문』, 1921년 4월 30일.
17) 청원인 임효정, 「청원서」, 건국기원 4257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 소장.
18) 김윤경, 「동경수양동우회지방회록」, 독립기념관 소장. 이하 수양동우회 도쿄지방회 관련 내용은 이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19) 「동우회사건」, 『사상휘보』 24, 1940년 9월.
20) 「근우회동경지회-지난 이십칠일에 발기회, 창립대회는 일월 중순경」, 『중외일보』, 1928년 1월 6일.
21) 김윤경, 「동경수양동우회지방회록」(1926.5.30~1928.2.4), 독립기념관 소장.
22) 최용환은 1937년 9월 현재 동아일보사 지방부 주무로 근무하였다.
23) 「경성여학교 여선생 평판기」, 『여성』 제2권 제9호, 1937년 9월, 60쪽; 「여성계소식」, 『여성』 제3권 제8호, 1938년 8월, 44쪽.
24)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집회취체상황보고통보(集會取締狀況報告通報)」, 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종로경찰서에서는 '시국대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참여한 연사들이 '다년간 무궤도적 언론'으로 활동하던 사람들로서 '국민적 시국 연설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언동을 할까 하여 개최하기 전에 관계 연사들을 불러 상세하게 원고를 모으고, 개최 당일에는 관계자 일동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연설내용에 대한 일반적 주의와 태도유지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 연사로는 유각경(시국과 여성의 각오), 박봉애(총후여성의 임무), 황신덕(가정경제의 보국), 장정심(절약과 보국), 이숙종(비상시국에 처한 부인보국) 등이 참여하였다.
25) 주최자 및 연사는 교회·학교 관계 교사들로서 그 소속 교회 및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에 대하여 출석을 권유하고, 일반 부녀자 입장료를 10원, 학생 5전을 징수하였는데, 총액 30여 원 가운데 20여 원은 잡비로 소비하고 나머지 10원은 국방헌금을 하기로 하였다. 강연회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에서는 "황국신민인 반도여성의 신념 아래 열황리에 폐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締狀況報告通報」, 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26) 「부내 여성단체 대표, 백의용사를 위문」, 『매일신보』, 1938년 7월 8일, 조간.
27) 「계몽의 일선에 몸을 일으켜 세우다-연맹 부인부의 임여사」, 『경성일보』, 1941년 8월 21일, 석간.
28) 「임전생활체제 확립 위해 총후부인들의 궐기, 작일 본사 주최로 중견부인간담회」, 『매일신보』, 1941년 10월 5일, 조간.
29) 「중견부인간담회-전시생활의 재수습 ② 향락과 사치의 뿌리를 빼자」, 『매일신보』, 1941년 10월 8일, 조간.
30) 「중견부인간담회-애국반을 단위삼아 ③ 내선 가족이 한 가족이 되자」, 『매일신보』, 1941년 10월 9일, 조간.
31) 「陣容一新の臨報團, 役員は全面的に改選, 新設婦人部も街頭へ」, 『경성일보』, 1941년 12월 21

일, 조간. 임효정은 1941년 12월 19일 조선임전보국단 전시생활부원으로 선정되었다.

32) 1941년 12월 27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회는 매일신보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33) 「紅唇に送る熱血, 臨戰報國婦人大演說會」, 『경성일보』, 1941년 12월 26일, 조간.

34) 「戰時生活部に婦人隊, 臨戰報國團で新設」, 『경성일보』, 1942년 1월 4일, 조간.

35) 「軍國의 어머니 指標, 徵兵制에 對한 準備를 말한 婦人座談會」, 『매일신보』, 1942년 5월 26일, 조간.

36) 「臨戰報國團婦人隊主催座談會 ①-군국의 새어머니될 우리의 감격과 포부」, 『매일신보』, 1942년 5월 31일, 조간.

37) 박철하, 「같은 길, 다른 선택-혁명과 친일의 갈림길에 서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169~203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8) 구국민단 사건에 참가하였던 이선경과 수원체육회 회장을 역임한 이용성이 이현경의 동생이다.

39)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이현경」,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②), 경기도, 128~129쪽.

40) 「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제4호, 1935년 3월, 72쪽.

41) 「조선학생 20명 검속 후문, 검속된 학생 중에는 조선여학생 이현경 외 5명이 함께 검속」, 『조선일보』, 1921년 3월 6일.

42) 조선총독부경무국동경출장원, 『재경조선인상황』, 1924년 5월, 48~49쪽.

43)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이현경」,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②), 경기도, 130쪽.

44) 삼월회는 1925년 12월 총회에서 선언, 강령, 규약을 새로 정하였다. 강령은 첫째, 대중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도모한다. 둘째, 무산계급과 여성의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쟁을 도모한다. 셋째, 목표와 방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적 이론의 보유를 도모한다는 내용이었다.

45) 경무국보안과, 「여성운동」, 『치안상황』, 1927년 12월. 1926년 12월 19일 경성연합청년회 주최로 경성부내 청년단체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청년운동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현경은 개인참가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京鍾警高秘 제15090호, 「京城青年團體懇談會ニ關スル件」, 1926년 12월 20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6)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이현경」,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②), 경기도, 133쪽.

47) 京高秘 제2594호의 1, 「槿友會創立ニ關スル件」, 1927년 6월 3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8) 京鍾警高秘 제5865호, 「槿友會創立總會ニ關スル件」, 1927년 5월 28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9) 京鍾警高秘 제6037호, 「槿友會執行委員會ニ關スル件」, 1927년 5월 30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0) 京鍾警高秘 제6935호, 「槿友會執行委員會ノ件」, 1927년 6월 20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1) 京鍾警高秘 제6934호, 「朝鮮女性同友會執行委員會ノ件」, 1927년 6월 20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2) 京鍾警高秘 제7484호, 「槿友會執定期行委員會開催ノ件」, 1927년 7월 2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3) 京鍾警高秘 제8038호, 「槿友會全國臨時大會狀況報告」, 1928년 7월 18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임시대회에서 이현경은 임시사찰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장내 정돈에 노력하였다. 이현경은 대회에서 대회소집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규약에 대하여 그 규약수정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현경은 중앙집행위원을 선거하기 위한 전형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54) 京鍾警高秘 제8245호, 「槿友會中央委員會ノ件」, 1928년 7월 17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5) 京鍾警高秘 제8509호, 「槿友會中央執行委員會開催ノ件」, 1928년 7월 24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하의 내용은 특별한 전거가 없는 한 이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56) 京鍾警高秘 제8682호, 「槿友會中央常務委員竝ニ中央檢査委員聯合委員會開催ノ件」, 1928년 7월 28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7) 「秘密結社朝鮮共産黨竝ニ高麗共産青年會事件檢擧ノ件」, 『現代史資料(29)-朝鮮 5』(姜德相, 梶村秀樹), 83쪽.
58) 京西高秘 제8623호, 「朝鮮共産黨再建設同盟事件發覺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16일, 『思想에 關한 情報(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제4부 해방 후 여성의 삶과 사회활동

01 |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삶

_참고자료

『국민보』·『동아일보』.
신기석 외, 『증보육법전서』, 문성당, 1953.
사회부, 『사회행정개요』, 1954.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9.

참고 자료

임병형 · 고경숙, 『서울부녀자직업보도소 답사보고서』, 1959.
경제기획원, 『1960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서(11-1, 전국), 1963.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3.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정책』, 1988.
국가보훈처, 『보훈삼십년사』.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정진성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장덕조, 「미망인의 연애문제」, 『여원』, 1956년 3월.
김순화, 「현충일에 제하여」, 『새살림』 제6호, 1957년 10월.
표경조, 「여성해방의 실적을 묻는다 : 자립에서 가정평화로」, 『여원』, 1957년 8월.
박종화, 「해방 후의 한국여성」, 『여원』, 1959년 8월.
정충량, 「6 · 25동란이 여성에게 끼친 것」, 『정충량 평론집 : 마음의 꽃밭』, 서울고시학회, 1959.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_주

1) 구술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수원에 거주한 분들은 아니지만 1960년대 원호정책에 따라 수원 원호원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33~87쪽.
3)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01쪽.
4)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7쪽.
5) 『동아일보』, 1954년 11월 3일.
6) 『동아일보』, 1956년 6월 17일; 『조선일보』, 1961년 3월 3일, 조간.
7)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3, 454~455쪽.
8) 김귀옥은 이와 같이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사회적 미망인을 합한다면 전쟁미망인의 수는 100만 명이 훨씬 넘을 수 있다고 하였다(정진성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50쪽). 그러나 당시 인구조사에서 일반 미망인의 수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 규모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경제기획원, 『1960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서(11-1, 전국), 1963), 사회적 미망인을 포함한 전쟁미망인의 수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9)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70쪽.
10) 수원시, 『제20회 수원통계연보』, 1980, 162쪽.
11)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9, 417쪽.
12)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9, 416쪽.
13) 수원시, 『제21회 수원통계연보』, 1981, 184쪽.
14) 수원시, 『제21회 수원통계연보』, 1981, 184쪽.
15) 국가보훈처, 『보훈삼십년사』, 1992, 101쪽.
16) 전몰군경 유가족의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① 배우자, ② 미성년 자녀, ③ 부, ④ 모, ⑤ 성

년 자녀, ⑥ 조부, ⑦ 조모 등이었다(국가보훈처, 『보훈삼십년사』, 1992, 108쪽).
17) 국가보훈처, 『보훈삼십년사』, 1992, 109쪽.
18)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정책』, 1988, 18~19쪽.
19) 『국민보』, 1959년 3월 4일.
20) 『동아일보』, 1954년 11월 8일.
21) 사회부, 『사회행정개요』, 1954.
22) 수원시, 『제20회 수원통계연보』, 1980, 163쪽.
23) 수원시, 『제20회 수원통계연보』, 1980, 158쪽.
24)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1985, 271~275쪽.
25)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1985, 340쪽.
26)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1985, 507쪽.
27) 표경조, 「여성해방의 실적을 묻는다 : 자립에서 가정평화로」, 『여원』, 1957년 8월, 79~80쪽.
28)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9, 416쪽.
29) 박종화, 「해방 후의 한국여성」, 『여원』, 1959년 8월, 74쪽.
30) 임병형 · 고경숙, 『서울부녀자직업보도소 답사보고서』, 1959, 9쪽.
31) 장덕조, 「미망인의 연애문제」, 『여원』, 1956년 3월, 116쪽.
32) 김순화, 「현충일에 제하여」, 『새살림』 제6호, 1957년 10월, 81쪽.
33) 정충량, 「6 · 25동란이 여성에게 끼친 것」, 『정충량 평론집 : 마음의 꽃밭』, 서울고시학회, 1959, 52쪽.
34) 『국민보』, 1959년 3월 4일.
35) 『국민보』, 1959년 3월 4일.
36) 『동아일보』, 1962년 3월 2일.
37) 『동아일보』, 1962년 12월 28일.
38) '어머니 중심 가족'은 좁은 의미로는 아버지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어머니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부재하는 경우 외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후자는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무직자, 상이군인, 출정군인, 처와 자식을 유기한 아버지 등의 가족을 말한다(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30~31쪽).
39) 표경조, 「여성해방의 실적을 묻는다 : 자립에서 가정평화로」, 『여원』, 1957년 8월, 79~80쪽.
40) 신기석 외, 『증보육법전서』, 문성당, 1953.

02 | 1950~1960년대 여학생들의 여성 역할 인식과 사회 진출 _수원여고 『청포도』지 분석을 중심으로

_주

1) 이일, 「결혼만보」, 『청포도』 2, 1956, 71쪽.

2) 편집부, 「미국에서 졸업을 앞둔 동생에게」, 『청포도』 2, 1956, 62쪽.
3) 신현채 구술, 2012년 4월 10일, 조원동 자택.
4) 구평자 구술, 2012년 7월 16일, 천천동 자택.
5) 김홍식, 「참된 여성의 자질을 함양하라」, 『청포도』 3, 1957, 4쪽.
6) 김홍식, 「참된 여성의 자질을 함양하라」, 『청포도』 3, 1957, 4쪽.
7) 조연희,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학생이 되자」, 『청포도』 3, 1957, 9쪽.
8) 김희경, 「구속에 사로잡힌 가련한 우리 여성」, 『청포도』 1, 1950, 15쪽.
9) 서대석, 「미국여성의 지위」, 『청포도』 1, 1950, 7쪽.
10) 편집부, 「현대사상에 나타난 여성문제요약」, 『청포도』 1, 1950, 9쪽.
11) 서대석, 「미국여성의 지위」, 『청포도』 1, 1950, 8쪽.
12) 안은자, 「졸업생들이 얻을 수 있는 자리」, 『청포도』 5, 1959, 18쪽.
13) 안은자, 「졸업생들이 얻을 수 있는 자리」, 『청포도』 5, 1959, 18쪽.
14) 조남순, 「역사상으로 본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우리의 각오」, 『청포도』 3, 1957, 14쪽.
15) 김봉영, 「농가생활개선방도 소고」, 『청포도』 3, 1957, 22쪽.
16) 서애희, 「장한딸들이여」, 『청포도』 6, 1961, 10~11쪽.
17) 오인숙, 「모교를 떠나면서」, 『청포도』 5, 1959, 70쪽.
18) 유달영, 「여성찬가」, 『청포도』 6, 1961, 7쪽.
19) 서애희, 「장한딸들이여」, 『청포도』 6, 1961, 10쪽.
20) 홍순갑, 「우리의 가난과 금리현실화」, 『청포도』 11, 1966, 27쪽.
210 서애희, 「장한딸들이여」, 『청포도』 6, 1961, 11쪽.
22) 정옥자, 「돌바람은 불어도」, 『청포도』 10, 1965, 176쪽.
23) 임해봉,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청포도』 14, 1969, 132쪽.
24) 정옥자, 「돌바람은 불어도」, 『청포도』 10, 1965, 176쪽.
25) 임해봉,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청포도』 14, 1969, 132쪽.
26) 김소자, 「여자로서의 나를 배우면서」, 『청포도』 8, 1962, 64쪽.
27) 한인자, 「인간의 날개를 만드는 밍크 양장점」, 『청포도』 14, 1969, 79쪽.
28) 김소자, 「여자로서의 나를 배우면서」, 『청포도』 8, 1963, 61쪽.
29) 구백서 교장은 1960년 부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했는데 전국적인 상황이었는지 수여고만의 정책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수여고가 공립인 것을 감안하면 수여고만의 정책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0) 구백서, 「직업훈련의 교육」, 『청포도』 9, 1964, 3쪽.
31) 1962년에 발간된 『청포도』 7호부터는 체험기 코너가 새로 기획되었으며 학생연구란은 1965년 10호부터 1968년 13호까지 기획연재되었다.
32) 이숙자, 「도립병원 실습기」, 『청포도』 10, 1965, 49쪽.
33) 이숙자, 「도립병원 실습기」, 『청포도』 10, 1965, 49쪽.
34) 홍선자, 「탁아소 운영안」, 『청포도』 11, 1966, 40쪽.
35) 심란숙, 「상점 경영안」, 『청포도』 11, 1966, 41쪽.

03 | 해방 후 수원의 가족 변화와 가족생활

_참고자료

『조선중앙일보』; 『사상계』; 『여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주택 조사 상황표』, 195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8호』, 1961.
대한주택공사 · 서울대학교공과대학주택문제연구회, 『1962전국주택실태조사 : 제1차 서울지구 집계결과』, 1962.
양재모 · 신한수, 『가족계획교본』,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 1966.
수원시, 『제7회 수원통계연보』, 1967.
수원시, 『제11회 수원통계연보』, 1971.
수원시, 『제16회 수원통계연보』, 1976.
서울특별시, 『주택백서』, 1978.
수원시, 『제21회 수원통계연보』, 1981.
수원시, 『제31회 수원통계연보』, 1991.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69.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한복진, 『우리생활100년』, 현암사, 2000.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 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이문호, 「피임을 어떻게 보편화시킬가」, 『여원』, 1958년 5월.
여원편집부, 「좌담회 : 과외수업과 자모회」, 『여원』, 1958년 10월.
이만갑, 「가족관념과 산아제한」, 『사상계』, 1961년 8월.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田間泰子, 『母性という制度』, 勁草書房, 2001.

_주

1)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69.
2)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 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54~59쪽.
3)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1997, 22쪽.
4) 수원시, 『제21회 수원통계연보』, 1981, 22쪽.
5) 송옥선, 「여성논단 : 식모의 폐지(상)」, 『조선중앙일보』, 1936년 2월 14일.
6) 한복진, 『우리생활100년』, 현암사, 2000, 53쪽.
7)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주택 조사 상황표』, 1959, 13쪽.
8) 대한주택공사 · 서울대학교공과대학주택문제연구회, 『1962전국주택실태조사 : 제1차 서울지구 집계결과』, 1962, 35쪽.

9) 수원시, 『제21회 수원통계연보』, 1981, 86쪽.
10) 서울특별시, 『주택백서』, 1978, 66쪽.
11) 수원시, 『제16회 수원통계연보』, 1976, 75쪽; 수원시, 『제21회 수원통계연보』, 1981, 78~79쪽.
12) 田間泰子, 『母性という制度』, 勁草書房, 2001, 13쪽.
13) 이만갑, 「가족관념과 산아제한」, 『사상계』, 1961년 8월, 122쪽.
14) 이문호, 「피임을 어떻게 보편화시킬가」, 『여원』, 1958년 5월, 155~156쪽.
15) 양재모 · 신한수, 『가족계획교본』,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 1966, 241쪽.
16) 수원시, 『제11회 수원통계연보』, 1971, 171쪽; 수원시, 『제21회 수원통계연보』, 1981, 163쪽.
17) 수원시, 『제11회 수원통계연보』, 1971, 173쪽.
18) 수원시, 『제31회 수원통계연보』, 1991, 208쪽.
1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8호』, 1961, 403쪽.
2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8호』, 1961, 400~401쪽.
21) 수원시, 『제7회 수원통계연보』, 1967, 100쪽.
22)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253쪽.
23) 여원편집부, 「좌담회 : 과외수업과 자모회」, 『여원』, 1958년 10월, 216쪽.

04 | 수원 여성의 상업활동과 상업 노동

_참고자료

수원시, 『제10회 수원통계연보』, 1970
수원시, 『제11회 수원통계연보』, 1971.
수원시, 『제18회 수원통계연보』, 1978.
수원시, 『제31회 수원통계연보』, 1991.

05 | 수원의 여성운동과 지역사회 변화

_참고자료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원여성백서』, 수원시, 2005.
이영자,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페미니즘 : 가능성과 딜레마」,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2000.
임혜경, 「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장미경, 「한국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개정판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5.
박지훈, 「여성」, 『수원시사』 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허성우,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_주

1) 장미경, 「한국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개정판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5, 314~318쪽.
2) 임혜경, 「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2쪽.
3) 임혜경, 「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26쪽.
4) 임혜경, 「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21~22쪽.
5) 임혜경, 「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36쪽.
6) 장미경, 「한국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개정판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5, 318쪽.
7) 임혜경, 「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6쪽.
8) 허성우,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170쪽.
9) 기존 여성운동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성단체를 조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면담자의 질문에 임은지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저희는 기존 여성운동은 페미니즘적인 게 되게 많았고 저희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여성주의와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회에, 사회 변혁과 관련된, 여성이 세상의 절반인데 여기서 세상을 바꿔 내는 데 큰 힘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 하나랑 정치적 의식도 높여야 한다, 정치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요, 저희는 오히려 나서서 하죠. 오히려 정치활동이나 그런 거 나서서 하는 편이에요."
10) 이하 수원여성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임혜경(「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11) 임혜경, 「지역 여성운동의 정책과정 참여와 '힘갖추기'에 관한 연구–수원여성회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15~20쪽.
12) 이영자,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페미니즘: 가능성과 딜레마」,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2000, 13~14쪽.
13) 허성우,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174쪽.
14) 허성우,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172쪽.
15) 박정애, 「여성의 정치참여, 수원을 바꾸다」,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수원시사 1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참조.
16) 허성우,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177~178쪽. 허성우는 대전 지역 여성운동 사례를 분석하면서 지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온 보수여성조직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17) 여성의 정치세력화 전략과 양성평등 법제도 구현이라는 젠더주류화의 흐름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역여성 풀뿌리 조직의 건설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였다(허성우,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174쪽).

18) 허성우,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186~190쪽.
19) 박지훈, 「여성」, 『수원시사』 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06 | 여성의 정치 참여, 수원을 바꾸다

_참고자료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원 여성백서』, 수원시, 2005.
한국여성개발원,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원시, 2005.
강남식, 「국가와 여성정책의 변화」,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5.
박옥순,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연구-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박의경, 「열린 미래를 위한 여성 정치전략-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3호, 2011.
엄태석,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 · 정보연구』 제13권 1호, 2010.

_주

1) 엄태석,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 · 정보연구』 제13권 1호, 2010, 73~75쪽.
2) 강남식, 「국가와 여성정책의 변화」,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5, 278쪽.
3) 강남식, 「국가와 여성정책의 변화」,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5, 279쪽.
4)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원 여성백서』, 수원시, 2005, 113쪽.
5) 2002년 2월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이 국회 및 시 · 도의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에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되었다. 2002년 3월에는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됨으로써 여성공천할당제가 확대되었다(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원 여성백서』, 수원시, 2005, 110~111쪽).
6) 2006년 구성된 8대 수원시의회 여성 의원은 4명 중 1명이 선출직이었다.
7) 박옥순,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연구-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27쪽.
8) 박의경, 「열린 미래를 위한 여성 정치전략-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3호, 2011, 29쪽.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은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교수
김은주　서울대학교 강사
류현희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박정애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예지숙　서울대학교 강사
이아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이혜영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석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현영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수원시사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3-4
ISBN　978-89-87738-60-4(세트)

참고 자료